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현대불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1월 1일(음력 12월 2일) 일요일 (주간) 제 558 호

정신건강이 최고

'100세 시대' 불자들, "노후엔 정신적 귀의처 필요"

본지 설문조사… 노년기 '공동체 수행 원한다' 31%

불자들은 편안한 노후를 위해 '수행공동체' 등의 정신적 귀의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행공동체와 불교계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본지가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맞아 지난해 12월 1일부터 15일간 전국 불자 1,2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0세 시대, 불자의 노후 대비 의식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결과는 매년 0.5세씩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현실에, 불교가 '정신건강'을 충족시켜줄 대안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따르면, 노후 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791명 중 25.0%가 '노후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묻는 질문에 '정신적 귀의처 마련'을 꼽았고, '경제적 자립(22.9%)' '실버타운 · 요양시설(20.2%)' 등은 그 다음을 이었다. 또 노후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의 25.8%도 '정신적 귀의처 마련'을 선택했다.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은 노인복지시설 선호도 및 출가 의사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불교계 노인복지시설의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응답자 10명 가운데 3명이 노후생활처로서 '수행공동체'를 선호했다. 불교계 노인복지시설을 안다고 답한 응답자 31.0%가 '수행공동체'를 꼽았으며, '실버타운(26.2%)' '노인복지센터(21.8%)' 등도 고르게 나타났다. 또 응답자 46.3%가 '여건이 된다면 출가 또는 단기출가를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이런 욕구에도 불구하고, 전체 응답자 63.3%가 '불교계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해 불교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노후 대비를 하고 있는 불자가 불교계 노인복지시설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37.1%만이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 '모른다'는 무려 62.2%에 달했다. 여기에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불교계 노인복지시설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 '시설이 열악할 것 같다'고 답해, 불자들의 불교계 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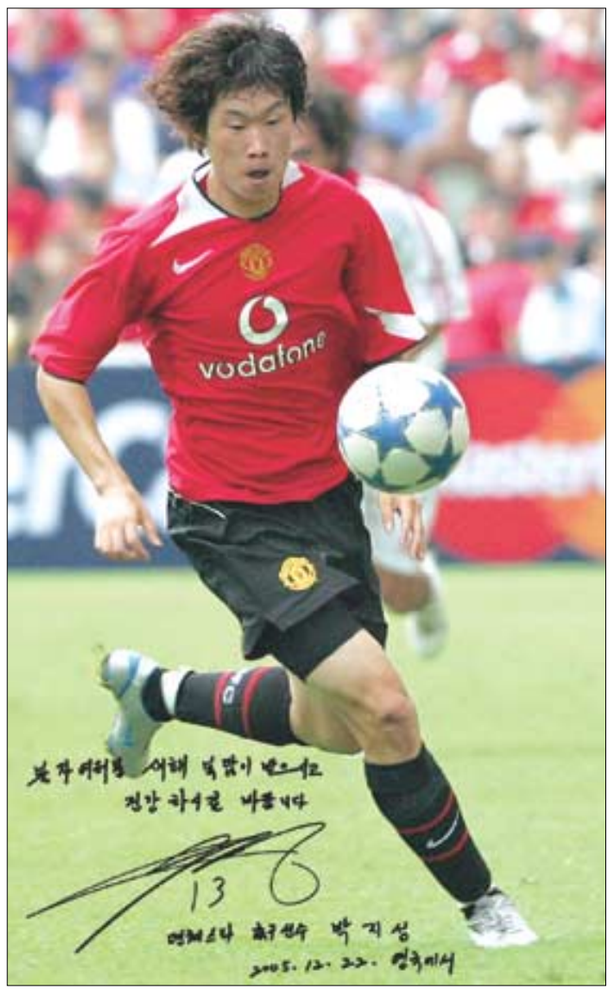
죽음 준비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 44.8%가 '필요성은 느끼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모른다'고 답했으며, 선호하는 죽음 서비스는 죽음 준비 여부와 관계없이 '임종교육(28.8%)'이 가장 높았다.

이혜숙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는 "불자들이 노후생활처로 수행공동체를 선호하는 것은 아름다운 회향을 위한 욕구에 부응하려는 이유 때문"이라며 "임종준비 교육이 필요하다는 불자들 요구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듯 불교계는 앞으로 수행지도와 죽음 준비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연령대별로 개발 · 보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관련 기사 A5 · 6 · 7 · 8면 김철우 기자

복지법인도 외부이사 올 국회통과 전망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 도입을 명시한 법안이 올해 중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상당수 불교계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4월 입법예고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 보조금을 받는 법인에 한해서는 그 이사 중 1명을 지역사회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강진 기자



2006 '희망'을 쏜다

2006년 새해가 밝았다. 다사다난했던 묵은 해를 훌훌털고 새 희망을 향해 나아갈 때다. 월드컵의 해이기도 한 새해를 앞두고 영국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불자 축구선수 박지성이 12월 22일 본사에 "불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새해 인사말을 보내왔다. 박지성은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영국에 온 어머니가 매일 인근 사찰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어선지 힘이 절로 난다"고 밝혔다.

새해 불자님들의 모든 소원 성취되길 기원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

'현대불교' 새로워집니다

희망의 2006년 현대불교가 지면을 대폭 개편, 더욱 새롭게 불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불자들의 수행과 신행을 이끌며 생활불교의 도반으로 자리잡아 온 '현대불교'는 보다 심층적인 보도와 감동적인 기사로 이웃과 나눠보는 신문, 기다려지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 **심층 기획 기사 강화**
  불교계의 안과 밖을 함께 주시하며 이성적인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심층 기획 기사를 매주 생산합니다.
- **지역뉴스 지면 확대**
  지역불교 활성화가 한국불교 활성화의 지름길이라는 신념으로 지역 뉴스면을 2개면에서 3개면으로 늘렸습니다.
- **세계 불교를 한 눈에**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본지 통신원들이 지구촌 불교소식을 빠르게 전합니다.
- **인터넷 세상 읽기**
  인터넷은 이제 생활입니다. 인터넷 세상의 불교를 지면에 담아 불자들이 유비쿼터스 세상을 따라잡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 **불교 경제 '알아야 잘 산다'**
  불교와 경제, 알고 보면 둘이 아닙니다. 불교계의 경제활동을 포괄적으로 조명하고 불자들의 바른 경제활동을 안내합니다.
- **웰빙라이프 행복의 길**
  불교 잘 믿는 게 건강하게 사는 길입니다. 사찰 음식과 각종 운동요법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행복한 가정 건강한 인생의 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 **대중문화 속의 연꽃 향기**
  스포츠 연예계는 물론 엔터테인먼트 세상의 불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인기 스타에서 '무명'에 이르기까지 대중문화속의 다양한 사연들을 찾아 갑니다.

■새로운 연재

- **선(禪)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원순 스님의 쉽고 재미있는 <선가귀감> 풀이
- **만화 '행복동 사람들'**
  배종훈 화백이 '삼세인과경'의 눈으로 그리는 세상
- **불화속의 명장면**
  2005년 일본의 권위 학술상 '국화상'을 수상한 미술사학자 강소연 박사가 소개하는 전통 불화 속에 담긴 흥미로운 '비밀'들.

지/면/안/내

신년특집 48면 발행

특집 / 100세 시대가 왔다
설문으로 본 불자들의 100세 시대 인식 A5면
수행으로 삶 회향 A6면
불교노인복지시설 현황과 방향 A7면
불교계 '죽음 준비' 실태와 과제 A8면

특집 / 동국대 100주년
불교대학 · 불교대학원 동문 설문 A12~13면

특집 / 지역이 살아야 불교가 산다 A16~17면

신년인터뷰-김인숙 원장 · 김의정 회장 B1면
각종단 신년법어 B3면
만화로 여는 새해 B5면
큰스님 편안하십니까-진제스님편 B12~13면
산사에서 새해 맞자 B20면
제11회 신행수기 당선작 발표 B16~17면

2006 군포교 합시다

조계종 군종 교구 · 본사 캠페인 전개

사찰-군법당-기업이 손잡는다

군포교의 각종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고 군법사와 군불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을 공동으로 전개한다.

조계종 군종교구 출범 첫 해를 맞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 캠페인은 '사찰-군법당-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된다.

조계종 군종교구와 현대불교신문사는 군법당 건립 · 후원 기금과 물품, 불서(佛書) 등을 모아 군법사가 없거나 군법당이 없는 부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하는 후원체계를 마련한다. 또 군법사 1~2명이 10여개 군법당을 담당해야 하는 등 군불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는 열악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1사찰-1군법당 결연, 1종립학교-1군법당 결연, 1단체-1군법당 결연, 1가정-1군법당 결연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지역사찰-전역사병, 군법당 신도회-사찰신도회간 교류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대불교신문사는 고정지면을 배정, 군포교 관련 기획기사와 어려운 여건 속에 정진하는 군불자들의 소식을 현장감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캠페인 진행상황과 내용도 <현대불교> 지면과 인터넷 실시간 <붓다뉴스>(buddhanews.com)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개된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으며, 이미 군법당을 후원하고 있는 단체나 사찰도 함께 할 수 있다. 동참 방법은 △자매결연 △군법회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정기적인 물품 전달 △법사 지원 등으로 가능하다.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49-864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38

한명우 · 박봉영 기자



태고종 보우승가회

회원 모두 "공부해요"

보우승가대학 입학… "후배들에게 모범 보일터"

태고종 보우승가회(회장 지홍 스님) 45명 전원이 서울 창신동 원각사에 소재하는 보우승가대학에 입학하기로 해 화제다.

보우승가회는 12월 14일 대전 유성 아드리아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후배 스님들에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학력에 관계없이 새로 입학하기로 결의했다.

보우승가회는 이에 따라 보우승가대학을 2006년 1학기부터 1년제에서 2년제로 변경하고, 불교학과 승가학과 범패과 전통예술과 등 4개과를 개설키로 했다.

사무총장 능해 스님은 "보우승가대학이 종단의 선교육 후득도 체계에 부응하는 승려 양성 대학으로 인가를 취득하는 것이 목표"라며 "1월 15일부터 각 학과당 30명씩 총 정원 120명의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우승가회는 또 올해 사업계획으로 각 시도에 지회를 구성해 지회장을 임명하기로 했으며, 여름수련회 개최, 장학금 전달, 국내 및 해외성지순례, 회원사찰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등을 실시키로 결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기2년의 제3대 회장에 지홍 스님(서울 안정사)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지홍 스님은 취임사에서 "보우승가회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종도들 중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02)459-5928

김원우 기자

"토지매매 · 개발 안된다"

태고종 봉원사 '주택개발' 설에 일침

서울 신촌 봉원사(주지 환우)가 12월 21일 토지매매 및 개발불가를 공고했다.

공고내용은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산 1번지 봉원사 토지일대는 문화관광부와 태고종 봉원사의 협의 및 승인 없이는 매매가 불가하다'는 것이 골자다. 또 '조계종과 태고종의 봉원사 관련 소송이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므로 봉원사 토지일체는 토지매매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공고하고 있다.

공고내용과 관련 봉원사 총무 운봉 스님은 "최근 160억원을 준비했다는 개발업자가 빌라를 짓는다며 봉원사 토지를 시세보다 높게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현재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조계종으로 되어 있고 점유는 태고종이 하고 있는 만큼 자칫 토지를 매매할 경우 소유권 분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태고종은 공고를 통해 "지난 2001년 11월 5일 조계종에서 태고종 봉원사 토지를 태고종 및 봉원사와 협의없이 조계종 명의로 임의변경, 등기한 사실을 확인해 2005년 2월 1일 본 사건에 대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원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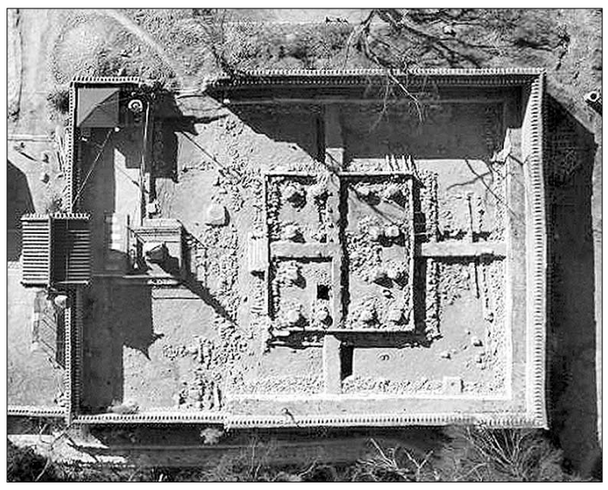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발굴조사후 드러난 원통보전 건물지. 담장 안쪽으로 보물 제499호 낙산사 7층 석탑(왼쪽)이 보인다.

낙산사 원통보전 조선초 양식 복원

국립문화재연구소 발굴조사결과 보고

지난해 4월 5일 양양 산불로 소실된 낙산사 원통보전은 3차례 중수됐으며, 가장 오래된 유구는 조선 초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원통보전은 조선 초기 양식으로 복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월부터 원통보전 터를 발굴조사해온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 유적조사연구실은 12월 21일 낙산유스호스텔에서 '낙산사 발굴조사결과 자문위원단 대상 보고회'를 개최했다.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 박언곤 문화재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발굴조사결과 보고 및 향후 복원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연구실에 따르면 원통보전에서는 △조선 초기 건물지 △조선후기 내지 일제시대의 건물지 △1953년 증축돼 2005년 화재 직전까지 사용된 건물지가 확인됐다. 조선 초기 건물지는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원형 적심의 직경이 130~150cm, 주칸 거리는 260cm로 일정했다.

통일신라~고려시대의 기와가 발견되기도 했으나, 기대를 모았던 창건 당시 신라시대의 유구는 발견되지 않아 국립문화재연구소 측은 낙산사가 주로 조선시대 증축된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낙산사복원추진위원회(단장 김두원)는 복원 기준을 조선시대 초기 유구에 맞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추가 발굴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복원 방향과 일정은 추후에 열릴 낙산사 복원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익순 기자

동국대에 '불교사회문화학' 전공 신설

복지·콘텐츠 등 교육… 2007년 신입생 모집

동국대 불교대학에 '불교사회문화학' 전공이 신설될 전망이다.

불교대학발전위(위원장 영담)는 12월 19일 워크숍을 열고 기존 3개 전공(불교학 · 인도철학 · 선학)에 불교사회문화학 전공 신설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불교사회문화학 전공은 실천불교학을 지향하는 학문으로 크게 △불교사회복지 △불교문화콘텐츠 △종무행정 등을 교육내용으로 구성, 이르면 2007년부터 신입생 모집에 들어간다.

이미 5차에 걸쳐 진행된 불교대학 발전위 공청회가 '불교대학의 교육목표' '불교대학의 학제와 교과과정에 대한 재검토' '불교대학(원) 졸업생의 진로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동안 실천불교분야 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불교사회문화학 전공 신설은 기정사실화돼 왔다.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은 전공신설에 따르는 입학정원증원의 문제는 차후 위원회와 학교당국의 조정을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영담 스님은 "실천불교 영역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불교지도자 양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불교대학발전위원회는 위원회 차원의 불교학연구기관 후원 강화, 연구교수의 대폭 충원, 연구교수의 신분보장과 인센티브 제공, 연구교수 임용시 타 대학 개방비율 확대, 출판부 적극적 활용 등 불교연구기관의 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조용수 기자

수불스님 등 신규위원 위촉

조계종 포교원 신도교육위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12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기 신도교육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총 14명의 신도교육위원 중 수불 스님(안국선원장), 김용표(한국교수불자회장), 성태용(우리는 선우 이사장), 손안식(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등 4명을 신규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장인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새로 위촉된 위원이 합심해 심도 높은 신도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 포교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도위는 또 2006년 신도종책진흥 사업을 진행하고 종단 내 신도위계에 대한 현황을 연구할 '전문위원 연구팀' 구성에 대해 검토했다.

이와함께 발간한지 5년이 넘은 <불교입문>교재 재발간과 새로운 포교지침서 교재 발간 및 종단 의례의식을 하나로 통일하는 <통일법요집> 발간에 대해 논의하고 간화선기본수행프로그램 개발사업을 보고했다.

이은비 기자

인터넷의 불교 왜곡정보 포교사단 '바로잡는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양성홍)이 인터넷 내의 불교왜곡정보를 바로잡는 '불교바른정보사업단(pogyosa.or.kr)'을 조계종 포교원으로부터 이양받아 본격적인 인터넷 불교외호 및 포교 활동에 나선다.

8월 25일 개통된 불교바른정보사업단 홈페이지에는 출범 이후 4대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야후, 엠파스)에서 바로잡은 질문 2만495여건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뿐 아니라 새로 올라오는 불교질문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다. 또 현재 50여명의 정보위원이 정확한 불교정보 제공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사업단은 앞으로 △사찰신도를 대상 인터넷교육 실시 △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한 정확하고 바른 정보제공 △인터넷포교지침서 출판 등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은비 기자

포교전진대회 개최

1월7~8일 속리산관광호텔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1월 7~8일 속리산관광호텔에서 '불기 2550년 신년포교전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포교전진대회는 종단의 포교단체, 신도단체의 임직원들이 참가, 포교활성화의 원력을 다지고 통일적인 사업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포교전진대회는 7일 입재식을 시작으로 '포교현장을 지원하는 포교원' 선포식 및 신년하례와 각 단체 사업계획발표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은비 기자

중앙승가대 이사장 지관스님 추대 결의

학교법인 승가학원은 12월 20일 중앙승가대 3층 이사장실에서 제71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중앙승가학원 이사장으로 추대했다.

이사회에서는 정관에 따라 현직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당연직 이사장으로 추대하기로 하고 정식추대 전까지 이사장 직무대행에 종하 스님을 호선했다. 이와 함께 신임이사에 총무부장 자승 스님을 선임하는 등 이사회 관련 안건을 처리했다.

조용수 기자

"사립학교법 개정 지지"

4대종교 10여단체 성명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실천불교전국승가회를 비롯한 4대 종교 10여개 단체 성직자들이 '사립학교법 개정 지지'를 선언했다.

4대 종교단체 성직자들은 12월 20일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민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만큼 종교인들도 법 개정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직자들은 이어 "개정된 법 내용을 아무리 보아도 종교인들이 개정을 반대할 명분을 찾을 수 없다"며 "일부 사학들이 학교 폐교니 신입생 모집 중지니 하는 극언을 쏟아내는 데 종교 사학이 앞장서고 있는 현실은 결코 종교적이지도 않으며, 교육적이지도 못하다"고 비판했다.

유철주 기자

새회장 성직스님 선출

조계종 승가모임 화엄회

조계종 승가모임 화엄회는 12월 16일 새 회장에 성직 스님(중앙종회의원)을 선출했다. 또 부회장에 정묵 · 정념 · 자재, 총무에 정도, 대변인에 법진, 재무에 원경, 운영위원장에 광조, 운영위원회 간사에 덕문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성직 스님은 1973년 사미계, 76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현재 제13대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장 종책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다.

남동우 기자

태고종 비구니회 총회

운영활성화 등 사업논의

태고종 전국비구니회(회장 여초)는 1월 9일 오후 4시 대전 유성 계룡스파텔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05년도 사업 결산 △2006년도 사업계획 수립 △비구니회 운영활성화 방안 등의 안건이 다뤄진다.

김원우 기자

謹賀新年 佛紀 2550年

丙戌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포교·교육·사회복지 분야에 심혈을 기울이는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참회관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

주지 선묵 혜자

대중일동

■ 포교분야
주간 도선법보, 월간 여성불교, 홍은동 포교당, 봉천동 포교당, 성주 대흥사, 안동 세심사, 하와이 무량사

■ 교육분야
재단법인 청담장학문화재단, 학교법인 청담학원, 청담중고등학교, 도선불교 실달학원 교리반 경전반

■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청담종합사회복지관, 혜명불교양로원, 혜명보육원, 각구 어린이집 11곳



△도선사 전경

142-871 서울 강북구 우이동 264 TEL 02)993-3161~3 / FAX 02)993-3164 / www.dosunsa.or.kr

막내린 '불지사리법회' 우려와 빚만 남아

관람객 총6만 불과…봉행위·투자자 30억 손해
중국불교계와 10년간 쌓은 신뢰 금갈까 걱정

11월 11일부터 40여 일 간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열린 '중국 법문사 불지사리 친견법회'가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지난 12월 20일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번 법회는 개최전부터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재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초 100만여 명이 친견할 것이라는 잠정집계 속에 진행된 친견법회는 서울과 부산을 합해 모두 6만여 명이 친견했다. 이에 따라 관람객의 입장료 수입이 저조해 행사 경비 등이 부채로 남는 등 행사를 준비한 불지사리이운법회봉행위원회(이하 봉행위)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있다.

이 행사를 공식 후원했던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도 중국불교계와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 행사가 성사된 것은 한국불교계의 적극적 후원 약속과 이에 대한 중국불교협회의 전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때문에 행사의 실패가 십 년 이상 쌓아온 양국 불교계 간의 신뢰에 금이 가지 않을까 우려가 일고 있는 것.

이번 친견법회를 주관한 봉행위와 투자자들도 30억 가량의 재정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불지사리를 한국으로 이운해 친견법회를 봉행한 데 사용된 비용은 고스란히 봉행위의 부담으로 남게 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행사 중반 이번 행사의 대표 투자자인 이모 씨가 부산법회를 앞두고 투자금을 갖고 잠적하는 등 악재가 겹쳐 왔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국불교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가졌던 중국불교협회의 스님도 행사가 제대로 치러지지 못함에 따라 상당히 곤란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까지 중국불교협회가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고 있다.

사실 이번 법회가 열리기 전부터 한국불교계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일정부분 상업적 의도가 있었던 데다 행사가 급하게 꾸려졌고, 홍보나 행사진행도 매끄럽지 못했다. 40여 일 동안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열린 법회에 겨우 6만 명의 불자가 참가했다는 사실은 우려를 현실로 드러나게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불교계 한 인사는 "재가신자들을 중심으로 강한 수행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법회가 마련됐다는 것은 태생적인 실패 위험을 안고 있었다"며 "이런 대규모 행사를 열기에 앞서 불교계 전체의 투명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했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빈그릇운동 동참자 120만명



12월20일 열린 빈그릇운동 결과보고회에서 법륜 스님이 이재용 환경부 장관에게 동참자 서약명부를 전하고 있다.

불교계가 시작한 대표적 국민운동인 '빈그릇운동'의 동참자가 100만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14일 현재 운동 동참을 서약한 사람은 모두 120만 832명. 운동 시작 1년여 만에 이룩한 성과다.

정토회 에코붓다(대표 유정길)는 12월 20일 충무아트홀에서 '빈그릇운동 100만인서약캠페인 결과보고회'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빈그릇운동을 통해 모금된 기금 7542만원의 일부를 인도JTS(1500만원), 한국JTS(1500만원), 밥퍼나눔운동본부(800만원)에 각각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이재용 환경부 장관은 "우리는 오래전부터 쌀 한 톨도 나눠먹던 미덕이 있는 나라였다"며 "환경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건강을 살리는 빈그릇운동의 놀라운 성과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밥퍼나눔운동본부 최일도 목사도 "종교와 정파를 떠나 빈그릇운동과 밥퍼나눔운동은 동일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토회와 함께 나눔운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에코붓다 지도법사 법륜 스님도 "빈그릇운동은 적게 먹어 건강해지며 자연을 닮아가는 운동"이라며 군대, 기업, 학교 등 운동을 진행해온 곳뿐만 아니라 이웃종교와 정부기관과도 연계해 운동을 더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12월20일 서울 종암동 건설부지에서 열린 성북장애인복지관 기공식 모습.

성북장애인종합복지관 착공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종범)은 지난 12월 20일 서울 월곡동 건설부지에서 성북장애인종합복지관 기공식을 열었다.

이날 착공식을 가진 성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상 5층 지하 1층에 대지 560평, 건평 744평 규모로 건립된다. 공사비가 100억원이 넘는 대형 복지관으로 2007년 5월 완공될 예정이다. 관장에는 삼전종합사회복지관장 선재 스님이 내정됐다.

기공식에서 승가원 이사장 종범 스님은 "성북구내 장애인 시설 운영을 통해 쌓은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승가원이 성북지역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파라미타 지도자 연수교육
5년이하 초·중등교원 대상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택)는 1월 9~12일 서울 봉은사에서 청소년 지도경력 5년 이하의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파라미타 지도자 연수교육'을 진행한다.

연수는 △청소년 상담론 △청소년 복지 △친교활동프로그램 △파라미타회원관리법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30명이다. (02)723-6165 **이은비 기자**

세상 떠난 딸 보험금 "장애인 위해 써달라"

익명의 60대 부부 1억원 기부
"장애인 돌보던 딸 생각나 결심"

부산의 한 60대 부부가 세상을 떠난 딸의 이름으로 지난 12월 19일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 자비복지타운 건립기금 1억 원을 전달해 세밑, 따뜻함을 전해줬다.

독실한 불자로 지난 10년간 한 달에 10만원씩 승가원을 후원해 온 노부부는 이번에 1억이라는 큰 액수의 성금을 전달하면서도 한사코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고집했다. 그러다 승가원 사무국장 묘전 스님이 노부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던 중 이들이 전달한 성금이 지난 해 38세로 세상을 떠난 딸 박승혜씨의 사망보험금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더 큰 안타까움과 감동이 전해졌다.

노부부는 "딸아이가 생전에 소쩍새마을에 가서 장애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 생각나 보험금을 자비복지타운 건립기금으로 기부했다"면서 "추운 겨울, 소쩍새마을 장애인 식구들이 따뜻해질 수 있다면 딸도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묘전 스님은 "따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겠다"며 "장애인들을 생각하는 한 가족의 마음으로 인해 올 겨울 소쩍새마을 식구들은 그 어느 때 보다 따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속리산 관광단지 활성화 추진

법주사·보은군 연꽃단지 조성 등 7개사업 결정

법주사를 중심으로 한 속리산 관광단지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은 법주사(주지 도공)가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행자위원장인 이용희 의원과 보은군수를 비롯한 기관장과 지역민을 초청, 12월 21일 경내 궁현당에서 연 '보은 속리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법주사와 보은군은 대단위 연꽃단지 조성 등 7개 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벌여나가기로 결정했다.

7개 개발사업은 연꽃단지 조성 외에 대형주차장 건립과 도로개설 및 확장, 수원지·온천 개발, 비룡저수지 종합개발 및 모노레일 설치 등이다.

이 자리에서 법주사 주지 도공 스님은 "지역과 법주사가 함께 하는 시설투자에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법주사와 보은군은 속리산 관광단지 관광객이 해마다 줄어들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자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혜철 대전·충북 지사장

통영 용화사, 케이블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논란을 거듭해오던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건설 여부가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카 건설 부지 중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용화사가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통영 용화사(주지 선곡)는 지난 12월 21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를 중지할 것을 청원하는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법 통영지청에 냈다.

용화사 주지 선곡 스님은 "변호사를 선임해 관련 법률을 검토한 끝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통영시 윤맹수 문화진흥계장도 "가처분 신청소식을 들었다"며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부장 지원)는 12월 5일 용화사에 "케이블카 설치 공사 부지의 일부가 바로 용화사와 조계종의 부지"라며 "이는 명백하게 종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명령했었다. **유철주 기자**

나눔의 집 위안부역사관 기획전시실 문 열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나눔의 집(원장 원행)은 지난 12월 18일 위안부 역사관에서 기획전시실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문을 연 역사관 기획전시실은 나눔의 집이 2005년 문화관광부 복권기금 사업비를 지원받아 기존의 위안부 역사관 내부 시설을 개·보수해 만들었다.

이날 전시회와 더불어 나눔의 집에서는 후원자·자원봉사자들과 중국 흑룡강성에 거주하고 있던 김순옥(84) 할머니와의 만남도 함께 이뤄졌다. 평남 평안 출생으로 65년 만에 귀국하게 된 김 할머니는 앞으로 나눔의 집에 머무르면서 한국 국적 회복을 위해 힘쓰게 된다.

(031)768-0064 **김강진 기자**

'우리말 법화삼부경' 점자도서 간행

조계종 총무원 문화국장 혜조 스님이 지난해 발간한 <우리말 법화삼부경>을 점자도서로 펴내고 지난 12월 27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혜조 스님은 혜광맹인불자회, 조계사 원심회, 반야학당과 함께 <우리말 법화삼부경>을 6권으로 구성된 점자경전 500질로 제작, 전국 21곳의 점자도서관과 맹인불자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법화경> 사경과 번역에 매달렸던 모친의 뜻을 이어 번역에 나선 스님은 산사태로 집이 무너져 생사의 문턱을 넘나드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7년 만인 지난해 번역본을 출간했다.

이후 스님은 점자도서로 간행된 불경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워 이 책을 점자도서로도 펴낼 계획을 세웠다. 4000여만원에 달하는 출판비를 모으기 위해 지난 1년간 문화부에서 받는 월급을 꼬박꼬박 모았고, 몇몇 스님들이 보내주는 후원금을 보태 점자도서로 출간할 수 있었다.

혜조 스님은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은 20여만 명에 달하지만, 현재 출간된 점자경전은 독경 위주의 몇몇 권이 전부"라고 간행 취지를 설명했다. **여수령 기자**

丙戌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원장 대행
주지 혜원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본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TEL : 031-470-3100 / FAX : 031-470-3116
http://www.hanmaum.org

◆ 국내지원 ◆
- 광명선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 4구 산 5-2 TEL : (043)877-5000 / FAX : (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도제주시 영평동 1500 TEL : (064)727-3100 / FAX : (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 : (051)403-7077 / FAX : (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TEL : (062)373-8801 / FAX : (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 : (052)295-2335 / FAX : (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TEL : (053)767-3100 / FAX : (053)765-1600
- 중부경남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1-1 TEL : (055)345-9900 / FAX : (055)346-2179
- 진주지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 : (055)744-1321 / FAX: (055)746-7325
- 공주지원 충남 공주시 사곡면 신영3리 152-3 TEL : (041)852-9100, 9102 / FAX : (041)852-9105
-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TEL : (054)232-3163 / FAX : (054)241-3503
- 청주지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95-7 TEL : (043)259-5599 / FAX : (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강릉시 포남 2동 1304 TEL : (033)651-3003 / FAX : (033)652-0281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도천동 113-3 TEL : (055)643-0643 / FAX : (055)643-0642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상동 952-19 TEL : (061)284-1771 / FAX : (061)284-1770
- 문경지원 경북 문경시 흥덕동 592 TEL : (054)555-8871 / FAX : (054)556-1989

◆ 해외지원 Overseas Branch ◆
- New York (미국 뉴욕플러싱 지원) 144-39,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 : (1-718)460-2019 / FAX : (1-718)939-3974
- Washington D.C. (미국 워싱턴 지원)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 : (1-703)560-5166 / FAX : (1-703)560-5566
- Los Angeles (미국 LA 지원)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 : (1-323)766-1316 / FAX : (1-323)766-1916
- Chicago (미국 시카고 지원)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 : (1-847)674-0811 / FAX : (1-847)674-2280
- CANADA (캐나다 지원) 20 Mc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 : (1-416)750-7943 / FAX : (1-416)701-1359
- Buenos Aires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원) Miro 1575, cp(1406) Cap. Fed. Rep. Argentina TEL : (54-11)4921-9286 / FAX : (54-11)4921-9286
- Tucuman (아르헨티나 투꾸만 지원)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cp(4107) Tucuman, Rep. Argentina TEL : (54-381)425-1400
- GERMANY (독일 지원) Bre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 : (49-(0)2131)969551 / FAX : (49-(0)2131)969552
- THAILAND (태국 지원) 86-1 soi 4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TEL : (66-2)391-3091
- Sao Paulo (브라질 상파울로 지원)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 : 01127-000-Brasil TEL : (55-11)3337-529?

충청권 제1 포교도량으로

충북불교문화회관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 … 3월 개강
선방 · 다원 · 아트홀 열고 주민의 열린 공간으로

1995년 건립돼 충청지역 포교의 중추로 기대를 모았던 청주 충북불교문화회관(이하 불교회관). 그러나 지난해 우여곡절을 겪으며 본래의 모습을 잃었다. 회관건립의 주역이자 선학원 이사장이던 정일 스님 입적 후 다소 혼란스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이다.

1년여가 지난 2005년 12월, 불교회관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난 6월 현문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면서부터다. 불교회관이 추진하고 있는 변화의 핵심은 충청지역 포교의 중심지로 자리잡겠다는 것이다.

불교회관은 다원, 어린이집, 아트홀, 법당, 시민선원 등을 갖추고 있으며, 청주불교방송이 들어서 있는 충북불교의 대표적 포교도량.

불교회관은 우선 불자교육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교양대학이었던 광명불교대학을 조계종 인가 정식 불교대학으로 개편한다. 이미 조계종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며, 내년 3월부터 강의를 시작한다.

공부하고 실천하는 전통을 만들기 위해 지난 10월 불교대학 동문회도 결성했다. 120여 동문들은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기법회를 갖는 것은 물론 지역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의 포교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불교회관을 열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도 추진된다. 우선 시민선방을 개원하고 법당을 지역 신행단체에 개방해 회관을 수행과 신행도량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 광명다원(찻집)을 리모델링해 불자들과 지역민들을 끌어들일 계획이다.

특히, 충북불자교수연합회 등 지역의 영향력 있는 신행단체들에게 회관 내 법당을 신행도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지역불자들의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각오다.

불교회관 내 어린이집도 프로그램을 강화해 새싹포교에 적극 나선다. 1달(또는 1주일)에 한 번 씩 원생들을 법당으로 초청해 불교와 친숙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센터 운영도 강화할 방침이다. 불교회관은 기존의 프로그램 외에 장례문화나 호스피스와 같은 복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불자들의 활동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불교회관 주지 현문 스님은 "회관 관련 프로그램 외에 경찰이나 군부대 포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며 "수행과 신행 시스템을 갖춘 종합도량이자 정법도량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동화사 · 고운사 신년 사업계획 마련

동화사 한몽교류 다각화 등
고운사 禪체험장 건립 눈길

대구 동화사(주지 지성)가 올 상반기에 대구 동구 신무동에 노인실비요양시설을 착공하고, 성보박물관을 개원한다.

총 사업비 13억 4천만원을 들여 건설되는 노인실비요양시설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80평 규모로 지어진다.

통일 대불전 아래 3층 규모로 마련된 성보박물관은 현재 내부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로 2개의 전시관과 수장고 교육관이 갖춰져 있고, 1층 교육관에는 시청각실도 들어선다.

동화사는 이외에도 몽골에 유치원과 인쇄소를 건립하는 등 사단법인 한몽불교교류협회(총재 지성)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의성 고운사(주지 혜승)도 수월암 복원과 선 체험장 건립 등 2006년 사업 계획을 밝혔다. 고운사는 30억의 예산을 투입해 2007년까지 108평 규모의 선 체험장을 마련한다.

고운사는 선체험장이 마련되면 재가자들의 수련공간이나 선 수행공간으로, 또 스님들을 위한 특강 장소로 활용하고, 조실 스님을 모시고 실질적인 간화선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 간화선 중흥에 일조할 계획이다.

고운사의 내년 사업계획중 인터넷 서버 구축 사업도 눈길을 끈다.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고운사 본말사의 열악한 포교환경을 극복하기위한 사업으로 하나의 서버에 본말사 홈페이지를 통합 구축하고 게시판도 통합 운영한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포교전진대회' 개최

광주전남 포교사단



광주전남 포교사단(단장 김인수)은 12월 16일 광주 무등파크에서 '제2회 포교사 포교전진대회'(사진)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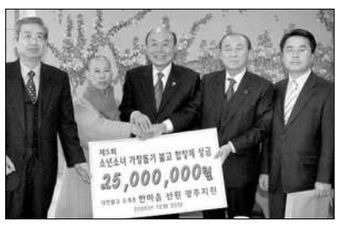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에 앞서 전법원력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대회에는 각 사암 포교국장 스님들과 양성홍 중앙 포교사단장, 이상진 광주전남신도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진대회에서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초발심을 잃지 않고 정진하는 참다운 불자가 되어 전법의 사명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인수 단장은 인사말에서 "남을 포교하기에 앞서 자신을 포교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실천행으로 포교에 나서자"고 강조했다.

이준엽 기자

소년소녀 가장에게 희망을
광주 한마음선원 성금 기탁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은 지난 12월 23일 광주시청 시장실에서 소년소녀 가장 돕기 성금 2500만원을 박광태 광주시장에게 전달했다(사진).

이날 혜월 스님은 기금 전달에 앞서 "소년소녀 가장들은 밝고 아름다운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이다"며 "불자들의 마음이 담긴 성금으로 희망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광태 광주시장도 인사말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힘을 주기위해 정성을 모은 불자들에게 감사한다"며 성금 전액을 고제철 사회복지공동모금 회장에게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광주지원이 지난 11월 27일 소년소녀 가장돕기 불교합창제를 개최해 모금한 것이다. 광주지원은 1997년부터 5회에 걸쳐 8000여만원을 모금해 불우청소년 280여명에게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했다.

이준엽 기자

"산사에서 ★ 키워요"

범어사 소년소녀가장 위한
희망 템플스테이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희망 실천 템플스테이가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에서 열린다.

1월10~11일, 1월 14~15일 2차에 걸쳐 진행되는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희망실천 템플스테이는 부산 시내 중 · 고등학교 소년소녀 가장 100명을 대상으로 범어사 휴휴정사에서 진행된다.

어려운 여건속에 있는 소년소녀가장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딱딱한 교육 위주의 프로그램보다는 스님과 함께 하는 윷놀이, 금정산 고당봉 산행, 불무도, 컵 등 만들기, 차담 등으로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하고 긴장을 풀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밖에도 참선, 사찰예절 배우기, 발우공양 등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기획한 혜수 스님은 "겨울 산사에서 보내는 1박 2일이 아이들이 생활 가운데서 긍정적인 마음을 쓰면서 살 수 있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범어사는 일년 내내 템플스테이를 상설 운영하며, 2006년 1월, 불무도 템플스테이, 정월대보름, 참선 등 대상과 주제별 템플스테이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개인이나 가족, 회사, 단체 단위로 참가자를 모집중이다. (051)508-3123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새만금' 대법원 간다

국민회의, 고법 기각 반발 상고

지난 1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이 '새만금 관련 정부조치계획취소' 소송에서 기각결정을 내린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는 기각 판결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기각 결정을 급하게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또 "잘못된 국가 정책에 대해 단지 법리적 절차의 문제만으로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국민회의는 이어 "새만금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가 예정된 현 상황에서, 해수유통을 전제로 새만금갯벌을 살리고 전북 발전에도 기여하는 대안 모색에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유철주 기자

서옹 대종사 2주기 기념
추모재 · 탑비 제막



추모재 이후 대중들이 서옹 스님 사리탑을 돌아보고 있다.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두백)는 지난 12월 20일 대웅전에서 '서옹 대종사 2주기 추모재 및 탑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서옹 스님 열반 2주기를 맞아 열린 이날 추모재에는 성수, 활안, 천운, 혜정 스님 등 조계종 원로의원, 백양사 주지 두백, 송광사 주지 영조, 대흥사 주지 몽산 스님 등 교구본사 주지 스님, 문중 스님, 재가불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은 법어에서 "서옹 큰스님은 백암산을 덮은 하얀 눈처럼 티 없이 고고하게 정진하셨던 이 시대 큰 스승이셨다"며 "큰 스님의 뜻을 이어 발심수행에 힘쓰라"고 당부했다.

원로의원 성수 스님도 추모사를 통해 "큰 스님이 제방의 선원에서 보인 치열한 구도행은 오늘을 사는 수행자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게으름 없이 정진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백양사는 추모재에 이어 새로 조성된 서옹 스님 진영을 조사전에 이운하고 부도전에서 서옹스님 부도와 사리탑비를 제막했다.

이준엽 기자

용호복지관, 봉사자들 시상



용호복지관(관장 혜총)과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관장 혜총)는 12월 19일 부산 문화회관 영빈관에서 2005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용호복지관장 혜총 스님, 이춘성 용호복지관 부관장,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김영곤 소장을 비롯 지난 1년동안 자원봉사자로 활동해온 봉사자와 후원자 300여명이 함께 했다.

이날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후원을 해온 조옥순씨를 비롯 무료급식 봉사 활동을 해온 주식회사 유림건설, 노인주간 발맛사지 봉사자 장경애씨와 용호복지관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해온 황남숙씨, 노인주간 봉사 활동을 해온 신진화씨, 가정파견 봉사원으로 활동해온 최명금씨, 홍종임씨, 청소년봉사 동아리 둘이하나, 3대가 후원을 함께 해온 박이소 가족 등이 공로패를 받았다.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공로패 시상에 이어 자원봉사자 사례 발표 시간에는 용호복지관에서 방문목욕 봉사를 펼쳐온 이경수씨, 가정방문봉사를 해온 권기숙씨가 자원봉사에서 느낀 보람과 기쁨을 발표했다.

천미희 기자

계룡산 살리기 본격화

대전충남지역 연합기구 구성

12월 22일 정부가 호남고속철도를 2017년까지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대전충남지역 종교시민단체가 연합기구를 구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계룡산 살리기 대전충남연대'(공동대표 장곡 등, 이하 계룡산 연대)는 12월 20일 60여개 종교시민단체로 조직을 구성하고 '계룡산 관통 반대' 전국 순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계룡산 연대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지역별 순회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관내 불우이웃에 쌀 · 김치 전달

노숙자 쉼터인 부산 '보현의 집'(원장 이기표)은 12월 23일 복천동 관내 불우이웃 50세대에 각각 20kg 쌀 1포와 부산 보현의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 10kg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부산 보현의 집은 하루 전인 12월 22일 입소자들이 농경지 경작을 통해 직접 생산한 20kg 쌀 100포를 동래구 관내 불우이웃 100세대에 전달했다.

이기표 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거리에서 생활을 했던 분들이라 불우한 이웃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다"며 "입소자들의 땀과 정성이 가득한 쌀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謹賀新年 佛紀 2550年

丙戌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본사

효찰 대본산 용 주 사



주 지 정 락

부 주 지 성 직
총무국장 영 명
기획국장 성 호
교무국장 성 무
재무국장 응 진
사회국장 도 은
포교국장 도 정
호법국장 원 오

대 중 일 동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 188번지
전화 031)234-0040 / 팩스 031)234-2818

대한불교조계종 제 6교구 본사

마 곡 사



주지 진 각

대 중 일 동

http://www.magoksa.or.kr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67번지 마곡사
전화 041)841-6221, 수련원 041)841-6226 / 팩스 041)841-6227

“노후대비 경제적 여유없다” 58.2%

‘100세 시대’ 불자 의식 설문 결과

'매년 0.5세씩 늘어나는 평균수명. 이 추세로 간다면 2040년에는 평균수명 100세 시대가 열린다.' 과연 이 말이 먼 훗날의 일일까? 아니다. '지금'의 이야기다. 이 순간,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30~40대의 일이다. 그럼, 육체적 건강이 의학적으로 보장되는 '100세 시대'에 불교는 어떤 의미를 던져줄 수 있을까. 또 불자들은 무슨 준비를 해야 할까? 본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불자 1,215명을 대상으로 '100세 시대, 불자의 노후 대비 의식 설문'을 실시했다.

노후대비 40대가 가장 적극적
기대수명 10명중 4명 '76~80세'

 # 노후대비 한다 65.1%

응답자의 65.1%가 노후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응답자는 '저축(19.3%)'을 노후 대비 대책의 첫 번째로 꼽았으며, '월 소득 10% 미만(29.4%)'으로 답한 2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 모두 월 소득의 '10~20%(34.9%)'를 노후 대비에 투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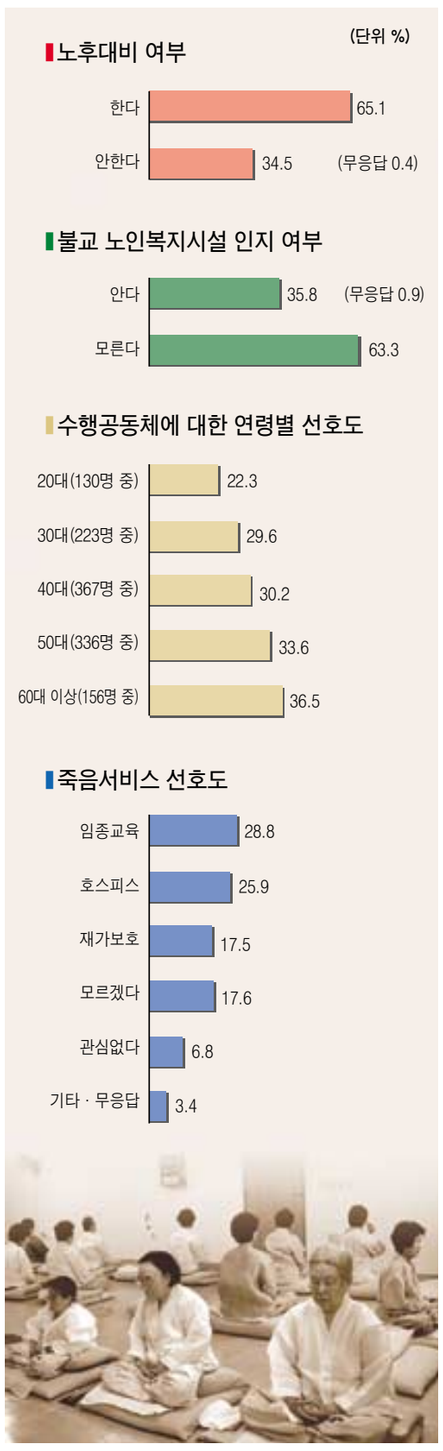
특히 이들 응답자는 '노후생활에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 귀의처 마련 원한다(25.0%)'로 답해 '실버타운 · 요양시설(20.0%)' '경제적 자립(22.9%)'보다 높았다. 또 연령대별로 '노후대비를 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40대(33.1%)를 정점으로 노후 대비율이 양분됐다. 20대(6.4%)부터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40대를 꼭지점으로 50대(32.0%), 60대 이상(13.2%) 등으로 하향 곡선을 나타냈다.

반면, '노후대비를 안 한다'고 답한 응답자 34.5%는 그 까닭에 대해 '노후에 대한 생각해보지 않는다'를 답한 20대(43.0%)를 제외한 연령대 모두가 '경제적인 이유(58.2%)'를 꼽았다. 또 노후생활에 꼭 필요한 것으로 '노후 일자리 등 경제적 자립(31.3%)'을 원했으며, 특히 40대를 기점으로 20~40대는 '경제적 자립'을 꼽은 데 비해 50대(30.4%)는 '실버타운 · 요양시설'로, 60대 이상(36.5%)은 '정신적 귀의처 마련'을 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기대 수명, '76~80세' 41.2%

기대 수명은 의외로 예상보다 높지 않았다. 응답자 41.2%가 '76~80세'로 답했으며, '65~70세'(17.0%)→'71~75세(11.6%)'→'86~90세(8.8%)'→'81~85세(8.3%)' 순으로 나타났다. 100세 이상도 5.1%나 있었다.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연령대별 기대 수명도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76~80세'로 답했다. 응답자 중 40대가 47.7%로 가장 높았으며, 50대(44.3%) 60대 이상(41.3%) 30대(37.5%) 순으로 '76~80세'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노후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기대 수명도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슷했다.



 # 불교계 노인복지시설 '모른다' 63.3%

'불교계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안다'고 답한 응답자(35.8%)들이 알고 있는 시설로는 노인복지센터(27.0%)→요양시설(16.0%)→실버타운(13.9%) 순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어떤 시설을 이용하고 싶으냐는 질문에는 수행공동체(31.0%)→실버타운(26.2%)→노인복지센터(21.8%) 순으로 조사됐다.

또 연령대별로는 20대가 '노인복지센터(32.7%)'로, 30~40대와 60대 이상은 '수행공동체(30.2%, 31.5%, 41.5%)', 50대 '실버타운(34.5%)'으로 답했다. 반면 '불교계 노인복지시설은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시설에 대한 선호도는 실버타운(36.0%)→수행공동체(31.6%)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후생활을 '수행공동체'에서 지내길 원하는 응답자의 경우, 20대(22.3%)→30대(29.6%)→40대(30.2%)→50대(33.6%)→60대 이상(36.5%) 순으로 나타나, 나이가 들수록 '수행공동체'를 노후생활처로 꼽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 단기출가라도 하고 싶다 32.9%

노후에 '출가하겠다'는 대답도 12.4%(151명)나 됐다. 단기출가라도 하고 싶다는 응답자도 32.9%였다. 무엇보다도 30대를 정점으로 출가 의사가 갈린 점이 눈이 띈다. 20~30대의 경우에는 '출가를 안 하겠다'가 각각 46.9%, 43.9%로 제일 높았으며, 반면 40~60대 이상은 '단기출가라도 하겠다'가 절반에 달하는 수치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종교란 틀에 얽매이기를 꺼려하는 20~30대의 자유분방한 성향이 반영된 것은 물론, 쳇바퀴 돌 듯 바쁘고 지루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려는 40대 이상의 요구가 적극 투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응답자 10명 중 6명이 '노후에 하고 싶은 수행'으로 참선(61.8%)을 1순위로 꼽아, 염불(18.8%), 절(5.6%) 등보다 월등히 높았다. 2순위 수행법으로는 '염불(32.3%)', 3순위는 '사경(17.0%)'으로 선택했으며, 이 가운데 요즘 많이 하고있는 '절 수행(12.4%)'이 수행법 선호도에서는 사경보다 밀려 눈길을 끌었다.

죽음준비 프로그램 '임종교육' 선호
하고싶은 수행, 참선→염불→사경順

 # 임종준비 '방법 모른다' 44.8%

응답자 44.8%가 '임종 준비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모른다'로 답해, '준비하고 있다(22.5%)', '준비하고 있지 않다(29.0%)'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나 임종준비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 죽음 준비 여부와 이에 따른 죽음 서비스 선호도의 경우, 30대를 기점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죽음을 준비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20대 응답자 46.9%와 30대 응답자 44.0%가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반면, 40대부터 60대 이상은 응답자 10명 중 5명 정도가 '필요성은 느끼지만 구체적인 방법으로 모른다'고 답했다.

이 중, '구체적인 임종 준비 방법을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544명)를 포함,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896명)'는 응답자들이 원하는 죽음 준비 프로그램으로는 연령대와 상관없이 모두 '임종교육'을 첫 번째로 꼽았다. 연령대별로는 호스피스(25.9%), 재가보호 서비스(17.5%) 등이 고르게 20%대 안팎의 비율로 집계됐다. 또 죽음 서비스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17.6%가 '모르겠다', '관심 없다(6.8%)' 등으로 나타났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100세 시대’ 불자 의식 설문

[기본설문] 전체 1,215명(100%)
Q1. 성별 : ①남자 340명(27.9%) ②여자 875명(72.1%)
Q2. 나이 : ①20대 130명(10.7%) ②30대 223명(18.4%) ③40대 367명(30.2%) ④50대 336명(27.7%) ⑤60대 이상 156명(12.8%) 무응답 2명(0.2%)
Q3. 지역 : ①서울 663명(54.1%) ②경기권 170명(14.0%) ③경남권 69명(5.6%) ④경북권 105명(8.6)% ⑤충청권 44명(3.6%) ⑥전라권 85명(7.5%) ⑦강원권 42명(3.5%) ⑧제주권 37명(3.1%)
Q4. 직업 : ①일반 회사원 145명(11.9%) ②공무원 48명(4.0%) ③자영업 100명(8.2%) ④주부 518명(42.6%) ⑤전문직 137명(11.3%) ⑥무직 77명(6.3%) ⑦기타 190명(15.7%)
Q5. 기대 수명 : ①49~55세 8명(0.7%) ②60~64세 16명(1.3%) ③65~70세 207명(17.0%) ④71~75세 141명(11.6%) ⑤76~80세 501명(41.2%) ⑥81~85세 101명(8.3%) ⑦86~90세 107명(8.8%) ⑧91~95세 4명(0.3%) ⑨96~100세 51명(4.2%) ⑩101세 이상 10명(0.9%) 무응답 69명(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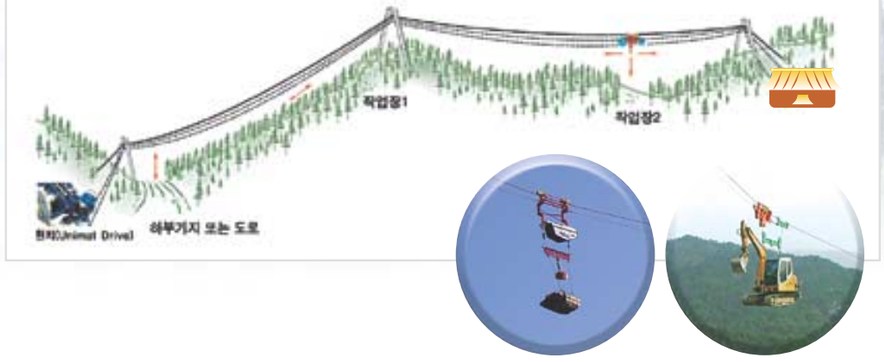
[노후대비 현황]
[설문 I] 현재 노후 대비를 하고 있는가?
①한다 791명(65.1%) ②안 한다 419명(34.5%) 무응답 5명(0.4%)
[설문 I]에서 노후 대비를 '한다'고 답한 경우
1. 노후 대비는 어떻게? (2개 복수선택)
①부동산 투자 130명(8.2%) ②저축 305명(19.3%) ③금융권 투자상품 102명(6.4%) ④퇴직연금 160명(10.2%) ⑤국민연금 266명(16.8%) ⑥보험 284명(18.1%) ⑦기타 34명(2.2%) (부동산 임대 5명 등) 무응답 : 298명(18.8%)
2. 노후 대비 월 소득 지출비율은?
①10% 미만 187명(23.6%) ②10~20% 미만 276명(34.9%) ③20~30% 미만 181명(22.9%) ④30~40% 미만 58명(7.3%) ⑤40~50% 미만 34명(4.3%) ⑥50% 이상 39명(4.9%) 무응답 16명(2.1%)
3. 노후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
①실버타운 · 요양시설 160명(20.2%) ②정신적인 귀의처 마련 198명(25.0%) ③자원봉사를 통한 회향 111명(14.0%) ④일자리 등 경제적 자립 181명(22.9%) ⑤취미 건강 여가 프로그램 114명(14.4%) ⑥기타 0명 무응답 27명(3.5%)
[설문 I]에서 노후 대비를 '안 한다'고 답한 경우
1. 노후 대비를 하지 않는 이유?
①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244명(58.2%) ②노후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아서 99명(23.6%) ③지금으로 충분해서 39명(9.3%) ④기타 16명(3.8%) 무응답 21명(5.1%)
2. 노후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
①실버타운 · 요양시설 73명(17.4%) ②정신적인 귀의처 마련 108명(25.8%) ③자원봉사를 통한 회향 34명(8.1%) ④ 일자리 등 경제적 자립 131명(31.3%) ⑤취미 건강 여가 프로그램 48명(11.5%) ⑥기타 3명(0.7%) 무응답 : 22명(5.2%)

[요양시설]
[설문 II] 불교계 노인복지시설의 인지 여부
①안다 435명(35.8%) ②모른다 769명(63.3%) 무응답 11명(0.9%)
[설문 II]에서 불교계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안다'고 답한 경우
1. 어떤 불교계 노인복지시설을 아는가? (복수응답)
①실버타운 121명(13.9%) ②수행공동체 87명(10.0%) ③노인복지센터 235명(27.0%) ④요양시설 139명(16.0%) ⑤노인그룹홈 13명(1.5%) ⑥기타 2명(0.2%) 무응답 : 275명(31.6%)
2. 이용한다면 어떤 시설을 선택하겠는가?
①실버타운 114명(26.2%) ②수행공동체 135명(31.0%) ③노인복지센터 95명(21.8%) ④ 요양시설 33명(7.6%) ⑤노인그룹홈 14명(3.2%) ⑥기타 1명(0.2%)(사찰) ⑦이용할 의향이 없다 20명(4.6%) ⑧모르겠다 21명(4.8%) 무응답 3명(0.6%)
3. 가장 우려되는 점은?
①시설이 열악할 것 같다 208명(47.8%) ②너무 종교적이다 54명(12.4%) ③배우자의 반대 17명(3.9%) ④자녀와 떨어져서 사는 것 59명(13.6%) ⑤신뢰할 수 없다 28명(6.4%) ⑥관심 없다 29명(6.7%) ⑦기타 25명(5.7%) (우려되지 않는다 10명 등) 무응답 15명(3.5%)
[설문 II]에서 불교계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경우
1. 향후 어떤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가?
①실버타운 277명(36.0%) ②수행공동체 243명(31.6%) ③복지관 70명(9.1%) ④요양시설 38명(4.9%) ⑤노인그룹홈 45명(5.9%) ⑥기타 1명(0.1%) ⑦이용할 의향이 없다 33명(4.3%) ⑧모르겠다 48명(6.2%) 무응답 14명(1.9%)
2. 가장 우려되는 점은?
①시설이 열악할 것 같다 371명(48.2%) ②너무 종교적이다 112명(14.6%) ③배우자의 반대 26명(3.4%) ④자녀와 떨어져서 사는 것 73명(9.5%) ⑤신뢰할 수 없다 37명(4.8%) ⑥관심 없다 64명(8.3%) ⑦기타 33명(4.3%) (우려되지 않는다 20명) 무응답 53명(6.9%)

[수행 · 불교공부]
1. 노후에 하고 싶은 '1 순위' 수행법은?
①참선 751명(61.8%) ②염불 229명(18.8%) ③간경 41명(3.4%) ④주력 23명(1.9%) ⑤절 68명(5.6%) ⑥사경 59명(4.9%) ⑦기타 12명(0.9%) (봉사 4명 등) 무응답 32명(2.6%)
2. 노후에 하고 싶은 '2 순위' 수행법은?
①참선 131명(10.8%) ②염불 392명(32.3%) ③간경 128명(10.5%) ④주력 43명(3.5%) ⑤절 102명(8.4%) ⑥사경 129명(10.6%) ⑦기타 2명(0.2%) (봉사 2명) 무응답 288명(23.7%)
3. 노후에 하고 싶은 '3 순위' 수행법은?
①참선 96명(7.9%) ②염불 161명(13.3%) ③간경 152명(12.5%) ④주력 99명(8.1%) ⑤절 151명(12.4%) ⑥사경 206명(17.0%) ⑦기타 20명(1.6%) (봉사 2명) 무응답 330명(27.2%)
4. 출가 의사
①하겠다 151명(12.4%) ②출가는 아니더라도 단기출가라도 하고 싶다 400명(32.9%) ③ 안 하겠다 438명(36.0%) ④모르겠다 195명(16.0%) 무응답 31명(2.7%)

[임종 준비]
1. 죽음 준비 여부
①준비하고 있다 273명(22.5%) ②필요성은 느끼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모른다 544명(44.8%) ③준비하고 있지 않다 352명(29.0%) ④기타 21명(1.7%) 무응답 25명(2.0%)
2. 죽음 서비스 선호도
①호스피스 315명(25.9%) ②재가보호 서비스 213명(17.5%) ③임종교육 350명(28.8%) ④모르겠다 214명(17.6%) ⑤관심 없다 83명(6.8%) ⑥기타 13명(1.1%)(죽음에 연연하지 않는다 5명) 무응답 27명(2.3%)

깊은 산속, 사찰 불사 운송비 걱정 끝!
자연 훼손 없이 자재, 작업기구 운송 - 기존 운송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도로가 없는 험준한 산악, 다리가 없는 강 건너 등 운송비용 부담으로 불사를 하지 못했던 사찰에 자연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도 불사 자재, 기구등을 안전하게 운반합니다.

■ 불사자재 및 기구 운반


생 산 성 : 최고의 운반속도(15m/sec). 최고의 운반중량(20톤/회). 신속한 설치, 해체(설치 2주이내, 해체 5일 이내). 연속운전 가능
안 전 성 : 완벽한 브레이크시스템(3중 시스템). 간편한 조작기능. 정밀한 운전. 단순한 설비. 80년 이상의 사용실적
범 용 성 : 산악, 험준한 지형등 지형여건에 구애받지 않음. 대규모 사찰 신축 및 개축 불사
환경보호 : 어느 지형조건에서도 최적 설치(환경훼손 최소화). 지형에 적합한 설치로 산림보호 최우선. 민원을 유발하지 않는 설치

아직도, 사찰 필수품을 고비용으로 운반하십니까?
사찰에서 항시 사용하는 물품을 한번 설치로 언제든지 영구적으로 자동 운송합니다
도보로 운반하던 사찰 필수품(생활용품, 난방연료, 스님 용품 등)을 한번설치한 기구로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자동으로 사찰까지 운반합니다. 자연훼손 및 민원 없이 설치 가능하며 수일이내 설치하여 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 사찰 필수품 운반


사용대상 : 도로가 없어 도보로 물품을 운반하는 산속 사찰
용 도 : 사찰 필수품 등 1회 500kg이하의 경량물 자동 운송
특 징 : 운송장비 자체의 구동장치에 의한 이동. 한번 설치로 영구사용. 간단한 설치 및 해체 가능. 수일이내 설치가능

(주)한성에스티 Hansung S.T Co., Ltd 서울 강남구 포이동 163, 영화빌딩 201호 전화 02)574-9504(代) 팩스 574-9769 / 홈페이지 www.hansungst.com
스위스 위센장비 80년 노하우로 한성에스티가 모든 안전 및 책임을 보증합니다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며, 불사관련 견적을 바로 알려드립니다

“공동체 수행하니 심신 건강”

10년째 원당암서 안거수행 일송 · 대인행 부부



함께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일송거사(왼쪽)와 박대인행 보살 부부. 이들에게 사찰은 삶을 마무리 짓는 회향처이자 정신적 귀의처다.

“청산림(靑山林) 깊은 골에 일간토굴(一間土窟) 지어 놓고/ 송문(松門)을 반개(半開)하고 석경(石徑)에 배회(徘徊)하니/ 녹양춘삼월하(綠楊春三月下)에 춘풍이 건듯 불어/ 정전(庭前)에 백종화(百種花)는 처처에 피었는데/ 풍경(風景)도 좋거니와 물색(物色)이 더욱 좋다.”

“가끔 나옹 선사의 ‘토굴가’를 생각하며 행복에 잠깁니다. 꼭 지금의 내 생활이 이와 같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죠. 허허허.”

합천 해인사 원당암(감원 원각)의 재가선방 달마선원에서 동안거 결제에 들어간 노부부의 말이 예사롭지 않다. 70년 세월을 말해주는 백발과 주름은 여느 노인과 다를 바 없지만 밝은 웃음과 훤한 얼굴빛은 가야산 골짜기 겨울바람을 만난 듯 서늘하고 싱그럽다.

12월 17일, 회색 법복을 정갈하게 차려 입고 겨울 가야산 설경 속에 모습을 드러낸 주인공은 일송 거사(73)와 박대인행(70)보살이다. 본명 밝히기를 한사코 거절하는 노부부는 10년 전부터 원당암 달마선원에서 하안거 · 동안거를 지내며 노후를 보내고 있다. 대구에 있는 집에는 안거 사이사이 방학처럼 잠시 다녀올 뿐, 그들에게는 원당암이 집이다.

“20여년 넘게 저희 부부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혜암 스님께서는 생전에 늘 ‘이 세상에서 할 일은 마음공부밖에 없다’고 강조하셨지요. 그래서 언젠가는 마음공부에만 매진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지요. 나이가 들어서라도 그 꿈을 이루게 됐으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새벽 3시 기상 하루 8시간 참선
석달 1인당 50만원이면 충분
도반들과 서로 돕고 격려 ‘큰 힘’
화두 놓치지 않고 가길 바랄뿐

자녀 3남매가 모두 장성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본 후 노부부는 마지막 여생을 수행으로 회향하기 위해 달마선원을 찾았다. 하지만 산골짝 수행도량에서의 생활이 노부부에게 힘겹지는 않을까?

“너무 좋습니다. 방 따뜻하고 공양 정갈하고… 무엇보다 게을러지고 무료해 질 수 있는 생활이 공동체 수행으로 질서가 잡히니 정신이 맑아집디다. 건강에 좋은 것은 물론이구요.”

마음의 고향에 안착한 노부부의 생활은 새벽 3시에 시작된다. 저녁 9시 취침에 들기 전까지 노부부는 하루 4번 2시간씩, 8시간의 참선 정진시간을 갖는다. 쉬는 시간에는 산책도 하고, 개인 빨래도 하는 등 자유롭게 보낸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이어지는 생활이 그들에겐 더 할 수 없는 행복이다.

게다가 생활비 부담도 적다. 물론 원당암에서 수행자를 위해 배려를 해주기 때문이지만, 3개월 있는동안 1인당 50만원만 안거비로 내면 된다.

특히 수행공동체에서의 생활은 24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행하는 것으로 일관되기에 복잡하게 살아왔던 그동안의 삶과는 너무나 다르다. 그러기에 노부부는 더 이상 시끄러운 도심 생활에 미련이 없다. 만약 집에서 노후를 보냈다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TV를 보거나 이웃들과 모여 앉아 남의 험담을 예사로 하며 지내게 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녀들 역시 수행으로 삶을 마무리하겠다는 부모 생각에 적극 찬성했다. 일송 거사는 “공기 좋고 물 맑은 산사에서 마음 편히 수행하며 지내니 자식은 부모 걱정 없고, 부모는 자식 걱정 없어 자리이타(自利利他)”라고 설명했다.

탐진치(貪嗔癡)를 비우는 수행도량이다 보니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불자가 도반이 되어 서로 격려하고 돕고 지낸다는 점도 일반 노인시설과 다른 큰 차이점이다. 언젠가 노인전문요양소에서 거동조차 불편한 노인끼리 다투는 모습을 목격했던 대인행 보살은 수행도량에서 노후를 보내며 남을 배려하게 된 것이 더없이 감사하다.

대인행 보살은 노년기에 접어든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런 수행생활을 권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수행 경험이 없는 초보 불자들은 참선 정진을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따라서 대인행 보살은 젊은 시절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의 습(習)을 익혀놓을 것을 권한다. 일송 거사 역시 “젊을 때 생업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마음의 기둥이 되는 것은 마음공부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합천 해인사/글 · 사진=배지선 기자

수행으로 삶 회향

2003년 현재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남자 73.9세, 여자 80.8세라는 통계청 자료가 발표됐다. 10년 전인 1993년과 비교하면 남자는 5.11년, 여자는 4.02년씩 평균수명이 증가했다.

그렇다면 이 늘어난 ‘수치’는 무엇을 의미할까? 단순한 ‘수명연장’이라는 의미 외에도 늘어난 노후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도 함께 깊어짐을 알 수 있다.

여기, ‘불교’를 통해 노후를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전국의 재가선원에서 안거에 들어 참선에 매진하거나, 뜻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공부모임을 꾸리고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나가는 불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젊어서는 경제적 · 시간적 이유로 선뜻 택하지 못했던 ‘깨달음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른 이들을 만나본다.

전국 재가선원 · 시민선방

노년을 수행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불자들이라면 재가자를 위한 시민선방을 찾아보자. 수행법과 깨우침의 길을 일러주는 선지식과 도반이 있는 곳이라면 정법(正法)을 찾는 길이 훨씬 수월할 것이다. 전국 50여 재가선원과 시민선방을 소개한다.

서울 공생선원 (02)900-2448 / 금강선원 445-8484 / 길상사 시민선방 3672-5945 / 도선사 993-3161/ 묘심선원 523-8005 / 미타사 2262-4736 / 법련사 733-5322 / 법왕정사 456-0035 / 보리수선원 517-2841 / 봉은사 시민선원 511-6070 / 불광사 불광선원 413-6060 / 선학원 732-3327 / 안국선원 732-0772 / 임제선원 888-6397 / 전등사 전등선림 762-0643 / 조계사 732-2183 / 화계사 시민선방 902-2663
부산 고심정사 (051)464-0068 / 법왕정사 583-7886 / 안국선원 583-0993 / 우곡선원 740-6288 / 정오사 469-5597 / 통도사 부산포교원 시민선방 816-2241 / 혜원정사 원돈선원 866-7771
대구 보현사 보현선원 (053)431-5400 / 염불선원 782-0120 / 영남 불교대학 관음사 474-8228
대전 무상사 (042)841-6084 / 학림사 오등시민선원 825-0515 / 무상사 841-6084
경기 남양주 봉선사 (031)527-5974 / 수원 공소사 시민선방 246-1001 / 안성 도피안사 676-8700 / 양평 법일정사 771-7745 / 일산 무상선원 903-9628 / 용화사 보살선원 (032)872-6061
충청 갑사 선방 (041)857-8981 / 대자암 857-5800 / 용화사 557-2129
전라 광주 자비신행회 (062)231-2733 / 석탄사 (063)538-1268 / 전남 보광사 381-4242 / 전북불교대학 226-7878 / 홍련암 263-6072
경상 울산 학성선원 (052)271-5352 / 영남 불교대학 관음사 감포도량 (054)771-8350 / 영주 부석사 633-3464 / 밀양 표충사 대흥선원 (055)352-1150 / 양산 통도사 취운선원 383-6479 / 창원 안국선원 231-0772 / 합천 해인사 원당암 달마선원 963-9551 / 합천 해인사 백련암 932-7300 / 홍제사 황령선원 963-9551
제주 남국선원 (064)733-2278

“노년기 四苦 참선으로 해결”

불교공부모임 이끄는 김종서 박사

서울 길상사 길상선원에서 불교공부모임을 이끌며 노후를 보내고 있는 前 대통령 교육개혁위원회 자문위원 김종서(82) 박사. 그는 8년째 매일 참선과 다도 그리고 경전을 공부하며 ‘불교식 노후’를 즐기고 있다. 고위 관료와 교수 등 사회 주요 요직을 거친 후 경제적 여유를 갖추고 있는 그가 이렇게 절에서 노후를 보내며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행이 가장 좋은 노후대비’라고 말하는 김종서 박사의 참선수행 모습.

8년째 매일 참선 · 다도 · 경전공부
병苦 역할상실苦 등 저절로 없어져
“‘불교식 노후’ 준비하려면
젊어서부터 절 다니며 불심 쌓아야”

김 박사는 “불교공부모임이 노년기에 겪는 네 가지 어려움 즉 ‘병고’ ‘생활고’ ‘역할상실고’ ‘고독고’를 근본적으로 치유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노인이 되면 근육과 장기가 쇠해져 몸이 자주 아프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것은 당연지사. 하지만 시간 날 때 마다 절에 나와 108배와 참선, 염불 등에 몰입하다 보면 신체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김 박사는 권한다.

또 노인정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거나 지하철을 타고 하루 종일 방황하는 노인들에게 이 같은 공부 모임은 정신건강을 챙기는데도 안성맞춤이다. 도반들과 함께 공부모임을 가짐으로서 소속감과 자신감을 키우는 것은 물론 서로 공부를 점검하며 한 차원 높은 정신적 성숙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평생을 함께 살아 온 부부의 경우 배우자 한 쪽이 먼저 죽게 되면 이로 인한 고독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하지만 도반들과 함께 불교를 공부하며 마음을 추스르다보면 안정을 찾게 되고 서로가 서로의 효자손이 돼 가려운 등을 긁어주는 따뜻한 인간미도 느낄 수 있다.

김 박사는 “인간의 삶은 앞으로의 설계도를 그리는 청소년기와 직업을 가지고 경제력을 축적하는 활동기 그리고 삶에 대한 반성과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는 노년기로 나눌 수 있다”며 “특히 노년기엔 종교를 가지고 생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피력한다.

다시 말해 이 모임의 화두인 ‘이 뭣꼬’를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 성찰과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참구로 바꿔 생각하며 삶을 정리를 하는 시기로 보는 것이다.

덧붙여 김 박사는 “젊어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 · 보험 · 연금 등을 들듯 사회적 · 심리적 · 정신적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불교식 노후’를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꾸준히 절에 다니며 기본적인 불교적 소양을 익히고 꾸준히 불심(佛心)을 축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글 · 사진=노병철 기자

謹賀新年 佛紀 2550年
丙戌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제 9교구본사 동 화 사
조실 진제 법원
주지 일응 지성
부주지 수 성
총 무 선 광
기 획 상 원
교 무 삼 현
재 무 법 경
사 회 대 법
포 교 일 진
호 법 법 혜
금당선원 선원장 정봉 지환
승가대학 강 주 원허 지운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TEL 053)982-0101~2 / FAX 053)985-4405
홈페이지 www.donghwasa.net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銀 海 寺
주 지 중화 법타
부주지 선 광
총무국장 하종 기획국장 보명
교무국장 본명 재무국장 연암
사회국장 적연 포교국장 법광
호법국장 선조
승가대학원장 지안
연 수 원 장 혜해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97 15 TEL 054)335-3318 ~ 9 / FAX 054)335-0293
홈페이지 www.eunhae-sa.org

행복한 노후 어디가 좋을까?

노인인구의 증가 추세가 심상치 않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6년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20%를 넘게 된다. 즉 인구 5명 당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회 변화 속에서 불교계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본지 설문 조사 결과 불자들이 불교계 복지시설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교계에는 어떤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불교계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를 점검했다. 또 노인들이 아름다운 회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자리와 자원봉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다.

불교 노인복지시설 현황과 방향

최근 실버타운 6곳 잇따라 설립
시설내 법당 운영, 신행활동 도와
日선 4~5명 함께 사는 그룹홈 인기
미래 노인복지 주거형태로 부상

1998년 5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이후 민간 자본으로 실버타운을 건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실버타운 건립이 활성화되고 있다. 실버타운이란 건강이 대체로 양호한 노인들이 한 건물에서 함께 살면서 의식주를 해결함은 물론 여가, 취미활동까지 즐길 수 있는 주거 공간이다. 노년기 인구의 증가, 그리고 '누구나 늙는다'는 보편타당의 원리, 행복한 만년을 보내고 싶다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실버산업의 한 종류로 등장한 것이다.

이런 사회적 추세에 맞춰 2000년 이후부터 불교계에서도 불자들이 여생을 회향할 수 있는 실버타운 설립에 뛰어 들고 있다. 현재 불교계에는 성라불국토, 태양실버타운, 천불사 부모은중선원, 연꽃마을 등 6개의 실버타운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태고종 사회복지재단에서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 위치한 태양실버타운(원장 이숙인, 031-585-6696)의 경우, 한달 생활비가 30~70만원으로 이용료가 저렴한데다 텃밭도 있고, 게이트볼 등의 레포츠까지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또한 회원들의 건강상태나 심리 · 정서 등을 고려한 맞춤식 운영으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어르신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또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에 있는 성라불국토(원장 정인자, 031-585-3323)의 경우도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전원생활을 즐기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인근 숲을 이용한 삼림욕장과 산책로, 유기농으로 과수 · 채소 재배단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성라불국토의 큰 장점이다.

이밖에도 경기도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매곡리 천불사 부모은중선원(원장 보원, 055-365-1463)은 월회비와 별도의 관리비 없이 운영되는 시설로 부산과의 인접성과 대규모 병원과의 연계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대구시 동구 덕곡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살선원(원장 효진, 053-983-3677)은 리모델링을 통해 현대 노인들의 욕구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들 불교계 실버타운의 중요한 특징은 시설 내에 법당을 따로 마련해 불자들의 만년 신행활동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스님들이 함께 살고 있어 노년의 정신적 귀의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것이 노년층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보살핌 안에서 삶을 정리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줘 불교계 실버타운에 대한 불자들의 선호도를 높이는 이유다.

그러나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고 불자들의 노년 생활을 책임지기에는 현재 건립된 불교계 실버타운의 숫자가 너무 적다. 의료경영전문 회사 플러스클리닉의 2004년 조사에 따르면 주거노인복지시설, 즉 실버타운은 불교계 시설을 포함해 전국에 약 50여개 안팎이다. 현재 건립 중인 시설들을 고려할 때 점점 늘어나는 추세기는 하지만 현재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노인복지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하지만 실버타운이 무조건적으로 미래 노인복지 주거 형태로 맹신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지완 스님은 "실버타운은 시장경쟁 원리로 고령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대규모화, 상업화 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며 "실버타운 보다는 5명 안팎의 노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룹홈'이 미래 노인 시설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룹홈의 경우,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에서 현재 널리 시행하고 있는 제도. 부양할 사람이 없는 노인들을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살게 하고, 상근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를 1명 두어 노인 케어를 일반 가정집과 최대한 가깝게 하는 제도다.

그룹홈은 대규모 시설에 비해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으나 널리 퍼지지는 못했다. 그룹홈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홍보 · 체제 구축 미비 등이 그 이유다. 김강진 기자



실버타운에서는 다양한 레포츠 활동도 가능하다. 청평 태양실버타운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즐기고 있다. 사진제공=청평 태양실버타운



성라불국토에 마련된 서예실. 사진제공=가평 성라불국토

불교노인복지 맞춤서비스가 핵심

앞으로 불교계는 노인복지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현재까지 양적 팽창에 주력했다면, 이제 노인들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소득에 따라, 주거 형태에 따라, 욕구에 따라 노인 케어 서비스를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무료 양로 시설과 요양시설, 의료 서비스 지원 등이 필수적인 반면 중산층 이상은 만년의 귀의처를 찾고, 실버타운과 같이 편안하게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복지 형태가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맞춤서비스로 가고 있음에 따라 소규모 자체 시설을 많이 마련하는 것도 과제다. 앞서 언급했던 그룹 홈의 경우, 노인 세대만으로 구성할 것인지 3세대 통합형이 더 바람직한지 불교사회복지 연구소 등을 활용한 전반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룹홈에 적합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 모델을 설정해서 충분한 관심과 검토를 거친 후,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해야 실패 확률이 줄어든다. 그룹홈이 차세대 주거복지 형태로 각광받고는 있지만 아직 그 연구 실태는 미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단에서는 불교노인복지사업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과 본 · 말사 간의 전달체계 정비는 물론 예산 지원 등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노년층이 여유로운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에 거점을 둔 사찰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 · 놀이 · 봉사' 취향따라 고르세요

1995년 인구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77.3%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노년층 대다수가 '집'을 주요 자산으로 꼽고 있고, 자가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앞으로 시설 입소 노인이 늘어날 추세지만, 재가 노인들의 비율도 절반 정도는 유지될 전망이어서 재가노인들을 위한 불교계의 끊임없는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불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가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재가 노인복지프로그램

불교계에서는 서울노인복지센터 내에 마련돼 있는 노인취업훈련센터가 대표적이다. 노인취업훈련센터에서는 노년 활동 전문 연구소인 '활기찬 미래 연구소'를 통해 산출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정기적 취업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훈련은 서예 훈장, 일본어 강사 등 교육형 일자리에서부터 주유원, 도우미직, 환경미화원까지 다양하다.

또 서울 성북노인복지관의 노인일자리 사업도 눈여겨볼 만하다. 성북노인복지관은 노인건강도우미, 숲생태해설, 구연동화가 등을 양성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꾸준히 진행한다.

취미 살리고 건강 돌보고

거주지가 정해져 있는 노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이다. 여기에는 전국에 있는 노인종합사회복지관들이 대표적이다. 불교계에서는 약 30여개의 노인복지관 및 시니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중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준비해 재가 노인들을 기다리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노인복지관 서비스는 건강 상담실 및 체력단련실 이용이다. 노년층 건강 진단 및 유지는 필수기 때문이다.



나이는 봉사활동의 장애가 될 수 없다. 사진은 침술봉사를 통해 삶의 보람을 얻는 한 봉사자의 모습.

이 밖에도 거동이 가능한 재가노인들은 복지관에서 컴퓨터 영어 등의 기능을 습득할 수도 있고, 노래교실 등을 통해 예능적인 지식을 획득할 수도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들을 위해서는 밑반찬 배달 서비스, 세탁 · 목욕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각 복지관마다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달라질 수 있다. 지역 노인들의 욕구 조사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일하고 싶어요

이제 노년기 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도 점차 크게 대두되고 있다. 노년기가 되어도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노년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노인들이 일자리를 통한 소득 보장이 되지 않을 경우, 노인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으로 보람찬 생활

봉사는 나누는 삶의 넉넉함으로 노년기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나이를 먹어서 어떻게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불자들의 봉사활동 현장을 살펴보면 60대 이상 노년층 봉사자의 숫자가 적지 않다. 봉사활동 현장에서 노보살들의 헌신적인 봉사는 타 봉사자들의 귀감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노인들끼리 봉사 모임을 만들거나, 복지관에서 봉사대를 발족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탑골인, 은평노인복지회관 은빛 봉사단이 대표적인 예다.

이런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면 가까운 지역 노인복지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노인복지관 안내부터 간단한 거리 청소, 문화 계도 캠페인, 사찰과의 연계를 통한 문화재 설명, 생태계 설명 등 노인들이 봉사할 거리는 다양하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 노인자원봉사자 안내 기관

단체	주소	전화번호
서울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02)739-9501
서울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성북구 종암1동	(02)929-7950
서울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02)385-8205
조계종사회복지재단자원봉사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라이온스 빌딩	(02)723-0131
정토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정토회관	(02)587-8990
천태종 사회복지재단	서울 강남구 관문사	(02)575-3467
천수천안자원봉사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남빌딩	(031)969-0108
대구 남구자원봉사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동	(053)473-1199
자비신행회	광주광역시 동구 (구)지원초등학교	(062)234-2732

謹賀新年 佛紀 2550年

丙戌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서울 실상선원 1000日 영가 천도법회 봉행
◆순국선열 천도대제 봉행

현재접수중

약사 제일 영험도량 실상선원
봉사와 무료복지관이 있는 천축사
기도성취도량 용암사

선원장 성환
주 지 무타자운
총 무 곽동훈

대중일동

■ 실상선원 서울 성북구 성북동 93번지 02)745-8503
■ 천 축 사 대전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041)734-2680
■ 용 암 사 경북 청송군 현동면 월마리 산 49-3 054)873-3607

‘웰다잉’ 인식 확산 … 불교계 아직도 무관심

불교계 ‘죽음준비’ 현황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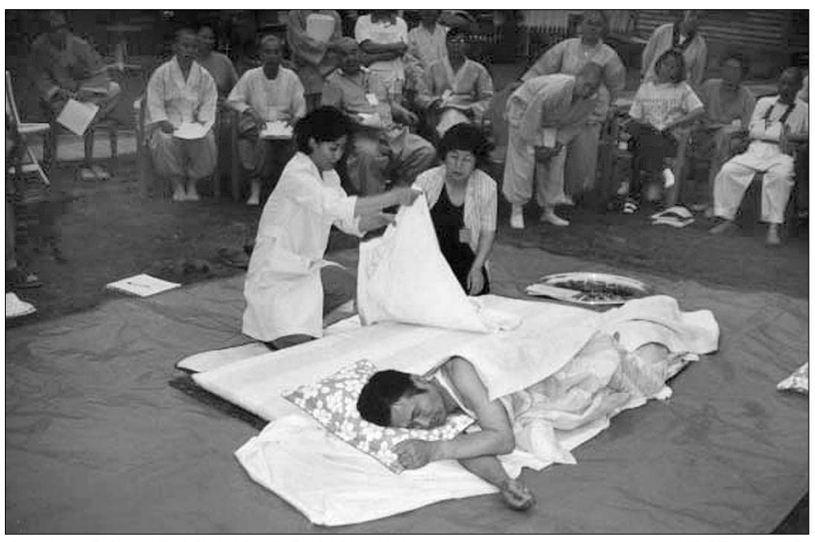
‘죽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무의식적으로 금기시해온 죽음이 이제는 삶의 한 과정으로 간주되고 있다. ‘잘 산다는 것은 잘 죽는다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늘고 있다. 이를 위해 강조되는 것이 죽음 준비다. 자신과 가족의 죽음을 미리 대비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이고, 죽음에 대한 성찰을 통해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온 말이 웰다잉(Well-Dying)이다.

불자들의 의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 본지가 1215명의 불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100세 시대-불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3%가 죽음준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한 응답자는 20~30대에서 50%대에 머물렀지만, 40대 69.5%, 50대 73.2%, 60대 80.8%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죽음준비를 필요로 하는 비율이 높았다.

美 · 日선 죽음준비 교과과정 개설
국내 호스피스기관 88% 기독교계
죽음교육 선교차원서 잇따라 도입
불교계 시설 적고 교육 산발적

이처럼 많은 불자들이 죽음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아는 이들은 의외로 적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죽음준비를 원하는 응답자의 3분의 2 가량이 구체적인 방법을 모른다고 답해 이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 미네소타 대학에 ‘죽음의 준비과정’이라는 교과가 개설된 것을 시작으로 1970년대 들어 전국에 1100여개 과정이 개설됐고, 초 · 중등 교과서에도 반영됐다. 일본도 삶과 죽음 교육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2005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호스피스교육 참가자들이 환자간호요령을 실습하고 있다. 사진제공=정토마을

이에 반해 죽음준비라는 개념조차 낯선 한국에서는 교과과정 반영은 아직 기대하기 어렵다. 종교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호스피스와 죽음준비교육이 확산되는 추세에 만족해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불교계는 이조차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 등록된 80여개의 호스피스 기관 가운데 87.5%가 기독교계 기관과 병원이다. 불교계 호스피스 양성교육은 불교계 유일의 독립형 호스피스 시설인 청원 정토마을을 필두로 양산 통도사 자비원, 보성 대원사, 서울 수효사, 대구 관음사 영남불교대학, 불교자원봉사회 등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종단차원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천태종이 유일하다.

절대 다수의 호스피스 기관이 기독교계에 속해있다 보니, 기독교인 자원봉사자가 훨씬 많이 배출된다. 봉사현장에서는 기독교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불교계의 10배가 넘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임종을 맞는 불자가 불자 호스피스의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다.

불교계의 열세는 죽음준비교육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기독교의 경우 1991년 각당복지재단 산하에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를 발족시키면서 죽음준비교육을 이슈화 한 이래, 죽음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또 개별 교회 차원의 죽음준비교육도 활발해 지난해만도 서울 금호교회, 평화성결교회 등에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교회들도 죽음준비교육을 앞다퉈 도입, 선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불교계에서는 죽음준비에 대한 논의조차 활발하지 못하다. 프로그램으로는 조계사가 수탁관리하고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죽음프로그램 이외에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이웃과 후손을 위한 생명나눔캠페인’(2002년) ‘아름다운 흔적 자서전 쓰기’(2003년) ‘보살생과 서원으로 여는 내생’(2004년) 등을 마련한 바 있다.

보성 대원사는 템플스테이에 죽음교육을 접목했다. 대원사는 지난 해 템플스테이 주제를 ‘죽음을 준비합시다’로 정하고, 사후 49일간을 미리 겪어보는 바르도 체험과 임종염불 등을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좋은 호응을 받았다.

이처럼 불교계의 죽음준비 관련 활동이 산발적인 수준에 머무는 이유에 대해 권경임 한국종교사회복지포럼 회장은 “죽음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불교계의 인식이 미흡한데다, 불자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불교계 병원이 적다는 데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죽음은 당사자나 주위 가족에게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종교적인 순간임을 감안할 때, 호스피스의 보살핌은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주는 계기가 된다. 실제로 보살핌에 감동해서 개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게 볼 때 불교는 포교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불교 본연의 자비정신 실천이나 불교적 방식의 중생구제 기회를 놓친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다.

대원사 현장 스님은 “기독교의 호스피스 활동은 진실에 의한 접근이라기보다 신앙으로 유도하는 것인데, 생사해탈의 지혜가 풍부하게 담겨 있는 불교가 기독교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불교적인 호스피스,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관심과 방법 개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 호스피스 교육기관

‘정토사 관자재회’ 대표적 … 종단차원은 천태종 유일

호스피스(hospice)는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위안과 안락을 베푸는 봉사활동이다. 호스피스 봉사의 수혜자는 임종을 앞둔 환자와 보호자 가족들뿐이 아니다. 한국호스피스협회에 따르면 호스피스 봉사자는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도 삶의 보람과 서로에 대한 이해, 불우이웃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교육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호스피스 교육에서는 호스피스의 개요에서부터 죽음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법, 신체적 돌봄, 말기 암 진단과 최신 동향, 사별 가족 관리, 환자 관리, 스트레스 관리, 감염 및 안전 관리, 호스피스 대상자와의 영적 상태와 대처 방안, 호스피스 대상자의 사회심리적 상태와 대처 방안 등을 배우게 된다.

불교계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재)정토사관자재회, 천태종 사회복지재단, 통도사 자비원, 수효사 효림원 복지대학 등이다.

불교계 최초의 독립형 호스피스 시설 정토마을을 운영하는 (재)정토사관자재회(043-298-2258)에서 주최하는 불교전문호스피스 교육은 1995년 첫 교육이 시작된 이래 매해 두 차례 이상 이어지고 있는 전문 교육이다. 7박8일 동안 24개 호스피스 전문과목과 임상 · 이론을 겸한 전문인력을 집중 교육한다. 제22기 불교전문호스피스 교육은 2006년 1월 15~22일 진행된다.

천태종 사회복지재단(02-575-3467)은 2002년부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해 3년 동안 기본교육 수료자 671명, 심화교육 수료자 410명을 배출했다. 호스피스 봉사자로 이뤄진 니르바나봉사단을 운영하는 등 연중 교육을 통해 호스피스를 양성하고 있다.

통도사 자비원(055-381-2005)은 2002년 제1기 호스피스 교육을 시작한 이래 현재 7기까지 230여명의 호스피스를 배출했다. 올해는 2~3월경에 호스피스 교육을 준비 중이다.

수효사 효림원 복지대학(02-313-2398)의 호스피스 과정은 2004년 시작돼 2기까지 양성했다. 2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호스피스 교육은 2~3월경 3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불안감 달래주고 편안한 임종 도와요”

■ 호스피스 홍보대사 김명자씨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호스피스에 대한 요청이 많아 무작정 뛰어들었지요.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지만 교육 받고 싶어도 처음에는 불교계에서 호스피스 교육하는 곳을 알 수가 없었어요.”

자원봉사 교육을 받고 병원에서 봉사하면서 호스피스 활동을 하게 된 김명자(55)씨. 호스피스로 봉사한지 어느덧 10여 년이 훌쩍 넘었다. 봉사하면서 체계적인 교육에 목말라하다가 만난 것이 사회복지법인 서울 수효사 효림원에서 운영하는 복지대학이었다. 김씨는 2004년 수효사 복지대학 1기 호스피스로 교육받았다.


환자 응대법 등 전문교육 받아야

“3개월 동안 호스피스의 자세, 행동요령, 마음가짐 등을 전문가들에게 배우면서 환자를 긍정적이고 밝게 대하는 법을 터득했어요. 교육받지 않고 호스피스 활동을 하게 되면 환자의 감정에 따라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일이 많아요. 호스피스는 중심을 지키고 환자의 감정을 조절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죠.”

무방비로 자원봉사 하는 것과 비교해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봉사하는 것은 한 단계 높은 차원이라고 지적한 김씨는 “호스피스는 종교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해드릴 수 있고, 불자라면 꼭 교육을 받고 환자의 마지막 길을 같이 해드리는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호스피스 홍보대사를 자처했다.

서울아산병원, 경희의료원, 동대 강남병원 등에서 호스피스 활동을 했던 김씨는 요즘은 일산 동대병원과 여의도성모병원에서 봉사하고 있다. 가톨릭계 병원인 여의도성모병원에서 불자 환자들이 불교 호스피스를 원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호스피스는 환자의 육체적인 고통 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사후에 대한 불안감 등을 잘 달래 편안한 마음으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저희 호스피스가 할 일이죠.”

글=강지연 · 사진=박재완 기자

謹賀新年 佛紀 2550年

丙戌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 국 사

회 주 성타 주지 종상

학 장 덕 민
선원장 종 우
부주지 관 우
총 무 장 주
기 획 종 근
교 무 종 천
재 무 정 문
사 서 신 행
교 육 보 명
문 화 기 형
신도회장 변영우

부설기관
불국사 문화회관
불국유치원
성림 어린이집
경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대 중 일 동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 TEL 054)746-9912~4 FAX 054)746-1476

대한불교조계종 제 25교구 본사
봉 선 사

조 실 월운 해룡
회 주 밀운 부림
주 지 설산 철안

연수원장 수월 재무국장 혜만
총무국장 가산 사회국장 현봉 능엄학림 대중일동
기획국장 송묵 포교국장 화해 사 무 장 이희준(법운)
교무국장 경산 호법국장 연흠 회 계 이영미(일진행)

나만의 법당 www.bongsunsa.net (한글도메인:봉선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55번지
TEL 031)527-1951~3 FAX 031)527-8568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추위가 기승을 부린 12월21일 인사동 문화마당에서 팥죽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왼쪽에서 두번째)과 김의정 중앙신도회장(왼쪽에서 네번째) 등이 팥죽을 젓고 있다.

이웃과 함께 하는 '작은설' 동지

'원화소복' 팥죽 먹으며 밝은 새해 기원

遠禍召福

동짓날 전후해 전국사찰 이웃과 함께하는 행사 다채
삼광사·선재동자원, 시민·독거노인 등에 팥죽 공양
달력 선물 풍습 아직도…방생하며 생명사랑 되새겨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설' 동지. 예부터 총림 대중 스님들은 이날 아침 '동지법회'를 봉행하고 한해의 삶을 돌아보는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동지법회'는 부처님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지난 잘못을 참회하고 새해의 소원을 비는 행사.

동지는 사찰에서 여름결제인 '결하(結夏)', 여름결제의 해제인 '해하(解夏)' 등과 함께 '총림 4절'로 지켜졌다. 특히 젊은 스님들은 이날 은사스님을 찾아뵙고, 그 동안의 가르침에 대한 감사인사로 한해를 회향했다.

불자들에게 동지는 주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날이다. 불자들은 광명과 지혜를 상징하는 붉은 팥죽공양을 이웃들과 나누며 부처님 가피로 모든 악귀를 몰아내기를 바라는 '원화소복(遠禍召福)'을 기원했다.

초순에 동지가 들면 그 해는 '애기 동지'라 하여 절에 가서 팥죽을 먹고 돌아오는 풍습이 있었다. 불교는 민간풍습인 동지를 수용해 새로운 전통을 형성하고 그 의미를 심화시키는 역할까지 해 왔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민속명절인 12월 22일 동짓날을 전후로,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과 불자들이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과 따듯한 이웃 사랑의 마음을 나누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사찰과 신도회 등은 일제히 동지불공을 봉행한 후 붉은 팥죽을 써서 주변 이웃들과 나누고 달력을 선물하는 시간을 가졌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내 주변을 둘러보는 마음의 여유를 통해 새해 한해를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다.

아동보육시설인 선재동자원(원장 지산)은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12월 20일 저녁부터 팥 6가마니, 찹쌀 12가마니를 마련해 4000인분의 팥죽을 만들어 독거노인, 영세민, 장애인아파트 거주자, 소년소녀 가장에게 전달했다.

올해로 15년 째 '동지 팥죽 나눔'을 통해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지산 스님은 "우리 시설이 좀 어렵더라도 불자들이 보내준 보시금으로 인근 어르신들에게 팥죽 한 그릇이나마 대접해 드리며 한해를 회향하는 자리"이라며 활짝 웃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는 12월21일 서울 인사동 문화마당에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동지의 의미를 생각하는 팥죽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포교원장 도영 스님, 국회의원 박진, 맹형규 의원 등이 팥죽을 끓이고 배식을 하는 역할을 했다.

도영 스님은 "동지에 먹는 팥죽은 새로운 '밝음'을 상징하는 만큼 많이 드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으시라"고 덕담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팥죽나누기 외에도 액운을 물리치기 위해 팥죽을 뿌리는 벽사의식과 풍물공연 등도 함께 진행돼 흥을 돋우었다.

부산 삼광사(주지 도원)는 지름 4.64m 높이 70㎝의 쇠솥에 팥죽을 끓였다. 이를 위해 삼광사 신도 5000여명은 동지 하루 전날부터 밤새 새알을 빚었다. 또한 4만5000여 명 분량의 팥죽을 만들기 위한 재료만도 맵쌀 34가마, 새알을 위한 찹쌀 17가마, 팥 24가마가 소용됐다.

또한 삼광사는 21일 저녁 설법전에서 동지예술제를 열고 살풀이, 어린이 가야금 병창, 남도 민요, 합창단의 찬불가 공연 등을 펼치고 이날 저녁부터 팥죽을 끓여 함께 나눠먹으며 한해를 마무리 했다.

청도사암연합회(회장 덕현)는 동지를 앞둔 12월 20일 '동지팥죽무차만발공양'에 나섰다.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도 12월 22일 대구시민들과 팥죽먹기 행사를 개최하고, 23일 합천 용문사 뒤 악견산에서 비둘기와 참새 등을 방생하는 조류방생기도를 봉행했다. 이날 법왕사 불자들은 오후불식으로 한끼 식사분의 음식을 모아 산짐승의 먹이로 보시하며, 부처님의 생명사랑을 되새겼다. 영남불교대학 경산도량(주지 대륜)은 윷놀이로 화합을 다졌다.

손가락 '따주기 봉사'로 유명한 서울 수효사(주지 무구)는 12월 15일 관내 독거노인 200여 명에게 팥죽을 대접했다. 수효사는 21일 저녁 불자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동지팥죽을 만들기 시작, 22일 동지법회가 끝난 후 인근 충정로 동사무소와 경찰서에 전달하기도 했다.

글=강유신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동지 행사 이모저모



서울 수효사 주지 무구 스님이 요양중인 어르신들과 함께 새알을 빚고 있다.



이동보육시설인 선재동자원은 팥 6가마니, 찹쌀 12가마니로 4000인분의 팥죽을 준비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 동지는

동지는 일 년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다. 12월을 동짓달이라고 할 정도로 동지는 12월의 중심이다.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동지를 작은설, 즉 다음 해가 되는 날이란 의미로 '아세(亞歲)'라 했다.

고대 주나라와 당나라 등은 동지를 설로 잡고 한해 달력의 시작으로 삼았기 때문에 요즘도 동지를 전후로 달력을 선물하는 풍습이 남아있다.

팥죽을 나눠먹는 풍습은 불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황룡사에서 신라 선덕여왕을 만난 '지귀'라는 귀신을 달래기 위해 팥죽을 써서 공양을 했다는 이야기 등 팥죽과 불교에 관한 많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조계사 사회국장 범성 스님이 농성중인 사회단체 관계자들에게 팥죽을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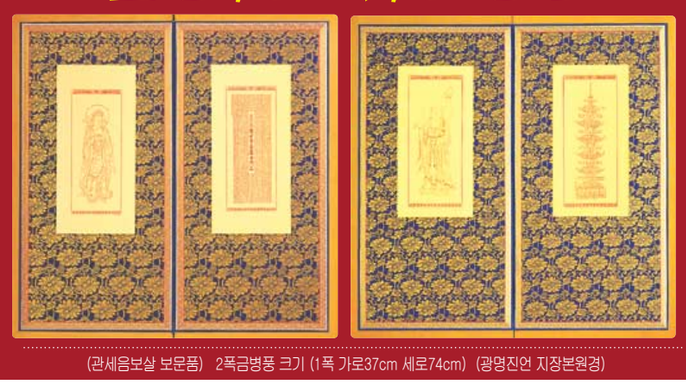


대구 영남불교대 경산도량 불자들은 윷놀이를 하며 화합을 다졌다.

불경, 금책, 금병풍



실물크기(3.5×5cm, 5×7cm)
금강경 24매 · 천수경 12매 · 반야심경 8매



(관세음보살 보문품) 2폭금병풍 크기 (1폭 가로37cm 세로74cm) (광명진언 지장본원경)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호신용 소장용 영가천도

금강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의 99.9%순도의 금으로 만든 초소형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여 화제다. 불경금책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등이 있으며 3.5×5cm 5×7cm 7×10cm 크기로 있어 소장 및 휴대가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한다. 불경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한다. 소법당,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기도정진 재례용 등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한 최고급 금병풍(관세음보살보문품, 광명진언 지장본원경)도 제작 판매한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722-1850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약돌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산 뱃속 깊숙이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능과 34개의 쑥뜸을 동시에 시술받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아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이신분에게 적극권장 · 아랫배가 냉하신 분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생명의 빛 生命의 氣

원적외선 "침" 쑥뜸의효능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다용도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며 저렴한 가격의 은행석 온열복대 사용으로 건강을 지키고 암과 질병 등을 예방하고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謹賀新年 佛紀 2550年

丙戌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사단법인 한국불교 미륵종

종 정 운허 연화

중앙교육원장 덕 운　　총 무 원 장 송 정
산악회회장 월 산　　비구니회회장 동 성

서울교구종무원장 영 탄　　경기교구종무원장 천 명
충청교구종무원장 혜 초　　경북교구종무원장 도 성
울산교구종무원장 도 신　　경남교구종무원장 지 은
대구교구종무원장 왕 인

총무원 서울 은평구 구산동 211-11 / 전화 02)351-3679
법인사무실 경남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900 / 전화 055)345-4741

(사) 한국불교 미륵종 미 륵 산 악 회

고 문 윤송정
회 장 월 산
총 무 혜 연

회 원 일 동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2리 255번지
전화 : 031)593-9718

(사)한국불교 미륵종
비구니회

회 장 동성
부회장 청하 해화
총 무 혜연
재 무 혜법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300-60
전화 : 051)531-0478

(사)한국불교 미륵종
종정예하 주석사찰
진신사리 보궁도량 대 인 사

조 실 운허 연화
주지서리 학 송
신도회장 이금용(보광)

신 도 일 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659
전화 : 055)375-2076~7

(사)한국불교 미륵종
총무원장 주석사찰
관 음 정 사

주 지 윤송정

신 도 일 동

경남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900
전화 : 055)345-4741

(사) 한국불교 미륵종
미륵산악회장 주석사찰
대 원 정 사

회 주 월 산
주 지 무 명

신 도 일 동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2리 225번지
전화 : 031)593-9718

(사)한국불교 미륵종
비구니회 회장 주석사찰
옥 선 사

주 지 동성

신 도 일 동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동 300-60
전화 : 051)531-0478

(사)한국불교 미륵종
서울교구 종무원장 주석사찰
붓다선원

주 지 영 탄

신 도 일 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2동
233-22 충호빌딩 7층
전화 : 02)953-8780

(사) 한국불교 미륵종
경기교구 종무원장 주석사찰
천 도 사

주 지 천명

신 도 일 동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27-378
전화 : 031)565-4620

(사) 한국불교 미륵종
충청교구 종무원장 주석사찰
목 련 사

주 지 혜 초

신 도 일 동

충북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138
전화 : 043)832-5164

(사)한국불교 미륵종
울산교구 종무원장 주석사찰
성 불 암

주 지 도신

신 도 일 동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40-1
전화 : 052)295-2986

(사)한국불교 미륵종
경남교구 종무원장 주석사찰
문복정사

주 지 지은

신 도 일 동

경남 창원시 신월동 68-1 41/2
토월상가 421호
전화 : 055)263-6565

(사)한국불교 미륵종
천 도 암

주 지 해일

신 도 일 동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242
전화 011-352-8413, 011-9556-8413

(사) 한국불교 미륵종
현 통 암

주 지 혜 도
신 도 일 동

경남 밀양시 무안면 죽월리 440
전화 : 055)356-7879

(사) 한국불교 미륵종
불 연 사

주 지 법 천
신 도 일 동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305-2
전화 : 043)232-5447

35억년전 탄생한 인류 미래식량

스피루리나

바다보다 8배 짠 미얀마 트윈탕 분화구 호수 서식

뇌파 안정 효과…미얀마 정부, 스님 200명 무상지원



자연산 스피루리나가 서식하는 미얀마 트윈탕 소금호수 전경. 250만년 전에 화산폭발로 이루어진 분화구.



스피루리나 코리아가 미얀마 정부와 독점 계약으로 올해 초부터 수입 · 판매하고 있는 '라이프 내츄럴 스피루리나'.

35억년전에 탄생한 최초의 광합성 생명체인 '스피루리나(Spirulina)'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나사(NASA)에서 미래식량과 우주식량으로 지정된 미생물이다.

국내에서도 80년대부터 인공배양으로 상업화에 성공해 현재 8개 업체가 경쟁중이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은 중국 하이난섬과 태국 사이암, 캘리포니아 어스라이즈, 하와이 등지에서 양식한 스피루리나 원료분만을 가지고 만든 제품이라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바다보다 8배 짠 소금 호수인 미얀마 트윈탕 분화구 호수에 살고 있는 스피루리나는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세계 유일의 자연산으로서 미얀마 정부의 통제하에 엄격하게 생산되고 있다.

스피루리나코리아는 올해 미얀마 수도 양곤과 서울 두 곳에 법인을 세우고 독점으로 자연산 염호의 풍부한 영양소를 먹고자란 스피루리나를 영양 보조식품으로 만든 '라이프 내츄럴 스피루리나'를 출시했다. 아직 정식 시판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일부 한정 판매 하는데 벌써부터 인기가 폭발적이다.

특히 뇌파와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신체의 기능을 조화롭게 해줘 참선을 많이 하는 스님들에게 건강보조식품으로 안성마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미얀마에서는 스피루리나를 먹고 건강을 되찾은 아심 나니시라 스님(종정급)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정부에서 직접 매월 2백여명의 한정된 스님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스피루리나를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 아심 스님은 "스피루리나는 스님들의 채식생활로 인해 부족한 아미노산,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등을 공급해 줘 수행생활의 필수 요소인 고도의 정신세계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힌바 있다.

스피루리나 문종철 사장(42)도 "스피루리나에는 단백질 함량이 60%에 달하고 12종의 비타민과 18종의 아미노산이 들어있다. 또한 철분도 시금치보다 50배 높고 베타카로틴이 당근보다 10배 많이 들어 있다"며 채식을 하는 스님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어 문사장은 스피루리나가 불교와 인연이 깊다고 설명한다. 미얀마 트윈탕 소금 호수에 가면 수백년전에 조성된 스투파(탑)들이 여러개 있는데 미얀마 정부가 그중에 하나에서 의미심장한 비문을 발견했다고 한다. "생명의 근원이 있는 곳 영원하리라"라는 문구였다. 이 문구를 미얀마 정부에서는 옛날 미얀마 불교의 선지식들이 앞을 내다보고 지구상 최초의 미생물인 스피루리나가 후세 사람들의 무명장수를 위해 중요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스피루리나의 성능은 NASA(미항공우주국)에서 우주선에 승선하는 우주인의 비상식량으로 채택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어 UN(국제연합)과 WHO(세계보건기구), FDA(미국식품의약국),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등에서 인류의 미래식량으로 지정한바 있다. 가격 3개월분 18만8천원

www. spirulinakorea.com, (02)2235-8849

스피루리나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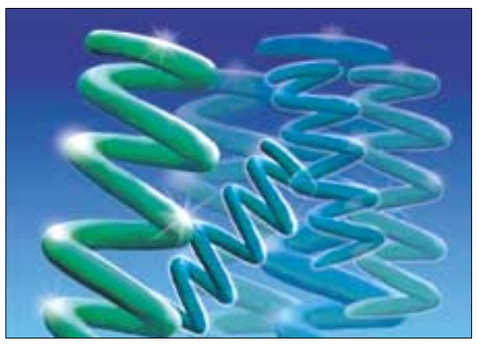
지구상 최초의 생명체 최고의 완전식품

스피루리나는 지구에서 가장 먼저 생긴 생물체이다. 지구의 나이 40억년에서 5억년을 뺀 35억년이 스피루리나의 나이. 20억년의 나이를 먹은 클로렐라에게는 '증조 할아버지' 뻘이다. 식물성 동물성 해조류 박테리아의 성격을 띤 플랑크톤인 스피루리나는 사이아노 박테리아 또는 청색 미세남조류의 원핵 다세포 미생물이다.

용수철처럼 생긴 모양에서 비롯된 '스피루리나'라는 이름은 '나선형(Spiral) 모양을 하고 있는 미생물'이라는 의미다. 스피루리나는 호수 주변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식품으로 이용됐으며 16세기 아즈텍인, 마야인들의 주식이었다.

스피루리나의 생육환경은 혹독하다. 바닷물보다 6~7배 더 높은 소금함유량(10~20%), 기온 40℃와 수온 32~42℃의 고온, PH9~11의 강알카리성의 조건에서 자란다.

스피루리나는 필수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녹색의 완전식품이다. 특히 단백질과 녹황색 야채가 가지고 있는 영양성분이 풍부한 고단위 천연 엽록영양소가 많다. 인체에 필요한 5대 영양, 49가지 영양소를 비롯해 2~3만여 종류의 영양소가 함축되어 있다. 각종 성분이 인체와 거의 같은 비율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막이 없어 체내 소화흡수율이 95% 이상이다. 그래서 소화기능이 약화된 환자, 노약자, 유아 등이 섭취하면 효과가 크다. 장기간 복용해도 영양 불균형을 일으키지 않는 강알카리성 완전식품이다.



DNA 이중 나선구도와 흡사한 나선형의 스피루리나.

스피루리나의 뛰어난 효능은 다양한 곳에서 발현된다. 우선 체지방 분해에 탁월해 다이어트식품으로 각광받는다. 거기에 변비와 갱년기 지연 효과까지 있어 여성들에게 더욱 좋다.

스피루리나를 복용하게 되면 칼슘 및 철분 섭취가 쉬워진다. 때문에 빈혈 신경통 류머티스 골다공증 치료에도 효능을 보인다. 노화 방지 암 예방에 좋은 스피루리나는 면역기능을 항진시키고, 항암제의 부작용을 억제한다. 암의 전이와 AIDS 바이러스 및 고혈압 억제, 당뇨에도 효과가 좋다.

스피루리나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안정성과 영양면에서 완전식품으로 UN(세계연합), WHO(세계보건기구), FDA(미국식품의약국)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식품이다. 우주선 승선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NASA(미국항공우주국)에서 결정한 식품이다.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서 인류미래식량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스피루리나의 연구 연혁

1827년	독일 해조류학자 투르핀에 의해 스피루리나로 명명.
1970년	UN FAO(유엔식량농업기구)가 인류의 미래식량으로 권장.
1976년	WHO(세계보건기구)가 미래식량으로 지정.
1980년	UN FAO(유엔식량농업기구)가 인류의 미래식량으로 지정.
	UN IDO(유엔공업개발기구)가 인체의 영양과 안전성을 인정.
1986년	미국 NASA는 폐쇄상태에서의 효과적인 식량 및 산소공급계로 지정.
	US NCI(미국국립암연구소)는 AIDS 바이러스 억제효과 및 면역증진효과 발표.
1989년	US NCI(미국국립암연구소)는 항암 및 AIDS 바이러스 감소효과 발표.
1990년	미얀마 트윈탕호수에서 자연산 스피루리나 생산.
1991년	IO(국제해양학회)가 기아에 대비할 식량원 선정.
1993년	WHO(세계보건기구)가 스피루리나를 인류의 안전한 미래식량으로 지정.
1996년	미국FDA(미국식약청) 안전성 기준시험 합격.

중앙일보 제12735호 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27

"스피루리나, 당뇨에 효험" 인슐린 저항성 개선

남조류의 일종인 스피루리나가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유용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열린 대한내과학회 학술대회에서 허내과 허갑범 원장은 " 2형(성인형) 당뇨병 환자 50명에게 스피루리나를 하루 세 번(2g씩) 3개월 제공한 결과, 인슐린 저항성의 지표인 분당(分當) 혈당 감소율이 복용 전 1.64%에서 복용 후 2.33% 개선됐다"고 밝혔다.

분당 혈당 감소율은 인슐린을 주사한 뒤 혈당이 1분당 몇 %나 떨어지나를 보여주는 수치.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 혈액 내에서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당뇨병의 기준이 된다. 일반적으로 분당 혈당 감소율이 2.5% 이하면 당뇨병의 판단기준인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스피루리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말류로 체내 흡수율이 높아(95%) 먹으면 거의 모든 영양소가 몸안에서 이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이 연구에서 스피루리나를 복용한 그룹은 혈관 건강에 유익한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복용 전 50.3(㎎/㎗)에서 53.1로 높아졌고, 혈관 건강에 해로운 중성 지방 수치는 189.9(㎎/㎗)에서 172.1로 감소했다. 연구팀은 또 배 부위의 지방 두께가 복용 전 49.4㎜에서 41.6㎜로 줄어든 것도 의미 있는 결과로 해석했다.

이와 달리 스피루리나를 복용하지 않은 다른 10명의 당뇨병 환자에게선 인슐린 저항성,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지방 두께에서 이렇다 할 개선이 없었다.

허 원장은 "스피루리나의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55~70%)이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허기증을 없애주며, 기운이 나게 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국내 당뇨병 환자의 대다수가 단백질 섭취 부족 상태인데 스피루리나가 이를 보충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 tkpark@joongang.co.kr

섭취 방법

성인(고교생 이상)–성인의 일반적인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1일 6~9정(3~4.5g)을 하루 2~3회 나눠서 섭취. 스피루리나를 아침식사 대용으로 할 때는 좀 많은 양의 생수와 함께 섭취.

초~중학생–성인보다 조금 적은 1일 4~6정(2~3g)을 하루 2~3회 나눠 섭취. 영양이 많이 필요한 성장하는 나이이므로 더 많이 먹어도 무방.

초등생 이하–어린이 기준으로 성인의 절반 수준인 1일 3정(1.5g) 정도의 스피루리나 섭취가 적당. 어린이의 경우 정제 섭취가 불편하면 정제를 적당히 분쇄해 우유나 요구르트 미숫가루 등과 혼합해 섭취.

유아(3세 이하)–1일 2~3정(1000㎎~1.5g)을 1일 2~3회 나눠 섭취하거나 분쇄해 분유 · 이유식 등에 첨가 섭취.

선진국의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에너지, 건강 유지, 체중 조절 그리고 몸의 정화를 위해 스피루리나를 섭취한다. 식간이나 식사 전후에 다른 음식과 상관없이 스피루리나를 이용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

스피루리나는 운동선수에게 더 많은 지구력과 에너지를 준다. 노인에게는 더 좋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임산부나 수유기의 산모, 아이들에게 이상적으로 안전한 식품이다.

1.휴대하기 편한 낱알 포장 형태로 언제든지 집에서, 일하면서, 이동하면서 사용.

2.건강한 하루를 위해 아침에 마시는 맛 좋은 과일 또는 야채주스에 가루형태로 만든 스피루리나를 섞어서 마시면 진정한 웰빙생활의 선구자가 된다.

음용 방법

‘학교위상 낮다’ 83.3% … 졸업생 절반만 신행활동

본사-동국대 총동창회 공동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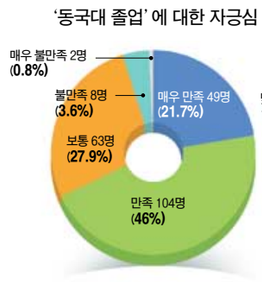
불교대학 · 불교대학원 졸업생 226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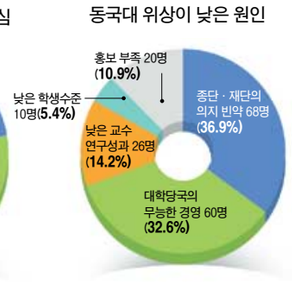
동국대 불교대학 및 불교대학원 졸업생들은 2006년 개교 100주년을 맞는 모교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대학본부의 경영능력 부족’ ‘재단내부의 다툼’ ‘종단의 무관심’을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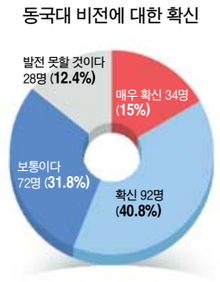
본사와 동국대 총동창회가 12월 5일부터 20일까지 불교대학과 불교대학원 졸업생 1000여명을 대상으로 ‘동국 100년 한국불교 100년’이라는 주제로 우편 및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26명(출가자 58명, 재가자 168명)의 응답자가 이같이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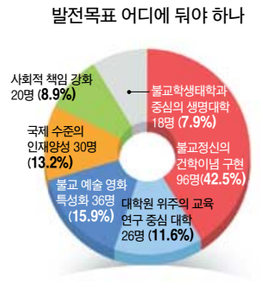
응답자중 현재 동국대의 위상이 낮다고 보는 원인을 묻는 질문에 출가자의 31.0%와 재가자의 39.2%는 대학본부의 경영능력 부족’을, 출가자의 27.6%와 재가자의 32.1%는 재단내부의 다툼을, 출가자의 31%와 재가자의 20.2%는 종단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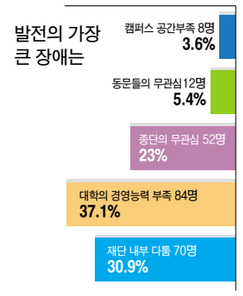












■ 위상 낮지만 자긍심은 높아

응답자의 83.3%인 184명은 한국사회에서 동국대의 위상이 ‘낮다’고 평가했다. 학교 위상이 높다는 응답은 42명(18.6%)에 불과했다. 학교 위상이 ‘높다’는 응답은 출가자의 24.1%(14명)인 것에 비해 재가자는 16.7%인 28명으로 비슷했다. 출가자의 75.9%인 44명이, 재가자는 83.3%인 140명이 ‘낮다’고 답했다. 위상이 낮은 원인에 대해 종단과 재단의 의지빈약 36.9%(68명), 대학당국의 무능한 경영 32.6%(60명), 낮은 교수 연구성과 14.2%(26명), 홍보부족 10.9%(20명), 낮은 학생수준 5.4%(10명) 순으로 꼽았다.

출가자들의 41.1%인 18명이 대학당국의 무능한 경영을, 재가자의 41.4%인 58명은 종단과 재단의 의지빈약을 위상저하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동국대의 위상이 높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출재가를 막론하고 ‘불교계 종립학교이기 때문 54.7%(23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응답자들은 동국대를 졸업한데에 대한 자긍심은 높아 매우만족(21.7%) 만족(46%) 보통(27.9%) 불만족(3.6%) 매우불만족(0.8%) 순이었다. 출가자는 42명인 72.5%가, 재가자는 110명인 65.6%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 재단의 안정과 종단지원 필요

동국대 발전을 위해 우선 해결과제로 재단의 안정(29.1%, 66명)과 종단의 지원(19.5%, 44명), 제 3캠퍼스등 교육여건 확충(18.6%, 42명), 적극적 홍보와 학교의 위상 강화(18.6%, 42명) 구성원들간의 화합(14.2%, 32명)등을 꼽았다.

출가자들은 구성원들간의 화합(25.9%, 12명)을, 재가자들은 재단의 안정(32.1%, 54명)을 1순위로 선택했다.

동국대 발전을 위한 불교 역할에 대해서는 27.5%(62명)가 재정적 기여, 23%(52명)가 대학경영에 자율성부여, 21.2%(48명)가 불교정신이 함양된 인재양성을 우선순위에 올렸다. 출가자들의 20.6%(12명)가 졸업생들의 사회 · 불교계 일자리 알선을 꼽은 반면 재가자들의 29.8%(50명)는 재정적 기여라고 진단했다.

동국대 발전의 가장 큰 동력으로는 불교계의 지원(38.9%, 88명), 경찰행정 · 연극영화 등 학문 특성화(27.5%, 62명), 왕성한 동문들의 지원(20.4%, 46명)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 건학이념 구현이 발전묘책

동국대 불교대의 학부 및 대학원 졸업생들의 55.8%(126명)는 학교가 발전할 수 있다는 비전이 있다고 확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졸업생들은 동국대의 비전에 대해 ‘매우 확신한다(15%, 34명)’, ‘확신한다(40.8%, 92명)’, ‘보통(31.8%, 72명)’이라고 응답했다.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12.4%(28명)에 불과했다. 비전 확신에 대해 출가자 (48.3%, 28명)보다 재가 졸업생의 57.2%(96명)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 학교의 발전목표를, 불교정신의 건학이념 구현(42.5%), 불교 및 예술등 특성화(15.9%), 국제수준의 뛰어난 인재양성(13.2%), 대학원 위주의 교육 연구중심대학 전환(11.6%)을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 졸업생 종교 변화없어

한편 동국대 불교대학 재가 졸업생들은 현재 45.2%(76명)가 불교 신행활동(신도회, 사찰봉사)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42.8%(72명)는 기회가 될 때만, 12%(20명)는 신행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학 졸업 후 97.6%(164명)는 종교의 변화가 없으며, 배우자의 종교는 84.5%(142명)가 같다, 15.5%(26명)가 다르다고 답했다.

종단 · 재단 의지빈약 · 내부 다툼 발전 저해 요인
‘구성원간 화합 통한 안정’ 시급한 과제로 꼽아
발전 동력, ‘불교계 지원’ ‘특성화된 학문’ 順
‘동국대 졸업 자랑스럽다’ 67.7%, ‘미래 밝아’ 55.8%

김원우 · 유철주 기자

기본 분류 문항(응답자 특성표)

1.성별 ①남 162(71.6%) ②여 64(28.4%)
2.나이 ①20~29세 26(11.6%) ②30~39세 34(15.0%) ③40~49세 44(19.5%) ④50~59세 54(23.9%) ⑤60세이상 68(30.0%)
3.직업 ①회사원 23(10.2%) ②공무원 7(3.0%) ③자영업 26(11.6%) ④종교인 62(27.5%) ⑤전문직 38(16.8%) ⑥예술가 0(0.0%) ⑦무직 24(10.6%) ⑧기타 46(20.3%)
4.출 · 재가여부 ①출가 58(25.6%) ②재가 168 (74.4%)
5.현재의 종교 ①불교 224(99.2%) ②원불교 ③개신교 ④가톨릭 ⑤유교 ⑥민족종교 ⑦무교 2(0.8%) ⑧기타

謹賀新年 佛紀 2550年
丙戌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재)명원문화재단



이사장 김의정

임 원 일 동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1-272 전화 02)730-7191 ~ 2 / 팩스 02)736-6332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상표등록 : 614981호
의장출원 : 제35872

수제화로 제작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방한용 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기능성 지압 깔창


• 규격 : 215-290mm(크기에 따라 조절가능) • 가격 : 20,000원

좋은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011-9000-5715
(보시용으로 10족이상 주문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제품을 받아보시고 구입결정 송금하세요

역사정립, 자긍심 높인다

5월 8일 기념일 … 100년사誌 편찬 · 학술대회 등
건학 기여 남 · 북한 16개 본사에 기념비 건립

동국대 100주년 기념사업 무엇이 있나?

올 5월 8일 동국대(총장 홍기삼)가 역사적인 건학 100주년을 맞아 '뿌리다지기'와 열매가꾸기 불사에 나선다.

100주년 기념사업회사업본부(본부장 조의연)는 올해 4 · 5 · 6월을 전후로 7개 분야 40여건의 기념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추진될 개교기념 사업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1906년 '명진학교' 개교에 앞장섰던 16개 '중법산(中法山 · 오늘날의 교구 본사)'에 대한 재조명이다. 우선 남한지역의 송광사 금산사 용주사 마곡사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동화사 월정사 봉선사 봉은사 11곳에 기념비를 세운다. 또 북한지역의 보현사 신광사 유점사 석왕사 귀주사 5곳에서도 방북법회 봉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지역 건학기여 사찰에 대한 방북법회는 남북 당국의 정책적 조정을 거쳐야 하는 탓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역사정립을 위한 '100년사誌' 편찬과 '자랑스러운 동국인'도 선정한다. 뿐만 아니라 정문 앞 상징조형물 설치, 경주 100주년 기념관 기공 등 대형불사를 비롯해 불교학 관련 10여건의 학술대회와 총서편찬도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대외협력팀 윤동규 팀장은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동국대가 100주년을 맞았다는 것은 현대사적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올해 추진될 동국대 100주년 기념사업들은 국민들과 불자들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많은 기념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동국대 구성원들의 노력과 많은 기업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특히,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전반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도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국대는 지난해 11월 23일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각계 동문들과 동국가족 10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두드림(Do dream)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동국대는 대학의 마스터플랜을 공개하고 2010년까지 100년 동국의 희망과 비전을 끌어 모으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100주년 기념 주요사업

건학이념 구현 △남한 건학기여 사찰기념비 건립 △북한 건학기여 사찰 방북 법회 △전통등 전시회 △100주년 기념 수계 대법회

100년 역사정립 △100년사 편찬 △100년 사료 전시회 △자랑스러운 동국인 선정 △타임캡슐 봉안 건립 △서울캠퍼스 정문 상징조형물 설치 △경주 100주년 기념 본관건립(2007) △경주 민자 기숙사 건립(2007)

학술(편찬) 행사 △건학정신과 불교교육의 근대화 학술세미나(불교대학) △지식기반사회와 불교생태학 국제학술대회 △우리말 불교개념사전 · 불교생태학총서 · 석전 박한영 전집 · 동국시인절창 · 박물관도록 발간 △동국파워엘리트 양성 프로젝트(2007)

기념행사 △건학 100주년 기념식 △100주년 열린음악회 △박물관 소장 유물 특별전 △시화전

홍보 · 모금 △기념우표발행 △홍보영화제작 △미래 캠퍼스 모형전시



동국대의 전신인 '명진학원'의 이름을 딴 명진관과 동국대 상징인 흰코끼리상.

동국대 발전을 위한 제언

우리의 무대는 세계

류주형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장)



우리 동국대가 올해 건학 100년을 맞이한다.

1906년, 불교 선각자들이 교육과 학문연마로 구국하겠다는 일념으로 삼보의 정재를 모아 동국을 열었던 때로부터 올해가 1세기가 되는 것이다.

나 스스로도 이렇게 역사적인 해에 20만 동문을 대표하는 총동회장을 맡고 있다는 것은 여간 부담스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서울토박이인 나는 1957년 동국대 농학과를 마치고 61년에 대학원 석사까지 마쳤다. 인생의 가장 젊고 꿈 많았던 시절인 20대 초중반을 목멱산(남산)자락에서 평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동국인이라는 자부심을 키우며 살았다. 지금 나 역시 70살을 넘긴 나이지만 불교와의 인연에서부터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동국대가 아니었으면, 나 불자들에게 적지 않은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해가 갈수록 과거 명문사학으로서의 위상은 퇴색해 가고 침체와 무기력이 사지를 짓누르는 듯하다.

하지만 우리는 무수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세계 속에 우뚝 설 동국대학교를 위해 우리 동국인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민족 사학인 동국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우리 동문들과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한다. 학교 구성원들만의 축제가 아닌 동국인들과 불자들, 그리고 일반 사대부중이 동국 100년을 축하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동문 불자 한뜻으로 학교발전 논의할때
100년 전통 뿌리삼아 건학이념 꽃피울 것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렇기에 나를 낳고 길러 준 부모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내가 있게 만든 모교 동국대에 대한 애정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한다.

돌이켜보건대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국의 역사는 한마디로 탁류를 몰아내고 청파를 끌어들이는 격탁양청(激濁揚淸)의 역사였다.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독립을 꿈꾸는 젊은 인재들의 요람이었고, 4 · 19를 비롯해 유신독재에 항거하는데도 늘 선봉에 앞장서왔다. 아직도 정치 경제 문화 곳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문들의 결집력은 어려웠던 시기에도 끈끈한 신뢰와 동지애로 선 · 후배간의 유대를 키워왔던 까닭이다.

건학 100주년을 맞은 올해는 이러한 '동국의 맥(脈)'을 전 세계로 힘차게 뻗어 나가야 할 때다. 지금까지 동국의 역사를 정(靜)의 역사라 한다면, 앞으로의 동국은 동(動)의 역사가 되어야 한다. 요즘은 하루가 과거 10년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우리 한반도에서가 아닌 세계를 무대로 경쟁을 해야 하는 시기다. 그러나 최근 모교의 모습은 동문들이 둘째, 모든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 우리의 교훈인 섭심, 신실, 자애, 도세를 바탕으로 자리행과 이타행을 실천할 수 있는 동국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배들에 대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야한다. 우리 총동창회는 장학기금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셋째, 동국대의 총동창회관 건립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총동창회관 건립은 몇몇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20만 동국인과 불자들, 일반 대중들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넷째, 동국인 개개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개인의 발전을 이루면 이것이 모여 우리 동국의 발전이다. 모두가 동국대라는 이름 아래 사회와 우리나라 발전의 밑거름이 돼야한다.

2006년의 동국은 사고의 혁신과 과감한 변화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발전시키는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을 권한다.

남이 아닌 나, 내가 먼저 100주년을 맞는 동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준비할 때 모교는 물론 한국불교의 앞날이 밝게 열릴 것이다.

丙戌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財團法人 世界佛教法王廳 平和財團

World Buddhist Supreme Tathagata Followers Peace Foundation. Inc

總務總正 湟井 羅明國 理事長 曇華 李存榮 後援會長 許珍





● 재 단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76번지 귀빈빌딩 5층 전화 02)3216-3216 / 팩스 02)379-7676 / 인터넷 Wbstf.com
● 법왕청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송리 448번지(법왕청) 전화 031)377-1081 / 팩스 031)376-1081

謹賀新年 佛紀 2550年

丙戌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선 덕 사
주 지 행 법
신도회장 임연지
부설 선덕유치원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 2동 572-1
TEL 062)263-4660

대한불교조계종
신라고찰 봉서사
사부대중일동
■ 경북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 764
TEL 054)859-5996

대한불교조계종
학가산 광흥사
주 지 일 현
사부대중일동
■ 경북 안동시 서후면 자품리 813
TEL 054)843-2171

대한불교조계종
서 악 사
주 지 도 일
사부대중일동
www.dharmanet.net
룸비니유치원 운영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13
TEL 054)655-1001

대한불교조계종
초 암 사
주 지 용 운
사부대중일동
■ 경북 영주시 순흥면 배점리 524
TEL 054)633-2322

대한불교조계종
대승사 대승선원
주 지 탄 공
사부대중일동
tour.mg21.go.kr
■ 경북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8번지
TEL 054)552-7105

재단법인선학원
관 음 사
주 지 도 기
사부대중일동
관음유치원운영 군포교 재소자 포교활동
■ 경북 영주시 이산면 원리 739
TEL 054)633-1138

팔공산 기도영험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교법회
광 덕 사
주 지 정효천
■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59
TEL 053)986-5315
H·P 011-501-5315

대한불교조계종
천 해 사
사부대중일동
■ 경북 구미시 구포동 산42-1
TEL 054)471-6176

대한불교조계종
용 암 사
주 지 보 일
신도일동
■ 경북 포항시 대송면 홍계리 177-1
TEL 054)285-0308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대구 도광사
주 지 법 성
■ 대구시 남구 대명5동 1708-6
TEL 053)653-8583(팩스겸용)
622-8587
H·P 011-813-8587

적멸보궁
팔공산 반야사
주 지 도 오
대웅전 불사에 공덕 지읍시다
■ 대구광역시 동구 신무동 813
TEL 053)983-6421

자암산 보현사
주 지 성원 갈평
신도회장 피진연화
원 주 김자덕화
창 건 주 민서안 거사
■ 경북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10
TEL 054)859-1148

염 불 선 원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1동 578
TEL 053)782-0120

대한불교원효종
약 천 사
주 지 덕운(운혜)
불사에 동참해 주신
여러 신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울산시 북구 어물동 1236-3
TEL 052)287-6952

대한불교조계종
보 림 사
주 지 도 견
■ 경북 청도군 풍락면 수월리 471-1
TEL 054)373-4255

대한불교천태종
봉 화 사
주 지 자 운
신도회장 남구명
■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3리 산16-5
TEL 054)783-3035
FAX 054)782-4684

대한불교 조계종
서 봉 사
주 지 경 희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439-2
TEL 053)471-4812
FAX 053)471-4813

대한불교조계종선학원
청 수 사
주 지 종 열
청수어린이집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4동 117-36
TEL 053)741-2562

대한불교 조계종 9교구
대 산 사
주 지 선 오
신도일동
■ 경북 청도군 각남면 옥산리 1143
TEL 054)372-6534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종무원
종무원장 김법운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9동 629-21
TEL 053)622-3702

대한불교조계종
성 주 사
주 지 지 우
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산1-8
TEL 053)585-0450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광덕사
주 지 운 성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90-2
TEL 053)763-0068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
송광사 대구분원
관 음 사
주 지 元明
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2가 26
TEL 053)421-3700
FAX 053)427-1889

대한불교조계종
영장산 봉국사
회 주 혜 성
주 지 효 관
초하루 인등법회(음력1일), 보름 기도법회(음력15일)
지장재일 천도법회(음력18일), 관음재일 참선법회(음력24일)
어린이법회(초중,고생)-매주 일요일
■ 경기도 성남시 태평2동 216-2
TEL 031) 755-0329, 721-0329
FAX 031)722-3761

델 타 석 유
보일러 실내등유 할인 판매
(신속공급)
대 표 보경(박성일)

대창종합열처리
대 표 김상진
■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오천읍
포항 제2일반 지방산업단지 3B/7L
H · P 011-503-9196

에넥스서부전시장
● 취급품목
싱크대(부엌가구), 붙박이장, 도배
바닥재, 강화마루, 리모델링 일체
대 표 허석구(동화사 신도회장)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4동 287-1
위치 : 구 대영학원 1층
TEL 053)554-2522 / FAX 053)554-2523

청백원의 눈으로 찾아낸 고품격의 작품
청 백 원
■ 전시장 /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2가 46-1
TEL 053)253-1121, 256-7484

스치로폴 종합 제조원
SELIM 주식회사 세림화학
● 취급품목
KS 스티로폴:건축용, 판넬용, 드라이비트, 토목용 EPS,
각종 PAD, PS압축 단열재 (아이소 핑크, 하이폴)
대 표 최종구(팔공산 묘적암 신도회장)
■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205-7
TEL 053)856-8182
FAX 053)856-8186

謹賀新年 佛紀 2550年

丙戌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 14교구 본사

선찰대본산 금정산 범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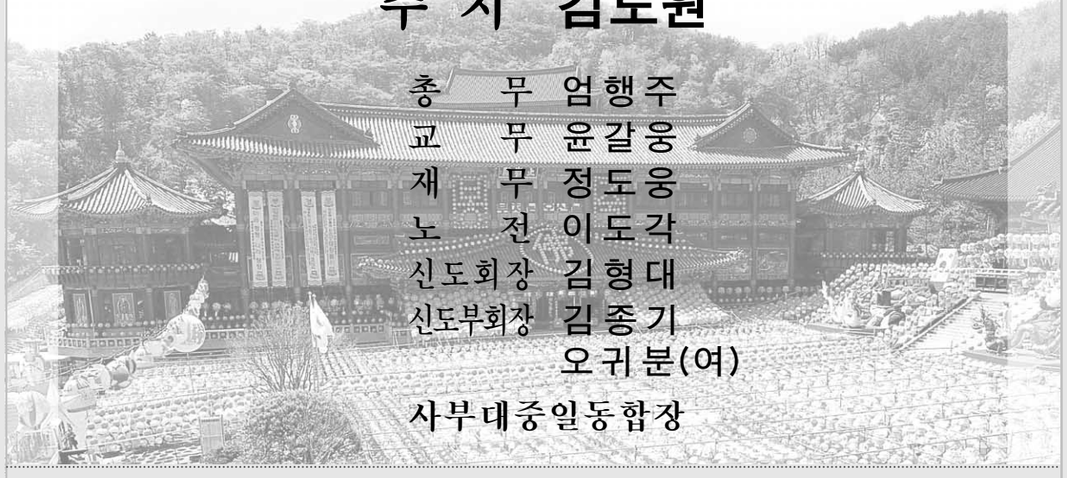
조 실 지 유
주 지 대 성
부주지 계 전

박물관장,총무국장 경 선
재 무 국 장 원 범
사 회 국 장 지 선
포 교 국 장 무 관
호 법 국 장 지 문
연 수 국 장 혜 수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TEL 051)508-3122-7 / www.beomeosa.co.kr

'도심 속 문화와 신앙의 대가람'

주 지 김도원



총 무 엄행주
교 무 윤갈웅
재 무 정도웅
노 전 이도각
신도회장 김형대
신도부회장 김종기
오귀분(여)
사부대중일동합장

大韓佛教 天台宗 釜山 三光寺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 131번지
TEL 051)808-7111~5 / FAX 051)803-1332 / www.samkwangsa.or.kr

대한불교 원효종

종 정 최덕산
종회의장 정도전
원로원장 송구산

■총 무 원
총무원장 김고산 규정원장 권혜봉
사무총장 김청일 교육원장 최서응
사무국장 안종명

■중앙종회
부의장 서정봉

■각시도 교구원장
부산교구 권혜봉 충북교구 김수원 경남교구 안정광
강원교구 서정봉 경북교구 이원광 제주교구 김강설
울산교구 김도운 대구교구 최서응

■비구니회
원 로 김덕공 회 장 임도명 총 무 박묘공

※신년하례법회
일시 : 2006년 1월 10일 오전11시
장소 : 대한불교 원효종 총본산 금수사

■총무원 : 부산시 동구 초량 4동 843번지 TEL 051)467-3316,466-0977

사단법인 대한불교 승가종

종 정 습득 월인
총무원장 탄 성 법 봉

승가종 전국 175개 사암주지 일동

(사)승가종 범음대학
학장 수보 법수(011-584-5588)

(사)승가종 법사대학
위원장 수불 강종식
학 장 무위 김양원

※행자교육원 상시 운영

■총무원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2동113-1
TEL 051)552-8551,4 051)556-0278 / FAX 051)553-5921

대한불교 진각종

부산 · 경남교구

부산경남 교구청장 일 헌
총 무 신 혜
신도회장 현 오

자성법신 : 진각종은 법신 비로자나불을 교주로 하고 육자진언(옴마니반메훔)을 신행의 본존으로 하며 포교, 교육, 복지를 3대 종책으로 하는 밀교 종단으로 현재 유치원 19개소, 사회복지시설 31개소, 대구심인중 · 고등학교, 서울진선여자고등학교, 위덕 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범석심인당 주교 일헌
동구 수정2동 841-2
☎ 051-464-0668

정정심인당 주교 상명
부산진구 전포4동 667-5
☎ 051-802-8785

지륜심인당 주교 지회심
해운대구 중동 794-8
☎ 051-741-6691

묘법심인당 주교 정관월
경남 통영시 무전도 413-152
☎ 055-642-0403

보불심인당 주교 신혜
사상구 모라동 986-8
☎ 051-301-0204

화천심인당 주교 심인정
동래구 온천 1동 296-4
☎ 051-557-1064

영신심인당 주교 효원
경남 마산시 합포구 상남동174-10
☎ 055-246-7091

보천심인당 주교 선덕
경남 진주시 칠암동 499-12
☎ 055-757-1506

명륜 심인당 주교 현봉
동래구 명륜2동 676-39
☎ 051-555-6663

복전심인당 주교 정훈
영도구 봉래 2동 125-1
☎ 051-416-2438

삼학심인당 주교 진광
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700-81
☎ 055-343-2124

불일심인당 주교 도홍
경남 양산시 남부동 470-8
☎ 055-387-2273

정제심인당 주교 향덕
서구 부민동 3가 35
☎ 051-244-0547

남도 심인당 주교 선본
남구 문현 5동 800-21
☎ 051-646-1518

수계심인당 주교 혜담
경남 밀양시 삼문동 387-4
☎ 055-354-2256

창원심인당 주교 서원
경남 창원시 상남동 5-1
☎ 055-263-0751

● 부산경남교구청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 2동 841-2(5/1)
사무실 ☎ 051)464-0668, 441-1643 / FAX 051)441-1657

부산불교회관은 도심포교를 위해 계획 설계된 미래 불교 도량입니다

부산불교회관
여여선원 여여정사

(부설) 신 행 학 교

선원장 정 여
명예회장 김경환
신도회장 이향순

신도회, 동문회, 거사림회, 청년회, 어린이회, 복지회, 합창단, 다도회, 선림회, 여진부, 참선부, 수림회, 금빛모임, 교무위원

■ 여여선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 2동 157-1
TEL 051)853-5486~7 / FAX 051)863-6422
■ 여여정사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 1058 TEL 055)355-9290~1

특성화된 콘텐츠로 감동 끌어내야

지방화시대의 불교 현주소는 어디일까. 과거와 비교해 지역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불교도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 각 지역으로 무게가 분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심은 여전히 수도권이다. 지방화시대라는 사회적 흐름을 능동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문화 행정 등 모든 것이 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오늘날, 종교 역시 이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지역별로 고유의 특성을 살린 독자적인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종교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그 키워드는 지역이다. 지역불교가 살아야 한국불교가 산다.

이에 2006년 새해를 맞아 지역불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땀 흘리고 있는 인물과 단체를 조명해본다.



'서산 부석사 철새 탐조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망원경으로 철새를 관찰하고 있다. '철새 탐조 템플스테이'는 지역적 특성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잘 반영한 프로그램이다. 사진제공=부석사

■ 지역별 불교 현주소

경기 문화프로그램 다양

단위지역이 워낙 많고, 또 수도권이다보니 서울과 연계한 움직임도 다른 지역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가장 큰 특징은 문화프로그램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문화시설을 갖춘 사찰도 적지 않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사회활동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많고 그 분야도 환경, 인권, 교육 등 고르게 걸쳐있다.

신도시가 많은 특성상 도심사찰이 많아 포교활동이 비교적 활발하다는 특징도 있다. 그러나 교육과 복지는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강원 지역경제 악화로 부진

강원불교는 지역경제가 악화되면서 몇 년 째 동반침체를 겪고 있다. 관광사찰이 많은 특성상 경제 여건에 따라 사찰 활동도 좌우되기 때문이다. 신행, 교육, 포교, 사회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강원불교 스스로 인정할 정도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복지분야는 속초 신흥사와 원주 성불원을 중심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월정사를 비롯해 몇몇 사찰들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문화활동은 그런대로 탄력을 받고 있다.

충청 청소년 대상 활동 왕성

충청도는 이제 막 '불교 불모지'라는 오명을 벗고 기지개를 켜고 있는 상태다. 모든 분야에서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활동이 활발해졌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어느 한 분야도 만족할만한 위치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교육과 포교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신행도 수동적이고 미약하다. 다만 문화와 사회활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다. 공주 등 상당수 지역이 지역축제와 불교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활동도 왕성한 편이다.

경상 인프라 구축 튼실

경상 지역은 자타가 공인하는 '신심 제일 지역'이다. 전국에서 불교세가 가장 세다는 평가 그대로 이 지역의 불교활동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다.

우선 부산 · 경남지역은 경상 지역 중에서도 가장 불교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꼽힌다. 불교대학만도 부산불교대학을 포함해 52곳이나 되고, 어린이 포교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또 불교복지를 빼놓고는 지역복지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지역 복지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대구 · 경북 불교도 부산 · 경남 지역에 버금갈 정도로 활발하다. 특히 대구는 교육분야에서 튼튼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다. 두 권역 모두 문화와 사회활동은 미약한 편이다. 또 부산 · 경남의 경우는 불자들의 신심을 교육 · 포교 등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고 대구 · 경북은 문화분야 활동이 다소 약하다.

전라 불교인구 증가 포교기대

호남불교가 약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생명나눔광주전남지역본부와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활동은 다른 어느 지역 못지않게 활발하다.

그리고 근래 들어 많은 사찰과 신행단체들이 분주히 활동한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활로를 열어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종교인구가 증가하는 곳이 광주 · 전남지역이고, 그것이 불교인구라는 점에서 호남불교는 기회를 맞고 있다.

제주 지역민 일체감 모범적

불교와 지역민의 일체감으로만 따지자면 제주를 따라올 곳이 없다. 교육 · 신행분야 활동이 두드러지며, 특히 불자들이 힘을 모아 불교대학을 세우는 등 자발적 신행은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될 만하다. 하지만 복지는 이제 막 눈을 뜬 단계고, 문화나 사회활동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다.

■ 무엇이 문제인가

체계 · 지속적 시스템 절실
주민 정서 고려 색깔찾기 필요
'내 절 아니면' 이기주의 그만

● 인프라가 부족하다

각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이 분야별 인프라 구축이다. 각 분야별 접근이 일회성이거나 유행에 편승하는 경향이 짙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효과가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재가교육의 경우 스님의 능력에 의존할 뿐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포교도 마찬가지다. 일정한 매뉴얼을 통한 체계적인 접근 보다는 단편적 행사에 그치면서 지속성을 갖지 못해 '체감적인 포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각 분야별로 기본 여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런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인재양성도 시급하다.

● 확실한 아이템이 없다

지역에서 활동을 하며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찰의 경우에도 고유의 색깔을 갖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강원도 모 지역의 경우 4~5개 사찰들이 나무랄 데 없는 활동을 벌이고는 있지만 뚜렷한 특징이 없어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주민정서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아이템이 없기 때문이다.

또 문화 · 관광지인 모 지역에서는 이런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한 채 사찰들이 기존의 운영패턴을 고집하고 있기도 하다.

원주 성불원 주지 현각 스님은 "문화와 관광자원이 풍부한 불교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찰 · 단체들 '마이 웨이'

지역불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사찰 또는 단체 간 이기주의다. 어느 지역도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고질적 병폐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지역인 부산에서마저도 '내 절 일 아니면 관심없다'는 이기주의가 논란거리가 될 정도다.

게다가 이웃 사찰의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으면, 그대로 모방까지 한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보다는 쉽게 불자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 나아가야 할 방향은

찾아가는 불교로 무한경쟁 돌파
아이템 개발 통한 경쟁력 강화
불자 정서 반영, 포교 전략 마련

● 앉아서 기다리던 시대는 지났다

지방화시대는 '적극성'을 요구한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제 밥그릇도 챙기지 못할 정도로 무한경쟁을 해야 한다. 따라서 기다리는 불교가 아닌 다가가는 불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남 봉국사의 경우 문화욕구가 강한 지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명사초청 강연회'를 열기 시작했으며, 안동 봉정사 역시 문화도시 이미지에 걸맞게 각종 전시회 등을 통해 지역민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또 인제 만해마을의 지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만해 무료강좌'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불교 불모지나 다름없던 호남지역의 사찰들이 불자교육을 지역불교 발전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신도기본교육에 적극 나서면서 호남불교의 불심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도 되짚어볼만한 일이다.

● 특성화가 관건이다

적극성과 함께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은 특성화다. 특성화는 곧 '고유의 브랜드'다. 현대사회에서 고유 브랜드가 갖는 가치는 엄청나듯이 불교 역시 이런 아이템을 개발하고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은 바로 지역정서와 특징이다.

충남 공주의 경우 마곡사 갑사 신원사 등 유서 깊은 사찰들과 영평사 학림사 등 새로 주목받는 사찰들이 각자의 특성을 살린 아이템으로 '테마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불교 미래를 가꿔나가고 있다.

경기 여주 · 양평 · 이천 사암련이 군부대가 많은 지역 특징을 고려해 연합으로 군불교위원회를 구성해 군 포교에 나서고 있는 것도 좋은 예다.

강원도 삼척의 경우 삼척대 교수불자회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과 지역경제기반이 어업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찰들이 교수불자들을 포함한 사암연합회를 구성하고 지역민과 함께 하는 사업을 벌이는 등의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차의 성지인 일지암과 선암사 동원사 불회사 등 해남 순천 나주의 남도사찰들이 대규모 자생차 단지를 조성하고 고유 브랜드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 것도 특성화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 프로그램 다양화해야

신행 및 포교 프로그램 다양화는 시대 흐름과 지역적 특성, 불자와 국민들의 욕구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점에서 몇몇 사찰들의 노력은 눈여겨볼 만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월정사다. 최근 들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월정사 단기출가는 시대흐름과 국민정서를 잘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화성 신흥사의 경우 법회 참석 불자들에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주고 이 쿠폰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장터'를 열고 있고, 안양 지장선원은 어린이 · 학생 · 청년법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발상좌제도를 두고 '맨투맨' 식의 포교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또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은 어린이 · 학생 · 청년 · 성인법회로 신행시스템을 구축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으며, 서산 부석사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철새탐조 템플스테이'로 인기를 얻고 있다. 해남 미황사의 경우도 산사음악회를 비롯해 한문학당과 괘불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발해 문화포교를 선도하고 있다.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은 "이제는 흥미는 물론이고 무엇인가 얻을 수 있도록 해주면서 감동까지 주어야 한다"며 "불교를 '알게' 하는 것 보다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프로그램 다양화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엽 · 한명우 · 천미희 · 배지선 기자





현장 누비는 불자와 단체들

초종파적 화합과 결속력 다지는데 앞장

마창불교 숨은 일꾼-박수철 마창불교련 사무국장



행사 진행에 여념이 없는 박수철 국장(왼쪽).

화려한 행사의 뒤편에 서서 드러나지 않게 그 행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챙기는 사람이 있다. 벌써 15년째 마산창원불교연합회(회장 원정) 사무국장으로 일하며 마산, 창원 지역 불교계의 대소사를 일일이 챙기는 박수철(54 · 성일) 사무국장.

마창불교연합회가 초종파적인 화합과 결속력을 자랑하는 조직으로 성장하기까지 '화합의 윤활유'가 되어온 박 사무국장의 보이지 않는 역할이 컸다는 게 지역 불교계 스님들과 재가자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때론 좋지 않는 뒷얘기를 감당해야 하고 때론 저마다 다른 주장들을 홀로 갈무리해야 하는 때도 많았지만 불교 발전을 위한다는 큰 목표가 그 모든 어려움을 잠재웠다.

"지금은 지역 불교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스님들과 재가자들이 많아져 연합회 활동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자평한 박 사무국장은 "이제는 스님들의 원력에 발맞춰 앞장서 일할 재가불자들의 연합회가 만들어져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벌써부터 박 사무국장은 마산과 창원의 불교신도회 창립을 서두르며 준비 작업에 여념이 없다.

"재가 불교 운동에서 은퇴는 없다"는 박 사무국장의 조용하면서도 확고한 신념은 지역 불교의 든든한 조직 기반을 다지는 초석이 되고 있다.

천미희 기자

"노하우 바탕으로 전문화된 봉사 펼칠 것"

고양복지 우리 손안에-천수천안봉사단



환경정화활동을 벌이고 있는 천수천안 단원들.

'지역 불교복지활동을 보려면 고양으로 가라!' 불자들 사이에서 '강령'처럼 회자되고 있는 이 말은 바로 고양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지역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천수천안'(이사장 도명 · 덕양사 주지)을 두고 나온 말이다.

덕양사와 흥국사, 봉덕사, 노적사, 자비정사 등 고양시 사암련 소속 10여개 사찰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2002년 출범한 천수천안은 2003년 사단법인으로 거듭나면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천수천안의 공식회원은 현재 800여명. 2004년 6월에는 남양주 · 구리시 지부가 지역사찰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창립되기도 했다. 남양주 · 구리시지부 회원도 500명에 달한다.

국립암센터를 비롯해 일산노인복지관, 고양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50여개 시설에서 정기적으로 봉사 활동에 나서는 것은 물론 군법당 포교와 지역사회 지원활동에서도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해내고 있다.

활동이 이와 같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다 보니 천수천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평가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매년 이뤄지고 있는 자원봉사교육에 참여하는 이웃종교인들의 비중이 꾸준하게 높아지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천수천안 박유아 단장은 "이제는 치매와 노인복지 등의 분야에서 전문화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참신한 기획과 뛰어난 추진력으로 승부

나눔의 '화신'-김영섭 광주 자비신행회 사무국장



김영섭 국장(맨 오른쪽)이 헌혈증을 전하고 있다.

"불자들은 바로 샘터입니다. 그같이 훌륭한 생명의 샘물을 낭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비신행회와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 지역본부 실무를 맡아 광주시로부터 2004, 2005년 연이어 공모사업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영섭 사무국장은 "기획이 좋아야 불교가 살고, 좋은 기획은 성공하기 마련이다"고 확신한다.

지난달 생명나눔 분야를 후임에게 넘기고 자비신행회에 주력하고 있는 김 국장은 1999년부터 10여개 공모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주역.

나눔의 화신 포대화상을 연상케 하는 동안(童顔)의 김 국장은 공모사업을 통해 불자들의 실천행 뿐 아니라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운동성격의 공모사업에 힘쓰고 있다.

현재 자비신행회와 생명나눔이 펼치는 운동은 시민들의 호응이 높아 혈소판 헌혈로 50여명의 환자에게 생명을 나누고 있으며, 매년 7000장의 헌혈증과 8000여만원의 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으로, 타종교계가 주류를 이루는 광주지역 300여개 시민단체 중에서도 복지부분을 선도하고 있다.

"일 욕심이 많아 항상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다"는 김 국장은 새해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쉼터를 마련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준엽 기자

교육 불사로 정평, 어린이법회 복원에 진력

3200여 동문 전법사로-강원불교대학 총동문회



강원불교대학총동문회의 신년하례법회 모습.

강원 지역 최초의 불교대학인 춘천 강원불교대학(학장 편백운 · 석왕사 주지)은 불교 교리는 물론 동양사상과 철학 등의 수준 높은 교육으로 정평이 난 곳이다. 또 태고종 포교사만 300여명 넘게 배출된 '명문'이다. 그래서 지역불자들의 입학문의가 끊이질 않는다. 지역사회에서는 '강원불교대학'을 졸업하지 않고서는 명함도 내밀지 못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다.

이러한 위상을 가진 강원불교대학을 졸업한 3200여 동문들이 다시 강원불교대학총동문회(회장 김윤호)로 뭉쳐 강원 도내 지역 곳곳에서 포교와 전법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강원지역 포교의 산실이라는 평이 전혀 낯설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행사는 기본이고 지역 스님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순회 법회는 분기별로 이뤄진다. 매년 초 춘천, 원주, 동해 지역에서 열리는 '나라발전과 불교중흥을 기원하는 신년하례법회'는 지역법회의 또 다른 모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 올해 4월 화마가 핥고 지나간 양양 낙산사 복구 지원활동을 전개한 것을 비롯해 매년 여름 강원 도내에서 발생해서 수해 복구 활동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강원불교대학총동문회 김윤호 회장은 2006년을 사찰 어린이 청소년법회 복원의 해로 정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함께 즐기는 불교 필요…충청 불심 일으킬 것"

불교문화 꽃 피우는 충북불자예술인연합회



충북불자예술인련 창립법회 모습.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는 문화포교가 필요합니다. 120여 회원들과 함께 활기차고 신나는 포교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2월 1일 창립된 충북불자예술인연합회 지순애(56 · 대효심) 회장은 기다리는 포교가 아니라 함께하는 포교로 지역 불심을 움직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앉아서 기다릴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지 회장은 또 "이제는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신행생활을 뛰어 넘어 함께 즐기고 웃을 수 있는 불교가 필요하다"며 지역 불교를 새롭게 일으키겠다는 일념으로 대중문화포교에 뛰어 들었다.

"불교계 안팎에는 수많은 각종 행사가 있지만, '행사는 그저 행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아쉬움을 표한 지 회장은 "규모의 크기 정도를 따지지 않고 어디라도 달려가 불심을 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 120여 회원들은 각자 크고 작은 행사에서 나름대로의 '문화포교사'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함께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면서 연합회를 만들게 된 것이다.

연극 · 음악 · 미술 · 문학 등 충북의 문화예술불자들이 대거 참여한 예술인협회는 앞으로 정기법회 등의 신행활동은 물론 각종 문화행사와 정기공연을 개최해 불교문화와 지역문화 창달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방침이다. 유철주 기자

조직화된 분과 통해 대사회 활동 활발

13년 전통의 거사모임-제주 분다클럽



지난 5월3일 열린 분다대상 시상식 모습.

'거사불교'를 주창하며 포교와 사회활동에 진력하는 단체가 있다. 바로 13년 전통을 자랑하는 제주 분다클럽(총회장 이춘기)이 그 주인공이다.

1992년 60여명의 재가자로 출발한 분다클럽은 현재 200명이 넘는 회원들이 5개 분과로 나뉘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회복지를 비롯한 문화예술, 지역사회, 환경, 회원들의 자질향상 프로그램운영 등으로 집중성을 보이고 있다.

또 각 지역별로 조직된 4개 지회는 한 달에 한번 이상 지역법회를 봉행하는 것은 물론 교육과 포교, 복지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분다클럽은 매년 부처님오신날 실시하는 '분다대상' 시상식을 통해 도민들의 사회활동을 격려하고 있다. '효행'을 비롯해 '전통문화예술', '사회봉사'등의 분야에서 한 해 동안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온 사람들을 시상하는 분다대상은 종교에 구애받지 않는 시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분다클럽 이춘기 총회장은 "남성 신도들이 절 문턱을 보다 쉽게 넘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아직도 중요한 과제"라며 "2006년에는 3~40여곡의 불교의식곡을 CD로 제작해 도내 사찰에 보급하고 제주 이외의 지역에 분다클럽 지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철주 기자

謹賀新年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1906
지혜와 자비로 키워낸 이십만 인재가
새로운 100년의
'두드림'을 시작한다!
100th Anniversary
DONGGUK UNIVERSITY
미래의 꿈과 희망을 향한
가슴 벅찬 '두드림 Do Dream!'
민족과 함께 달려온 동국대학교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커다란 두드림을 시작합니다.
Do Dream!

丙戌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전국 비구니회
회장 명성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44 TEL 02)3411-8103-7 / FAX 02)3411-8108

謹賀新年 佛紀 2550年

丙戌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삼천불삼천배 참회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감 로 사

감로사불교대학
기초, 경전과정
조실 지관 회주 법희
주지 혜총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2동 33
☏ 051)809-0926
팩스 051)803-0188

불교의 자비사상 실천현장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부설 : 용호재가복지봉사센타,용호치매노인주간주말보호센터
용호어린이집,용호가정봉사원파견센터
양정노인주간보호센터, 부산시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
무료급식(매일300명), 노인대학(매일200명)

관 장 혜 총
전화 051)628-6737 / 팩스 051)628-6562

대한불교조계종
묘봉산 혜원정사

시회복지법인 혜원
조 실 고 산
주 지 원 허

고산장학회 / 선지식회 / 자비회 / 만불회 / 지장회 / 관음회 / 연꽃부부회 /자원봉사단 / 선원대중 / 혜원합창단 / 청년회 / 대학생회 / 중 · 고등학생회 / 어린이회 / 사회복지법인 혜원 부설 선재어린이집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4동 산1113-1
전화 051)866-7771
팩스 051)866-7777

대한불교조계종
내 원 정 사

주 지 정 련

- 석암장학회 051)243-0692
- 내원정사 유치원 051)244-0691
- 사회복지법인 내원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051)264-0691
  내원어린이집051)264-9031
  부산서구노인인력지원기관051)244-6700
  중증장애인요양시설반야원055)632-1854
  부산사하자활후원기관051)263-6697
-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
  함지골 청소년 수련관051)405-5223
  합천군 청소년 수련관055)932-5662
  중구문화의집051)247-8425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산3-2번지
전화 051)242-0691
팩스 051)248-0691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산선암사

주 지 원 범

원효봉사회, 원효불교대학,
원효거사회, 원효합창단,
선암청년회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3동 628
전화 051)803-7573
051)803-7522
팩스 051)803-7521

지장기도 영험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불 광 사

(부설)불 광 대 학
범음범패 교육도량
주지·학장 청 봉
재 무 정 오
신도회장 정 춘 대(법경)

사부대중일동

통도사 작법무,바라춤,나비춤
범음범패 총본산 학인모집중

경남 양산시 웅상읍 주진리 656
전화 055)364-4747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

후원 및 자원봉사는 부처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본 협의회 기관을 통해 해주십시오

회 장 혜총 스님
기획실장 박용하
사무국장 이춘성
간 사 김영곤, 서은해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박용하/부장 채종현
■공창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명현스님/부장 박신자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정여스님/부관장 정순화/부장 조수경
■낙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임광수/부장 배의식
■두송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지현스님/부관장 김맹자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정련스님/부장 김민아
■금정청소년수련관 관장 정만스님/과장 홍석환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관장 혜총스님/부관장 이춘성
■영주암어린이집 원장 범산스님/원감 양금선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관장 혜총스님/부관장 이춘성
■화명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유정스님/부장 한승미
■사회복지법인 보현도량 이사장 정여스님/사무국장 정득보
■사회복지법인 혜 원 이사장 원허스님/사무국장 이명숙
■사단법인 선양복지원 이사장 김수현/사무장 노상희
■사회복지시설 컴넷하우스 원장 윤숙자/사무국장 채인숙
■조계종복지재단 부산보현의집 원장 이기표/부장 정흥희
■부산광역시 청소년쉼터 소장 지장스님/부장 정현숙
■부산시 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 소장 김영곤/실장 박경란
■실버요양원 향락정 실버빌 원장 정관스님/사무국장 윤기혁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부설)부산불교최고지도자아카데미
회장 · 학장 공병수

직전회장 류진수
상임부회장 김성림
부 회 장 황진옥 배태순
이상률 조문환 권승렬
감 사 김창석 서병흔 이대원성
기획실장 홍정표
사무총장 이욱태
재무총장 황국근
아카데미운영위원장 이숙희

이사회원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157-1
부산불교회관 5층
전화 051)853-2021 팩스 853-2036

동울산사암연합회

원 로 원각사 월타
고 문 법륜사 눌암
회 장 대원사 동파
사무총장 대각사 초우

관음사 현 수
관음사 혜 원
자광사 향 공
정각사 해 승
동축사 문 성
등용사 본 명
반야사 노 암

사부대중일동

울산광역시 동구 대송동 대원사내
TEL 052)233-7176, 281-0134

고려가스주식회사

울산시 남구 여천동1000-1
전화052)272-8487/팩스052)273-3463

구 암 주 유 소

울산시 남구 야음1동 385-4
전화052)274-5290/팩스052)274-5291

고 려 택 시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369-6
전화052)268-4551/팩스052)268-4552

대표이사 심 완 식

상원건설주식회사

회 장 조동환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토목공사업

본사: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40-9
전화 052)260-9950 (代)
팩스 052)260-9952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적멸보궁 영축총림 통 도 사

방 장 야부 초우
주 지 이산 현문

부주지 서원 태봉 전계사 중산 혜남 유 나 천진 보탑
강 주 혜엄 우진 박물관장 범하 명정

총무국장 문성 기획국장 오심 교무국장 보화
재무국장 지수 사회국장 명현 포교국장 영랑
호법국장 원진 원 주 범철
총무과장 성안 교무과장 유경 재무과장 오성
포교과장 진무 호법과장 자고



영축총림 통도사 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전화 055)382-7182 / 팩스 055)382-7196 홈페이지 www.tongdosa.or.kr

謹賀新年 佛紀 2550年

丙戌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황령선원
홍제사

선원장 혜국
사부대중일동

• 매월(음) 초하루 ~초사흘 신중기도
• 매월(음) 보름 - 24일 자비도량참법기도<10일간>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3동 산 51-2
전화 051)802-0130

대한불교조계종
영주암

[부설] 양정청소년수련관,
영주암유치원, 영주암어린이집
회주 불국정관
주지 범산
신도일동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1동 950
종무소 051)754-2210 유치원 051)754-6120
어린이 집 051)755-2888 수련관 051)868-0750

대한불교조계종
계승사

고성군사암연합회
주지 법진
총무 혜명

고성군 공룡엑스포 성공과
회원사찰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남 고성군 영현면 대법리 산17-1
전화 055)673-5622, 673-0281

대한불교원효종
총본산 금수사

주지 송구산
부주지 용일
재무 정안
사무국장 안종명
신도회일동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4동 843번지
전화 051)467-3316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본사
선찰대본산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주지 대성(범어사 주지)
담임법사 무관
● 학생모집 : 2006년 2월 25일
전문분야(주,야) 금강경 (야간)
육조단경(주간) 서장(야간)법화경(주간)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1동393-15 불교회관5층503호
전화 051)806-7277,864-7290
www.beomeosa.org

밀양 천황산
얼음골 천황사

- 보물제 1213호 석불좌상 -

사부대중일동

경남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1-7번지
전화 055)356- 2540

백옥부처님천불기도도량
소원을 이루는 우리절
봉화산 길상사

주지 자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8번지
전화 051)973-5224
팩스 051)973-3076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금강암

주 지 정만
대중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546
전화 051)508-4509
팩스 051)508-4870

대한불교조계종
황령산 옥천암

주 지 원산
신도일동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2동 563-3
전화 051)634-6589

대한불교조계종
마산중앙포교당 정법사

주지 호암 지태
신도회일동
<부설> 대자유치원,도솔유치원,영축불교대학

경남 마산시 추산동 65-2
전화 055)245-6544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사

문수불교문화원
회주 법흥
주지 지원
신도회장 김철윤 김진실행
신도일동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 51-8
전화 051) 624-3754, 623-3648

대한불교조계종
청량사

주지 운암(석현엽)
신도일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445
전화 051)271-2774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기도도량 운수사

사부대중일동
<부설> 운수불교대학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3동 산5번지
전화 051)317-5671

통도사 양산포교원

<부설> 연아유치원
주지 志守
유치원장 허우진화
신도일동

경남 양산시 북부동 309-1
전화 055)386-2369,7527

자비실천수행도량
미륭사
베트남 호치민시 관음사

주지 김정각
불교자비원. 새샘복지재단, 노인대학,
바라밀합창단, 가정폭력상담소
이사 · 임원일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323-194
전화 051)404-4300,403-4848
팩스 051)403-4860
E-mail:jbwooo@cholian.net

대한불교조계종 신창농장
弘法寺
國際佛光會
韓國釜山協會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한나래문화재단

주 지 深山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1220-1
전화 051)508-0345 / 팩스 051)508-6561
HOMEPAGE : www.busanbuddhism.com
E-mail : 5080345@hanmail.net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사
송광사부산분원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
재단법인 관음선행장학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39-2 전화 051)294-9300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다정한어린이집 노인주간보호센터
부산사하두송자활후견기관
전화 051)265-9471 www.dusong.or.kr

행동하는 청년전법단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회 장 손정현
수석부회장 박상언
부 회 장 김형석,오세희,조명희
사무처장 박경수
사무차장 강나빈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974 소림불교회관
전화 051)467-5241
cafe.daum.net/kybabs

통도사 부산포교원

<부설> 대광불교대학
주지 상진
신도회, 지장회, 관음회, 약사회, 유마회
법소라 어머니합창단
부산연꽃어린이집 김해연꽃어린이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 390-34
전화 051)816-2241 / 팩스 051)806-2430

지장불교근본도량
공덕원

주 지 혜월(효선)
신도회, 지장회, 대원회, 연화합창단,
대원청년회, 어린이회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동 370-5
부산은행 5층
전화 051)625-2253
팩스 051)623-3946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비의 등을 밝히겠습니다.
열린도량 큰깨침
대한불교 조계종 선학원
천불사

회주 도봉
주지 보원
사부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웅상읍 매곡리304번지
전화 055)365-1463/팩스 055)367-6541
www.chunbulsa.co.kr

삼천불 봉안 불사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정토사

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
정토불교대학
무료급식소 : 밝은세상
주지 산하덕진
사부대중일동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803-5

화엄산 도솔암

- 포교원 -

주지 혜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전화 052)265-2286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회장 김귀련
합창단 단장 일동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1동 393-12
불교회관 501호
전화 051)867-0501

도서출판/불교용품 무량수
불교전문기획출판 보안기획

대 표 주영배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1가 151-3
(거상B/D4층)
전화 051)248-0011, 255-5675
팩스 051)255-5676
0303-4242-0048
www.buddha21.co.kr

재단법인
보현장학회

이사장 정여
상임이사 각우
이 사 정현 심금윤월 백대일심
감 사 여현 정만
사무국장 이욱태

후원하여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 57
전화 051)403-7096 / 팩스 051)403-9801

잘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병술년에도 든든하고
믿을수 있는 은행
"불교신협"과 함께 하세요
- 부산불교신협 임직원일동

부산광역시 진구 범천1동 847-18
건축사 회관1층
불교신협 051)633-9120~3

부산여성불자회

자문위원 이영숙, 박성빈, 백명숙
회 장 왕선자
부회장 이윤목, 홍말연, 김현숙
총 무 하영조
재 무 김종순
감 사 이경월, 이소연
교 화 양외금, 이복선, 이은지
운 영 임정숙, 보승장, 서화영
봉 사 이길선, 김경자, 박순천
장학위원장 홍말연
이사 및 각 지구회장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1동 393-12(불교회관 5층)
전화 051)854-4166 / 팩스 051)867-8048

正法弘布를 위하여 進一步 登一段 하는
釜山佛敎實業人會

회 장 김윤환
고 문 강병중, 서춘석, 박수복
상임부회장 하문원
부 회 장 김종태,박영근,박수관,배영호,
이근철,이상태,이달수,조길재
감 사 임정웅,지호경
회원, 마야 부인회 일 동

부산광역시 진구 부전1동 401-9 부산불교실업인회회관 3층
전화 051)818-9911 / 팩스 051)818-9916

사찰연등 전문매장
연화불교사

각종불교용품
공단연등(특허품)
수입사등(특허품)
각종등 주문제작
대 표 정성숙
직원일동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830-188
길정B/D2층(행복예식장옆)
전화 051)632-7992 / 팩스051)632-7990
www.bsyd.net

일주문



성도재일 축하행사 법문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1월 7일 오후 2시 제천사암연합회 주최로 제천 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성도재일 축하행사에서 법문한다.(043)652-0897



미얀마인 노동자 월동용품 전달

강화 전등사 주지 장윤 스님은 12월 18일 부평 미얀마 불교선원을 방문, 미얀마 외국인 노동자 150여 명에게 의류와 이불을 전달했다.



후불탱화점안법회 봉행

서울 염불만일회 정토사 주지 응천 스님은 12월 22일 법당에서 후불탱화점안법회를 봉행하고 104위 신중탱화 조성을 시작했다.(02)396-3405



불우이웃돕기 쌀 전달

천안 성불사 주지 원경 스님은 12월 19일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천안시청에 쌀 20Kg짜리 100포대를 기증했다.



'부산시 산업평화상' 수상

부산불교방송 류진수 사장은 12월 13일 대한산업 대표로서 부산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제13회 부산시 산업평화상을 수상했다.



파키스탄 강진 난민 돕기 성금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 김재일 회장은 12월 21일 대한적십자사에 파키스탄 강진 피해 난민을 돕기 위한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인사

조계종 총무원 일반직 종무원 △총무차장 김영일 △기획차장 황찬익 △총무행정팀장 공승관 △교무행정팀장 박성수 △행사기획팀장 박상희 △기획팀장 김판동 △홍보팀장 윤승환 △전산팀장 박맹수 △법무전문팀장 김봉석 △재산관리팀장 장영욱 △경리회계팀장 윤영희 △문화정책팀장 박종학 △문화유산팀장 박상준 △사회팀장 박정규 △국제교류협력팀장 양정술 △남북교류협력팀장 전형근 △호법행정팀장 황철기 △사서팀장 고기복 △기념관운영본부팀장 황충기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불교학 발전 계기 마련할 터"

2006 큰일 준비해요

한국 불교학결집대회 대회장 종림 스님



"제3회 한국불교학결집대회의 가장 큰 의의는 불교학과 교학이 한 자리에 만난다는 데 있습니다."

2006년 불교학계의 화두는 단연 4월22~23일 합천 해인사에서 열리는 한국불교학결집대회(이하 결집대회)다. 결집대회의 대회장을 맡은 종림 스님(사진)은 이번 결집대회의 가장 큰 의의를 '불교학과 교학의 만남'으로 꼽았다. 결집대회는 국내외 불교학 전공자가 대거 참가, 규모면에서 으뜸가는 불교학 행사가 될 전망이다.

종림 스님은 "불교에 대한 학자의 접근과 강원 학인의 접근은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알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며 "결집대회를 통해 학자와 학인이 한 자리에서 발표하고 토론하며 불교학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학과 교학의 만남'은 종림 스님이 특별히 공을 많이 들인 부분이다. 그런만큼 종림 스님은 강원을 돌며 결집대회 참가를 독려해왔다. 그 결과 160건 가량 접수된 발표신청 가운데 학인 발표자가 10여명에 달하고, 몇몇 강원은 단체로 참석키로 하는 등 호응을 보이고 있다.

종림 스님은 또 경전전산화 · 문화재 · 서지학 등 발표 분야가 다양해지고, 일본, 중국, 미국 등지에서 70여명이 발표에 참가하는 점을 들며 풍성한 결집대회가 될 것으로 자신했다.

이처럼 준비과정은 대체적으로 순조로운 편이나 재정문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으로 남아있다. 약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

종단이나 문화관광부가 지원해 준다 해도 예년의 경우로 미루어 볼 때 금액 규모가 크지 않아 종림 스님을 포함한 집행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여간 크지 않다.

이와 관련, 종림 스님은 "한국불교학결집대회가 불교교리 체계화 및 불교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불교계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02)923-7994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 종정 표창패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사진)이 12월 20일 열린 대구경북지역 불교지도자 송년의 밤 행사에서 조계종 종정 표창패를 수상했다.

지성 스님은 올해 열린 계율수행대법회를 비롯해 백고좌법회와 화엄논강, 담선법회 등 매년 다양한 기획법회를 열어 불교포교에 앞장섰다. 또 동화사 대웅전 해체복원 불사와 종각 불사 등 각종 불사를 통한 가람정비에 노력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북관대첩비 맞이 호국위령재"

초산 스님, 3월 서울서 개최



"2006년 3월 북관대첩비 북송 이전에 범불교적인 위령재를 봉행하겠습니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돼 있던 북관대첩비의 한국 반환을 주도했던 한일불교복지협회 회장 초산 스님(사진)이 오는 3월 '북관대첩비 맞이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봉행하겠다고 밝혔다.

초산 스님은 12월 21일 초산사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북5도민회 등 관계 기관들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위령재를 국민적 축제로 치를 것"이라며 관심을 호소했다.

"호국불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국불교계가 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행사를 마련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초산 스님은 "북관대첩비가 함경도 길주의 제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관대첩비는 2006년 3월 북송될 예정이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대불련 새 회장 신보라씨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수행을 통해 대불련이 청년불자들의 능력을 키워가는 터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겠습니다."

동국대 역사교육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신보라(24 · 사진)씨가 제44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회장으로 선출됐다.

신 회장은 12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대불련 정기총회에 단독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뒤 곧바로 2006년 대불련 회장으로 취임했다.

신 회장은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각 대학의 불교학생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리더십 캠프 등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전국비구니회 발전기금 조성 명성 스님 서예전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명성 스님 서예전이 12월 23일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시작됐다.

개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 종회의장 법등 · 군종교구 주지 일면 · 전국비구니회 前 회장 광우 스님, 목정배 前 동국대 교수,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 불교방송 이성언 사장 등 200여 명이 동참했다.

30일까지 진행된 전시회에서는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이 평소 작업해온 서예작품 40여 점과 지승공예품 10여 점이 선보였다. 이외에도 경봉 스님의 '성거미어전(聲去眉語傳)' 등 큰 스님과 재가불자들의 작품 30여 점이 동반 전시됐다. 강지연 기자

'좋은 벗 풍경소리' 창립 10주년 잔치



좋은 벗 풍경소리(회장 성행)의 창립 10주년 및 피아노 반주곡집 출판기념 법회가 12월 21일 서울 송현클럽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금영의 김승영 대표이사에게 공로패를, 10주년 반주곡집 제작에 공로가 큰 불로사 주지 현오 스님, 천태종 비구니법사회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스리랑카 노동자에 방한복 전달



조계종 사회부(부장 지원)는 12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안산 마하보디사 주지 와치사라 스님에게 방한복 105벌을 전달했다. 지원 스님은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와치사라 스님은 "잘 전달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조계사, 성탄절 축하 대형 트리 점등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는 12월 22일 일주문 앞마당에 3m 높이의 대형 트리를 설치하고 주지 원담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점등식을 가졌다. 조계사는 이날 크리스마스트리 위에 화합의 한지전통등 양식으로 특별 제작한 '별등(星燈)'을 달아 이웃종교의 기념일을 축하했다.

스님신발 아이젠부착 수행화 출시
눈길 빙판길 간단히 아이젠만 열면 안전보행



겨울철만되면 산속에 계시는 스님께 고통을 주는것이 눈과 빙판길이다. 매년 많은 스님께서 미끄러져 골절상으로 큰 곤경을 당하곤 한다. 국내 최대의 전문성신발 메카인 삼양통상(주)에서 미끄러운 산길을 자유롭게 다닐수 있도록 만든 수행화는 그림과 같이 평상시에는 아이젠(미끄럼방지기)이 부착되어 있어 눈길 또는 빙판길에서 간단히 아이젠을 열면 걱정없이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다. 고품격 천연가죽과 최첨단 신소재인 NOAH-TEX로 제작된 아이젠부착 수행화는 발열기능이 있어 외부온도가 영하-10℃일때 신발내부온도를 7.5℃상승시켜 겨울에 대단히 따뜻해 두꺼운 양말을 신을 필요가 없다. 99%방수되며 대단히 가벼워 장시간 만행에도 발의 피로가 없는 인체공학적으로 제작된 신발이다. 추운산속에 계시는 스님게 깨끗한 마음과 착한 정성으로 따듯한 수행화를 보시한다면 무명업장을 녹이고 병술년 새해 무량대복을 받을것입니다. 출시기념 할인가격 98,000원 전화로 신발싸이즈와 주소를 알려주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신청전화(02)735-6921 농협053-12-102911 김남룡

평생 부자지갑
2006 병술년 재운의 해



여성용銀나노장지갑 (진보라색)
남성용반지갑 (검정색)

존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관세음보살 福 지갑 영험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리라!

2006 병술년은 재물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재운이 오는 좋은해다. 관세음보살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생들의 고민과 고통을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부처님이다. 세상사는동안 제일 큰 고통이 재물로 인한고통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영험의 비방이 관세음보살 여의주수진언이다. 재물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 여의주수진언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곧 보배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며 가지고 있는 재물이 헛되이 나가지 않는 영험을 담고 있는 법구다. 법구제작전문 불광사에서 기도와 축원불공속에 만든 관세음보살 복지갑은 지갑앞면에 재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는 영험의 여의주수진언을 부착하고 내부에는 만사를 방해하는 잡귀와 삼재를 물리치는 삼고금강저를 순금도금해 넣어 소원을 이루게 했다. 고급 천연 銀나노 가죽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섬세하게 꾸며진 최고급지갑으로 출시 3개월도 안돼 아주 어렵던 사업과 장사가 잘되고, 고민하던 부동산이 팔리고, 부도직전에 귀인을 만나고, 제조업은 만들면 팔리고, 부동산과 증권으로 큰돈을 버는 등, 관세음보살의 영험이 나타나는 지갑이다. 여성용 銀나노 보라색은 여성이 항상 지니고 다니면 가정이 번영하고 사업장은 재물이 끊이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전화로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간 2006년 병술년 소원성취를 위한 새벽 축원불공을 드려 드리며 복지갑은 바로 보내준다. 남성용65,000원 여성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SkyLife 위성방송 무료로 설치해준다.
최고의 화질 세계를 한눈에 난시청 사찰에서도 최고!

디지털위성방송 Sky Life설치 사찰이 크게 늘고 있다. 무궁화3호 위성에서 발산되는 고화질은 국내방송은 물론 세계를 한눈에 볼수 있으며, 기존의 아날로그와 비교할 수 없는 디지털고화질영상과 CD수준의 생생한 사운드로 TV를 볼수있고 디지털방송만이 가능한 쌍방향 서비스로 TV를 보면서 리모콘으로 각종게임과 각종정보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컨텐츠로TV화면을 통해 조작할 수 있다. 123개의 다양한 채널이 수준높은 문화를 만끽할 수 있으며 자녀들의 영어및 외국어 교육에도 큰도움이 되고 있다. 종전에는 위성방송 안테나를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 쉽게 볼수 없었지만 이제는 설치비 없이 월시청료 23,000원만내면 한국디지털 위성 방송에서 바로 설치해 준다. 산간벽지사찰 난시청지역에도 즉시 설치되며 이사할때에는 전국어디든 가지고 다닐수 있고, 본인이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전화로 설치할 장소와 주소 성명을 알려주면 2일내에 전국 어디든 설치해준다. 12월말까지 Sky Life설치를 신청하는 분께는 가족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수맥파차단카드를 특별선물로 드린다.
문의전화(02)741-4477

금강저의 영험
험한세상닥쳐올 화를 미리 쫓는 수호신



삼재도 물리치는 삼고금강저

왜! 금강저를 가지고 다녀야 하나?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수호신으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 쫓으며 영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납치, 강도, 강간, 유괴,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속에 사는 현실이다. 군에 있는 자녀, 딸자녀, 경찰관, 직장인, 학생,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분, 가정주부등 가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영험의 수호신으로 여성은 핸드백속에 학생은 가방속에 남성은 지갑속 또는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순금처리하여 축원불공을 마치고 불광사에서 전화로 판매하고 있다. 가격25,000원 문의 (02)741-4488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732-1522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시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알뜰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곶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불교 범음·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알 림
벌에서(양봉) 채취한
로얄제리 프로폴리스는
우리인체에 항균, 항산화,
면역증강을 시켜준다.
016-779-2237
일림사 도원 합장

각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	천도재	수	각	사	바라나비	경
안	49	륙	시			
식	재	재	식	물	춤	전

학 인 행 자 모 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통도 바라춤, 작법무(나비춤)
(살풀이, 승무, 지전춤 외 모든 한국무용)
각 사찰 행사에 정성으로 장엄해 드립니다
도림 불교 무용 예술원 부산지부
원장 연지심 합장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43-83 정원빌딩 內
051)515-7865
019-502-8868
통도 바라춤, 작법무 수강생 모집 中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9년 동안 스님, 거사님, 보살님등 많은 분들이 배웠습니다.
• 우스이 레이키 70만원 교육기간 2~3일
카루나 레이키 40만원 교육기간 1일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화:02)720-5719/720-5682

사찰의 모든행사
지극정성으로 해드립니다
생전 예수재 49재 천도재
바라춤 나비춤 살풀이
산신재 용왕재 각종의식
010-8758-0606
월광 합장

모든 불공의식을 저렴한 보시금으로 지극정성껏 해드립니다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범음범패, 회신곡
011-850-0176

역학 개인지도
'계절이 운명을 바꾼다'
저자 김창규 원장 강의
적중률 높은 학설로 누구나
쉽게 단기간 완성(역학 · 관상학)
미래음양회 010-9959-8894
02)2231-8894
서울 지하철(2,4,5호선) 동대문운동장 해솜빌딩3층

급 안내
준비되어있는 아이템
무료로 유통사업하실 분
불교선물 상품
특허출원중 SBS방송된 상품
성공이 보장된 아이디어 상품
• 조건:불자님, 유통경험있는분
017-533-1356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 눈빠짐,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암 무량보시 무료로 드립니다
약초 하수오 효능
KBS무한지대 효과 효능 특효
※ 머리를 감게해주고 암 당뇨에 좋습니다
• 달마사스님 – KBS, MBC
약초재배 방송방영
직접재배하고 있음
051)724-0755
011-857-3775 달마스님

사주명리학 관심있는분
용신 및 격국 위주
12운성, 12신살
5인이상은 출장도 강의
주1회는 범패강의합니다
천수바라, 도량게, 화청, 법고지는법 等
054)433-6315

건강하고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011-483-563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전북지역
016-779-2237

각 지역에서 활동
하실 화주보살
모십니다
(불사현장 답사환영)
010-6753-1119

산좋고 물좋은
아주 깨끗한
내원암에서 신심있는
공양주를 모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경북 예천
054)653-1180

사찰 총무보살님
모십니다
무경력자도 가능함
▷대한불교조계종 사찰
041)673-2333
011-9810-888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조용한 사찰에 가족처럼 지내실분
▷전남 나주
011-9619-3620
061)337-3620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위치 : 조계사 앞
02)733-0108

참마음으로 자원봉사하는
자세로 도움을 주실 수 있고
시간여유가 있는 진솔한
불자거사님 구함
▷50~60대 차량소지자
055)367-1964
야간에서 오전 9시이전 통화가능

행자, 공양주
모십니다
▷부산
02)396-3405

기도스님
모십니다
▷부산
051)541-5700
011-551-1719

종무원 구함
– PC가능자
▷경북 상주
054)534-6331
010-9357-6966

부전스님
필요하신 사찰
연락 바랍니다
▷조계종 법랍 40년
055)973-6629

공양주 경험자
구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찰
▷부산 근교
010-6245-533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부산지역
051)803-7573

부전스님
필요하신 사찰
연락바랍니다
010-2505-7492

공양주, (女)사무직,
비구니부전스님
신원확실하고
건강한분 모십니다
(40~50대) 조계종 사찰
011-538-1529

출가 3년미만의
사미, 사미승
각 한분씩을 모십니다
(45세 미만의 남녀출가
희망자 가능)
02)577-0007
011-354-8484

(女)사찰사무원
구합니다
PC가능한 40세 이하
▷대한불교조계종경기이천
011-415-5558

대한불교전통조계종 행 자 모 집
스님 되실 분 남 0명 · 여 0명
• 5개월 수행 후 전국사찰 소임 • 사찰 등록하고자 하는 분 환영
경북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황룡사
054)972-3174 / 011-502-3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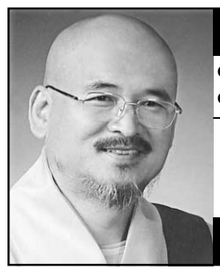
행자 [예비스님, 남·여] 모집
• 행자원 있음(엘리트 스님 양성목표 – 45세미만)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 큰 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011-9852-0075(총무스님)
※ 단기 한시적 출가도 가능 ▷ 도심사찰 최신의 납골당 있음◁
전국 제1의 불교대학! 도심속의 7층 정법대사찰 TVbuddha.co.kr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

관음기도 성취도량
• 교통 사통팔달 산세수려 기도하는 분위기
• 최신식 실버타운 심신수련 기도처
• 독방사용, 숙식제공, 저렴한 가격으로 모십니다
• 편안하게 모셔드립니다 • 선착순
010-9367-5982
주지 법사는 관음기도로 가피받은 사찰임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 운세 10초내 맞추면 입금
명리학질문 10초내 답변 / 사주 첩경 통달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약국 (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 사주, 작명, 궁합, 택일 • 기초부터 5개월
• 대상 : 누구나 가능 • 주4회, 1일 1시간씩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지하철 시청역 6번출구에 있는 골목 50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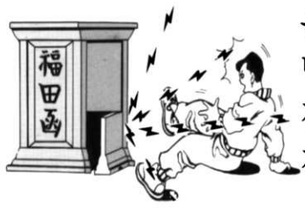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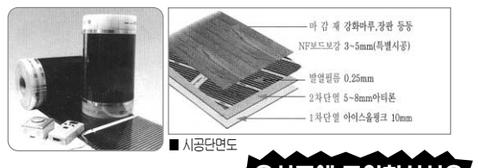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 월간난방비 비교표 ◆ *실난방 평수 10평기준 *하루 10시간 사용 * 2005 8월 기준

구 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보일러 등유
소비자 가격	64.9원/kw	34원/kw	494원/㎥	64.9원/kw	1100원/㎥	900원/ℓ
월간 난방비	38,200원	56,100원	70,150원	101,800원	136,400원	163,800원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보일러기름을 미리 확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시공경험이 많은 전문시공업체로서 사찰의 현실에 맞는 시공을 보장합니다.



■ 시공단면도

설치하면 좋은곳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공양간 바닥과 벽 시공 가능
■ 제품 : 정품(미국칼로리규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 시공 : 전국 사찰 시공 전문 업체입니다.
FILM HEATING FLOOR WARMING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승광불교전통미술원



• 불 상
• 탱 화
• 개 금
• 원 형 조 각
• 불 사 상 담
• 천불삼천불
• 불 교 용 품

귀의 삼보 하옵고....
대덕 큰 스님의 성원으로 불교미술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수 있도록 지도 편달 바라옵니다

전 화 02-491-5336, 02-494-7478
공 방 031-595-6557, 031-595-6558
휴대폰 011-226-5336
e-mail : 0112265336@nate.com
목우 손 동 술 합장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732-1522 (直), 02) 2004-8200 (代)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 위치: 강원 ● 위치: 부산
● 법당: 15평 ● 법당: 23평 ● 법당: 30평
● 요사: 30평 ● 요사: 20평 ● 요사: 120평
● 부지: 3000평 ● 부지: 5900평 ● 부지: 107평
● 가액: 3억5천 ● 가액: 3억 ● 가액: 4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서울시내 큰절구함
2.창원사찰1200평-1억5천
3.수유포교당40평-2천/70
4.강원평창사찰3만평-6억
● 공양주,법당,화주보살님
● 종무직,경리,사무장,처사
● 49재,천도재,점안식

※ 사찰일자리정보센터
현대불사 02)555-0575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
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3천9백만원
(절충가능)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11-9542-572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내
● 대지 125평, 법당, 산신각, 독성각, 요사채 3동
● 가액 : 1억 5천 6백만원
(절충가능)
● 사정상 급히 땅값이하 계산합니다.

011-380-5611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약 100평
1층 34평 요사채
2층 24평 법당
● 특징: 시장옆 주택 밀집지역
● 가액: 2억2천만원

054)763-6655

사 찰 안 내

● 위치: 가평 ● 위치 : 경남
● 대지: 97평 ● 부지: 630평
● 법당: 30평 ● 법당: 20평
● 요사: 46평 ● 요사: 3동52평
● 가액: 1억9천 ● 가액: 2억5천

※ 전국사찰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순창
● 대지 350여평,
건평 45여평, 법당1
요사채1, 삼성각1, 방4
● 특징 : 지하수 물 좋음
● 가액 : 8천 7백만원

011-595-7878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 구곡단지내
● 대지120평 건평80평
1층 50평 요사,
2층 30평 대웅전
● 가액 : 5억 5천만원
(은행 1억8천 설정)

※ 비구니 스님 수행처로 적합

010-9292-4828

토굴,사찰, 선방부지 안내

● 위치: 지리산~덕유산 사이
백두대간 주능선 50m
● 관리지역 : 대지,잡종지,전 합1600평
● 건물현황: 황토방5동,강당1동,
창고2동,사무실1동,취사동1동
● 이전관계로 매매 합니다.
● 매매가격 5억2천

주인직 010-3684-9288
오후 2시 ~ 6시사이 통화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진주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532평
법당: 25평, 요사채: 55평
전불전: 38평, 고시원: 45평
주지실: 10평, 주차시설 완비
건물 일체 심야보일러 온수
● 건물: 5억3천만원
총공사비 10억 소요

010-9889-3188

포교당 안내

● 위치: 충남 예산군 덕산면 소재지
● 평수: 38평 3층
● 삼존불 각단탱화, 앰프,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몸만오시면됨
● 전세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500만원
● 덕산온천 옆 4일 9일 장날

041)337-8078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위치 : 대구시 ● 위치 : 경기도
● 대지 80평 ● 부지 : 6천평 ● 대지 130평
● 법당 30. ● 법당 35평 ● 법당 20평
● 요사 90평 ● 요사 100평 ● 요사 20평
● 양도가 5억 ● 양도가 13억 ● 양도가 5억
● 도심포교사찰임 ● 산세 계곡 좋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688-3521 / 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 북구 경대교부근
신축건물
● 평수 : 5층 건물 중 4, 5층 사용
● 4층 법당 50평, 요사채 40평
(방4) 5층 스님실 25평(방2)
● 보증금 2000, 월170(전세가)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도심포교원 최적지 최고의 구조

011-820-4617

포교당안내
(싸게 인수 하실 분)

● 위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 평수: 45평 3층건물중 2층
● 시설: 삼존불, 고급후불
탱화 3점, 집기일체
●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3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016-261-20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진전면 오서리 탑동
● 대지: 600평
법당: 25평, 요사: 37평
● 가액: 4억5천만원
(절충가능)

055)271-8496
011-768-8744

사찰안내

● 위치: 진주에서 15분거리
● 대지: 200평 현대식 2층건물
1층 요사채 50평 큰방 5개
회장실, 2층 법당 20평 공양간 20평
창고 10평, 삼존불 아미타불
400불 신중탱화
● 몸만오시면됨, 즉시법회가능
● 가액: 1억 8천

017-548-5980

사찰안내

● 위치: 대구 팔공산 파계사옆
차로3분거리
● 절터 평수 662평
● 대로에서 산속으로 850m
인허가 받아줌
● 가액: 9억

010-3120-4017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사찰 부지 안내

● 위치 : 영덕 풍력단지 내
영덕대게 특구지역
● 평수 : 940평
전용허가 200평
● 진입로 포장
상수도 완비

010-7109-3281

포교당 안내

● 위치 : 일산
● 평수 110평 (7층 중 3층)
● 법당 50평, 요사 60평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0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 최상의 포교당으로 사정상 안내함

011-9366-112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최요지
● 대지 : 54평
● 1층 요사, 2층 법당 15평
● 가액 : 3억2천만원
※ 사찰양도, 운영하실분 연락 바랍니다
※ 부전스님,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연산1동 331-15번지
경남) 김해시 외동 705-4번지
연지불사

011-9557-4922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불로동
4층건물의 3층
● 평수 65평, 법당 50평,
주방1, 방3,
● 미타불, 관음보살, 지장보살
소불 200불
● 가액 : 1700백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1-509-1525

포교원 안내

● 위치: 경기도 부천시
● 평수 : 2층,3층 합 70평
● 2층 : 대중방, 접견실, 스님방
3층 : 법당(삼존불, 지장보살,
산신-각단탱화)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6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3167-177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구미 진평동
신도시. 위치 좋음
● 평수 : 38평, 1층
● 가액 :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없음
※ 즉시 법회 가능시설
일체 완비

055)271-8496
011-768-8744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2동
● 법당 및 요사채: 약 40평
● 3층건물중 2층 전체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별도

062)433-0365
011-9611-9600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4층중 3층 최고요지
● 평수: 40평
● 방, 주방 모든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시설비 상담
● 가액: 보증금 1500만원
월 30만원 ※스님사정상 급

031)404-6872
010-8861-1893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속초
● 건평 60평, 시설일체 완비
(내부시설 황토)
● 가액 : 1천만원에 월40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 환자 치료하시는 분이나
역학을 잘 하시는 분에게 적합
※ 전통 쑥뜸 좌욕기 완비

011-790-4809
017-527-1105

(제주도)목조사찰 안내

● 대웅전(목조단청)25평,
요사채 30+15평(2동), 용왕당,
산신당(목조단청), 종각(단청),
석조약사여래입상 7조탑
건평 약 400평, 바지하방36(100평)
● 가액: 4억 3천만원 ● 직접거래
● 특징: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일주도로변(일출봉, 우도,
섭라산보임) 바다2분거리의
그림같은 전통3포기와로된 사찰임

011-858-8892

포교당 안내

● 위치: 일산
● 평수: 113.5평 3층건물중 5층
● 시설위치 A급
● 법당, 사무실, 공양간,
방4, 목욕탕, 화장실2
실내 소각장 완비
● 가액: 은행 융자 2억 포함
4억 4천 급 양도

011-749-4553

사찰(급)안내

● 위치 : 울릉군 울릉읍 ● 대지 1,000평
● 법당25평, 산신각1동, 용왕각1동
요사채 40평(2채) ● 가액 : 3억 5천만원
● 공시지가 : 6억 (평당 6십만원)

사찰(급)안내

● 위치 : 해운대 벡스코(신시가지 입구)
시립미술관 2번 지하철 출구 앞
● 6층건물 6층 : 120평 공간에
법당 요사채가 65평.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 전세 5천, 시설비 4천(양도가 9천만원)

011-500-1777

토굴 안내

● 위치: 충남 청양군 대치면 개곡리
● 건물 39평, 심야전기보일러,
철근콘크리트 건물.
● 대지 400평, 전 300평, 임야 2천평
(준농림지 대지로 용도변경 가능함)
● 특징 : 칠갑산의 장곡사 인접지역과
행정복합도시 인접지역.
● 가액 : 2억

011-434-7209

포교당 안내

● 위치: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포교원 35평 2층
● 전세 500만원 월35만원
● 포교당
(시설비 협의가능)

018-506-4059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바닷가
● 대지: 800평, 건물 : 약 200평
● 100년 역사와 전통의 명찰 도량
대웅전 칠성각 종각 2층 요사채
사찰 및 포교당 토굴 사찰부지, 대량확보

연산공인중개사무소
(사찰전문부동산)
011-560-8522 (직통)
051)863-6661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
한림이주단지 옆
● 삼존불, 삼성각
시설완비
● 전비 합 2500만원
월세 무
텃밭등 900평

011-9237-3079

포교당안내

● 위치: 김해시 어방동, 아파트 밀집,
상가시장, 대형마트 동김해 최요지
● 평수: 46평, 5층건물중 4층. 방2개,
법당, 공양간, 시설1년.
냉난방시설완비, 주차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절충가)
● 최면, 사주, 요가, 풍수, 수맥,
대체의학 전수가능. 무료 전수

011-834-8545
055)337-8600

사찰안내

● 위치: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 대지 : 350평
● 건평 : 30평
● 가액 : 6,300만원

061)533-9046
011-631-2954

사찰(급)안내

● 위치: 강원도 정선군 인계면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30평 구가옥, 차고
● 산을 끼고 있음, 밭있음. 총 2300평
● 가액: 3억 융자 7900만원

011-9793-7052/033)562-7053

중요무형문화재 혜공스님의 영산의식 시리즈 (비디오, DVD출시)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이신 혜고 스님께서 불교의식을 비디오와 컴퓨터 등에서 볼 수 있는 DVD를 따라하기 쉽게 학습용으로 촬영, 아래와 같이 제작출시 하였기에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주문바랍니다.

아 래

1.대령/관욕 **2.**상주권공 지장불교의식 **3.**상용영반 **4.**회심곡(화청)1 **5.**회심곡(화청)2 **6.**구병시식 **7.**관음시식 **8.**점안의식 **9.**방생의식 **10.**사물 다루는 법 **11.**안택 **12.**시다림 **13.**산신불공 **14.**미타불공 **15.**신중불공 **16.**관음불공 **17.**지장불공 **18.**삼대화상증명불공 **19.**종사관욕 **20.**종사영반 **21.**가사불사의식 **22.**신중작법39위 **23.**간단한 신중작법 **24.**전통조석예불 **25.**천수경/장엄염불 **26.**상주권공/각배/영산염불 **27.**사시상단불공 **28.**작법무(복청게전수) **29.**작법무(시방찬소리도량게) **30.**작법무(욕건만다라선송다게작법) **31.**작법무(향수나열사다라니) **32.**삼보통청 **33.**아침저녁종성 **34.**향수해례예불 **35.**혼자서 하는 민관욕(간단한 관욕) **36.**생일불공 **37.**상주권공49제의식1 **38.**상주권공49제의식2 **39.**상주권공49제의식3 **40.**상주권공49제의식4 **41.**제사불공 **42.**삼신이운 **43.**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1 **44.**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2 **45.**화엄시식 **46.**약사여래불공 **47.**교재2권 100,000원

※ 제8기 의식대학 교육생을 모집하며, 범패 동계특별교육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4박5일간 실시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비디오 반이상 구입시, 5일간 교육테이프 14개 증정합니다.
◆ 비디오 각 25,000원 / DVD 각 30,000원
◆ 농협계좌 641010-56-000296(노연숙)
◆ 제품구입처 : 종무소 062)362-8604
혜공 스님 011-624-8604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 혜공 스님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취급브랜드 JBL dbx AKG MACKIE crown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제품을
원하신다면 스님이 운영하는
(주)야단법석과 상의 하십시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사원 모집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 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탈종무효 및 해임공고

2005.12.14(수) 현대불교 31면 극락사원 탈종공고는 부원장 심현섭은 공고게재 자격도 없는 자가 원장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고하였기에 무효로 하며,
부원장 심현섭은 본 종교단체 총무원 및 극락사원 원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부원장 자격으로 탈종공고를 게재한것은 정관 제8조 및 협약서 제5조에 의거 본 단체의 치명적 명예를 훼손하고 종교질서를 문란케 하였기에 부원장직 임명을 해임 공고합니다.

2005.12.19

극락사원 원장 심화섭
대한불교정음사원달마선양회
총무원장



불자 세상보기

임 배 근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실직청년에게 '희망'을

취업을 앞둔 대학졸업 예정자의 어깨는 축 쳐져 있고 그 부모들의 마음도 무겁기만 하다. 올해 대졸자들의 취업난도 예년에 비해서 덜하지 않을 전망인 탓이다. 전체 취업자중 20대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4년 28%를 정점으로 꾸준히 하락하여 지난 연말에는 18% 수준까지 하락해 사상최저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20대 인구 비중 자체가 감소한 영향도 있고, 공무원이나 교직, 공기업 등 고용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당장의 취업을 미루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청년실업문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국내 공장은 중국 등 해외로 이전하여 산업공동화 현상이 생겨 일자리가 줄었다. 게다가 기업은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함으로써 신규인력에 대한 교육비용을 부담하기보다 경력자를 선호하여 대졸자의 신규취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도 유연하지 못하다. 상용직의 고용보호가 강화되면서 상용직 일자리 기회는 감소하고 노동 이직율도 낮다.

최근 들어 내수경기가 다소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고 수출도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여 경제성장률도 지난해 1분기 2.7%에서 3분기 4.5%로 증가되고 있어 우리 경제는 점차 회복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렇지만 고용수준은 증가되지 못하고 횡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도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증가하지만 제조업 취업자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과거처럼 제조업이 고용확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수출이 잘되는 호황업종인 전기 · 전자 제조업도 공장자동화로 고용유발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경제에서 전반적인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고용효과가 높은 도 · 소매업이나 건설업, 음식숙박업, 교육 및 보건서비스산업이 경기회복과 더불어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이들 업종의 급격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으로서 일자리 나누기나 근로시간의 단축과 임금피크제의 도입 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실업율은 3.3%로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낮다. 단지 청년실업율이 7.3%로 높은 것이 문제다. 직장이 없다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 고용자가 필요로 하는 인력수준과 취업자의 실제 직무능력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어 취업률이 낮다.

먼저 대졸 취업희망자는 기업의 인력요구 수준에 부합되는 능력을 갖추어야 되며 취업희망자의 높은 기대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

부모에 기대어 직장 없이 그냥 지내기보다 영세기업이라도 피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찾아 나서야 한다. 대졸자들이 4년 동안 대학에 다니면서 지불한 비용은 등록금, 책값, 학원비, 하숙비 등 직접비용과 4년간 직장에 다닐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기회비용으로서 이 모든 비용을 대학교육비용으로 간주한다면 아마도 1억원은 족히 될 것이다. 이 많은 비용을 생각한다면 취업조건과 체면을 따지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취업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해외인턴제 지원에 나서고 있고 민간업체도 해외인턴 사원을 주선하고 있다. 국내에서만 직장을 찾기보다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무한한 블루오션인 중국, 인도 등 성장잠재력이 큰 해외로 진출할 기회를 찾아야 한다.

세계적인 투자금융기관인 골드만삭스는 2025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 일본 다음으로 세계 3위가 되고 2050년에 가면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국가가 된다고 희망을 전하고 있다. 쳐진 어깨를 펴고 세계강대국으로 변모하는 한국의 앞날을 보며 세계무대를 상대로 뛸 실력과 꿈을 키워 나갈 젊은이가 필요하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무쇠솥' 같은 새해를

병술년 새해엔 냄비근성이라는 자조적인 외투를 벗어버리자. 인생은 자동차가 아니다. 마음대로 부품을 교체할 수 없다. 역사는 영속적이다.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굴러가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전문가가 너무 많다. 아니 전문가인양 착각하는 비전문가가 너무 많다. 문제가 터지면 비전문가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결론을 내린다. 그 결론이 진리처럼 굳어진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입에 도끼를 물고 나온다. 그것을 녹여 무쇠솥을 만들자. 음식을 진득하게 익히는 무쇠솥을 만들자. 무슨 사건이든 한마디 거들겠다는 습관을 버리자. 공부든 수행이든 숙성이 필요하다.

변화와 개혁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개혁에는 함정이 있다. 그것은 기성복이다. 만들어진 것으로 갈아입는 것이다. 신발에 발을 맞춰야하는 함정이 있다. 개혁만이 지고지선한 가치가 아니다. 느리고 답답하지만 품과 길이가 맞게 지어 입어야 한다.

무쇠솥은 인스턴트식품을 만드는 도구가 아니다. 인내와 숙성을 기본 재료 삼아 음식을 익히는 도구다. 언론은 세 발짝만 앞서가야 한다. 과욕을 부려 열 발짝 앞서가선 안 된다. 무리하면 자충수를 두게 된다. 넘치는 것은 모자람보다 못하다.

우리 민족은 온돌이라는 걸출한 난방 시설을 발명했다. 천천히 데워지나 은은하게 오래간다. 파르르 끓는 양은 냄비가 우리의 본성이 아니다. 은근과 끈기가 우리의 민족성이다.

그런데 그 품성이 사라지고 있다. 호들갑과 조급증이 득세하고 있다. 진정으로 관심을 지속해야할 일들에는 망각의 탈을 쓰고 번다한 세상사에는 감 놓아라 배 놓아라 경박한 훈수를 즐긴다.

그냥 내버려두자. 궁벽한 토굴에서 치열하게 수행하는 스님, 밤을 잊고 사는 연구자, 새벽을 여는 상인들, 모두 열심히 살고 있다. 이래라 저래야 훈수 그만 두자. 양은 냄비를 버리고 무쇠 가마솥을 가슴에 심어 푹 고아낸 발언만 토해내자. 망둥이는 뛰지 말고 숭어만 뛰게 하자.

■ 이우상(대진대 문창과 겸임교수)

이렇게 들었다 시위와 진압

그가 나를 욕하고 꾸짖었다고 나를 때리고 내 것을 빼앗았다고 이런 생각을 굳게 마음에 두면 그 원한은 끝내 가라앉지 않으리. 그가 나를 욕하고 꾸짖었다고 나를 때리고 내 것을 빼앗았다고 이런 생각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 원한은 이내 가라앉으리. 〈법구경〉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열렸던 홍콩에서 한국농민들이 격렬한 반대시위를 벌여 홍콩정부에 의해 연행된 일이 있다. 또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여의도 농민시위에서 농민 전용철 씨가 사망한데 이어 이날 시위에서 부상당해 입원 중이던 농민 홍덕표 씨까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간절히 기원한다. 조속히 책임자가 가려지고 엄중한 문책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동안 경찰과 시위대는 폭력시위와 과잉진압으로 상호공방을 벌이다가도 어느 한쪽이 사망하면 이를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회로 활용해왔던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사건이 양측의 책임공방 구실로 활용되기보다, 이를 통해 이 사회에 평화적인 시위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경찰은 전경대원들의 인권교육과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시위대 지도부는 '혹시 폭력시위를 야기하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고 집회시위의 가장 숭고한 가치인 '비폭력 무저항 운동' 노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불교에서는 원칙적으로 폭력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설사 자기에 대해 원한과 나쁜 감정을 가진 사람에게도 평등하게 적용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원망으로써 원망을 갚으면 원망은 끝내 끝나지 않는다. 오직 참음으로써 원망은 쉬나니 이 법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할 때다.

■ 이은비(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전화 (02)2004-8243

자비의 전화 '법인'으로 새출발

자비의 전화가 지난해 12월 14일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1994년부터 시도된 사단법인화는 상담자원봉사자들의 숙원이었다. 비록 10여년이 지나서 그 숙제를 해결하게 되었지만 상담자원봉사자들과 실무자들의 감격은 남다르다. 이번 사단법인화로 불교계 유일의 종합 상담기관인 '자비의 전화'는 공신력을 얻게 됐고 회원들의 활동에도 공익성을 보장받게 됐다. 더구나 요즘 정착되고 있는 자원봉사 시간 인증을 받는 것도 가능해졌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폭력, 자살, 우울증 등의 용어를 언론에서 자주 접하게 되고, 사회 범죄도 알고 보면 심리적인 문제에서 기인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신의 비통한 삶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외로움으로 약물이나 술, 인터넷, 음란물을 의지처로 삼고 살아가는 나약한 사람들. 그래서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

자비의 전화는 올해도 이런 사람들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상담사업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는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부나 공익재단의 다양한 공모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수주를 통해 대사회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오래전부터 자비의 전화 사단법인화로 불교계 상담문화가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현실화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사찰마다 상담실이 설치되고, 자비의 전화 지부를 전국 단위로 설치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곁에 항상 상담실이 함께 있기를 기대한다.

황선정(불교상담개발원 사무국장)

법답게 가신 범룡 스님

지난해 12월 19일 동화사에서 전국선원수좌회장으로 봉행된 조계종 전 전계대화상 무영당 범룡 대종사의 영결식을 다녀왔다. 개인적으로는 열반하시기 한 달 전쯤 비로암에 일이 있어 갔다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스님을 뵌 적이 있을 뿐이다.

스님은 열반송을 물어보는 시자에게 "열반송이 다 뭐야! 부처님말씀대로만 살면 되는게지…."라는 참으로 스님다운 열반송을 남겼다는 말을 들었다.

다 부질없는 중생의 놀음들이 가소롭게만 느끼는 범룡 스님의 소요자재하신 모습을 다시 뵙는 듯 했다. 거짓 없고 담백한 삶. 스님이 가르쳐준 가르침이 새삼 깊고 넓게 전해온다.

이 시대의 몇 남지 않은 진정한 선지식을 이제 어디서 찾아뵈올 수 있을까 아쉬움만 더해간다. 범룡 스님의 원적을 보면서 이제부터라도 뒤에 가는 후학들에게 가식과 허위로부터 벗어나는 출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소박한 모습으로 많은 불자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가신 범룡 스님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김지호 (붓다뉴스)

이름모를 스님의 자비행

'인천'의 스승이라는 스님들의 자비행을 보는 것은 불자로서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해 12월 22일 경북 포항의 송라 보경사 부근 교통사고 현장을 지나치면서 겪은 일이다. 폭설과 한파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던 그날 영하의 날씨에 바람 또한 차가웠다.

어수선한 사고 현장에서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는 운전자를 지나가는 차량들은 구경만 할 뿐 인데, 갑자기 스님 한 분이 나서 입고 있는 장삼을 벗어 사고자에게 덮어 주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험한 사고현장에서 자비심으로 운전자를 보살펴 주는 스님의 모습을 보고 감명 받았다.

김충길(붓다뉴스)

'현대' 만평

심 민 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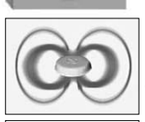


생명체를 컨트롤하는 파워자기장 척추크리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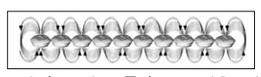


1. 우주와 인체내 자기장의 원리와
2. 척추와 12장부의 상호작용을 설명했습니다.
3.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있는데도 병원에선 괜찮다는 진단결과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통증이 있다는 것은 내 몸에 이상 징후가 있으므로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4. 내몸의 질병을 자신이 직접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5. 12장부의 대표적인 치료법을 의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분도 도해를 보고 척추를 중심으로 쉽게 치료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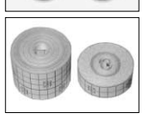
세계최초로 3200 가우스의 강력한 의료용자석 개발!!



◗대형자석
1. 크기 : 지름 20mm 의료용 원형자석 2. 수량 : 30개
3. 특징 : 3200 가우스의 반영구적인 강력한 의료용 특수자석



◗소형자석
1. 크기 : 지름 10mm 의료용 원형자석
2. 수량 : 30개 3. 특징 : 3140 가우스의 반영구적인 강력한 의료용 특수자석



◗반 창 고
1. 크기 : 대형반창고 – 넓이 50mm 길이 10m
소형반창고 – 넓이 25mm 길이 10m
2. 특징 :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은 인체에 무해한 의료용 반창고

제품 한세트 구성요소 가격 185,000원
치료용 책 1 권 + 대형자석 30개+
소형자석 30개 + 대형반창고 1롤 + 소형반창고 1롤

파워자기장이 필요하신분들
● 척추와 인체에서 발생한 모든 통증 ● 불치성 심장질환이나 간, 폐, 위장, 대장, 신장등 오장육부의 질환 ● 관절염, 오십견, 좌골신경통, 요통등의 질환
● 여성들의 생리통, 요실금, 냉증등의 부인병질환 ● 남성들의 정력감퇴, 조루, 소변이상등의 질환 ● 고질적인 천식, 숙취, 변비, 치질, 감기, 두통등의 질환

실증자료
가톨릭의대
채정호(여의도 성모병원), 이창욱(강남 성모병원)교수팀과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 의대의 마크 조지 교수팀은 기존 치료방법으로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한 우울증, 강박증 환자를 상대로 자기장치료를 실시한 결과 확실한 호전반응이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우울증외에도 각종 불안장애, 운동장애, 정신분열등의 환자에서도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다.

서울대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팀이 생리통 환자를 상대로 자기장 치료를 실시한 결과 90%이상의 환자들이 생리통이 없어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뉴욕AP통신에 따르면 뉴욕의과대학 신경과 전문의 마이클 웨인트러브 박사가 루프스등의 질환으로 나타나는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들에게 자기장 치료를 4개월간 실시한 결과 90%이상이 통증이 완전 해소됐으며, 당뇨병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작열감, 자통, 저림같은 통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상대로 자기장 치료를 3개월간 실시한 결과 거의 100%에 가깝게 통증이 해소 되었다고 한다.

언제든지 부담없이 치료법에 대해서 문의해주십시오/ 성심성의껏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란에 들어가서 보시면 치험사례 및 파워자기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및 구입문의 : 02)987-3110 / 011-9643-8161
국민은행 824002-04-030421(예금주:홍현의)

발명특허 출원중 | 의료기기로 보사부 허가 필 | 보사부 의료기기 허가번호: 제2244호

내 몸의 통증을 내가 지배해야 무명장수
통증을 다스리는 방법은 자기장이 최고라는 것은 학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질병이 발생하면 관련된 부위에 반드시 통증이 나타나며
이런 통증을 제대로 다스려야 건강하게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고 연구하는 한국자기원이 되겠습니다.
韓國磁氣院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88번지
홈페이지주소 : www.jibub.co.kr /E-Mail : jibub3110@hanmail.net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 (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www.hallaapt.co.kr



행복을 연주하는 공간

한라 비발디

사계절을 테마로 조경부문을 특화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공간을 선사하는 한라비발디 –
만나보세요. 늘 머물고 싶고 살수록 돋보이는 아파트!
행복을 연주하는 공간, 한라비발디

vivaldi
한라비발디

한라건설

아름다운

삶·사람

http://news.buddhapia.com/category/bosal.asp

신년 인터뷰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 원장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가정이 건강하면 세상도 밝고 반듯해요

김인숙(67) 불교여성개발원장과 김의정(65)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두 여성 지도자는 쌍용그룹 창업주인 고(故) 성곡(省谷) 김성곤 회장과 명원(茗園) 김미희 여사 사이에서 태어난 자매지간이기도 하다. 언니인 김인숙 원장은 한 평생 학자의 길을 걸었고, 동생인 김의정 회장은 다도(茶道)를 보급하는데 혼신을 힘을 기울였다. 하지만 자매의 회향처는 같았다. 바로 '불교'였다. 2006년 병술년 새해를 맞아 12월 20일 서울 성북동 명원다례전수관에서 두 우바이가 본지 위영란 편집국장의 사회로 '불교'와 '여성'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2006년 병술년 새해를 맞아 자매지간이자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두 여성지도자 김인숙 불교여성개발원장(사진 왼쪽)과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가운데)이 본지 위영란 편집국장의 사회로 대화를 나눴다.

▶먼저 두 분을 뵈면 불교계 대보살로 알려진 어머니 김미희 여사를 추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미희 여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김인숙 : 저희 어머니는 공과 사를 뚜렷하게 구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내 딸이라도 잘못을 했으면 엄하게 대했고, 남이라도 잘했으면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저는 남과 똑같이 취급받는 것 같아 섭섭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좋은 교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또 대단한 불자였습니다. 1960년대 말 어머니와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전날부터 "내일이 초파일인데, 내일이 초파일인데"라며 걱정뿐이었습니다. 폭포를 구경하다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찾아보니 어디론가 부리나케 뛰어갔어요. 태국의 고승들을 발견했던 거였죠. 평소 제대로 뛰지도 못하시던 분이 부처님의 가피로 초파일에 미국에서 스님들을 뵌 것이라는 환희심이 커 뛴 것입니다.



김의정 : 저는 어머니하면 항상 한국의 여인상을 그립니다. 어머니는 집에 계실 때나 외출하실 때 늘 한복을 입으셨어요. 집에 한복 만드는 방이 따로 있었는데, 제가 태어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방에 화로가 꺼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주무시기 전 그 방 불 단속을 꼭꼭 하셨어요. 숯불 하나도 소중하게 다루시는 어머니 모습을 보고 '한국문화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분은 각각 불교여성개발원과 조계종 중앙신도회 수장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직접 불교계 일을 하시기 전과 후로 달라진 점이 있으신지요?

김의정 : 중앙신도회장직을 맡으니 책임감을 절실히 느낍니다. 또 신도회 역사 50년 처음으로 여성이 회장으로 취임했다는 점에 대한 부담감도 있어요. 전통예절학교를 운영하면서 회장직을 맡으니 몸도 더욱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공식 행사차 사찰에 가면 행복감을 느껴요. 사찰에 우리 전통문화가 고스란히 있기 때문입니다.

김인숙 : 불교여성개발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양성평등에 의한 여성지도자 인력개발입니다. 그런데 원장을 맡고 보니 여성뿐 아니라 남성불자들도 인력개발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계인 YWCA는 한국 여성계를 휘어잡고 있어요. 국회 여성모임도 기독교 일색입니다. 종단에서 왜 그동안 인재양성을 해오지 않았는가 묻고 싶습니다.

▶불교의 70%이상이 여성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불교계 여성지도자로서의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의정 : 여성지도자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계발해 사회가 요구하는 공동의 과제에 대해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중앙신도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행활동과 종교의 사회적 실천사업 등을 통해 스스로 수련할 것입니다.

김인숙 : 여성 인력 개발을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정 확보입니다. 내년에는 모금운동에 주력할 것입니다. 또 사회 각계각층에서 일하는 여성지도자 108인을 2차 선정할 것입니다. 이 분들을 네트워크화 해 불교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생각입니다.

▶여성지도자이신 두 분에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모양처니 하는 좋은 여성에 대한 증후군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자신을 어떤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김인숙 : 저는 한번도 부모님께 "너는 여자니까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하고 싶다고 하면 "할 수 있겠니. 나는 너를 믿는다. 한 번 해봐라"라고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의정 : 저는 굳이 말한다면, 전통적인 여성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반듯해야 사회와 국가가 또한 그러할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정진하고, 저의 전공 분야이기도 한 '다도'를 통해 건전한 가정과 사회를 잘 가꾸고자 하지요.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두 분의 가정교육관이 궁금합니다.

김인숙 : 저는 말보다는 실천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싶었습니다. 우리 집 2층에는 항상 박스가 있었어요. 여기에 아이들에게 안 쓰는 참고서나 장난감 등을 넣으라고 한 뒤 이를 분류해 불교계 시설인 송암보육원에 기증했 왔습니다. 한번은 딸이 집에서 생일파티를 하지 말고 송암보육원에서 하자고 해 수차례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송암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잘 어울리는 것을 보고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월급 받으면 절에 갖다 드리라면서 일정 금액을 꼭 보시합니다.

김의정 : 어머님에게 다도를 전수받은 후 자연을 중요시하게 됐습니다. 아이들과 텃밭을 가꾸고 병아리나 강아지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자연을 좋아해요. 믿음의 크기는 이해의 정도와 비례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물을 바로 볼 수 있는 올바른 견해가 가장 필요합니다. 이러한 올바른 견해는 실천을 통해서 검증되고 확인되어야만 생명력을 가질 수 있지요.

여성계 기독교 일색, 인재 양성 시급
진정한 행복은 하고 싶은 일 하는 것
잘못된 것과 타협 않고 당당하길

특성 계발해 사회 지도력 발휘해야
올바른 견해는 실천 통해서만 유지
정보 공유하며 불교발전 위해 노력

▶2006년 병술년 새해를 맞아 불자들에게 희망의 덕담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니가 동생에게, 동생이 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 주시지요.

김인숙 : 새해에는 온 국민에게 가슴 아픈 일이 없길 기원합니다. 또 몸과 마음이 건강해 활짝 웃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동생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당당한 중앙신도회장이 되길 바랍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종단이든 정부든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의정 회장은 할 말은 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잘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김의정 : 새해에는 모든 국민이 상대방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며 더불어 잘 살아 보자는 마음으로 뜻을 합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여성개발원장인 언니는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사회활동을 많이 한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운영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여성개발원에서 좋은 프로그램이나 운영계획이 있으면 우리 신도회와도 같이 나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정리=남동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김인숙 원장 1939년 대구에서 출생했다. 미국 뉴욕대와 연세대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친 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와 사회과학대학 학장 등을 지냈다. 또한 교수불자연합회, 우리는 선우, 한국사회학회, (사) 전국여교수연합회 등에서 요직을 역임했다. 현재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와 우리는 선우 이사를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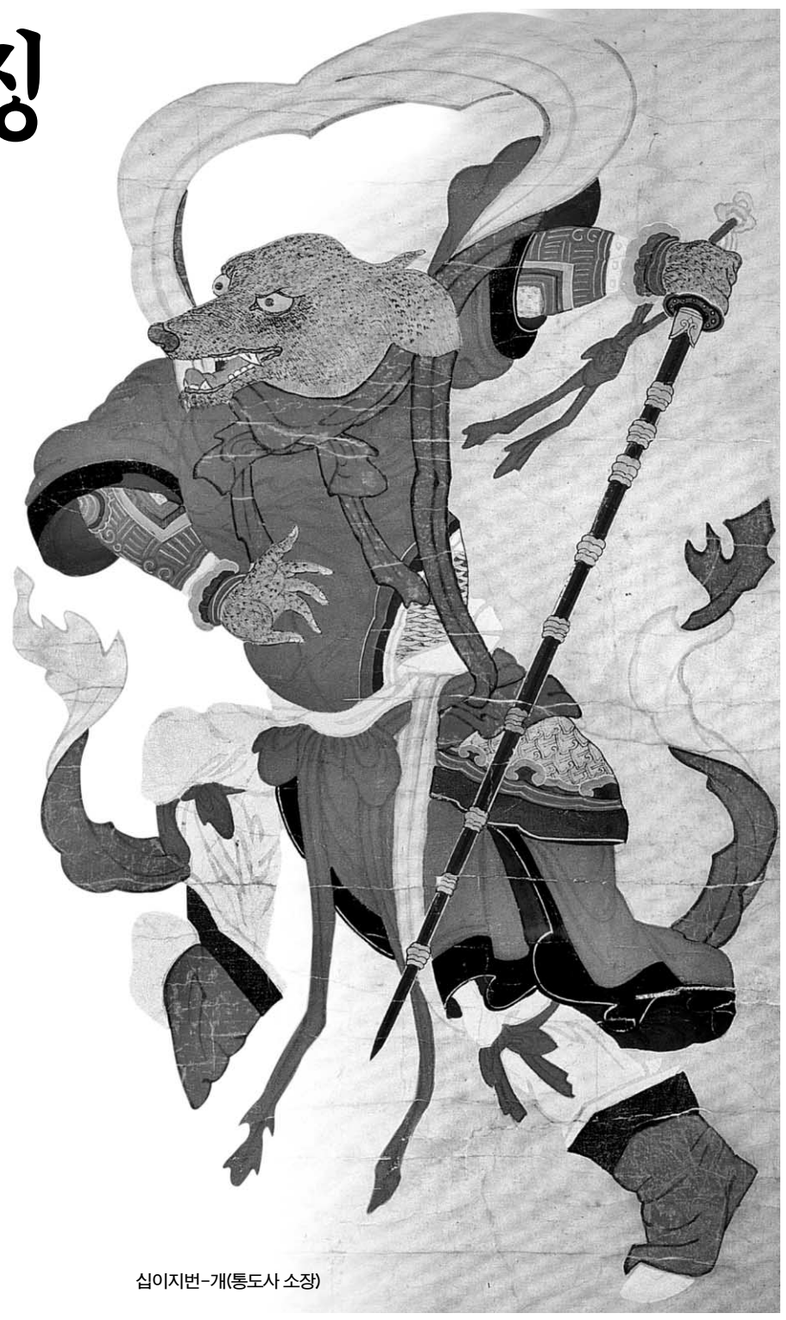
김의정 회장 1941년 출생했으며 서울예고를 졸업한 뒤 이화여대 음대와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을 거쳤다. 한국다도총연합회 총재, 만해사상실천선양회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며 2001년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7호 궁중다례의식 보유자로 지정됐다. 현재 명원문화재단 이사장, 궁중복식연구원 이사, 아시아민족조형문화연구소 고문이다.

謹賀新年 佛紀 2550年
丙戌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봉은사 미륵대불 설경

대한불교조계종
기도하는 도량, 공부하는 도량, 이웃과 함께하는 도량
봉은사는 21세기 한국 불교의 근본도량이자
세계 불교의 중심이 되는 사찰로 거듭나겠습니다.
회주 성암 종범
주지 설담 원혜
사부대중일동
135-09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홈페이지 www.bongeunsa.org
TEL 02)3218-4801~5 / FAX 02)544-2141

헌신 충복의 상징


십이지번-개(통도사 소장)

■불교 속 개 이야기

어떤 수행자가 물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스님이 대답했다. "없다." 그 수행자는 다시 물었다. "위로는 부처님으로부터 저 아래로는 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 불성이 있는데, 어째서 개에게 없다고 하십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개에게 업식(業識)의 성품이 있기 때문이다." <조주록>

1700 공안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무자(無字) 화두의 기연이 된 선문답의 일부다. 조주(趙州) 스님(778~897)은 '개에게 불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때론 '있다' 때론 '없다'고 답하면서 무수한 수행자들을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란의 경지로 몰아갔다. 이 문답은 개와 불성에 관한 것이라 해서 구자무불성(狗子無佛性)화두라 불린다.

조주 스님의 '구자무불성' 화두 유명
현상 집착하는 어리석은 존재 비유
독경 듣고 아라한과 이룬 이야기도

이 문답에는 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표상돼 있다. 일체중생이 불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대승불교 전통의 가르침이므로, 논리적으로는 개에게 불성이 있음에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개의 품행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처럼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한 개에 대한 편견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충돌하면서 문답을 둘러싼 의구심은 커지고, 문답은 하나의 화두로 승화된다.

이 같은 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경전이나 선전(禪典) 이곳저곳에 자주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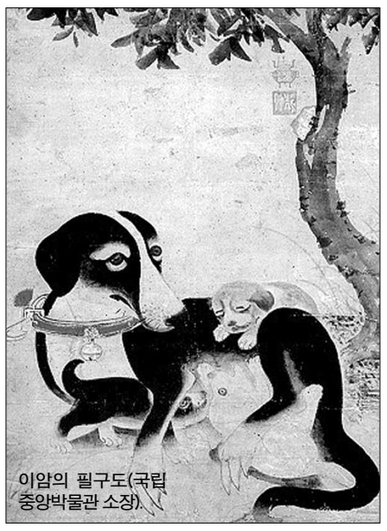
<대방편불보은경>에는 성현을 헐뜯은 죄로 개로 태어났던 균제 사미의 이야기가 나온다. 균제 사미는 과거세에 아비담장(阿毘曇藏)과 비니장(毘尼藏)과 수다라장(修多羅藏)을 통달한 비구였다. 그는 행색이 누추하고 음성까지 무딘 늙은 비구 마하라를 얕잡아보고 "음성이 개가 짖는 것보다 못하구나"라고 꾸짖었다. 그러나 그 늙은 비구는 이미 성현의 경지에 올라 있었다. 성현을 몰라보고 구업을 지은 균제 사미는 개의 몸을 받아 태어나야 했다. 말 한마디가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 이야기 속에서 '개'는 악업의 결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전등록>에서도 개는 어리석은 존재로 묘사된다. 잘 알려진 사자교인(獅子咬人) 이야기가 그것인데, "돌을 던지면 개는 그 돌을 물고, 사자는 돌을 던진 사람을 문다(韓盧逐塊 獅子咬人)"고 해서 개는 현상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존재를 상징한다. <잡아함경>도 애욕의 결박을 끊지 못하는 중생의 모습을 '기둥에 묶인 개'로 비유하고 있다.

하지만 개가 언제까지나 어리석고 탐욕스런 존재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개도 엄연히 성불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경전에 제시되고 있다.

<구잡비유경>에는 환생을 거듭한 끝에 아라한과를 얻은 개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옛날 밤낮으로 경전을 외우는 사문이 하나 있었다. 그의 평상 밑에는 늘 개 한 마리가 밥 먹는 것도 잊은 채 사문의 독경 소리를 일심으로 듣곤 했다. 그렇게 몇 년 지내다 목숨을 마친 개는 사위국의 여자로 태어났다. 자란 뒤 사문을 따라가 비구니가 돼 정진해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

박익순 기자


이암의 필구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우리 삶 속의 개

십이지의 열한 번째 동물인 개(戌). 시간으로는 오후 7시에서 9시, 방향으로는 서북서, 달(月)로는 음력 9월을 상징하는 방위신이며 시간신이다.

아주 오래 전부터 인간과 함께 살아 온 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헌신'과 '충복'의 대명사로 통한다. 목숨을 걸고 주인을 살린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다. 설화 속에서 개는 충성과 의리를 아는 의견(義犬)으로 그려진다.

그런가 하면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개를 따라가면 칙간으로 간다' 등 개는 비천함의 상징으로 우리 속담에 등장한다. 또 '개XX', '개만도 못한 X' 등의 욕에 응용되기도 한다. 이뿐이랴. '개살구' '개꿈' '개판' 등 앞에 '개'를 붙이면 사물의 격이 낮아지고 만다.

삶의 동반자인 반면 비하하는 용어로도 사용
병·잡귀 물리치는 능력 믿어 그림에 자주 등장
불교선 삼목천왕 환생이라 여겨 먹는 것 금기

이처럼 무시당하는 개이지만, 인류의 오랜 벗으로서 삶의 동반자 역할을 해왔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우리 조상들은 집안에 개를 기르면 잡귀와 병도깨비, 요귀 등의 재앙을 물리치고 집안의 행복을 지키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 옛 그림에 개가 자주 등장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실제로 오늘날에는 개가 범인을 추적하거나 마약 및 폭발물을 찾는 데도 큰 몫을 담당한다. 또 시각장애인에게는 길을 안내하는 등 일상생활을 돕고 활력을 주는 친구이기도 하다.

개고기는 한국과 중국 등에서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꼽힌다. 중국에서는 향육, 북한에서는 단고기라 불리는 개고기는 소화흡수력이 뛰어나고 양질의 영양가를 많이 갖고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삼목천왕의 환생이라 보기도 하고, 인과환생 할 때 개로 태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해서 식육이 금기시 된다.

노병철 기자

간추린 병술년 한국불교사

566년 (신라 진흥왕 27년)	2월. 신라 저원사(祇園寺)·실제사(實除寺) 창건 황룡사 준공
686년 (신라 신문왕 6년)	3월 30일. 원효대사 경주 혈사(穴寺)에서 입적 9월. 왕자 김상림이 불상과 향 등을 가지고 일본에 건너감 일본의 유학승인 관상(觀常)과 운관(雲觀)이 신라불교를 일본에 전파
806년 (신라 애장왕 7년)	절을 새로 짓는 것을 금지. 다만 수리하는 것은 허용. 또한 불사에 금은의 기물 사용을 금지
926년 (고려 태조 7년)	광자윤다(廣慈允多) 입적
1046년 (고려 정종 12년)	3월 11일. 시중 최제언을 시켜 행향(行香)하고 가구(街衢)의 경행(經行)을 배송케 함. 해마다 상례(常例)로 삼음
1286년 (고려 충렬왕 12년)	2월 12일. 자진원오국사(慈眞圓悟國師) 청영(天英), 고흥 불대사(佛臺寺)에서 입적
1406년 (조선 태종 6년)	1월. 의정부(議政府)가 전국의 사찰을 조계종·총지종을 합해 70개의 사찰로 화엄종·도문종을 합해 43개 사찰로 남산종, 시흥종 각각 10개 사찰 등 총 242개 사찰로 통합함 6월. 왕이 내탕금으로 <대반야경> 600권을 인출 명나라 황제가 대감 황엄을 보내어 제주도 법화사의 동불(銅佛)을 요청함
1466년 (조선 세종 13년)	3월 20일. 왕이 대왕대비 및 왕세자와 더불어 금강산의 여러 사찰과 낙산사(落山寺)·상원사(上院寺) 등을 차례로 둘러 봄
1646년 (조선 인조 24년)	천마사(天磨山) 관음사(觀寺音) 중수 해운경열(海運敬悅) 입적
1766년 (조선 영조 42년)	6월 27일. 풍엄취우(楓嚴取愚) 입적
1826년 (조선 순조 26년)	8월 23일. 완호윤우(忨虎倫佑) 입적 10월 6일. 해붕전령(海鵬展翎) 입적
1946년	1월. 전국의 스님들 신탁통치 반대하는 전국대회 소집 2월. 대승불교법화종 창립 2월. 파고다공원의 원각사 13층석탑 복구 작업 시작 3월. 제1회 조선불교 중아교무회 개최 3월. 조선불교 중앙총무원, 조선군정청 사회교육과로부터 박문사(博文寺)와 불교연구회 소속의 3개 사찰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 소재 일본 사원 43개 접수관리 5월. 월간 <불교신보> 창간 서울 성북구 소재 무량사(無量寺) 창건 5월. 조선불교학생동맹 결성 9월. 혜화전문학교, 동국대학으로 승격 인가. 불교학과, 사학과, 국어·영문학과 개설 10월. 조선불교혁신회, 중앙종회에 31본산제 폐지, 도별 교구제 실시, 교도제 실시, 사찰재산 통일. 교단사업 일원화 건의 11월. (재)조계학원, 전국사찰로부터 토지 1,301,213평을 기증받아 증자(增資) 11월. 만공월면((滿空月面) 서산 간월암(看月庵)에서 입적 11월. 제2회 조선불교 중앙교무회 개최. 31본산을 8교구제로 변경, 동국대 5백만원 증자. 3·8이남 불교사절단 이북에 파견 결의


우리나라 토종견인 삽살개. 사진제공=사단법인 한국삽살개보존협회

(재)대한불교조계종
안 국 선 원
"좋은 인연입니다"
불기 2550(2006)년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두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부산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35-14 (지하철 1호선 두실역 8번 출구)
(051)583-0993, 0994 / FAX (051)583-0999
■ 서울 :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0-3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02)732-0772, 744-0772 / FAX (02)744-0779
■ 미국 뉴욕 : 001-1-212-343-0809
www.ahnkookzen.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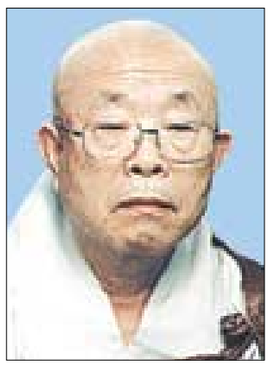
불기 2550(2006)년 丙戌年
"수행과 참회로 불국정토 세우길 서원합니다."

선학원에서 열린 조선불교선종 제 1회 수좌대회(1931년 3월 14일).
이 사 장 도형
총무이사 정관
재무이사 대운
교무이사 성우
기획이사 법진
이 사 보운 우록
철오 영주 상원
정덕 정수 보관
감 사 덕인
재단법인 선학원 임원 일동
재단법인 선학원
재단사무국 | 우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 전화 (02)734-9654~6 | 전송 (02)734-3410

눈 앞에 향상의 관문이 열려 있습니다

곳곳에도 깨닫는 길이

법전 조계종 종정



오늘 아침 하늘이 법등을 밝혀
시방세계(十方世界)가 역사(歷史)를 맞습니다.
집집마다 건곤(乾坤)의 덕(德)이 쌓이고
온누리에는 혜일(慧日)이 충만합니다.
산과 들에 법계(法界)를 장엄하는 풍류(風流)가 가득하니
야노(野老)는 줄없는 거문고로 무생가(無生歌)를 부릅니다.

금룡(金龍)은 골짜기에서 법우(法雨)를 몰고 나오고
새들은 꽃 속에서 향기를 안고 돌아옵니다.
사람들의 가슴에는 만복(萬福)이 들어 있고
눈 속에는 푸른 하늘이 가득 합니다.

곳곳에는 도(道)를 깨닫는 길이 있고
눈앞에는 향상(向上)의 관문(關門)이 열려 있습니다.
법에 얽매이면 자유롭지 못 하고
이념(理念)에 집착하면 편견(偏見)이 사람을 해칩니다.

밖으로 욕망과 집착을 버리면
알을 품은 금닭은 구름 밖에서 노래를 할 것이요
안으로 성인(聖人)과 범부(凡夫)를 분별하는 미혹(迷惑)을 버리면
새끼를 가진 목마(木馬)가 불 가운데서 잠을 잘 것이니

千年無影樹(천년무영수) 천년 묵은 그림자 없는 나무요
今時沒底靴(금시몰저화) 오늘의 바닥없는 신이니라.

법어 전문은 buddhanews.com

德儉行精宜最茶飮

■ 신년휘호

飮茶最宜(음다최의)
精行儉德(정행검덕)

차를 마시는 가장 최선은 검소한 덕인이 되려고 정진함에 있다. **원법 스님**(태고종 원로회의 부의장)



■ 축화 만지송(萬枝松)

천수천안관세음(千手千眼觀世音) 보살의 수많은 눈과 손으로 무한한 자비를 베푸는 공덕을 '만지송(萬枝松)'을 통해 느낀다. 병술년 새해를 맞아 수많은 일과 만남이 한뿌리의 일체감 속에서 세상을 향해 뻗어가는 나날이기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호신** (한국화가)作

부지런히 닦아 해탈대장부 되라

혜초 태고종 종정



해가 바뀔수록 인지(人智)가 명민하여 생활은 편리해졌으나 세상이 잡번(雜繁)하여 모두가 몽상에 빠져있는 듯합니다.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자연을 파괴하여 수많은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 물질을 차지하기 위하여 갈등과 쟁투를 일삼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법(季法)시대에는 투쟁뇌고(鬪爭牢苦)가 치성(熾盛)한다 하였습니다.
투쟁뇌고란 지구촌이라는 작은 우리속에 아집과 이기, 대립과 갈등이라는 사나운 짐승들이 뒤엉켜 서로 물고 뜯고 죽고 죽이는 중생계의 현상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가랑잎에 눈을 가리면 태산을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나라는 가랑잎에 눈이 가리어 국가와 사회와 이웃이라는 큰 태산을 보지 못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세상이 혼탁한 것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저마다 만물의 창조자요, 세상의 주인인 까닭에 세상이 혼탁한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금년 한해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된 생각을 바꾸고 자수정진(自修精進)하여 청정(淸淨)하고 명미(明媚)한 지정각(智正覺) 세계를 이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략)

감사하고 참회하라

도용 천태종 종정



誰將明鏡來相照
(수장명경래상조)

珠在皮膚自不知
(주재피부자부지)

馳走念波三千罪
(치주염파삼천죄)

萬法歸依一爐烹
(만법귀의일노팽)

누가 밝은 거울 가져와 비춰주려나
구슬을 가지고도 스스로 알지 못하네
치닫는 시비의 파장 삼천세계에 미치나
흩날리는 눈송이 화롯불에 녹아내리네

보살마음 내는 자는 모든 중생 보살이요
중생마음 내는 자는 사대성인 중생이라
남의 공덕 내 일처럼 따라 기뻐하여주며
감사하고 참회하면 서방정토 이 아닌가

정진의 씨앗을 마음에 심자

혜일 진각종 총인



심인(心印)의 바다 동녘에 솟는 해는
뭇 중생들의 밝은 눈이 되어 좋고 진리의 산 서녘에 지는 달은 별들의 빛이 되어 좋아라
가고 오는 법칙이 처음은 아니언만
언제나 생각은 새로운 것을 꿈꾼다.
머리를 쓰다듬어 참회를 하고
가슴을 여미면서 자성을 찾은 해가 수 없이 스쳐갔건만 전삼십과 후 삼십의 문턱에서 다시 또 삼십을 비상하려 비로자나 법신의 진언을 송한다.

이 밝고 아름다운 새 아침 진실된 마음으로 발원합시다. 슬픔과 아픔을 여의고 누구나 다 행복해지도록 행복의 씨앗을 심읍시다.(후략)

마음 맑으면 여래가 나타난다

죽산 관음종 종정



진심이 어디 있는가 바로 망념 가운데 있나니
망념을 떠나 진심은 거북이 털을 구함이요.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여래가 절로 나타난다.
물이 맑고 밝으면 해와 달이 선명히 비추듯이
동서남북 어디에도 문이 없으니
넓은 땅이 산과 강을 감추지 못하네.
모든 물건이 다 진리를 드러내 보이거늘
마음을 삼 가닥처럼 어지럽게 해서 찾지 말지어다.

자비실천으로 불국정토 이루길

효강 총지종 종령



불자님들 가정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하시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에는 저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가슴 가득히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새 마음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지난 과거의 삶은 묻어두고 새로운 햇살과 함께 새로 시작하려는 새로운 희망과 행복의 불빛을 밝혀야 합니다. (중략)
"반야를 배우는 보살은 먼저 대비심을 일으키고, 큰 원을 발하여, 정밀하게 삼매를 닦고,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
깨달음의 길은 반야를 증득하는 것이라, 반야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는 부처님의 넓고 크신 원대한 대비심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일심으로 정진해야 합니다. (후략)

"좋은점은 과감히 실천"

동광 총화종 종정

送酉迎戌 改革化(송유영술 개혁화)
宗務行政 大革新(종무행정 대혁신)
融化團結 忍賴心(융화단결 인뇌심)
相互容恕 化合心(상호용서 화합심)

다사다난했던 을유년을 보내고 희망과 광명찬 병술년을 맞이하여 지나간 일들을 거울삼아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좋은 점은 과감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명체 중시해야

혜일 보문종 종정

(전략)요즈음 배아줄기 세포에 따른 생명윤리 문제로 온 지구촌이 소란스럽습니다. 생명의 본질에 관한 바른 견해가 서야 현대사회의 당면한 문제에 불교의 올바른 처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중략)
생명의 존엄성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롯한 타 생명체를 동등하게 중시해야만 합니다. (후략)

나날이 새해로다

연화 미륵종 종정

어제 그날이 오늘 이날이요
오늘 이날이 내일 그날이로다
가고옴이 본래 요요(寥寥)하니
나날이 새해로다.
셋방살이 나그네가 주인을 친견하니
삼세일여(三世一如)로다.

마음 맑으면 혼란없어

일공 원융종 종정

다사다난했던 2005년을 마무리하고 2006년 병술년 희망찬 햇살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삼독심으로 인한 것이거늘. 하늘이 맑고 땅 위에 물이 맑으면 대지가 풍성하고 윤택해지듯 우리들의 마음이 맑으면 세상의 혼란도 차츰 사라질 것입니다. (후략)

원융상생으로 화합하자

해곡 열반종 종정

(전략)을유년도 세계각국은 폭동 테러와 전쟁 등으로 탐진치 삼독(三毒)에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였으니 대자연도 분노하여 태풍과 지진, 폭설 등의 재앙의 연속이다. (중략)
병술년은 태양처럼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중생이 원융상생으로 화합하고 자비를 베풀고 세계평화를 위해 참회하는 한해가 되어야 할것이다.

욕심 버리면 편해집니다

혜안 무량종 종정대행

수많은 세월 속에 봄은 가고 오건만
봄이 와도 눈먼 거북이 꽃을 보지 못한다네
지리산 칠성봉에 감추어진 일곱가지 보배여 산이 열려 일곱 번 봄이 올 때 생불을 보리라
욕심이 가하면 또 한해가 어지럽고
다 버리면 편해지네 싸울 일도 없구나
새동이 트면 온 인류가 서로 손을 맞잡고 풍년가를 부르면서 태평성대 하소서

대화와 용서의 한해를

붕해 (재)일붕선교종 종정



부모가 자손을 버리면 아이들은 늦은 봄 긴 가뭄에 타죽는 잔디처럼 그렇게 갑니다.
또 자손이 부모를 버리면 고기 없는 연못가에 늙은 황새처럼 쓸쓸이 살다가 생을 마칩니다. (중략)
뜻이 맞지 않다고 돌아서지 말고 대화와 용서, 그리고 서로 화합하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본래불성으로 희망 사회를

지명 조동종 종정



오늘 우리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접하고 있습니다.(중략)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물질적 풍요 속에 묻힌, 인간성 상실은 우려할 만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깊은 불심으로 이 어려운 시국을 극복해 희망 넘치는 좋은 사회를 창조해나갑시다.

자성의 길에 복이 있다

지산 정토종 종정



여기서도 근심이요
저기서도 근심이요
악한행도 두 곳에 있도다.
기쁨과 행복 또한 두 곳에 있으니
악한 마음 스스로 깨끗이 하여
청정을 찾으라.
자성의 길에서 복이 있다.

생명의 아름다운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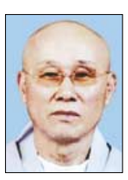
경조 불입종 종정



세월은 흘러가도 자취를 남기지않고 허공은 용납해도 제 터를 잃지 않습니다.
세상만물이 저마다 제 탈을 쓰고 모자람이 없는 제몫의 삶을 살고 있지만 차별상에 매인 중생들은 한시도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병술년 새해에는 마음눈이 밝아져서 더불어 사는 사회의 조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가 알게 되길 바랍니다. (후략)

화해와 용서, 화목으로

혜봉 해동종 종정



화합으로 본래를 찾자
을유를 보내고 병술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만과 집착의 을유년을 돌아보고 동체대비심으로 새해를 맞읍시다.
어떠함이 새해에 마땅히 할 일인가?
화해와 용서를 먼저 생각하고 화목과 이해로써
함께하는 세상을 이루도록 맡은 바 자리에서 노력합시다.

책임 다하면 태평성세

월인 승가종 종정



과거 없는 현재 없고, 현재 없는 미래는 기약이 없습니다. 어제를 되돌아보고 오늘에 임해야 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승가는 승가 본연의 자세에 임해야 하고, 재가는 재가 본연에 임하여
국민 각자의 맡은바 책임을 다할 때 태평성세가 이루어 질것 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열심히 기도 정진하십시오.

새해 불교계는 이런일이…

2006년 병술년이 밝았다. 올 한해 불교계에는 어떤 행사들이 열릴까. 각 사업의 세부계획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곳도 더러 있지만 이미 새해 주요사업들은 모두 자리가 잡힌 상태다. 새해에는 각 단체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활동을 펼칠 전망이다. 새해 불교계 주요 행사를 월별로 모아본다.

1월

- **부처님 성도재일** 7일(음력 12월8일) 부처님 성도재일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는 기도법회를 봉행한다.
- **교법사연수 및 정기총회** 전국교법사단은 4~7일 동국대학교에서 연수와 정기총회를 실시한다.
- **조계종 포교전진대회** 7~8일 속리산 관광호텔에서 개최.
- **조계종 국제사이트 개통** 10일 다국어로 서비스되는 조계종 국제사이트가 개통된다.
- **파라미타 지도자기본과정 직무연수** 현직 파라미타교원들을 대상으로 9~12일 서울 봉은사에서 실시한다.
- **정토회 제4차 청소년 인도워크캠프** 13~27일 인도 비하르주 수자타 아카데미에서 진행될 예정.
- **조계종 간화선기본수행프로그램 운영** 조계종 포교원 지정 사찰에서 재가불자를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세미나** '불교문화콘텐츠와 문화산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 **봉축장엄등 제작강습회** 조계종 봉축위원회는 14~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회 봉축장엄등 제작강습회를 갖는다.
- **동련 어린이인성교육프로그램** 사단법인 동련은 토요 미등교일에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발우공양, 인절미만들기, 생태프로그램 등을 산사체험과 접목했다.

2월

- **을유년 동안거 해제** 12일(음력 1월15일) 전국 사찰에서 방생을 겸한 동안거 해제법회 봉행.
- **30차 행자교육원 개원** 조계종 교육원은 15일~3월9일 30차 상설 행자교육원을 개원한다.
- **포교사고시** 조계종 포교원은 16일 포교사고시를 실시한다.
- **대한불교청년회 동안거청년신행결사 해제** 19일 3천배 철야용맹정진과 수계법회를 진행.
- **대불련 겨울 수행학교** 대학생불교연합회는 24~26일 겨울수행학교를 연다.
- **불교사회복지연구소 개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부설 불교사회복지연구소를 25일 개소한다.
- **전국불교만화공모전 시상식** 영남불교대학 불교만화연구소는 매년 12월부터 1월 31일까지 애니메이션 및 만화 공모전을 실시하고 2월중 시상식을 갖는다.
- **대강백 초청 봉선사 경전대법회**
- **스리랑카복지센터 착공** 조계종 사회부는 2월중에 스리랑카 복지센터 건립을 시작한다.
- **중앙신도회 신도임원법회** 불자인재양성을 위해 중앙신도회가 2월부터 권역별 신도임원법회를 진행한다.

3월

- **부처님 출가재일법회** 7일(음력 2월8일)을 맞아 출가재일법회 봉행.
- **부처님 열반재일법회** 14일(음력 2월15일) 열반재일법회 봉행.
- **2006 한국불교박람회** 불교산업전문전시회가 23~26일 개최된다.
- **불교지도자 및 신도임원전진대회** 조계종 포교원은 신도임원연수교육을 대폭 확대한 교구본사별 전진대회를 3월~5월 개최한다.
- **일연스님자료전시회** 군위 인각사와 도서출판 현암사가 일연스님 탄신800주년을 맞아 일연 스님 자료전시회를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연다.
- **삼짓날헌다례봉행** 31일(음력 3월3일) 삼짓날 전국 사찰에서 헌다례 봉행.

4월

- **대한민국경찰불교회 5주년 기념법회 및 정기총회**
- **중앙신도회 불자사회네트워크 발기인 모집**
- **제3회 한국불교학결집대회** 22~23일 해인사에서 개최. 국내불교학자는 물론, 미국과 일본 등 해외학자도 다수 참여해 국제적인 학술대회가 될 전망이다.
- **연등축제** 부처님오신날 일주일 전인 4월29일 서울 동대문운동장과 종로 일원에서 3만여명의 제등행진 참여자가 모이는 연등축제가 개최된다.

5월

- **불기2550년 부처님오신날** 5월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국 사찰과 불교단체에서 일제히 법회를 봉행한다.
-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 31주기 열반대재**
- **병술년 하안거결제** 5월12일.
- **동련 연꽃문화제** 전국 어린이 글짓기 · 그림그리기 대회. 올해부터 공모전으로 전환한다.
- **동국대 건학100주년 개교기념행사**
- **파라미타10주년행사** 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12일 10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다.
- **불서전시회** 불교출판문화협회는 서울 종로 조계사 인근에서 불서전시회를 개최한다.
- **동국대 제35대 이사장 선출** 5월중 신임 이사장 선출.
- **대한불교청년회 하안거청년신행결사**
- **키르키스스탄 고려인 합동천도재** 중앙신도회의 해외불교교류사업.
- **전국비구니회 학술포럼**
- **고운사 실비노인요양시설완공** 5월말 예정.

6월

- **제2회 남북불교도합동법회**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6월15일을 전후해 조선불교도연맹과 합동법회를 실시한다.
- **동화사 성보박물관 개관** 연면적 900여평에 수장고, 교육관, 전시관을 완비한 3개 층의 성보박물관 개관한다.
- **조계사 대웅전 복원 낙성식** 서울 조계사는 대웅전 복원불사를 완료하고 6월중 낙성식을 갖는다.
- **제4회 티월드페스티벌** 티월드페스티벌추진위원회 주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7월

- **파라미타연합캠프** 파라미타청소년협회의 10주년기념 연합캠프.
- **조계종 본말사 주지연수** 조계종 교육원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8월부터 전국 본말사 주지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8월

- **세계불교도 대만대회** 세계불교도우의회(WFB)는 대만에서 제23차 세계불교도대회를 연다.
- **일연스님 탄신 800주년 행사** 군위 인각사는 일연 스님 탄신 800주년을 맞아 7월 중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 **병술년 하안거해제** 8일(음력 7월15일) 하안거해제와 백중.
- **31차 행자교육원 개원** 조계종 교육원은 10일 예정으로 31차 행자교육원을 개원한다.
- **세계종교평화대회** WCRP(세계종교평화회의) 일본위원회는 세계 80개국 500명의 종교대표자가 참가하는 세계평화대회를 26~29일 도쿄에서 개최한다.
- **한국교수불자대회**
- **제8회 만해축전**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제8회 만해축전을 연다.
- **창작찬불가대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창작찬불가대회를 8월중 개최한다.
- **참여불교재가연대 제1회 청소년종교문화제**

9월

- **포교사품수식** 조계종 포교사단은 포교사품수식을 갖고 새로운 포교사들을 배출한다.
- **각 사찰 개산대재** 해인사, 청량사, 봉은사 등은 9월중 개산대재를 연다.
- **제33회 천태종 청년배구대회**
- **제9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일본에서 25~27일 개최된다.
- **불자지도자초청법회** 중앙신도회가 각계각층의 불자지도자를 초청해 법회를 연다.
- **불교구연동화대회** 불교계의 유일한 구연동화대회로 불교적 소재의 구연동화를 발굴, 보급한다. 사단법인 동련 주최.

10월

- **회당대종사 열반재** 진각종은 10월중 진각성존 회당대종사 열반재를 봉행한다.
- **제3회 달마마라톤대회** 조계종 서울광역신도회 주최.
- **각 사찰 개산대재** 통도사 동화사 은해사 금산사 등이 개산대재를 열고 기념법회 및 보살계 수계식, 차문화제전, 산사음악회 등을 개최한다.
- **종교예술제** 종교간 문화예술인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종교지도자협의회가 주최한다.
- **공무원불자연합회 창립6주년 기념법회**
- **대불어 20주년 기념식** 사단법인 동련으로 탈바꿈한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의 창립20주년 기념식
- **전력인불자연합법회** 한국전력이 민영단체로 전환된 후 흩어진 전국의 전력인 불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연합법회
- **차문화엑스포** 우리나라 차문화를 복원하기 위해 중앙신도회가 개최하는 엑스포.
- **조계종 제14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조계종 제14대 중앙조회의원 선거가 열린다.

11월

- **조계종 정기중앙종회** 11월 첫째주 열리며 2007년도 예산안 등을 다룬다.
- **태고종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낙성**
- **공무원불자연합회 사회봉사의 날**
-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및 시상식** 조계종 문화부가 주최하는 미술공모전.
- **영규대사 추모재** 갑사는 11월초 개산대재와 함께 의승장 영규대사 추모재를 봉행한다.
- **전국불교문학작품공모전 및 옥천사 개산대재** 11월 중순.
- **교법사 수련회** 전국교법사단은 11월 25~27일 괴산 다보사 다보수련원에서 교법사 수련회를 연다.
- **대각국사 의천 스님 열반재** 천태종은 11월 대각국사 의천스님 905주기 열반재를 봉행한다.
-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 사단법인 보리가 방송, 신문, 출판 등 3개분야에 걸쳐 불교언론문화상을 수여한다.
- **'올해의 불서' 선정** 불교출판문화협회는 한 해 동안 출간된 불서를 대상으로 '올해의 불서'를 선정한다.
- **동국대 제16대 총장 선출**
- **대한불교진흥원 주최 제4회 대원상 시상식**

12월

- **병술년 동안거 결제** 12월5일(음력 10월15일) 동안거 시작.
- **제18회 포교대상 시상식** 조계종 포교원이 한해동안 포교에 매진한 불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포교대상.
- **플래시애니메이션 시상식**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 주최 공모전 시상식.

謹賀新年 佛紀 2550年

丙戌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화 계 사



조실 숭산 행원

주지 성광

국제선원

사부대중일동

서울시 강북구 수유 1동 487번지 전화 02)902-2663

꿈이 이루어지는

낙산사 · 홍련암

낙산노인전문요양원

낙산주간보호센터

낙산포교당

낙산유치원

을유년 한해에 낙산사 천재지변 화마에 아픔을
함께해 주시고 정성을 보내주신 제방의 원로대덕 큰스님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부대중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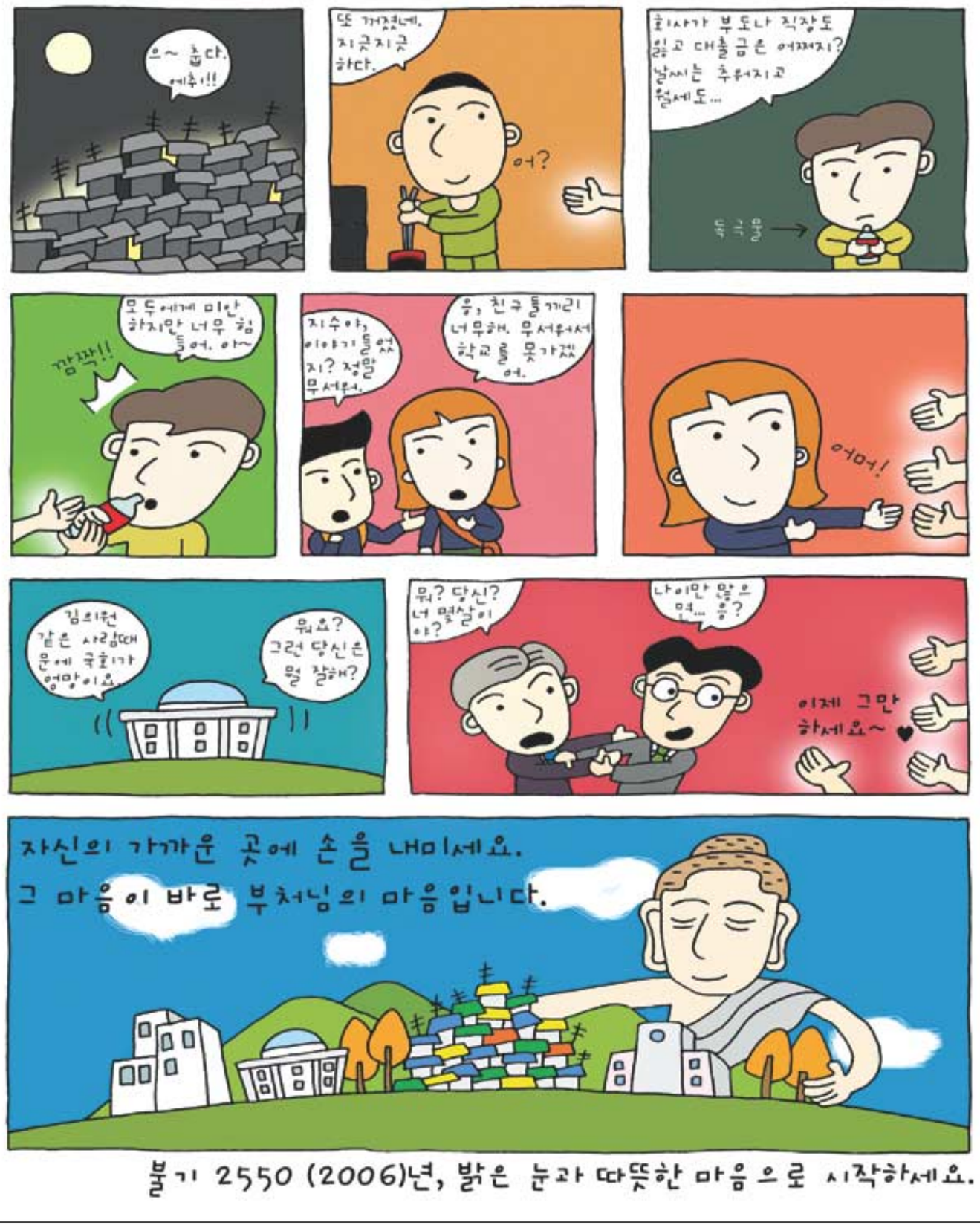
홈페이지 www.naksansa.or.kr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번지
전화 033)672-2447~8

고암 정병례(전각가)



이웃 손 잡는 한해 되길

배종훈 (bjh4372@hanmail.net)



절에서 새해를…

조태호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바닥에서 시공하여 올리기 전 모습


연등 자동장치 세를 중 한틀이 준공된 모습 (불을 켰을때의 전경)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 합니다)

丙戌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등 | 불 | 로 | 전 | 하 | 는 | 자 | 비 | 광 | 명 **찬덕연등**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저희 찬덕연등과 임직원을 성심껏 키워주신 사부대중께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찬덕연등은 전통의 미와 현대의 감각을 잘 조화시켜 한국을 대표하며, 세계속에 우리 불교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소명을 갖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hanDuk Lotus Lamp


종 등 | 팔각봉축접등 | 공단등 | 육각조립등 | 팔각조립등 | 팔각조립등 | 주름등(만월봉축등) | 공단황금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www.chanduk.com /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 e-mail : chanduk21@hanmail.net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사찰명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약 30일이 소요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주름등, 종등)

謹賀新年 佛紀 2550年

丙戌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미래를 선도하는 대승교화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丙戌年 새해를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불교태고종은 전 종도가 한마음으로 단결하여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건립불사를 성공적으로
회향하고 전통 대승교화종단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자리이타의 신행원력을 실천하는 종단,
국민과 불자에게 희망을 주는 종단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서울 은평구 신사동 9-16 태고빌딩
홈페이지 www.taego.org / TEL 02-382-7361~3 / FAX 02-382-9852

謹賀新年

억조창생 구제중생의 관음영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종 정 김도용 대종사

총무원
총 무 원 장 전운덕
총무부원장 변춘광

총 무 부 장 이문덕
교 무 부 장 김유정
재 무 부 장 남궁도재
교 육 부 장 김용암
사 회 부 장 김무원
규 정 부 장 조진덕
종정사서실장 정장호

원로원
원 로 원 장 윤덕산

종의회
종 회 의 장 주정산
종회부의장 김도산
종회부의장 박노승

감사원
감 사 원 장 장도정
감 사 위 원 정비룡
감 사 위 원 이월장

참 의 원 장 권무원 금강불교대학 학장 이재창 종전연구원장 김영태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번지
TEL 043)423-7100~8 / FAX 043)420-7399

謹賀新年

即身成佛 現世淨化

한국밀교 중흥종단 진각종

한국불교의 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總 印 慧 一

統理院長 悔 淨 宗議會長 鎭 山
教育院長 敬 淨 查監院長 惠 明

대한불교 진각종
http://www.jingak.or.kr
136-86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2동 22번지
전화 : (02)913-0751~4 팩스 : (02)913-0755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희망찬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원력이 충만하시길 서원합니다.
원정 종조님께서 세우신 정통밀교 총지종!
삼밀관행으로 즉신성불을 추구하는 윤원대도의 큰 뜻을 세우기 위해
엄격한 계행과 진언수행에 흐트러짐 없이 용맹정진하겠습니다.

종 령 효강
통리원장 우승

총무부장 선도원 재무부장 시정 사회부장 환수원 교정부장 지회심

종의회 의장 원송 사감원장 법성

서울경인 교구장 연등원 부산경남 교구장 대원
충청전라 교구장 밀공정 대구경북 교구장 지광

불교 총지종
The Buddhism chongjijong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2동 776-2
TEL 02)552-1080~3 / FAX 02)552-1082 http://www.chongji.or.kr

사단법인 **대한불교 일승종**

종정권한대행 및 총무원장 능허당 김혜정

원로원 원장 김법륜
의 원 최혜립, 김혜봉, 이덕화, 김묘암, 김무장, 남청엽, 전혜암, 전남강, 박혜인, 안묘정, 손연화, 이일성, 이법운, 김포광 김선재, 황용법, 김묘화, 이혜월, 홍인환, 김원성, 배복덕

중앙종의회 의장 서혜인 부의장 이길상, 홍봉덕
의 원 송청감, 강월암, 유문공, 임불광, 송여관, 이법정, 성대원, 이일공, 이정안, 홍연공, 황일조, 이자운, 연원공, 조원봉, 이무공, 김정오, 박정공, 정시공, 홍연각, 김정유, 이원공, 배명공, 정수공, 허정혜, 박신공, 권정욱, 박도공, 조월공, 심여공, 유천공, 최건공, 황지현, 김혜민

총무원 부원장 조정태 기획원장 이혜득 승정원장 정월하 교육원장 반혜치
포 교 원 장 강만공 승 보 원 장 이경보 비구니회장 박법륜 승정부원장 박정법
기획부원장 정대성 교육부원장 박혜성 포교부원장 문법성 총무원장사서실장 김성덕
재 무 부 장 배정휴 감 찰 부 장 이동화 총 무 부 장 연정수 포 교 부 장 조정도

교구종무원 강원교구종무원장 최법일 대구,경북교구종무원장 심탄공 울산교구종무원장 박선우
경남교구종무원장 김법보 부산교구종무원장 김법광 광주,전남교구종무원장 황효정
일본교구종무원장 김곡우

주소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346-18호
TEL 031)562-2751 / FAX 031)562-2752

대한불교 무량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정혜안 사서실장 보인

원로원장 **지은 정해 혜운 법해 지산**
교육원장 **보산** 호법원장 **보운** 문화원장 **오현** 포교원장 **종선**

중앙종의회
종회의장 **보경** 부의장 법우 부의장 보원 사무국장 보성

총무원
총무부장 성우 사회부장 보담 총무국장 보원 재무국장 보혜
교무부장 보우 재무부장 보광 교무국장 원정 사회국장 보정
규정부장 지명 포교부장 법진 포교국장 정심 규정국장 보연
호법부장 지담

무량선무도 도총사 보 인

총무원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550번지
총본산 지리산 **칠보정사** TEL 055)883-7771. 7790 FAX 055)883-77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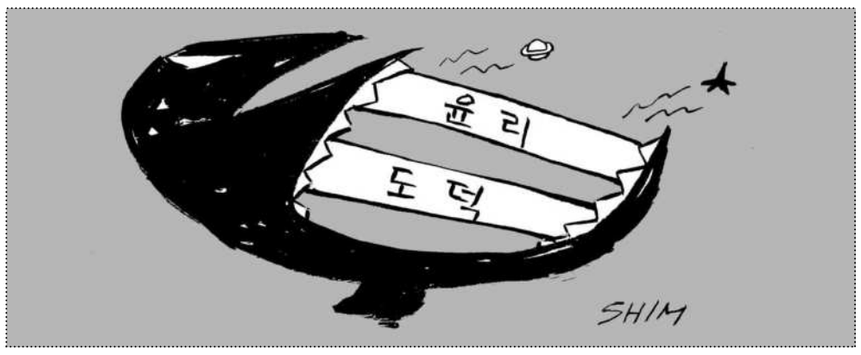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 강의 (76)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22강 윤리 vs 창조

진실을 말한다는 입을 참회하자



그렇지만 제 믿음의 기초는 아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황우석 교수가 말한, "그럼에도 줄기세포의 원천기술은 있다!" 입니다. 있지도 않은 기술을 가지고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친다? 그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0과 1 사이

이 상정 위에서 생각해 봅시다. 경제학적으로 0과 1사이는 거의 단절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은 그러나 좀 불안합니다. 우연한 성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가 나왔다면 어느 정도 안심해도 됩니다.

그것은 다시 실험을 통해 재검증될 수 있는 훨씬 큰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확증하기 위해 실험을 무한히 반복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학은 실험 결과의 어느 정도의 우연성은 접고, 과감하게 다른 걸음을 떼놓기를 요구합니다. 한 시가 급한 일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인문과학을 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논문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성과를 참작하고, 자기가 발굴한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이루어집니다. 독창적 논지를 펼칠 때는 뚜렷한 부분은 확대하고, 희미하고 반대되는 증거들은 무시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사실들의 나열들 속에서 길을 잃거나, 충돌하는 논점들에 휘둘리다 결국 죽도 밥도 아닌 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요컨대 '해석'은, 그것이 역사이든, 철학이든, 그리고 과학이든 이런 선택과 취사, 과장과 무시의 과정을 거칩니다. 일반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통찰이 독창적일수록, 그것은 더 큰 비판과 반론 앞에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두렵다면, 우리는 남이 짜놓은 틀 안에서만, 그리고 남이 하는 이야기를 그저 앵무새처럼 반복할 수밖에 없으니, 그 쳇바퀴 안에서 우리의 안목은 제자리걸음이고, 우리네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줄리아 크리스테바라는, 불란서의 포스트 모던 작가의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고 있다면, 우리는 같은 역사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삶을 경멸하는 자들에게

저는 황우석 교수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면, 그 근본적 사실 하나가 분명하다면, 성과를 부풀리고, 실수를 속인 것은 사소한 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만한 흠은 덮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컨대 사실을 밝히는 자들과,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무게를 갖습니다. 너무나 다르기에 우리는 그들을 달리 대접해주어야 합니다.

뒤에서 말을 하는 자들, 자기들은 손끝 하나 깜박하지 않으면서 품평으로 번성하려는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크리슈나무르티는 이런 독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불이 나서 다들 양동이에 물을 지고 황급히 오가는데, 곁에 선 자들이 양동이 들고 뛰는 품새가 품위 없다고 입을 댄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다."

이 참에 한 마디 해 두어야겠습니다. 저는 말끝마다 '윤리'와 '도덕'을 외치는 사람들을 순진한, 낭만적인 사람들로 봅니다. 책에서 배운 윤리적 잣대들은, 그것을 외치는 자신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원칙에 따라 살겠다는 사람은 좀 낫지만, 그 기준을 남에게만 적용하겠다는 사람은 위태롭기 그지없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종교인들이 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삶을 경멸하는" 자들을 경계하십시오. 그들의 말은 가시돋혀 있고, 사람들을 파괴하려는 열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니이체가 <짜라투스트라>에서 한 말입니다.

대승의 지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그리고 창조적인 활동들은 일반적 윤리의 규범을 무시하고, 그 경계를 밟고 지나갑니다. 작은 예를 들자면, 남녀간의 자유로운 만남이나, 생활을 위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단과 전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일부의 불만과 불이익을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이 만족할 조처나 시책은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일반적 도덕적 덕목이 아니라, 그것이 전체를 위해 무슨 도움이 될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 '이익'이 모든 윤리적 언명의 최종적 준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법상응사(法尙應捨), "법조차 버려야 하거늘"이라는 <금강경>의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원론을 잊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익이 있다면, 더구나 그것이 개인이나 국가가 아니라, 휴매니치의 이름으로 인류가 얻게될 이익이라면, 작은 이해관계는 물론이고, 자신이 믿고 있는 이념이나 종교조차 거두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태가 분명해 질때까지 기다려주는 덕목 또한 귀하디 귀한 것입니다.

가끔 <불자보감>을 들추어봅니다. 오늘은 유독 그 <참회게>가 가슴에 아려옵니다. 우리 모두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울력하지는 않고, 말로써 세상을 상처내고 쪼개는데 입을 보태지는 않았습니까?

참회게(懺悔偈)

아석소조제악업(我昔所造諸惡業), "내가 지난날, 지은 악업들은", 개유무시탐진치(皆由無始貪瞋癡) "아득한 시절부터의, 탐욕과 배타와 무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종신구의지소생(從身口意之所生), "내 이제, 육신으로, 혀로, 그리고 마음으로 지은 바 죄업들을," 일체아금개참회(一切我今皆懺悔), "그 모두를, 이제 참회하나이다."

살생중죄금일참회(殺生重罪今日懺悔), "죽인 죄", 투도중죄금일참회(偸盜重罪今日懺悔), "훔친 죄", 사음중죄금일참회(邪淫重罪今日懺悔), "간음한 죄," 망어중죄금일참회(妄語重罪今日懺悔), "거짓말한 죄," 기어중죄금일참회(綺語重罪今日懺悔), "꾸며서 말한 죄," 양설중죄금일참회(兩舌重罪今日懺悔), "한 입으로 두말하는 죄," 악구중죄금일참회(惡口重罪今日懺悔), "남한테 험한 욕 한 죄," 탐애중죄금일참회(貪愛重罪今日懺悔), "탐욕의 죄", 진에중죄금일참회(瞋恚重罪今日懺悔), "성질 내고 으르렁거린 죄," 치암중죄금일참회(痴暗重罪今日懺悔), "무지와 어리석음의 죄", 그 모두를 오늘 참회하나이다.

(우리네 삶은 이들 불순물들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늦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짐이 너무 무겁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백겁적집죄(百劫積集罪), "백겁을 쌓은 죄업도," 일념돈탕진(一念頓蕩盡), "한 순간 마음먹기에 몽땅 스러집니다." 여화분고초(如火焚枯草), "불이 마른 풀을 불태우듯," 멸진무유여(滅盡無有餘), "거기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명심하십시오.)

죄무자성종심기(罪無自性從心起), "죄라는 것은 본래 뿌리가 없으니, 그것은 마음 따라 문득 일어난 것일 뿐입니다." 심약멸시죄역망(心若滅時罪亦亡), "그 마음이 스러지면, 죄업 또한 사라집니다." 죄망심멸양구공(罪亡心滅兩俱空), "죄 없어지고, 마음이 스러지면, 거기 아무 흔적도 없으니," 시즉명위진참회(是則名爲眞懺悔), "이를 일러 진정한 참회라 합니다."

참회진언(懺悔眞言)을 욉니다.

"옴 살바못자모지 사다야 사바하" (3번)

■한국학중앙연구원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1> 연재를 시작하며

한국 참선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러시아 사람들이 있어서 지난해 9월 모스크바를 다녀왔다. 참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라 처음에는 조계종 납자들이 간화선 지침서라 부르는 <몽산법어>를 바탕으로 법문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한국 참선에 관심이 많은 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한국의 선도 함께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선가귀감>이었다.

이 책의 저자는 서산휴정(西山休靜 1520~1604년) 스님이다. 스님이 묘향산에 계실 때 50여권의 경전과 논서와 어록을 보시면서 공부하는 데 요긴하고 간절한 말들을 뽑아 두었다가, 후학들을 위해 주해나 게송을 달고 풀이한 다음 1564년에 직접 서문을 쓴 것이 <선가귀감>이다.

이것을 1569년에 금화 도인이 한글로 번역하여 153장으로 된 <선가귀감 언해본>을 펴냈고, 1579년 봄에 서산 스님 제자인 사명유정(四溟惟政)이 발문을 쓰고 81장으로 된 한문본을 펴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무엇'이란 내용만 알게 되면 <선가귀감>의 공부는 끝난다. 아니 불교의 모든 공부가 다 끝나 버린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 무엇'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책에서는 이어 설명하기를 '그 무엇'은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을 그릴 수도 없다고 한다. 이것을 바로 알고 깨치고자 하는 것이 선(禪)이다. 먼 길로 둘러가지 않고 화두로 직접 단숨에 깨치고자 하는 것이 간화선(看話禪)이다.

하지만 어리석은 중생들은 바로 알지 못하니, 자비로운 부처님께서는 '그 무엇'을 이해할 수 있도록 팔만사천 법문을 하시게 된다. 이런 가르침이 없다면 중생들은 '그 무엇'에 대해 알기가 어렵다. 시간이 걸리지만 차근차근 그 무엇에 대해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敎)'이다.

이 선과 교를 아울러서 성불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가르침이 곧 <선가귀감>이다. 올바른 스승을 찾기 어려운 요즈음 세상에서는 <선가귀감>이 바로 선지식이 된다.

화두법, 공부할 때 경계해야 할 것들 자세히
출·재가자들에 바른 참선수행 지침서 될 것

임진왜란 때 탐적사(貶賊使)로 일본에 갔던 사명대사는 임제종 승려들을 위해 이 책을 바탕으로 법문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인연으로 이 책은 일본에서 출간돼 당시 퇴폐일로에 있던 일본 임제종을 부흥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도 했다.

'선가귀감(禪家龜鑑)'이란 간화선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해 나아가야 할지 그 길을 일러 놓은 것이다. '선가(禪家)'는 '참선하는 집안'이란 뜻으로서 '참선을 수행의 방편으로 삼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된다. '귀(龜)'는 점을 쳐서 미래의 일을 알아내고자 할 때에 쓰는 거북의 등껍질을 말하는데, 뒷날의 내 모습을 미리 알아본다는 뜻이다. '감(鑑)'은 '거울'이니, 평소 공부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올바른지 <선가귀감>을 거울삼아 보라는 뜻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에 '선가귀감'이란 제목을 '선禪 수행의 길잡이'로 바꾸어 보았다.

책의 첫머리를 보면 '일물(一物)'을 번역한 '그 무엇'이란 말이 나온다.

여기에 '그 무엇'이 있는데
본디 밝고 밝아 신령스러워서
일찍이 생겨난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었으니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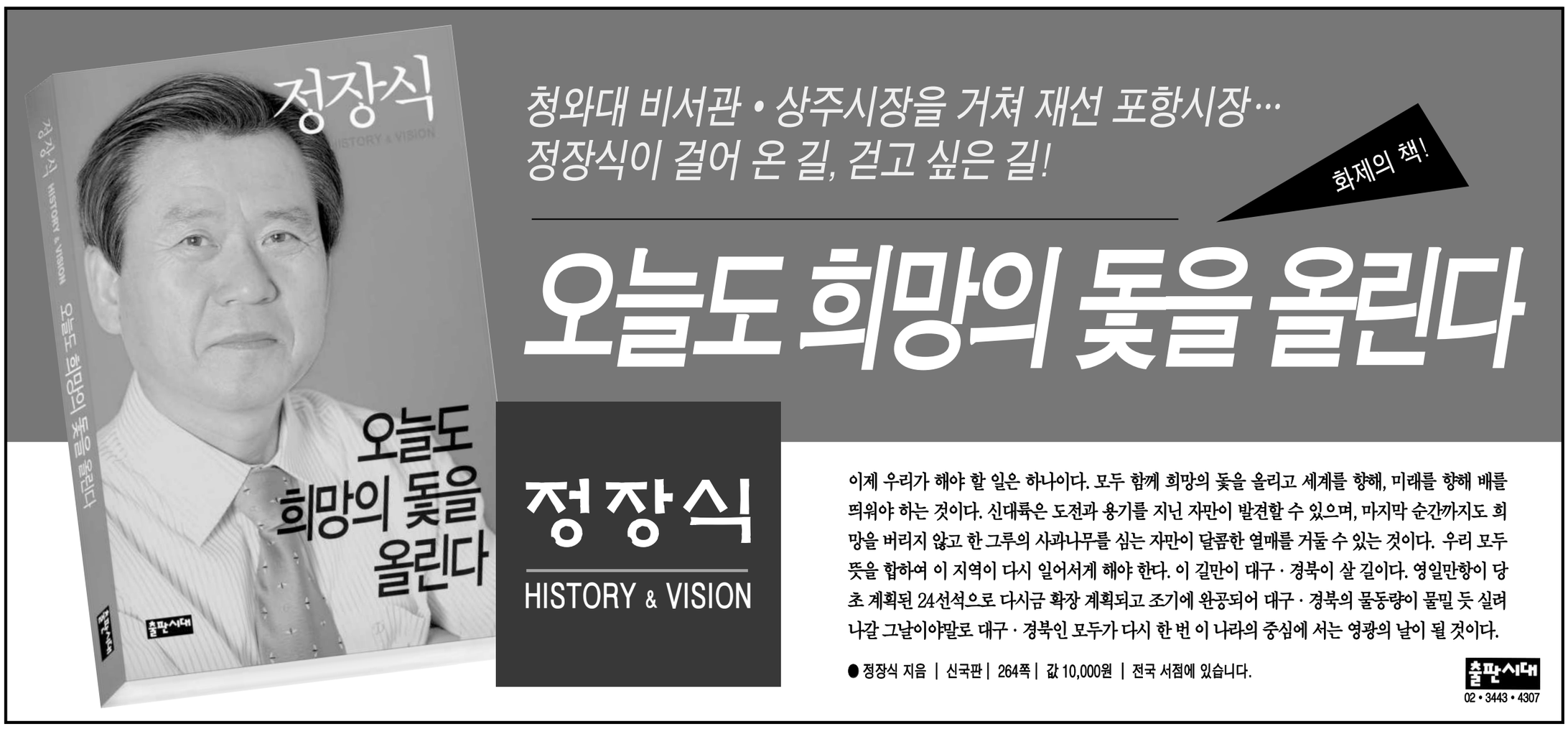
선에 대한 가르침으로서 <선가귀감>은 살아있는 말을 참구하라고 한다. 화두를 어떻게 잡아야 하고, 공부할 때 조심해야 할 경계가 무엇이며, 화두참구의 세 가지 요건 등 화두 수행법에 대해서 자세히 일러 주고 있다. 또한 수행을 할 때에 어떤 경전이 제게 참된 경전이며, 주력과 예배와 염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상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서 출가 수행자 뿐만 아니라 재가 수행자에게도 올바른 참선 수행의 지침서가 될 만한 것이다.

스님의 가르침은 수행 방법론에 그치지 않고 수행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간곡하게 이르고 있다. 수행자가 시주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의 명리를 구하는 일은 부처님을 파는 도적이라고 야단을 치면서 부처님 제자로서의 본분을 지켜나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

천리 밖에서 이 글을 듣고 보아도
놀라거나 의심하지 않고 받들어 읽어서 보배로 삼는다면
참으로 천 년 뒤에도 꺼지지 않는 밝은 등불이 될 것이다.

사명대사의 발문에 실린 이 원력을 담아 연재를 시작하려고 한다.

원순 스님은 1982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을 은사로 출가. 해인사 등 여러 선방을 다니다가 현재 송광사 인월암에서 정진. <한글 원각경> <선요> <선禪스승의 편지><육조단경><큰 믿음을 일으키는 글> 등 다수의 불서를 우리말로 펴냈다.



謹賀新年 佛紀 2550年

丙戌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大韓佛敎 佛入宗

宗正 鏡照

總務院長 鏡岩
護法院長 萬昊
布敎院長 惠鏡
宗會議長 石庵
釜山 慶南 宗務院長 法輪

總務部長 惠輪 譯經部長 慧光
監察部長 智學 組織法部長 相雲
社會部長 蕙觀 護法部長 法眞
修敎部長 知雲 布敎部長 印修

●總本山 : 忠北 報恩郡 三升面 元南里 389 華光寺
TEL 043)542-6664 / FAX 043)543-8887
●總務院 : 忠北 堤川市 靑田洞 86-4 松華寺
TEL 043)653-4800.0999 / FAX 043)642-6660

재단법인 한국불교 법륜종

종정 영산 원로원장 원호

■사정원
사정원장 혜안
사정위원장 성진
사정위원 봉안 종철 금륜 서광

■종회의원
종회의장 혜명
종회부의장 성타 혜인
종회의원 도광 도원 법천 담연 자오 승도 혜봉 성진 월산 법흥 금륜 선종

■교육원
교육원장 지각
포교원장 혜봉 연수원장 법천
교육위원장 무등 교육위원 대일 법정 도명

■고시위원회
고시위원장 혜우
고시위원 성타 성진 승도

■총무원
총무원장 탄공
총무부장 도승 교무부장 대일 재무부장 삼혜
규정부장 무학 사회부장 법일 총무국장 선법
재무국장 성오 규정국장 성공 사회국장 진오
선거관리위원장 자명

■예경실
예경실장 현오

■법규위원회
법규위원장 성철
법규위원 법흥 보성 법일

■재단이사회
재단이사장 영산
재단이사 혜우 대일 덕산 해월 보명 봉안 금암 금륜 무학 일원

총무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20-6호
TEL 032) 822-5371~2/ FAX 032) 822-5373

大韓佛敎 法相宗

종정 학암

총무원장 해월
부원장 도일
종회의장 무성
종회부의장 경천
사정원장 혜강
참선원장 지수
포교원장 교육원장 덕상
보구원장 원상
홍연참선부원장 도선

총무부장 해명 총무국장 청록
교무부장 천웅 호법부장 진성 재무부장 대광
사회부장 월암 문화부장 지선 홍보부장 종오
교육부장 혜명 포교부장 법정
사정위원 진광 사정위원 덕암
강원종무원장 대광 경북종무원장 도선 광주,전남종무원장 종오
충북종무원장 대명 충남종무원장 경천

총무원 :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69-8
전화 031)653-1250~1/ 팩스 031)653-1253

대한불교 총화종

종정 이동광

부종정 주인현 최혜산 총무원장 전남정

종회의장 김화담 문화원장 신도명
교육원장 조고담 선원장 박청해
감찰원장 이만오 선관위원장 권금봉
포교원장 김형민

종회부의장 기혜성 재무부장 박시산
종회부의장 김화명 교무부장 강설오
총무부장 박현오 조직부장 이법오
사회부장 윤대암 호법부장 신법광

서울(북)제1교구종무원장 이혜인
서울(북)제2교구종무원장 박현오
서울(남)제1교구종무원장 김혜각
서울(남)제2교구종무원장 엄자혜
서울(남)제4교구종무원장 이내역
경기(북)제1교구종무원장 최도명
경기(북)제2교구종무원장 유법경
경기(북)제3교구종무원장 이법오
경기(남,동)제1교구종무원장 기혜성
경기(남,동)제3교구종무원장 정종화
경기(서)제2교구종무원장 김혜암
경기(서)제3교구종무원장 김해관
강원제1교구종무원장 정혜산
강원제2교구종무원장 허승효
충청교구종무원장 김기태
대전교구종무원장 윤법전
경북교구종무원장 정일광
경남동부교구종무원장 김만법
경남서부교구종무원장 김만월
경남중부교구종무원장 김문곡
울산교구종무원장 백만우
부산교구종무원장 최만재
전북교구종무원장 권덕산
전남,광주교구종무원장 김현산
제주교구종무원장 김청해

총무원 :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342-1
홈페이지 : http://www.chonghwajong.org
전화 031)592-8891 / 팩스 031)592-8892

한국대승불교 조계종

종정 김봉진 사서실장 성운고
총무원장 김부경

종회의장 황관능 서울종무원장 석지성
원로원장 석무변 부산종무원장 성운고
대구종무원장 한혜봉
포교원장 김대공 광주종무원장 김법장
기획원장 강법성 동부경남종무원장 허 준
사정원장 이경담 서부경남종무원장 황약산
문화원장 유무정 중앙경남종무원장 이경담
교육원장 조굉송 경북종무원장 최보해
경주종무원장 지일장

총본산 :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TEL 055)521-1236, 1286 / 사서국 051)852-3707 / FAX 051-853-5622

公益法人 大韓佛敎 華嚴宗

大本山 藥師寺

회주 화담
주지 화응
부주지 대휴
신도일동

財團法人 華嚴僧伽奬學財團
公益法人 大韓佛敎華嚴宗奬學會

이사장 한상호(화응)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산 21대표전화 : (032)422-2066
<서울사무소> 소장 양위찬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208 금강빌딩 301호
전화 : (02)730-0798~9 FAX : (02)722-3205

다양성과 깊이, 전통과 응용 … "올 한해 주목"

새해 불교예술계 이끌 4인방

문화의 시대, 그동안 꾸준히 저변을 넓혀 온 불교문화계도 '다양성'과 '깊이'를 화두로 새해를 맞았다. 불교문화계의 다양성이 새로운 시도와 전통의 응용과 발전에 줄을 대고 있다면 깊이는 작가들의 내적인 성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연극 등 일부 장르의 침체를 극복할 대안 마련과 음악 문학 미술 분야의 활성화에 기름을 붓는 일이 보다 활기차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한 해 문학 무용 미술 음악 분야에서 활동이 기대되는 불자들을 만났다.


문숙 시인


손관중 교수


구진경 화가


이진구 작곡가

"문학과 불교는 제 삶의 두 축이죠"

문학- 문숙 시인

2000년 등단 후 묵묵히 시작 활동에 전념해온 문숙 시인(45)은 지난해 서울시 문화재단의 신진작가 지원 사업 대상 작가로 선정돼 올해 첫 시집을 발간한다.

"문학은 저에게 일종의 신앙이자 일상의 탈출구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될 첫 시집에서는 저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린 시절 성장과정과 지금의 삶이 맞물려있고 그 안에는 내 어머니의 삶까지도 투영돼 있습니다."

첫 시집의 테마는 '버려져 있는 것들' '애처로움' '늙음'. 등단 5년 만에 첫 시집을 내게 된 이유를 물었더니 문 시인은 "시도 묵혀뒀더니 늙더라"며 웃음 지었다.

문 시인이 처음 문학도의 길을 가고자 배웠던 것은 산문이었다. 95년 부산 유병근 시인 밑에서 산문을 사사했다. 스승은 문 시인에게 시로의 전환을 권유했다.

"글 쓰는 데 재주가 있다고 끊임없이 일깨워주었던 스승의 칭찬과 격려는 제가 시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원동력이자 '신바람'이었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중앙대 예술대학원 문예창작 전문가 과정에서 공부에 매진했다.

불교와의 인연은 학생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학생회에서부터 청년회에 이르기까지 법회활동을 통해 점점더 불교에 심취했다. 대한불교청년회에서 활동하던 당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정토회 법륜 스님 밑에서 1년간 공부하기도 했다.

"한 때 스님이 되고 싶었을 정도로 불교에 심취했어요. 지금도 문학과 불교는 제 삶의 두 축입니다." 이런 불교와의 인연은 문 시인의 시작(詩作)에 큰 밑바탕이 됐다.

지난해 <불교문예> 편집위원을 맡은 것도 불자이기에 불교문학을 이어가며 포교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거듭 종단의 불교문학 지원을 부탁한 문숙 시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녹아든 진솔한 사람이야기를 시로 쓰고 싶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다.

글 · 사진=강지연 기자

등단 5년 만에 첫 시집 내고 활동 본격화

"윤회 바탕으로 강렬한 몸짓 표현"

무용- 손관중 교수(한양대 무용과)

'한국현대무용의 카리스마' '힘으로 뭉친 강한 무용수' '이미지 춤의 전령사' 손관중 교수(한양대 무용과 · 46)를 묘사하는 말이다. 스승 김복희 교수(한양대 무용과)의 작품 '요석, 신라의 외출'이 1988년 초연될 때 원효역을 맡은 후 손 교수의 트레이드마크는 짧은 머리가 됐다. 끊임없이 작품에 활용할 불교적인 모티브를 생각하는 그의 춤은 강함, 격렬함으로 표현된다.

"제 작품의 주제는 바로 '윤회'입니다. 데뷔작에서부터 97년 서울무용제에서 대상을 받은 '인간 나무', 지난해 초 인간의 삶과 죽음을 파괴와 생성이라는 윤회의 관점으로 풀어낸 '검은 소나타-불타는 칼'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윤회를 표현했습니다."

올해에는 손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현대춤협회가 20주년을 맞는다. 그래서 손 교수는 3월 6~8일 20회째를 맞는 작가 12인전 공연과 현대춤작가 인명록 발간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예술감독을 맡아 이끌고 있는 손관중&가림다 댄스컴퍼니도 세 가지 색깔의 강렬한 춤을 보여줄 5월 정기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한양대 동문으로 이뤄진 손관중&가림다 댄스컴퍼니에 대해 손 교수는 "가림다는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 우리나라의 첫 글자인데 무용계의 선두에 서서 이끌어가자는 뜻"이라고 창단 의미를 설명한다. 가림다 댄스컴퍼니는 2005 서울무용제에서 '붉은 나비 고백'으로 음악상을 받기도 했다. 손 교수의 대표 연작 시리즈 '적(跡)'은 지난해 5월 '2005 광화문댄스페스티벌'에서 '적VI-허무'로 선보이는 등 꾸준히 창작되고 있다.

외국 무용수들이 40대에 대부분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과 달리 4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청년 같은 정열과 역동적인 춤사위로 무대를 장식하는 손관중 교수. 빼곡하게 들어차있는 2006년 그의 바쁜 스케줄 만큼이나 새해 벽두부터 무대 위에서의 그의 비상(飛上)이 기다려진다.

글=강지연 · 사진=고영배 기자

5월경 세가지 색깔 주제 공연 예정

"경전 모르면 현대 불화 못 그려요"

미술- 구진경 화가

'현대적인 불화가'. 구진경 작가(40)를 단 한마디로 설명하기에 딱 어울리는 말이다. 지난해 불두를 형상화한 실험적 작품을 선보여 주목받았던 구 작가를 12월 20일 작업실에서 만났다.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불화를 그리고 싶어요. 불화이기에 타 종교인들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 불교적이구나' 하는 자연스런 공감대를 형성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회화,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화를 그리는 구 작가의 설치물에는 흑백의 목판화 같은 느낌의 작품도 있다.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결과다.

"현대적으로 도상화된 제 불화들은 재가불자들보다 오히려 스님들이 좋아했다"는 구 작가는 그의 작품을 눈여겨봤던 한 스님의 요청으로 올해 경남 밀양의 한 사찰에서 극락전 벽화를 현대적으로 꾸밀 계획이다. 구 작가가 벽화를 작업할 곳은 15m에 달하는 토굴 진입로. 이곳에 청동 판을 세우고 안쪽에 조명을 설치해 빛으로 장엄된 아미타 극락도를 재현할 생각이다.

"청동에 구멍을 뚫어서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아미타극락도를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있어요."

구 작가는 불화를 전공하게 되기까지 스승 김대영 작가의 힘이 컸다고 고백한다. "절에 가서 불화 보는 것은 좋아했어도 불화를 그리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해봤던 저에게 불화 그리면 잘 하겠다고 조언해 주셨죠. 눈이 번쩍 뜨였어요."

불화를 그리겠다는 목적이 뚜렷해지니까 삶의 자세도 바뀌게 됐다. "불화를 그리는 것이 삶의 구원 같은 느낌이 든다"는 구 작가는 "아는 만큼 본다는 말이 있듯 불화 역시 불교를 아는 만큼 표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꾸준히 경전 공부를 하며, 동국예술인법회에 참석한다.

구진경 작가는 "제 삶의 모든 열정을 불화 도상의 현대적인 변형작업에 쏟아 붓겠다"고 포부를 밝힌다.

글=강지연 · 사진=고영배 기자

현대적인 아미타 극락도 벽화 꾸밀 계획

"불교, 창작활동의 매력적인 소재"

음악- 이진구 작곡가(능인선원 지휘자)

"불교는 음악적 소재가 무궁무진하게 산재한 매력적인 종교입니다. 불교공부를 하다보면 불교음악에 대한 창작욕구가 솟아납니다."

'2005 창작 찬불가 공모대회'에서 창작곡 '내 마음의 부처'로 대상의 영예를 안은 작곡가 겸 불교합창단 지휘자 이진구(38)씨는 새해의 다부진 각오를 이렇게 피력했다.

현재 삼보사와 능인선원에서 불교합창단을 지휘하고 있기도 한 이씨는 능인선원과 함께 상반기 중에 발매할 CD음반 작업으로 새해벽두부터 분주하다.

"10여 년 동안 불교음악계에서 활동 하면서 작곡한 찬불가가 대략 50여 편 정도 됩니다. 이번 CD에는 그동안 발표된 대표곡 2~3개 정도와 신세대들이 좋아하는 댄스 버전의 찬불대중가요를 새로 작곡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씨는 사실 불교음악가보다는 일반 공중파 방송 드라마와 대형 뮤지컬 작곡가로 더 명성이 자자하다. 그동안 이씨는 SBS의 '야인시대'를 비롯해 KBS의 '전설의 고향', MBC 다큐멘터리 '수달' 등 이름만 대면 고개가 끄덕여 지는 유명 프로그램의 음악을 도맡아 왔다.

이런 이씨가 불교음악계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중앙대 대학원에서 95년 정부기 중앙대 음대 교수에게 사사하면서부터다. 이렇게 오랫동안 쌓아온 사제지간의 끈끈한 인연으로 지난해 10월에는 정부기 교수가 쓴 불교 창작오페라 '야수다라와 아난다의 고백'에서 이씨는 국악오케스트라를 지휘하기도 했다.

앞으로 불교전문 아카펠라 중창단을 만들어 수준 높은 불음포교에 매진하고 싶다는 이씨는 뮤지컬 음악감독 겸 방송인인 박칼린씨와 함께 '에밀레'를 주제로 한 뮤지컬 작품을 올 상반기중에 선보일 계획이다.

글=김주일 · 사진=박재완 기자

찬불가 작업 · 뮤지컬 준비 등으로 분주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구요?!

曼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천식이 떨어졌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임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나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 기력이 좋아졌다.
- 백혈병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당 40만 원을 20만 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사은행사 :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았습니다.(100분 한정)

~~● 1Box(60포 ~ 20만원)~~ ~~● 2Box(120포 ~ 35만원)~~

1Box(60포 : 15만원) 2Box(120포 : 2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563-8292 / H · P : 011-9242-8292
홈페이지 www.mansam.net
● 계좌번호 : 농협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선(禪)호흡법과 정신(마음)수행법

하루 1시간만 투자하면 삶의 대한 자신감과 용기도 향상되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며 자비와 지혜가 생성되어 내 삶을 크게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삶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며, 완성된 인격과 덕망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선(禪)호흡법과 정신(마음)수행법을
자세히 가르쳐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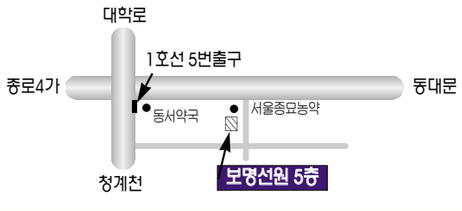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과 행복입니다.

체계적인 수행법 1:1 개인면담

불교의 수행법을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 장 소 : 보명선원 (종로5가 5번출구 1분거리)
▣ 시 간 : 오후 2:00 ~ 4:00, 저녁 7:00 ~ 9:00 (월~토)
▣ 수강료 : 자율보시
▣ 준비물 : 고무줄바지 (츄리닝)

매주 토요일 오후 4 ~ 6시 각성큰스님
대승기신론 유식론강의
서대원 박사 불전한문 상식축도강의



보명선원 TEL 02)2273-8484
C·P 011-785-8813

2006년 신개발 후불제실시 스님이 만든

스님, 불자님 전용 가방

스님, 불자님 외출 시 승복 및 필수용품을 넣는 좋은 가방을 개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권해드립니다.



가 격
본가방 1개 + 작은가방 1개
3만 9천원
※ 택배비는 1개 주문시 구매자 부담, 2개이상은 판매자 부담

사이즈
● 본가방 : 가로 440 × 세로 350 너비 90 × 끈길이 110
● 핸드가방 : 가로 295 × 세로 210 × 너비 70
● 제조원 : 국내(한국산)

● 특 징 : 불자님께 꼭 필요한 필수 용품, 승복 내장 시 구김 및 흐트러짐 방지(고무밴드 부착), 가방끈 탈부착 가능, 불자님께 맞는 품위있는 디자인(음字, 佛字 고급자수), 어깨끈 사용시 미끄러짐방지 기능(찍찍이 부착), 명찰 부착 기능(다른 가방과 혼돈 방지), 물세탁 가능, 의장등록 출원중
수익금은 사찰 건립 추진금으로 쓰입니다.
※ 고급원단 사용으로 견고하며 국내에서 제조하여 반 영구적이며 모든 스님과 불자님께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 가방이 수입품이거나 하자시 100% 반품 가능합니다.
※ 후불제 - 제품을 받아보신 후 입금 하시면 됩니다.
● 주문전화 : 대한불교 법정사 051)504-5777
[계좌번호 : 농협 121072-56-116911 예금주 조연순]

서화당인생풀이 V2.2 (동양철학)
네오헬스 V2.0 (사상체질의학)
인장성명학 V2.0 (작명)

▶할인후 : 총3장 220,000원

동양철학	사주팔자, 궁합, 당사주, 토정비결, 점성술, 성명학, 관상, 수상, 꿈해몽, 만세력제공, 사주사전기능, 방명록기능, 출력기능까지 (그간 3,000여장 판매실적) ☞ "특허받은 「사주천하」 LG산전 납품실적"
사상의학	나의 체질진단, 약선정보, 사상의학 강의실, 체질별 건강정보 사상체질 식단 및 이로운식생활제공
인장성명학	사주풀이 및 이름자 뒤에 인,장,점 등 표기설명, 성명풀이(한글, 한자), 작명(항렬자, 돌림자 풀이)



■ 그동안 3,000여장의 판매실적과 많은 분들의 입소문으로 입증된 사주풀이의 진수!!! 2045년까지 풀이됩니다.
■ 주문 선착순 100명께는 왕초보도 척척푸는 "사주세상 ₩47,000원" 또는 사상체질의학의 진수 "사상약물방제대전 ₩88,000원"을 선택하시면 무료로 같이 보내드립니다. ★ 특별선물증정 ★
■ 본 광고의 판매 수량 및 가격 유효기간은 500세트 한정 판매이며, **세트 판매 주문은 2006년 1월 20일까지 입니다.** 이후에는 종전대로 가격이 환원 됩니다.

입금처 : 우체국 313049-01-003391 (예금주 : (사)한국체질의학연구재단)
농 협 453050-55-002174

특가행사 : 서화당 V2.2 ₩220,000 + 네오헬스 V2.0 ₩110,000 인장성명학 V2.0 ₩110,000
▶CD 총3장 ₩440,000원을 특별할인(-50%)
판매가격 ₩220,000원에 본사에서 직접 공급합니다.
<주문후 택배로 익일에 도착합니다>

(사)한국체질의학연구재단 | 감수 : 한국동양철학인협회 중앙회장 최국봉 대전대학교 철학과 교수 송인창
☎ 050-2266-3366 / H · P 010-3366-3366

謹賀新年 佛紀 2550年

丙戌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

종 정 영산 일공 부종정 유념 법신

원로원장 송산
원로위원 선명 승정원장 체운

총무원장 법륜 총무부원장 선진
중앙비구니회장 대월 중앙비구니부회장 선덕
문화원장 체관 문화부원장 법원

총무부장 진호 사회부장 체법 문화부장 성해 재무부장 대월
사업부장 홍재 사회국장 도각 기획부장 법성 교육부장 진허

국제포교부장 보현 일본국제포교부장 체상 미국국제포교부장 도우
중앙종의회의장 체의 중앙종의회부의장 천호 지관
중앙종의회의원 체선 체명 체각 보선 송운 풍원 법민 경산 해송

경기종무원장 성인 경북종무원장 불선 경남종무원장 은혜 부산종무원장 대천
인천종무원장 보연 충청종무원장 체두 강원종무원장 대광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2동 704-39
전화 02)853-0531~2 / 전송 02)853-0533

대한불교 전통 조계종

종정대행 진경 대종사 부종정 덕 산 대종사



원 로 의 장 청 산 대종사
중앙선원장 혜 일 대종사
중앙종회의장 무 원 대종사

총무원장 능인 대종사
사정원장 향운 교육원장 무안
포교원장 정도 중앙연수원장 일조

※ 전국 사암등록 및 행자모집 하고 있습니다

본산 사찰 : 미륵산 용암사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용암2리 274번지
전화 033)761-7008 팩스 033)761-3200

총무원 : 삼학산 황룡사
경북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488번지
행정실 054)972-3174 팩스 054)973-4722

中國臨濟宗 七塔法派 韓國佛教 臨濟禪學院

宗 丈 慧泰 竹山
宗務總理 釋 摩 定
理事長 釋 解 愚
事務總長 釋 摩 祖

中華民國 臺北 臨濟宗 光德寺 方丈 釋 淨心
中國佛教 臨濟宗 本山 七塔寺 方丈 釋 可祥

臨濟宗 七塔法派 國際 法子聯誼會	會長	釋 心	茂
臨濟宗 七塔法派 韓國 法子聯誼會	會長	釋 解	愚
臨濟宗 七塔法派 싱가폴 法子聯誼會	會長	釋 慧	寂
臨濟宗 七塔法派 인도네시아 法子聯誼會	會長	釋 慧	行
臨濟宗 七塔法派 홍콩 法子聯誼會	會長	釋 慧	因
臨濟宗 七塔法派 말레이시아 法子聯誼會	會長	釋 慧	湧
臨濟宗 七塔法派 인디아 法子聯誼會	會長	釋 慧	生
臨濟宗 七塔法派 자카르타 法子聯誼會	會長	釋 慧	願

주소 : 서울시 중랑구 망우3동 120-7
전화 02)496-3951~3 팩스 496-3950

사단법인 대한불교 해동종
사단법인 해 동 자 비 원

원로원원장 석봉
원로원위원 백담. 승전. 법성. 법준. 정화. 원심

종 정 혜봉 종정사서실장 도은

총무원장 송산
부원장 대원 도현
총무부장 겸 사회부장 옥용
재무부장 덕광
교무부장 무연
의전부장 범산

중앙사정원장 청운
부원장 수산
사정부장 혜공

중앙포교원장 정화
부원장 보담
국내포교부장 진아
국제포교부장 법인

중앙교육원장 송현

중앙포교사 수월

중앙종회의장 보장
부의장 수원
중앙종회의원 청산 삼자 연각 수월 원광 혜봉 지선 금복

중앙복지봉사원장 백담
복지봉사부장 현법

서울교구종무원장 명기
부산교구종무원장 삼자
대구교구종무원장 대원
경북교구종무원장 혜봉

경기교구종무원장 운담
경남교구종무원장 혜광
전남(광주)교구종무원장 춘열

국제교화연구원장 공덕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 392-5
TEL 031)262-1577. 263-1353 FAX 031)265-8386

사단법인 대한불교 일광종

자비 방생도량 일광사

주 지 보 혜 부주지 혜 명 총무 성 도

신도회장	김 청정심	기 획	박 수 일
부 회 장	김 영 애	자비회 회장	고 무량화
교 무	이 청행심	자비회 부회장	현 금강심
포 교	김 법보화	신도회총무	이 무애심
관음회 회장	박 보현심	봉사부장	어 자행심
관음회 부회장	박 반야심	재 무	이 홍련화

서울시 중랑구 망우 2동 468-18호
총무원 02)2207-7198 / 종무소 02)438-3088 FAX 02)433-1666

세계불교 일붕법왕종

사부대중 일동

총본산 : 경기도 가평군 상면 원흥리 494-1 원흥사
TEL 031)585-2090

불교소설 출간 봇물 수행서 인기 계속

지난 2005년 한해는 지속되는 불황 속에 출판계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졌다. 연간 도서매출량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대형 출판사들이 속속 등장한 반면, 일부 불교계 출판사들은 1년에 2~3권의 책을 만들어내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2006년 새해 불교출판계 화두 역시 '장기화된 불황을 어떻게 타개하느냐'로 모아진다. 올해 불교출판계 전망과 주목해야 할 출판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올해 불교출판계는 불교적 소재의 소설과 선수행서 발간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불교출판문화협회가 지난해 5월 개최한 '전국불서전시회'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2006년 불교출판계 전망

● 불교 인물 다룬 소설 잇따라

2005년에는 <마라난타>(화남)와 <청화 큰스님>(랜덤하우스중앙) 등 몇몇 권을 제외하면 '불교소설'이라고 할 만한 작품이 거의 출간되지 않았던 것과 달리, 2006년에는 불교적 소재를 다룬 굵직한 소설이 속속 선보일 예정이다.

소설 <초의>로 평단과 독자의 호응을 한 번에 받았던 소설가 한승원씨는 이번엔 '원효 스님'에 도전한다. '원효'라는 이름에 가려져 제대로 고찰되지 못했던 원효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3권의 소설에 녹일 예정이다. 지난 2년간 이 소설에 매진해 온 한씨는 특히 전쟁을 통한 삼국통일 대신 불교 사상을 통한 '불국토 통일'을 역설했던 스님의 모습도 조망할 예정이다.

지난해 성철 스님의 발자취를 짚어본 에세이 <자신을 속이지 말라>를 펴낸 소설가 정찬주씨는 부산 영광도서 홈페이지(www.ykbook.com)에 연재했던 경봉 스님 일대기 '멋들어지게 살아라'를 책으로 묶어낼 계획이다. 경봉 스님은 근현대 한국불교의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 고승으로, 정씨는 3년간 경봉 스님 발자취를 좇아 통도사 극락암 삼소굴 등의 수행처를 직접 답사하며 총 44회에 걸친 연재를 마무리했다.

<만다라>의 작가 김성동씨는 다양한 작품을 집필 중이다. 2002년부터 구상하고 있는 '신돈' '묘청' '궁예'를 다룬 3부작 역사 소설을 비롯해, 산을 오르다 어느새 제자리로 돌아오는 가출한 사내의 이야기를 그린 중편 <산>도 출간을 앞두고 있다. <산>은 산을 오르는 여정과 진정한 자아를 찾아 떠나는 삶의 여정을 통해 '돌고 도는 세상'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2년 남양주 봉선사에서 작업하던 중 뜻밖의 수재로 휩쓸려 간 1,200매 분량의 <마하신돈>도 멀지 않은 시간에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수행서 인기 여전할 듯

'수행서' 발간 열풍은 올해 역시 불교출판계의 중요 흐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조계종출판사는 재가자를 위해 마련된 '간화선 체험프로그램'의 교재로 쓰일 <간화선 입문서>(가제)와 불교의 다양한 수행법을 쉽게 소개하는 '수행법 시리즈' 중 <절 수행>(가제)을 1월 중으로 펴낸다.

민족사는 '선종 제일의 책'이라 불리는 <벽암록>을 완역해 펴낸다. 지현 스님이 번역을 맡았으며, 본문만 4권 분량이다. 350페이지 가량의 <벽암록 사전>도 따로 발간한다. <벽암록>은 선종 공안집의 하나로, 설두중현 스님이 선사들의 화두 100개를 골라 송(頌)을 붙인 것('설두 송고')에다, 원오극근 스님이 수시와 착어, 평창을 달아 만든 책이다.

운주사는 인도의 대승불교의 고승인 용수보살이 저술한 <대지도론>을 10권으로 번역해 펴내는 대작을 준비 중이다. <대지도론>은 <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의 주석서로, 대승불교의 '백과전서'라고 불릴 정도로 폭넓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여시아문은 대원 스님(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이 무구자 스님의 <반야심경> 해석을 쉬운 우리말로 풀이한 <반야심경 주해>를 1월 중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 불교출판문화협회 활동 본격화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원택, 이하 불출협)는 올 한해 더욱 내실있는 활동으로 '불서 읽는 문화' 고취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초파일을 기해 조계사 인근에 장소를 마련해 '불서전시회'를 개최하고, 5월 열리는 서울북페어에도 참가해 불서 알리기에 나선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올해의 불서 10' 선정 작업을 이어가는 한편, 불자 독서운동 활성화 방안으로 '경전 독후감 공모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불출협 윤창화 부회장은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한 '사찰도서관 건립 추진운동' 등의 자세한 사업 계획은 1월 중 이사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큰 이슈 '도서정가제'

불교계 뿐만 아니라 올 한해 출판계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를 사항은 '도서정가제'가 될 전망이다. 발행된 지 1년 이내인 책에만 정가 판매를 의무화하고, 인터넷 서점에는 예외적으로 할인판매를 허용하는 현행 도서정가제에 대해 '영구적인 완전정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이 3월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인터넷 서점과 시민단체들은 "완전정가제 시행으로 동네서점이 살아나지는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는 반면,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완전정가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중소 서점이 무너지고 출판 유통시장이 붕괴된다"며 조속한 완전정가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영구적 도서정가제에 대해 불교계 출판사들은 "완전정가제는 메이저 출판사나 대형 서점에만 유리한 정책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찰에서 불구점(佛具店)과 함께 운영하는 서점 코너 외에는 이렇다 할 '불교서점'이 없는 상황에서 도서정가제가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독자 입장에서는 도서비가 높아지고 출판사측에서는 마진율이 낮아질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경전 독후감 공모' 등 불서읽는 문화만들기 내실화

사찰 도서관 건립운동 추진 등 불황타개 힘 모을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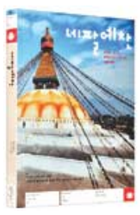
부부 여행작가의 네팔이야기

여성지와 일간지 기자로 일하던 최미선 · 신석교 부부가 2003년 동시에 사표를 던졌다. 이들이 '안정적인 직장' 대신 선택한 것은 바로 여행. 1년 동안 국내 곳곳을 여행하며 아내는 글을, 남편을 사진을 찍어 신문 지면에 소개하던 이들은 2004년 12월 네팔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른다. '만년설에 뒤덮인 히말라야'를 찾아 떠난 것이다.

부모님을 모시고 떠난 이 여행에서 부부는 안나푸르나 트레킹과 치트완 국립공원의 정글 체험, 사원 순례 등을 통해 네팔의 '자연'과 '사람'을 만난다. 히말라야와 정글 등의 자연에서 느끼는 감회도 새롭지만, 그보다는 그 속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하는 이들과의 부대낌에서 오는 소소한 감동이 더 깊게 다가온다. 또한 보름간의 짧은 일정 동안 알뜰히 네팔 곳곳을 찾아다니며 많은 것을 보고 느끼려 했던 노력도 느껴진다.

풍부한 사진과 착실한 여행기록으로 '그곳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일게 만드는 것이 이 책의 미덕임에 반해, 실질적인 여행정보나 '네팔'이란 나라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여수령 기자



네팔예찬
최미선 글
신석교 사진
안그라픽스
1만3천원

양심수 50인의 어제 그리고 오늘



내일을 위한 어제와 오늘
김성철 사진집
두르가
3만8천원

양심수(良心囚). 정치적 신념이나 종교적 · 도덕적 확신을 결정적인 동기로 하는 범죄를 행하여 투옥 · 구금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양심수는 85명에 달한다.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인사동 학고재에서 양심수 50인의 어제와 오늘의 사진들을 함께 전시하는 '제1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의 양심수 사진전'을 열고 그 사진을 책으로 묶은 <내일을 위한 어제와 오늘>을 펴냈다. 과거의 사진은 신문사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등의 단체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을 대여 받은 것이고, 새로운 사진들은 사진작가 김성철씨가 8개월 전부터 일일이 이들을 찾아다니며 찍었다.

1989년 남북작가회담 대표로 구속돼 92년 특별사면된 시인 고은, 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사건으로 구속됐던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불교계 인권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진관 스님,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대표로 방북한 후 구속됐던 문규현 신부 등 국제앰네스티에서 지정한 한국의 양심수 50인의 얼굴이 흑백사진으로 담겨 있다.

숭산 스님이 풀어 준 100가지 옛 공안

해외포교에 매진했던 숭산 스님(사진)의 입적 1주기를 맞아 1965년 출간했던 <도화집(道話集)>이 새롭게 출간됐다. 숭산 스님의 첫 저서였던 <도화집>은 옛 선사들이 들었던 1700공안 중 스님이 직접 고른 100개의 공안을 풀이한 책이다.

숭산 스님은 지난해 2월 이 책의 재출간 서문에서 "생사 없는 대자유인의 참된 모습과 생활을 통해 우리들 말세중생들의 규범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65년 책이 처음 출간됐을 당시 청담 스님 역시 "옛 선인(禪人)의 생활과 행적 · 규범 · 인생 · 생사를 쉽게 엮은 <도화집>은 도인(道人)의 역사이지만, 우리들 생활인의 이정표이기도 하다"며 "공안을 우리말로 쉽고 자상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화두를 모르는 사람도 능히 삼매(三昧)에 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추천사를 썼다.



조주 스님이 '개에게도 불성이 있냐'는 제자의 질문에 '무(無)'라고 답한 '무자화두(無字話頭)'를 풀이한 숭산 스님의 설명을 들어보자.

"이 무자를 긍정하겠는가? 부정하겠는가? 만약 여기에서 일전어(一轉語)를 찾아 쥔다면 부처의 진면목을 얻을 것이며, 부처의 진면목을 얻는다면 또한 조주의 진면목을 볼 것이며, 조주의 진면목을 보면 바로 그것이 자기의 본래진면목인 것을 깨달을 것이다. 문자에 걸리지 말고 오로지 무로 말미암아 일어난 의심 덩어리를 그대로 한결같이 끌고 나아갈 따름이지 만일 언어문자에 걸려서 사량분별심을 일으킨다면 상신실명(喪身失明)할 것은 물론이요, 세세생생에 생사의 고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 밖에도 '문답무용(問答無用)' '일심적정(一心寂靜)' '남전참묘(南泉斬猫)' '호자무수(胡子無鬚)' 등 유명한 선사들의 공안을 풀이했다. 각 항목에는 '용어해설'을 두어 '이심전심' '결집' '무상삼매' 등 불교용어를 정리해 이해를 돕는다.

여수령 기자



숭산행원 도화집(道話集)
숭산 스님 지음
홍법원 | 2만원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추위사냥" 최고 80℃까지 온몸을 훈훈하게!!!

"장삼안에 조끼형으로 입으시면 편안하고 따뜻합니다"
"LG 리튬이온 배터리 채택, 새벽부터 밤까지 20시간 지속 사용"
"이제 더 이상 조끼위에 덧입지 마십시요. 리오이태리 발열점퍼 하나면 끝입니다"



1. 4 in one system
점퍼 한 벌로 4벌의 효과를 ~
1억4조의 효과
(1) 발열점퍼에서 팔을 떼어내면
(2) 발열조끼. 발열판과 배터리를 빼면 봄, 가을 간절기에 입을 수 있는 (3) 레져용 패팅 점퍼,
(4) 레져용 패팅 조끼

2. 특허 받은 0.6mm 초박형 탄소 섬유지 발열체 채택으로, 더욱 가볍고 안전하며, 몸에 좋은 원적외선이 풍부하게 방사됩니다.

3. 레포츠 전문 브랜드 "Rio Italy"에서 패션과 기능성을 고려 마지막 한땀까지 깐깐하게 만들었습니다.
(1) 보온성 강화를 위해 활동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인체곡선을 따라 최대한 밀착되게 디자인 되었고
(2) 밑단과 허리조임끈 부착으로 보온성이 더욱 강화 되었고
(3) 단추와 시접 부분을 2중 박음질하여 더욱 튼튼하고, 잠금 장치 부착 고급형 지퍼를 채택했고
(4) 목부분 니트조직처리로 더욱 쾌적한 착용감을 강화했고,
(5) 가슴자수 로고와 지퍼, 단추부분 하나하나까지 멋스런 "Lio Italy" 로고처리를 했습니다.

4. 방수, 발수, 방풍 최고급 기능성 원단으로 만들었습니다.
5. 마지막 실오라기 하나까지 100% 국산입니다.

※ 스님을 위한 특별 공급가 ~~168,000원~~ → 138,000원
[소비자가격]

080-556-5050 / 02)2615-5709 (특판상담)
(주) 씨엔비마스터

과학강국 러시아 보온깔창
'마하까레' 화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 산사에서 수행생활 하시는 스님
- 군인, 경찰관 등 장시간 부츠 착용자
- 건설현장 등 운동량 많은 근로자
- 겨울철 시장 등 발보온이 필요한 분
- 계절에 상관없이 냉기로 발이 시린 분


러시아 연방특허증(좌) 위생증명서(우)

080-556-5050
02)2615-5709 (특판상담)
(주)씨엔비마스터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병을
약사여래부처님의 원력으로


자광스님

장애를 가진 스님이기에 몸 아픈 이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고경사 자광스님은 오불전 약사여래부처님을 모시고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을 부처님의 원력과 스님의 지극정성 기도로 치료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각종 신병 - 친견 상담 환영

스님 자신은 장애자이지만 정상인으로 오히려 장애자를 돌보는 듯했다. 뒤늦게나마 확인되어 알려진 청산자광스님의 부처님의 지극한 불심은 불치병에 걸린 모 종합병원 의사의 어머니가 후

대구경북신문 2004년 12월 21일자 5면
화제의 스님 탐방기사 중에서

두암말기로 현대의학으로 고칠수 없어 아들과 함께 고경사에 와서 먹은거라고는 겨우 스님이 준 사탕 2개를 먹고 완치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물론 그냥 나을리는 없지만 스님이 가르쳐준 지켜야 할 일을 병행해서겠지만 아무튼 기적이 아닌가?

원인모를 병으로 서울 등지의 유명의원을 전전해 오면서 생을 포기하고 환자의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마지막으로 가산 정리를 위해 1주일만 더 살 수

종합 newskorea 2005년 1월 5일자 37면
기사 중에서

있도록 해달라는 환자 부인의 애원으로 학가산에서 가족과 함께 기도로 완치되어 주위의 사람을 놀라게 하기고 했다.

부처님의 원력과 가피력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들여다 보인다
세상 모든 만물이 적용되는 방향이 있어, 골라서 처방하고...
인간에게 잡귀가 스미면 잡아 몰아내야 하고... 병이 나으려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아무리 독한 병일지라도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극정성이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약사경〉

대한불교본원종 고경사 (찾아 오시는 길 : 풍기IC에서 20분, 서안동 IC에서 25분)
경북 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 89번지 전화 054-638-8886. 8887 핸드폰 011-507-8885

법 묻는 이에겐 언제나 문 '활짝'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진제 스님 동화사 조실



누가 언제 찾아와도 항상 바른 참선법을 지도해 주는 진제 스님은 화두와 의심이 한덩어리가 되는 일념삼매를 지속할 것을 당부한다.



진제 스님이 동화사 금당선원 주변에서 포행하고 있다.

조계종 전계대화상을 지낸 범룡 스님의 입적으로 분주한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동화사 염화실에도 조문차 동화사를 찾은 스님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다.

보통 때 같으면 금당선원 수좌들의 오전 정진을 경책한 후, 발우공양을 할 시간이지만 범룡 스님의 장례관계로 이날 점심에는 상 공양을 따로 받았다.

된장국, 콩나물무침, 오이무침 등 깔끔한 반찬으로 차려진 상을 받은 진제 스님의 공양 시간은 10분 내지 15분. 발우공양에 익숙해진 탓이라 공양 시간이 매우 짧다. 도를 위해 살아왔을 뿐 평생 몸을 보살피지 않았다는 스님에게 음식은 몸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양식일 뿐이다.

보통 아침공양으로는 시자가 후원에서 가져온 죽을 먹고 점심에는 선원 수좌들과 발우공양을 하고 저녁에도 역시 후원에서 먹는 그대로를 분별없이 먹는다.

"도를 위해 절집에 왔지, 편안하게 지내려고 절에 온 것이 아니니까 음식이든 입는 것이든 별로 신경 쓰지 않아. 도를 위해 산다는 그 신조가 그대로 이어져 왔지."

진제 스님은 건강에도 무심했다. 21세 출가 이후 깨달음을 인가받았던 34세까지는 모든 반연을 쉬고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했다. 이 공부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고 망망대해를 홀로 거니는 것과 같다고 표현할 만큼 치열한 구도 행각을 이어온 스님에게 건강을 돌볼 겨를이 허락될 리 만무했다. 깨

새벽 2시 45분 예불로 하루 시작
저녁시간 제자에게 발 맡기고
일상사 나누며 공부 점검

달음을 인가받은 후 1971년 부산에 해운정사를 창건하고 후학들을 지도하느라 세수 일흔을 넘긴 지금까지 또다시 건강은 뒷전이다.

그러다보니 목 뒤에 군살이 생겨 5~6개월전부터는 스님이 직접 개발한 소나무 홍두깨로 이리 저리 지압 삼아 미는 것으로 건강관리를 대신하고 있다.

새벽 2시 45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영산전 법당에서 새벽예불을 드리고 돌아오면 한 시간여 동안 홍두깨 운동을 빼놓지 않고 있다.

"뒷목의 굳은살이 아무리 주물러도 없어지질 않아. 그래서 소나무 홍두깨를 해서 자연스럽게 굴리다 보니 목도 가볍고 머리도 가볍고 효과가 좋아. 내가 개발한 나만의 건강비법이지. 허허허."

홍두깨 운동을 마친 스님의 다음 일과는 참선이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하는 참선과는 다르게 '깨달은 세계를 그대로 누리는 참선'이라고 했다.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스님은 "깨닫고 나면 중생의 습기는 없어지고 항시 밝은 진리의 즐거움이 지속 된다"고 답했다.

"나라는 아상이 없고 바른 진리의 눈을 갖추었기 때문에 세상법에 초연해지고 밥을 먹고 물을 마셔도 집착이 없으며 진리의 낙이 함께 해서 그게 생활화가 되고 그대로 일상의 살림살이에 수용 된다"는 것이었다.

매일 오전 오후 두 차례 금당선원 수좌들을 향해 장군 죽비를 내려치며 경책을 하고 있는 스님은 이 시간을 제외하면 언제든 또 누구든 법을 묻는 사람들을 맞아 바른 참선법을 지도하는 일을 하루도 빼놓지 않는다. 특히 진제 스님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공부에 진실하고 간절한 이를 각별히 반긴다.

"법을 묻는 사람에겐 언제든 내 방문이 열려 있어요. 별별 사람이 많이 오거든. 와서 달려들고, 딴소리하는 사람도 많아.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큰소리 치고 가지만 시간이 흐르면 다시 와서 참회를 해. 이제 동화사에 머물면서 잘 지도를 해서 내 밑으로 한 개, 두개의 '법기(法器)'는 만들어놓고 가야지."

하루해가 저물어가는 저녁시간. 진제 스님과 시자스님은 세수 대야를 사이에 두고 마주앉는다. 저녁 예불이 끝나면 이어지는 이 시간은, 시자스님이 스승의 발을 씻어 드리는 일로 스승과 제자의 내밀한 정이 오가는 순간이다. 스승의 발에 비누를 칠하거나, 비누를 물로 헹구어내는 때에도 제자의 화두는 끊이지 않아야 한다. 발을 씻는 짧은 순간이지만 진제 스님은 그날의 간단한 일상사를 챙겨 물으며 드러나지 않는 은근한 사랑으로 제자의 공부를 점검한다.

세수가 많아질수록 제자를 야단치는 일이 즐어들고 있다는 진제 스님. "화두와 의심이 한 덩어리가 돼 일념삼매가 지속되도록 하라"는 당부로 일관하는 진제 스님의 하루는 '마주 손뼉을 칠 지음인을 찾아가는 한 길'로 통하고 있었다.

대구 동화사/글=천미희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향곡선사로부터 전법게 받아

진제 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 대종사이며 원로회의 의원인 진제 스님은 1931년 경남 남해에서 출생했다. 석우 스님을 뵙고 불법을 배우던 오촌 당숙을 따라 나섰던 1954년 정월, '범부가 도인되는 길'을 찾아 출가했다. 세수 21세, 1967년 화두 관문을 뚫고 향곡 선사로부터 전법게를 받아 경허→혜월→운봉→향곡 선사로 전해 내려오는 법맥을 이었다.

1971년 부산 해운정사를 창건, 도심속 참선의 대중화에 진력해왔으며 동화사 금당선원 조실, 조계종 기본선원 조실로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다.



금당선원에서 안거중인 후학과의 대화.



진제 스님이 건강관리 일환으로 개발한 '홍두깨 운동'.



범룡 스님의 입적으로 동화사를 찾은 스님들과의 인사.

이제 스님 과 신도들도 건강을 생각할 때입니다.

추운겨울 온열기능이 되는 참선방석으로 수행정진 하세요~

스님, 선객, 기공수련자, 일반신도를 위하여… 태화산 광현스님이 20년 경험으로 만든 방석



법회 및 기도시 가장 편한 자세를 유지하게 하고 세라믹보드의 원적외선과 음이온,토르말린,피톤치트에 의한 건강 증대효과가 있습니다.

제품 효능
- 장시간 사용에도 가장 편한 자세 유지와 바닥의 냉기가 스며들지 않습니다.
- 척추의 만곡을 예방하여 줍니다.
- 장시간의 좌선 및 운공시에도 전신에 피로감이 오지 않습니다.
- 앉아만 계셔도 단전에 공력이 증가됨을 느끼실수 있습니다.
- 단전의 연정화기에서 연기화신을 이루어 연신환허에 까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품 구성
- 커버 : 최고급 내자 및 원단사용
- 쿠션 : 특수제작 및 설계 메모리폼
- 열원 : 신기술 "세라믹히팅보드"
- 콘트롤러 : 온도조절 가능

제품 가격
- 스님용참선방석: 180,000원
- 참선방석 : 145,000원
- 절방석 : 75,000원
- 건강좌욕방석 : 94,000 ~ 98,000원
- 자동차방석 : 58,000/88,000원

제품 특징
- 원적외선 대량방출에 의한 건식 찜질 효과
- 세라믹히팅보드를 사용하여 전자파 걱정이 없습니다. (열선이 아님)
- 세라믹히팅보드의 복사열은 땀이 차지 않습니다.
- 특수제작된 메모리폼은 바른자세를 유지케 합니다.
- 표면에 처리된 은이온수 토르말린, 피톤치트는 살균, 정화기능이있습니다.
- 최고급원단사용 및 온도조절기능이 있습니다.



제품 구입 및 문의
- 전화: 031)429-3383 / 010-6368-3346
  011-281-5619
- 홈페이지 : www.heatway.co.kr
- 제 조 원 : ㈜예간하이텍
- 계좌번호 : 농협 591-17-004807 (예금주 : 예간하이텍)

※ 제품에 관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특허 및 인증제품

불자님들을 위한 12支 건강 지킴이 메달



인연 닿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한 삶과 행복을 기원하고자 12지 건강 지킴이 1호(쥐띠)에서 12호(돼지띠)까지와 수비 경명주사와 육기의 기운으로 전자파를 차단하는 핸드폰 고리를 오랜 간 연구하여 정성을 다하여 개발시판하게 되었습니다.
개개인의 12지 띠에 맞추어 사용하시면 분명 건강과 행운이 함께할 것입니다.

- 재 료
  99%의 은 (중량 – 메달 5돈, 목걸이 10돈)
- 특 징
  앞면은 12지신 문양은 건강과 행운을 함께하며, 뒷면의 육기(피라미드원리)에서 나오는 특이한 기(氣)를 발생하여 생기(生氣)를 북돋아 주며, 자연 식물성 특수 접착제로 배합하여, 천연광석인 최고급 수비 경명주사와 금니로 마무리 채색

▶ 12支 건강 지킴이 메달 사용효과

천연광석인 최고급 수비 경명주사와 금니채색 및 육기의 기운이 함유된 제품이기에 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활력을 증진시키며, 신경안정과 피로회복에 많은 도움이 됩것이며 전자파 차단과 정전기 방지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경명주사의 효능

본초경에서는 경면주사는 "맛은 달고 약성은 약간 차고 독이 없으며 심경에 돌아가 정신을 안정시키고 진정하여 보기(補氣), 치당뇨(治糖尿) 등을 치유한다"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정신을 안정시키고 경풍을 멈추며 열을 내리고 독을 푸는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작용때문에 잘 놀라고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수면장애, 건망증, 경풍, 경간, 정신병, 열이 심하고 정신이 흐리며 헛소리 하는데, 피부가 헌데등에 쓰입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기, 간질, 우울증 등의 신경성 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금라성(錦羅星)**

인연처 : 051)646-2700. 632-0173 부산 진구 범천 1동 845-11(3층)

언제나 건강한 삶과 행복된 나날을 기원합니다.....



12지 건강 지킴이 메달 뒷면과 핸드폰줄 앞뒤

▶ 육기(六氣)의 기운(氣運)

육기의 에너지는 피라미드 에너지와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한 에너지를 발생합니다. 어떤 물질을 변화시키려면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두께와 육각형의 선과 음양각의 조화를 유지 한다면 만족할 만한 육기의 에너지를 발생시킬수 있는 것입니다.

집중력의 향상. 질병치유 효과 증대

새해엔 꼭 발심하고 선지식 만나보세요

시냇물 흘러가듯 일상생활에 화두 이어져야

진제 스님의 가르침

새해에는 마음을 새롭게 가져서 허송세월을 안 해야 합니다. 허송세월을 안 하기 위해서는 바른 참선을 해서 일념이 지속되게끔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선지식을 가까이 하고, 바른 지도를 받고, 바르게 참구해서 실행에 옮기는게 제일입니다.

참선이 일생생활에서 무르익어야 됩니다. 가나오나, 앉으나 서나 장사를 하나 농사를 지으나 화두가 흐르는 물처럼 항상 흘러가야 합니다. 그렇게 일념이 지속되면 밝은 지혜 눈을 갖추게 되는데 그러면 자동으로 마음의 갈등이 없어지는 동시에 사물도 정확하게 판단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주 명랑하고 자신만만하고 근심걱정이 다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참선을 해서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발심을 했으면 앉아서 익히는 것이 출발선입니다. 좌선을 할 때 바른 자세가 정립돼야 몸뚱이에 끄달림이 없고, 화두 드는 데만 집중이 됩니다. 자세가 바르지 않고 화두를 챙기는데 힘이 들어가면 병이 오고 상기가 들어서 참선을 못하게 돼요. 그만큼 바른 자세가 중요한데 평좌로 앉아서 양손을 포개 아랫배에 붙이고 가슴과 어깨를 펴고 허리를 곧게 하고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2m 앞 아래에 화두를 두되 시선은 편안하게 두되 눈을 뜨고 생각으로만 화두를 챙기면 돼요.

그러면 바른 자세가 유지되면서 화두가 흘러가게 되고 상기도 방지가 됩니다.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하고 흘러가다가 혼침과 망상이 침범하면 다시 또렷또렷하게 챙기면 됩니다. 그렇게 반복하다보면 나중에는 한번 챙기면 한 시간이 흐르고, 몇 시간이 흐르고 그렇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러한 경지는 쉽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무한한 노력을 계속한 끝에 마음속의 화두가 시냇물처럼 밤낮없이 흐르듯 흘러가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몸은 자기가 할 일을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화두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혜를 밝히는 이 일에 열중을 해서 마음속에 간절히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던고'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오매불망 정진하다보면 마음속의 갈등이 봄바람에 눈 녹듯이 없어져 버리면서 지혜가 밝아져서 탕탕자재하게 되는 겁니다. 비고 비어서 걸림이 없는 무애의 그 맛을 봐야 되는데 그 때가 고비입니다. 목숨을 다해서라도 대도를 알아야겠다는 간절한 발심이 선 사람만이 그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생에 이 일을 해결해서 대장부의 활개를 쳐야겠다는 용단을 내린 이는 한 3년, 또 길게는 10년만 하면 해결이 됩니다.

나도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내신 석우 스님을 만나 발심 출가했고 공부 도중 남방 제일의 대선지식 향곡 선사의 바른 지도를 받으며 법의 방망이를 맞고 오로지 화두와 씨름한 끝에 오늘날 진제가 됐습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오늘날의 '진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대도(大道), 즉 바른 공부는 먼저 깨달은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들여서 도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다는 확고한 신심과 발심으로 해야 합니다. 허공보다 더 넓은 진리의 세계를 스승 없이는 도저히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인가받은 선지식을 찾아가 공부를 점검받고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대도시가 많지만 서울특별시를 당하지 못하듯이 부산 대전 대구 등에서 서울에 다 왔다고 착각하고 우기는 현상이 생깁니다. 나를 찾아와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이들 중에는 '진리'라는 서울이 경기도 한복판에 있는데 수원, 대전이나 대구에 와 이곳이 '진리의 고향' 서울이라 착각을 하는 이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는 안됩니다. '진리'의 고향인 경기도 한복판에 이르러서 남산에 올라 전체를 다 바라봐야 사방이 환해지고 동문서답을 멈추고 비로소 바른 문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문답시에도 선지식이 아니면 가리지를 못합니다.



찾아오는 이가 부지기수지만 아직 바른 답을 하는 이가 없어요. 여래선 경지의 답을 하는 이가 몇 있지만은 그걸로는 안 되거든요. 모든 부처님이 비밀히 전한 '향상 일구(向上一句)'의 눈이 열려야 허락을 하고 제자를 두고 불법을 전하는 것이지. 법신의 진리나 여래선의 진리 가지고는 안돼요.

나도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 '알았다'는 그릇된 지견이 나서 그 길로 공부를 그만두고 전국의 큰 스님이라는 큰스님은 다 찾아 물으며 시간을 허비한 적이 있어요. 어떤 스님은 옳다 하고 어떤 스님은 그르다 해서 한 3년을 허비했지. 그런데 향곡 스님만이 내 말문을 막아버렸거든. 그래도 수긍을 않고 오대산으로 공부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 때는 절집 생활이 아주 어려웠어요. 밥 한끼도 근근히 먹고 석달 내내 김치 한가지로 생활하고 침구도 없는 채로 오로지 화두만 붙들고 씨름을 했어요. 9시쯤 자려고 하면 침구가 없으니 좌복을 배에 깔고 새우잠을 자다가 다시 새벽 3시쯤 일어나고 했거든. 혜암 스님, 활안 스님 등과 용맹정진을 하면서 정진을 이어가던 어느날, 혹한이 풀리면서 푸근한 날이었어요. 양지바른 마루에 앉아 '내가 참말로 알았다고 끄덕거리고 있는데 바로 알았는가? 모든 고인의 법문을 바로 보고 막힘이 없는가?' 자문을 하게 됐어요.



선지식을 만나 제대로 지도 받으며 참선할 것을 강조하는 진제 스님.

자기가 자기한테 물으면 거짓이 통하지를 않아요. 이걸 가지고 내가 알았다고 허송세월을 하면 나의 신세가 말이 아니다 싶어서 백지 상태로 돌아가 다시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그 길로 향곡 스님을 찾아 뵙고 그곳에서 10년 세월을 보내면서 화두를 타파해서 동문서답하던 것을 바로 보는 눈을 갖춰서 전법게를 받게 된 것입니다.

향곡 스님께 전법게를 받은 후, 내 생애 남은 일은 오직 한가지, 법을 전할 법기(法器)를 키워내는 일뿐이지. 그래서 법을 묻는 이라면 누구에게든 문을 열어놓았고, 내가 동화사에서 12년동안 조실로 있으면서 후학 지도에 열의를 다하고 있어. 해운정사에도 30여 명이 공부 중이니 지도를 계속 하면 법을 이을 법기(法器)가 '한개'는 나올 것이라 믿고 있구만. 하하하!

열반적멸본무명(涅槃滅滅本無名)커니
(열반적정이 본래 이름이 없으니)
환작여여조시변(喚作如如早是變)라
(여여라고 분별 지을 것 같으면 문득 변한 것이다)
욕문경중하극즉(欲問經中何極則)면
(경 가운데 어떠한 것이 최고의 진리냐고 물으면)
석인야문목계성(石人夜聞木鷄聲)이라.
(돌사람이 밤에 나무로 깎은 닭이 우는 소리를 듣는다)

돌사람이 밤에 나무로 만든 닭울음소리를 듣는 경지를 알겠는가!

부지런히 정진해서 이 뜻을 알아 모든 부처님과 조사님들이 비밀히 전한 심인(心印)을 이을 장부가 되길 바랍니다.

정리=천미희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45>



불구대천의 원수 (2)

곤히 잠든 왕의 얼굴을 내려다보자니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약소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순순히 나라를 넘겨줘야 했던 아버지의 그 억울함, 그 후에 이어진 불안하고 암울했던 도피의 나날들, 평화적으로 나라를 넘겨주었음에도 처참하게 목숨을 잃고 만 부모님의 원한….

디가부의 마음속에는 모진 설움과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원수! 네가 한 짓에 대한 응분의 댓가를 고스란히 받을 시간이 되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뇌리를 강하게 때리는 어떤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긴 것을 보지 말고 짧은 것도 보지 마라. 원한은 원한으로 누그러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아들아, 원한 아닌 것에 의해서만 원한은 누그러진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허공에 대고 외쳤던 그 말이었습니다. 디가부는 그 음성에 놀라 자기도 모르게 칼을 칼집에 도로 넣었습니다.

디가부는 죽이려던 마음을 품었던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결국 왕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디가부야, 너는 나의 목숨을 살려 주고 나는 너의 목숨을 살려 주기로 하자."

왕궁으로 돌아와 며칠이 지나자 왕이 디가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아버지가 허공에 대고 긴 것과 짧은 것을 보지 말라고 외쳤던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긴 것을 보지 말라는 말은 원한을 오래 끌지 말라는 뜻입니다. 짧은 것을 보지 말라는 말은 우정을 급하게 끝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누그러지지 않는다는 말은, 왕께서 제 부모님을 죽였으니 제가 왕의 목숨을 빼앗을 텐데 그러면 왕의 측근에서 다시 제 목숨을 빼앗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 편의 사람들 중 누군가가 다시 왕의 측근을 해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원한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께서는 제 목숨을 살려 주셨고 저는 왕의 목숨을 살려드렸습니다. 원한 아닌 것으로 원한이 누그러졌습니다. 제 아버지의 말씀은 그런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마하박가)

"원한 아닌 것에 의해서만 원한 누그러진다"는 아버지의 음성 떠올라 왕 살려주고 원한 풀어

하지만 이내 원수를 단칼에 해치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그는 다시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역시 어디선가 그 음성이 들려와 디가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칼집에서 칼을 빼었다 넣었다 하기를 세 차례 하는 사이에 브라흐마닷타왕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깨어났습니다.

"꿈을 꾸었다. 내가 예전에 죽였던 디기타왕의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다가오는 꿈을 꾸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견딜 수가 없었다."

왕의 말을 들은 디가부는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아무도 없는 호젓한 숲속, 그리고 날카로운 칼을 들고 서있는 복수의 화신 앞에 왕은 온 몸을 떨며 엎드렸습니다.

"제발 살려다오. 내 목숨만은 살려다오. 사랑하는 디가부여."

와들와들 떨면서 살려달라고 비는 왕의 모습을 내려다보던 디가부는 칼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당신의 목숨을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야말로 저의 목숨을 살려주셔야 할 것입니다."

불구대천의 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를 해친 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예기(禮記)〉에 나옵니다. 한 하늘 아래에 살 수 없는 원수라는 뜻입니다. 결국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누구 하나가 죽어야만 한다는 뜻이지요. 얼마나 지독하게 원한에 사무쳤으면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런데 위의 디가부 이야기를 음미해보니 부처님은 '원한을 품지 말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원한이 누그러지는 법'을 가르쳤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원한은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푸느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답은 뻔합니다. 내가 먼저 풀어야 합니다.

분해서 견디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구대천의 원수가 대대로 이어갈 것이 뻔한데 어쩌겠습니까?

형장으로 끌려가는 순간에 허공에 대고 외쳤던 디기타왕의 그 절규는 사무친 원한을 풀지 못해 몸부림치는 21세기의 인간들을 향한 호소라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필자는 한 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들인 《라훌라》로 태어난 적이 있다. 그 이후의 태어남이 인연 따라 중원 대륙으로 들어가서 27품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을 한역(漢譯)을 한 《구마라습(343~413) 삼장》이며 그 이후 다시 《신라 의상(625~702)스님》으로 태어난 후 이번에 다시 필자로 태어났다.

모든 종교와 종파를 초월한 한 법이 『묘법연화경』 이다.

《구마라습 삼장》으로 이름 하였을 때 한역(漢譯)을 한 27품 『묘법연화경』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묘법연화경』에서 밝히시는 제이(第二)의 세간법(世間法)이다. 이번 태어남에서는 한역(漢譯)을 한 27품 『묘법연화경』에 들어있는 비유와 방편과 수리(數理)로 된 내용을 『실상(實相)의 법(法)』의 이치에 따라 해설(解說)함으로써 제일(第一)의 법(法)인 《우주간(宇宙間)의 법(法)》을 드러내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다.

즉 제일(第一)의 법(法)과 제이(第二)의 법(法)이 음양(陰陽) 합일(合一)된 모든 법(法)을 드러냄으로써 그 속에 들어있는 제삼(第三)의 법(法)인 근본진리(根本眞理)를 총체적으로 드러내어 《우주간의 법》의 이치를 여러분들께 전함으로써 《우주간의 법》을 근간으로 하는 보살도(菩薩道)를 정리하고 학문(學問)의 완성 시대에 돌입하여 말세(末世)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 『묘법연화경』 해설에 착수하여 이제 그 첫 결실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해설(解說)이라고 제호(題號)를 붙여 여러분들께 선하여 드리는 것이다.

"우담발화 꽃"이 피는 이유는
진리(眞理)의 출현(出現)을 축하하기 위한
하늘(天)의 상서(祥瑞)내림이다.



◇ 묘법연화경 해설된 부분 : 서품 / 방편품 / 비유품 / 관세음보살보문품 ◇
신국판 양장 각권 : 18,000원

이러한 (우담발화 꽃)을 그대들이 (잠자리 알에서 나온 꽃)이라고 아무리 부정을 하여도, 때맞춰 진리(眞理)의 서(書)는 이렇게 세간(世間)에 나타나는 것이다. 서기 2000년 필자의 저서 『실상의 법』이 세간에 모습을 드러내었을 때 하늘(天)은 상서(祥瑞)를 주시어 우담발화 꽃을 피우셨고 이제 다시 을유년(乙酉年) 올해에도 『묘법연화경』 해설의 출현을 위해 우담발화 꽃을 피워 하늘(天)은 상서(祥瑞)를 주신 것이다. 이와 같은 하늘(天)의 상서(祥瑞)를 부정하는 그대들은 그대들만 크나큰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모든 종교와 종파를 초월한 한 법이 『묘법연화경』이다. 이러한 한 법의 해설이 출간되니 세계의 모든 법화행자들께서는 부처님의 근본 뜻이 담긴 이 경을 새로이 공부하시기를 바란다. 우주간의 비밀한 진리와 지상의 숨겨진 모든 진리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경이니 불자가 아닌 모든 분들도 함께 동참하여 진리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경이 『묘법연화경』임을 밝히는 바이다.

『묘법연화경』을 상세히 해설한 최초의 책!

전국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 (051) 723-2261



◇ 무량의경 Ⅰ / Ⅱ ◇
신국판 양장 각권 : 18,000원

도서출판 阿那

謹賀新年 佛紀 2550年

丙戌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 운 사

회주 현봉 근일
주지 송암 혜승

사부대중일동

의성노인복지회관 관장 탄하
영주장애인복지관 관장 법라

경북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116
TEL 054)833-2324
www.gounsa.net

대한불교조계종

축 서 사

주지 무여

사부대중일동

축서사 불교 교양대학운영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TEL 054)672-7579
www.chooksersa.org

대한불교조계종

화엄도량 부석사

주지 근일

사부대중일동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TEL 054)633-3464
www.buseoksa.org

대한불교조계종

천등산 봉정사

주지 문인

사부대중일동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901
TEL 054)853-4181
www.bongieongsa.org

대한불교관음종

소백산 안정포교원

원장 강백재 합장

사부대중일동

경북 영주시 안정면 일원리 208번지
TEL 054)638-0408
인간고뇌에 쌓여 있는 상담을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사리사

「부처님 진신사리 증과 도량」

주지 덕운

신도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송정동 116-1
TEL 053)986-4240

대한불교천태종

대 성 사

주 지 주정산
총무국장 이보광
부 전 김원재
신도회장 김정길

● 부설
동해유치원 053)652-5760
대구금강불교대학 053)624-0133

홈페이지 www.daesungsa.or.kr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520-3
TEL 053)624-0542
FAX 053)623-0265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운문사 · 운문승가대학 운문승가대학원

회주 명성
주지 흥륜

대중일동

www.unmunsa.or.kr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TEL 054)372-8800
FAX 054)371-0359

대한불교조계종

청계산 덕왕사

주지 류용각(만덕)



세계희귀 연꽃을 300여 종류이상
재배하여 분양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람

경북 안동시 녹전면 사신리 녹남 455-5
TEL 054)853-3855

대한불교조계종

지장기도 도량 성 불 사

이승을 떠나는 령(靈)가의 영원한 안식처!

극락왕생 령보탑(靈保塔)



우리 불자들을 위해 성불사에 세워지는 가족 동참탑, 성불사 령보탑은 불자들이 현세를 떠나신 후 생전에 부처님 자비도량, 지장도량인 곳에서 주지스님의 극락왕생 기도속에 편히 쉴 수 있도록 영구보존되며 영혼의 안식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합니다. 극락왕생 령보탑은 옥합성 대리석으로 건립되며 탑속의 옥돌에 옻칠을 한 최고급 옥함에 령가를 모십니다. 주지스님이 직접 반혼재를 올려 드립니다. 령보탑 입주분행 문의는 성불사 종무소나 주지스님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옻칠 순옥 령존함(靈存函)
옻칠 순옥 령존함은 습기, 부패, 변질, 냄새, 해충등의 완전한 차단으로 영혼의 안식을 최대한 보장합니다

주지 혜각 지성
사부대중일동
영주시 상망동 산 37-33
TEL 054)634-7918~9 / 016-519-0100

천년의 소중함을 간직한
풍기인삼의 그 효과를 느껴보십시오.

소백산에서 생산되는 풍기인삼은 타지방 어느곳 인삼보다 내용조직이 충실하고 인삼향이 강하여 유효사포닌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품목
- 정품홍삼청국장(환300g 분말200g)
- 정품웰빙홍삼캔디 900g
- 정품웰빙홍삼젤리
- 풍기정품홍삼액(명품) 내용량 100g×60포
- 풍기정품홍삼액(골드) 내용량 100g×60포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241-2
TEL 054)636-2174

지산치과의원

원 장 송준기

「가족같은 병원, 환자 중심의 병원」

· 지산치과의원 원장
· 치의학 박사 (임프란트, 보철학 전공)
· 단국치대 임상교수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2동 1188-2
TEL 053)782-0022
FAX 053)782-2875

대구불교산악회

'산을 좋아하는 불자님을 환영합니다.'

산행 : 매월 셋째주 일요일

회 장 하운표
총 무 강길수

www.10008.co.kr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314-5
TEL 053)763-1919
FAX 053)768-4548

高靈 기와
(주) 高靈청기와

(고령기와는 명품기와만을 만듭니다.)

KS 表示許可
중소기업우수제품 인증工場

代表理事 金段東

공장 : 경북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350
TEL 054) 954-8000(代)
FAX 054) 954-5335
www.rooftile.co.kr
e-mail : gr@rooftile.co.kr

합동석물(주)

석재가공 석공사
전문 건설 업체

대 표 탁희열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714-10
TEL 054)955-8200~1

謹賀新年 佛紀 2550年

丙戌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비슬산 은적사

주 지 南明 虛韻
총 무 허 주
신도회장 하 보타월
합창단장 권 정행성
봉사단장 문 청량심
문사수회장 최 선해심

은적사 부설 룸비니유치원

원 장 조 대선행
外 교직원 일동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 3동 1572
전화 053)653-1572
룸비니 유치원 053)621-1003
http://www.eunjeoksa.or.kr

대한불교조계종

무 각 사

주 지 광 민

신도일동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산1
TEL 062)383-0108

대한불교조계종

무등산 증심사

주 지 진 화

신도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56
TEL 062)2260-108
FAX 062)222-5997

대한불교조계종

천 자 암

조 실 활 안

사부대중 일동

전남 순천시 송광면 이읍상리
TEL 061)754-3708
H·P 011-657-3785

대한불교조계종

원 각 사

회주 현 고
주지 도 제

- 교리법회 매주 월 오전 10시
- 초사흘법회 매월 음력 3일 오전 10시
- 지장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
- 관음법회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
- 선우회법회 매주 월 오전 7시
- 청년회 기초교리 매주 목 7시 30분
- 청년회법회 매주 금 오전 7시 30분
- 어린이 법회 매주 토 오후 3시
- 중 · 고등부 법회 매주 일 오후 2시
- 불교기초교리 매주 금 오후 2시
- 원각사 경전반
  주간반 – 42장경
  야간반 – 예불문과 반야심경

광주 광역시 동구 금남로 4가 51번지
TEL 062)223-3168, 224-5289

성북구 불교사암연합회

회 장 호암 정수

성북구 불교사암연합회
회원일동

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411
TEL 02)927-1232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경 국 사

사부대중일동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75-3
TEL 02)914-5447,2828
FAX 02)914-4326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적 조 사

주지 자 성
사부대중일동



서울 성북구 돈암 2동 593
TEL 02)924-5362
FAX 02)923-5363

사회복지법인 및 재단법인

능 인 선 원

대한불교 조계종 국 녕 사

주 지 지 광

신도일동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55번지
TEL 02)577-5800
FAX 02)577-0052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

수 원 포 교 당

주 지 성관 스님
부주지 성보 스님
총 무 정명 스님
교무스님 달설 스님
포교국장 혜광 스님
기획국장 지효 스님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92-1
TEL 031)245-9670/2
www.suwondharma.or.kr

-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조계종 선재원/청주 청수사
- 청주북부종합사회복지관
- 수원서호노인복지회관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 문 사

주 지 변춘광 스님
총 무 방경혜 스님
재 무 지설혜 스님
부 전 이성진 스님
신도회장 권영철

신도일동

서울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TEL 02)3460-5300
www.gwanmunsa.co.kr

대한불교조계종

옥수동 미 타 사

주 지 문 수
총 무 종 일
재 무 성 현
부 전 법 천

대중일동

미타유치원 02)2297-7982

원 장 성 현
교직원 일동

서울 성동구 옥수동 395
TEL 02)2297-7548

초종파 불교지도자 교육도량

보우승가대학

학 장 이월봉
부학장 임호명 이도산 전성오
교학회장 신도명 재무처장 정지상
학생회장 최경허 기획처장 김청호

임직원 일동

서울시 종로구 창신 3동 7-26
TEL 02)763-5213 / FAX 02)747-9290

2006년도 신입생 모집중

보 우 승 가 회

회 장 류지홍
부학장 이월봉 백설운 이도산
감 사 임호명 이청옹 김현오
사무총장 김능해

회 원 일 동

서울시 종로구 창신 3동 7-26
TEL 02)763-5213 / FAX 02)747-9290

대한불교조계종

자 재 사

주지 법 해

사부대중일동

경기 동두천시 상봉암동 산1
TEL 031)865-4045

대한불교조계종

명 법 사

주지 순 형

사부대중일동

경기 평택시 비전2동 산84-10
031)655-3215

제11회 신행수기 수상자

- **대상(유마상)**
  김두만 '나에게 아비라 기도는'
- **우수상(현대불교신문사장상)**
  류영식 '사모곡'
- **특별상(종단협의회장상)**
  예수해 '사경으로 만난 부처님'
- **특별상(태고종 총무원장상)**
  류복희 '진흙 속의 진주 한 알'
- **특별상(천태종 총무원장상)**
  김효학 '인생의 고비에서 만난 부처님'
- **특별상(관음종 총무원장상)**
  한다현 '모든 인연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 **특별상(총화종 총무원장상)**
  김남기 '세세생생 지장행자의 길을 가렵니다'
- **특별상(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조남희 '나를 바꾼 부처님법'
- **특별상(신수회장상)**
  장진익 '군대, 내 마음의 법당'

당선 소감


김두만씨

혹한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연말, 요즈음 나의 일상은 그저 하루하루를 메워가고 있는 무미건조한 생활의 연속이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저녁으로 부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다.

돌이켜보면 부처님법을 만난 것이 그나마 성공적인 인생이라 생각돼, 죽을 때까지 매일 108 참회기도라도 열심히 해보자고 시작한 생활이 벌써 16년을 맞았다.

아직도 나는 참불자가 되지 못했다. 모범적인 신행생활을 하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부처님을 찾아다닌 세월이 길다보니 아마도 안타까운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시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본다. 어쩌면 게으르고 탐욕스런 지금의 내 모습을 보다 못한 부처님께서 더욱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각성의 채찍질을 해 주시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아직 참불자 아닌데…더 치열한 정진 다짐

지금까지 변변히 상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 나에게는 또 다른 정진의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대상을 받은 신행수기가 부끄럽지 않도록 더 치열하게 정진하고 더욱 더 기도에 동참할 것을 스스로 다짐해본다.

주마등처럼 지나는, 부처님을 만나서 살아온 세월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두려움때문에 도전하지 못하는 3천배 기도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홍보해 소중한 인연을 쌓아나갈 것이다.

■당선작 (유마상) — 김두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나에게 아비라 기도는

얼떨결에 이끌려 백련암서 3천배 기도
법명 받고 '죽을때까지 공부하자' 다짐

지금 내 차는 백련암을 향해 달리고 있다. 지금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주체치 못하며 백련암을 찾아가고 있다. 세상살이에 끄달리면서도 때가 되면 백련암으로 달려가는 마음은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부처님 말씀에 사람 몸 받기 힘들고, 부처님 만나기 어렵고, 또한 정법(正法)을 만나기 어렵고, 좋은 도반을 만나기 어렵다 했는데, 지금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나는 이미 사람의 몸을 받았으며 부처님을 만났고, 대한민국 수많은 불제자 가운데서 성철 큰스님에게서 심원(心源)이라는 불명을 받으면서 정법 공부를 했고, 백련암으로 3천배를 하도록 이끌어주신 진여심 · 대원행 보살님을 만났으니 말이다.

16년 전 여름. 나는 부산 범어사 청련암에서 오만한 나의 탐진치로 잃어버린 재산과 사업의 재기를 원하면서 시커멓게 타는 가슴을 안고, 어설프고 서툴기만 한 모습으로 무턱대고 절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시던 중년의 진여심 보살님이 어느 날 나에게 사과 한 조각을 건네주며 다가왔다.

"처사님, 무슨 고민이신지 모르겠지만, 원을 세우고 기도를 하시려면 해인사 백련암이라는 곳에 성철 큰스님이 계시는데, 거기 가셔서 3천배를 하고 친견을 한번 해 보세요."

당시 나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건성으로 대답했다.

솔직히 3천배라는 절의 숫자가 얼른 이해도 되지 않았고 자신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한편 내 나름대로 답답하고 간절한 마음에 매일 청련암에 가서 절을 하고 있었고, 무리하게 절을 해서 무릎이 까지고 피가 흘렀다. 그 와중에 처음에는 어설프고 서툴기만 하던 자세가 차츰 모양새가 갖추어져 가고, 절 횟수도 늘려 갈 수 있었으며, 조금씩 심리적인 안정감도 느껴지면서 주변을 돌아보는 작은 여유도 생기기 시작했다.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 길에 불교서점에 들러 불교관련 서적을 몇 권씩 사서 보면서 불교가 무엇인지 알아야겠다는 생각과 열정만이 나를 지배한 채, 그 해 여름이 깊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땀에 절은 옷과 몸을 법당 밖으로 나와 말리면서 자판기의 커피를 마시는 나에게 진여심 보살님이 환한 얼굴로 다가왔다. 보살님은 범어사에서 100일동안 1000배와 능엄주 30독씩 하는 기도를 오늘 회향하고 가신다면서, 처사님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도반 한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며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고 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며 커피를 한잔 빼 드리고 법당으로 올라오면서 생각에 잠겼다. 저분들은 어떤 생각과 간절함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법복이 땀으로 흥건하게 젖을 때까지 절을 할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에서 한참동안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복잡하던 내 심경으로는 그 의문을 뒤로 할 수밖에 없었고, 오직 나의 뜻한 바대로 내 기도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며칠 후 진여심 보살님이 전화로 "오늘 오후에 시간이 나면 좀 만날 수 있겠느냐"는 말과 함께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지요?"라고 물었다. 얼떨결에 "예"라는 대답을 하고 약속장소에 나가니, 대원행 보살님과 내 나이또래의 여륜 거사님이 같이 나와 계셨다.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중 대원행 보살님께서 여륜 거사에게 같이 좀 갔다올 곳이 있다며 일어서는 것이었다. 나 역시 엉거주춤 영문도 모르고 뒤를 따라가니 법복(승복) 맞춤집이었다. 들어서자 대원행 보살님이 손수 잿빛으로 물들인 무명천을 내놓으며 나를 가리키면서, "저 처사님 법복 좀 맞춰 주세요"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순간 '남자가 무슨 법복을 입나?' 하고 생각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남자들이 법복 입은 모습을 한번도 본적이 없기에 법복이란 보살님들이 절에 갈 때 입는 옷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순식간에 법복집에서 옷을 맞추고 나오자 여륜 거사는 나에게 말했다. "백련암에 3천배 기도하러 가실 거죠? 저도 갈 거니까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백련암에서는 거사들도 법복을 입어야만 3천배 기도를 할 수 있고, 성철 큰스님을 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복을 찾는 다음날 백련암으로 3천배 기도를 가는 일정이 나도 모르게 잡혀 있었다.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 인연이 백련암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나는 얼떨결에 백련암에 따라 와 3천배 기도를 했는데, 정말 지옥훈련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같이 온 도반님들이야 모두들 오랜 세월동안 3천배를 해 온 경험이 있기에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나의 경우는 아니었다. 법당 마루 바닥에 기도하는 좌복을 포함하여 내가 설 수 있는 공간을 동그랗게 그려놓고 그 밖을 나가지 않고서 4시간 안에 3천배를 모두 마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계산을 해보니 한 시간에 약 800배 절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물러설 곳 없이 만들어진 상황! 기도 잘하라고 노보살님이 해 주신 법복을 입고, 선배 도반들이 그어준 동그라미 안에서 무조건 해내야 하는 3천배 기도가 드디어 내 인연공덕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몸은 이미 나의 생각을 벗어나서 움직이고, 내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변해가면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땀은 그동안 남을 돌아보지 않고 욕심으로만 살아온 세월을 하나하나 벗겨내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대략 2700배를 넘어설 무렵부터는 몸의 감각이 하나씩 마비되고, 나는 의지와 생각이 배제된 로봇 같은 무의식의 세계가 되어서 절을 하고 있었다.


그림 · 문병성

지금껏 나를 지배하고 있던 돈과 명예와 사업, 그리고 온갖 세속의 인연들, 그 모든 것들이 내 몸에서 날아가고 있었다.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도반들의 원력으로 시작된 3천배 기도가, 절의 횟수가 더해가면서 조금씩 나를 변화시키고 벗겨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한편의 마음은 이 절을 다해서 빨리 3천배가 끝나고 성철 큰스님을 친견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3천배를 하면서도 내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절을 통해 얻어지는 하심(下心)과 인연공덕, 업장소멸이 아니라 오로지 성철 큰스님을 뵙는 것이었다. 스님을 뵙게 되면 "어떻게 하면 다시 사업을 재개하여 잃어버린 내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을까"를 여쭈어 보고 싶을 뿐이었다.

그러나 3천배를 마치고 큰스님을 뵙고 난 후 내가 궁금해 한 것들에 대한 답은 하나도 얻을 수가 없었다.

처음 대면한 스님의 느낌은 맑고 투명하고 청량했으며 미소 띤 인자한 얼굴에서 형형한 눈빛이 뿜어져나와 감히 거역할 수 있는 위엄을 느끼게 했다. 또한 오래되긴 했지만 너무나 정갈하고 단정한 옷매무새는 첩두첩미한 수도승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었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존경심과 겸손함을 이끌어 내는 힘이 있었다. 기도 중에 스님께 꼭 물어보리라 다짐했던 얼토당토않던 질문들은 어느새 달아나 버렸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고 스님 얼굴만 쳐다본 채 서 있던 나는 "기도 열심히 하라"는 스님의 한 마디만을 듣고 방을 나왔다.

그러나 스님을 뵙고 받은 충격은 너무나 컸다.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게 하는 큰스님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청량한 기운은 영혼을 지배해 나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성철 스님을 뵙고 난 후 나의 가치관을 새롭게 세우게 되었고, 평생을 통해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재정비하게 됐다. 그 첫 번째 수선가 일과 기도 정진이었고,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오고 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께서 지도해 주신 기도법에는 3천배기도 말고 아비라 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 또한 업장을 소멸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도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스님을 뵙고 2개월이 지난 후 나는 여륜 거사와 함께 아비라 기도에 참석했다.

당시 거사들은 원통전에서 기도를 했는데, 겨울도 아닌 한 여름에 장작을 쪼개 아궁이에 불을 때가면서 기도를 했다.

처음 하는 아비라 기도에 대한 긴장감이 나를 감쌌고 뜨거운 열기와 연기는 숨을 턱턱 막히게 했다. 또한 방바닥의 열기는 너무 뜨거웠다. 나름대로 묘책이랍시고 박스를 구해 2~3장

대한불교조계종
계룡산 갑사
주지 장곡
사부대중일동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2
TEL 041)857-8981, 8982
FAX 041)857-9753

대한불교조계종
전등사
주지 장윤
사부대중일동
www.jeondeungsa.org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5
TEL 032)937-0125 / FAX 032)937-5450

대한불교천태종
울릉 해도사
주지 정비룡
신도회장 최영해

청하산 청운사
주지 도원
(무형문화재 27호 탱화장)
하소백련 池
■ 전북 김제시 청하산 청운사
TEL 063)543-1248

사단법인 한국불교
금강선원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TEL 02)969-2410

남양 성인사
신도회장 정수석 外
신도일동

"인격을 불격으로 중생을 부처로"
전북불교대학
학장 한광수
학인일동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48-5 완산불교회관 3층
TEL 063)226-7878 FAX 063)226-7879
www.koreabuddha.com

불교 지성인의 전당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학장 무진장 이사장 김재일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회장 김재일
사무국장 구본설 기획실장 문종순
대중일동
www.dongsanbud.net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8 / FAX 02)732-1207

태하 삼도사
신도회장 김곤 外
신도일동
경북 울릉읍 도동 584-6
TEL 054)791-2471

대한불교 본원종
종정 강무구 사서실장 심지연
부종정 최대종 김동광
원로의장 유법용
원로의원 변정송 이송파 김용담 박보명 이관곤 이대봉
총무원장 이대화 사서실장 강정오
종회의장 김대운 종회부의장 방일봉 조혜원
감찰원장 김대원 포교원장 정대련 연수원장 김대천
교육원장 박보경 염불원장 최대황 문화원장 김우담
의전원장 이두산 복지원장 박대성 부산경남종무원장 박지우
경북종무원장 윤자광
총무부장 김만혁 규정부장 강만공 포교부장 한법성
교화부장 정대능 교무부장 손혜원 재무부장 정법성
전국신도회장 신대광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17-3
전화 02)391-4376 팩스 02)379-2746

깐 후 그 위에 덮고 자는 이불도 깔아 두껍게 만들고 그 위에서 기도를 했다.

사시예불과 함께 기도가 시작됐는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로 인해 속옷은 물론 법복까지 흠뻑 젖었고 장궤합장을 한 다리는 마비되듯이 고통스럽고, 합장한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선배들이 진언을 크게 외치라고 했지만, 아무리 진언을 하고 싶어도 뱃가죽이 당겨 내 의지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첫 번째 기도 시간인 30분은 너무나 길었다. 혹시 시계가 멈춘 것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시간이 늦게 흘렀다. 제풀에 지쳐 포기 비슷한 감정이 들 때쯤 죽비 치는 소리가 들렸다.

긴 숨을 토해내고 일어나서 3배를 하면 한 파트 기도가 끝난다.

한 파트 기도가 끝나면 25~30분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갖는데 이때 능엄주를 일독한 후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나는 능엄주 일독을 하는데도 20분이 넘게 소요되었으니, 휴식을 취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였고, 쉬는 시간에 맞춰 능엄주 정독을 하기에도 급급했다.

불현듯 '내가 이렇게 힘든 기도를 왜 왔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었고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에 정진하고 있는 여류 거사님에 대한 원망도 일었다. 한 파트 기도가 이럴진데, 나머지 23파트를 어찌 끝낼까? 걱정이 태산이었다. 이런 내 마음을 예상했던지 알 수 없지만, 자동차 키를 여류 거사님이 보관하고 있었으니 해인사 백련암을 벗어날 수도 없었다.

또한 당시 백련암에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기도온 학생도 있었고,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도 계셨는데, 젊은 내가 도중에 그만둘 수도 없었다. 솔직히 당시에는 '힘들어도 이번만 끝내고 가자, 설마 죽기야 하겠냐' 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임했다.

둘째 날 기도가 시작됐다. 고정된 자세로 지탱하고 있어야 하는 다리는 이미 마비되어 내 다리가 아니었고, 공양도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온몸의 마디마디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고 걸음조차 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이틀째 기도가 끝났다.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느껴지고 힘이 들었지만, 저녁이 되니 언제 낮에 땀을 흘렸는지 모를 정도로 땀냄새도 나지 않고 뽀송뽀송한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기만 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난 후 7번째 기도에서 드디어 작은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아프던 몸뚱아리가 갑자기 하나도 아프지 않으며, 기도하는 몸 상태가 아주 편안해졌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싶어도 뱃가죽이 당겨지르지 못했던 법신진언 '옴 아비라 훔 캄스바하' 가 술술 나오는 것이었다. 덕분에 이후의 기도를 거뜬하게 마칠 수 있었다. 기도 끝낸 후 스님은 나에게 '심원' 이란 법명을 내려주셨다.



그림 · 문병성

그런데 불명을 주면서 스님께서는 "니 아비라 기도하면서 3일째까지 욕 많이 했제? 다시는 아비라 기도 안 올라꼬 마음도 먹고. 그래도 니는 심원이 무슨 뜻인고 알제?"라는 말씀을 하셨다.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꼈다. 스님은 기도하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자리를 훤하게 보고 계셨던 것이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읽고 계셨다는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느껴짐과 동시에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3천배에서 시작된 나의 불교인연은 아비라 기도를 만나게 해 주었고, 지금까지도 일년에 네 번 아비라 기도를 하고 매달 3천배 기도를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런데 이렇게 불교에 좀더 다가가고 보니, 지금 내 자신의 신행생활이 미흡하다고 생각돼 항상 성철 스님께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더불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도 불교를 만나게 해 줄 수는 없을까도 고민하게 됐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인터넷이었다.

전 세계를 이어주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이용하면 정말 좋은 인연들을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성철 큰스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좋은 기도법을 빨리 많은 법우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불면석(cafe.daum.net/bmsuk)' 카페다. 2005년 4월 13일에 출발한 불면석은 5개월 만에 회원이 270여명을 넘어섰고, 매달 둘째 주 토요일마다 해인사 백련암에 모여 철야 3천배 기도를 한다.

그리고 매달 넷째 주에는 마곡사에서 능엄주 수독 철야기도 일정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더 비중을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달에 두 번씩 모이는 법회가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납녀노소를 불문하고 맺어지는 불연(佛緣)이다. 회원들이 카페에 올리는 살아있는 글은 초심자들이 3천배와 아비라 기도 그리고 일과기도 등의 수행을 할 수 있는 발심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말로만 듣던 3천배가 두려워서 감히 도전해 보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불면석 카페에서 다른 이들이 3천배 원만회향한 후 올린 후기를 보고 발심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다른 초심자를 불교의 세계로 이끄는 것이야말로 정말이지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기도가피가 아니고 무엇이랴.

7번째 기도후 작은 변화 느껴져
인터넷 통해 전법… 생활기도 확산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은 설득력이 없다. 힘든 3천배와 아비라 기도를 직접 해보고 나서 확신에 찬 언어로, 주위 법우들을 설득해 해인사 백련암에 데리고 오는 후배도반들을 보는 내 마음은 정말 뿌듯하기만 하다.

성철 큰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남을 위해 기도하라' 는 말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불면석에서는 내 안의 불성을 찾고, 업장소멸의 기회를 만들고자 힘든 결심을 하고 해인사 백련암에 참석한 초심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전체 대중이 아무리 많아도 초심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회원들 모두는 그 한 사람의 3천배 원만회향을 위해 기다려주고 참아주면서 천천히 호흡을 맞추어 주는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후배들이 선배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서 불심을 키우고 다져나가기를 바란다. 또한 이것이 불면석의 튼튼한 전통으로 이어져 나가도록 하고 싶다.

불면석 카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또 한 가지 기도법이 있다. 그것은 생활기도법으로, 역시 성철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우리가 매일 절에 가지 않으면서도 부처님을 하루도 놓지 않고, 내 자신을 굳건하게 만들면서 근기를 만들어 가는 기도법으로, 매일 하는 일과기도가 그것이다.

예전 백련암에서 3천배 기도를 하면 성철 스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불명(佛名)이고, 두 번째는 일원상(一圓相)이고, 세 번째가 '삼(參)서근' 의 화두이며, 네 번째가 '불기자심(不欺自心)' 의 수행심이다

그 중 일원상은 액자로 만들어서 집에 걸어놓고, 매일 그 앞에서 참회기도를 한다. 예를 들면 기도를 좀 오래하신 분이나, 특별하게 스님으로부터 숙제를 받게 되면 집에서 절을 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는 일원상 앞에서 기도를 한다.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절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 매일 연결되지 않으면 나태해지고 기복적인 부분이 생길 때만 찾아가게 되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예불과 참회를 해야 하는 대상이다. 그것이 수행정진이다. 그러니 집에다 일원상을 내 마음의 부처로 걸어놓고 집에서 매일 기도하라"고 하셨다.

나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였고, 또 지금까지 행해왔으며 또 이 부분을 카페를 통해서, 3천배를 통해서, 법우들에게 수행의 지침서로 전해주고 싶다.

죽을 때까지 예불대참회문을 보면서, 매일 세끼 밥 먹는 것과 똑같이 빠짐없이 108배 참회기도를 하고 능엄주를 하는 것이 백련암으로 3천배를 다니는 우리들 수행의 기본이다.

그렇게 정진력에 힘이 붙으면 108배의 숫자를 늘려 300배를 하기도 하고 500배를 하기도 하고 1000배를 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능엄주 수독도 하루 1독에서 3독, 7독, 14독으로 늘려나가기도 한다.

부모에게 받은 육신의 몸으로 도를 이루기 위한 좋은 인연을 만났으니, 우리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철 큰스님의 가르침으로 업장소멸과 '참 나' 를 찾아가는 정진력을 묵묵히 행할 따름이다.

스님께 받았던 불명도 수행의 큰 지침이 된다. 법명을 받은 지 십수 년이 지난 지금도 "심원(心源)이라는 불명 값도 못하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해라"하셨던 성철 큰스님의 음성이 귀에 쟁쟁하다.

16년 기도 다닌 세월에 내세울 밑천 하나 제대로 없건만, 늘 스님이 주신 '삼(參)서근' 화두를 들고 자신 자신을 속이지 않는 수행심으로 정진해 나갈 따름이다.

또한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인연있는 도반 한 분이라도 더 만나진다면 그 분을 위한 3천배를 하고자 할 뿐이다.

※ 본 당선작은 신행수기 연중모집에 채택되어 본지 547호부터 549호까지 게재됐던 작품임을 알려드립니다.

심사평



12월20일 본사에서 열린 제11회 신행수기 심사 모습.

두 차례의 예심을 통과한 작품은 15편이었다. 본심을 거쳐 당선작으로 확정된 9편의 신행수기는 알찬 내용과 깔끔한 문장력을 갖춰 높아진 불자들의 의식 수준을 보여주었다.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솔직하게 담아 읽는 이로 하여금 신심을 우러나게 했다.

무엇보다 11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대불교 신행수기 공모전은 신행형태의 변화를 실감케 한다. 1~5회 응모작들이 기복적인 성향을 강하게 띤 반면 이후 신행수기들은 불교적 소양을 갖춘 지성불교를 답아냈다. 올해 작품들은 자기 참회를 바탕으로 한 수행과 실천이 잔잔하게 그려지면서 신행수기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됐음을 보여준다.

신행의 열정 · 깊이 잘 묘사
'참회 바탕한 수행담' 돋보여

김두만씨의 <나에게 아비라 기도는>은 탄탄한 구성과 수려한 문장력 외에 불자들의 신행이 어떻게 나아가야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 대상(유마상)으로 선정됐다.

우수상(현대불교신문사장상)인 류영식씨의 <사모곡>은 사모의 정이라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소담하게 엮으면서도 신행수기 형식의 틀을 깬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별상에 선정된 7편의 작품들에서도 신행활동을 통해 느끼는 고뇌와 이를 뛰어 넘게 해준 신앙고백을 진솔하게 풀어내 신행의 깊이가 느껴진다.

심사위원장 : 법산 스님 (동국대 선학과 교수)
심사위원 : 김정자 (본지 논설위원 · 칼럼니스트)
최정희 (본지 前 편집국장)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대한불교 본원종 종정 주석사찰
양자산 서림사
회주 무구
사부대중일동
■ 경기 양평군 강상면 송학3리 964-1
TEL 031)774-3538

대한불교 본원종 총무원장 주석사찰
삼각산 연화정사
주지 대화
사부대중일동
■ 서울 종로구 평창동 417-6
TEL 02)379-1965

대한불교 본원종 중앙종회의장 주석사찰
청수산 선불사
주지 대운
신도회장 신장호
사부대중일동
■ 경기 오산시 수청동 402
TEL 031)374-3413

대한불교 본원종 복지원장 주석사찰
백운산 성광사
주지 대성
사부대중일동
■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삼교리 437
TEL 033)661-5308

대한불교 본원종 경북종무원장 주석사찰
고 경 사
주지 자광
사부대중일동
용암산자락에 위치한 고경사에
부처님 자비광명이 비추는
납골당이 마련되어있으니
누구나 조상님을 영당터에
모시면 관운과 재물이 발복하는
고경사로 연락바랍니다.
• 납골탑관리비 : 1년에 2만원
• 영구봉안부부 : 3백만원
• 오시는길 : 영주IC 15분거리 서안동IC 20분거리
■ 경북 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 89
TEL 054)637-8887

대한불교본원종 중앙종회 부의장 주석 사찰
성 불 사
주지 혜원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서구 신평1동 294-7
TEL 051)292-6818,294-1800

대한불교 본원종 염불원장 주석사찰
삼각산 대성사
주지 대황
사부대중일동
■ 서울 성북구 정릉동 1번지
TEL 02)915-2044

대한불교 본원종 총무원장 사서실장
검단산 광명사
주지 자능정오
사부대중일동
■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9리 126
TEL 031)571-1311 / FAX 031)529-1311

대한불교조계종
흑응산 연방사
주지 일봉
신도회장 임금색신
사부대중일동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208
TEL 054)655-1357

謹賀新年 佛紀 2550年

丙戌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大韓佛教 曹溪宗 第四教區
雉岳山 龜龍寺
原州佛教大學
住持 慈光(遠行)
■ 우220-831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1029
TEL 033)732-4800~5
FAX 033)732-1211

재단법인선학원
인 과 선 원
주지 정덕
신도일동
■ 서울시 노원구 월계 4동 657-2
TEL 02)907-3706

대한불교조계종
석 남 사
주지 정무
신도일동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508
TEL 031)676-1444

대한불교조계종
무 암 사
주지 황도
신도일동
법회 1, 18일
■ 충북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산 1
TEL 043)652-0897

청법도량 청소년수련원
대한불교 조계종
신 흥 사
주지 오성일
대중일동 신도일동
■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상안리 산 42
TEL 031)357-2695, 357-3916

대한불교조계종 약사기도도량
봉 국 사
주지 김월서
대중일동
■ 서울시 성북구 정릉2동 637번지
TEL 02)919-0211~2
FAX 02)919-0216

대한불교조계종
금 화 사
주지 수증
법회(음) 1일
■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300-2
TEL 02)429-1488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주지 진관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1번지
TEL 02)359-8410

대한불교조계종
내 소 사
회주 우암
주지 진원
사부대중일동
■ 전북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268
TEL 063)583-3030

대한불교조계종
현 불 사
주지 법우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승무 예능 보유자
신도일동
■ 대전 동구 구도동 150-11
TEL 042)271-3395

대한불교조계종
흥 룡 사
주지 상운
신도일동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3-1
TEL 062)651-5083

대한불교조계종
등명낙가사
주 지 이청우
신도회장 정문교
가섭회장 최종명
금강회장 이상숙
신도일동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1리
TEL 033)644-5337

대한불교조계종
삼선포교원 삼선승가대학
원장 지광
학장 묘순
■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3가 255
TEL 02)923-0582, 922-9652

대한불교조계종
기도도량 통일사
주지 최명수
유해일 스님 상좌
통일을 기원합니다
신도일동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산 201
TEL 032)886-7529

팔만대장경 판각성지, 사적 259호
대한불교 조계종
강화선원사
사부대중일동
선원사한증막 기와황토불한증막(운영)
TEL 032)933-8985
면요리전문점 좋은연(蓮)
TEL 032)934-1944
목탁소리내는소 우보살이 있는곳
sbs세상에이런일이에 방영
www.seonwonsa.com
■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692-5
TEL 032)933-8234 / 8834

약사여래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불 토 사
주지 선일
사부대중 일동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TEL 033)343-0103

대한불교조계종
소 림 사
주지 혜윤
내곡동 어린이집 운영
신도일동
■ 서울 종로구 홍지동 80-1
TEL 02)394-2145

대한불교법상종 본사
쌍미륵사(雙彌勒寺)
주지 해월(海月)
신도일동
■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기솔리 33-1호
TEL 031)672-3353

대한불교천태종
인천 황룡사
주 지 김무원
신도회장 이종상 외
신도일동
■ 인천시 서구 백석동 산 71-2
TEL 032)873-0747

대한불교천태종
법 장 사
주지 보광
사부대중일동
■ 경기 평택시 소사동 92-5
TEL 031)655-9090

한국불교태고종
석 왕 사
주지 편백운
강원불교대학 033)251-5040
룸비니유치원 033)255-5040
■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1가 78-45
TEL 033)252-5040

한국불교태고종
능 하 사
주지 성연
신도일동
법회(음) 1, 18일
■ 서울시 마포구 공덕1동 118-4
TEL 02)701-7488, 703-5575

한국불교태고종
약 수 암
주지 혜각
거북마을(노인요양시설)
영탑추모공원(납골당)
홈페이지 www.youngtop.or.kr
■ 경기 파주시 파주읍 연풍3리 347-1
TEL 031)952-4801

대한불교원융종
대 덕 사
주 지 성인
신도회장 수덕화 윤정식
총 무 법성화 이상님
부천남부경찰서
법우회 일동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3동 325-35
TEL 032)664-5545

부루나포교원(法明寺)
주지 선일
부설기관 인천불교대학
부루나 양노원 · 부루나 청소년회관
부루나 청소년 쉼터 · 부루나 복지회
■ 인천시 서구 가좌 3동 83-6
TEL 032)576-9741
FAX 032)579-0736

전통불교(傳統佛教)조계종
지 장 암
주지 무경 감조
대중일동
www.haesuwon.net
■ 부산 수영구 광안 2동 162-23
TEL 051)757-3334

대 각 정 사
주지 해각
불교교양대학 무료강의
(1.3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서울 강서구 화곡 2동 835-3
TEL 02)2699-6384

금강경 독송회
지도법사 김재웅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131-80
TEL 02)742-0172

무 애 원
원장 설봉
전통문화 도예 연수원
신도일동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548-1
TEL 032)932-5087~8

사단법인 21세기
한국불교사회봉사회
이사장 이설산
백련자비원(무료급식소)
임직원일동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 3동 321-3
TEL 02)303-0024~5

謹賀新年 佛紀 2550年

丙戌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보림사
회주 묵산 강혜
주지 보관
사부대중일동
■ 서울 성북구 정릉4동 산 1-1
TEL 02)914-6187

지장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만 의 사
주지 성직
신도일동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 140
TEL 031)376-6005 / FAX 031)376-6624

대한불교조계종
삼성산 사자암
주지 도각
사부대중 일동
■ 서울 동작구 상도3동 280
TEL 02)825-1046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박종하
신도일동
■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519-3
TEL 02)582-8609 / FAX 02)597-3510

대한불교조계종
사 나 사
주지 화암
사부대중일동
■ 경기 양평군 옥천면 용천2리 304
TEL 031)772-5182

대한불교조계종
용 덕 사
주지 성효
■ 경기 용인시 이동면 묵리 산 57
TEL 031)332-0426

대한불교조계종
무 량 사
주지 금담
사부대중일동
■ 경기 남양주시 입석3리 441-1
TEL 031)594-7970

대한불교조계종
장 안 사
주지 성화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67 건영상가 3층
TEL 031)703-7766

대한불교조계종
청 계 사
회 주 대궁 종상
주 지 성행
신도회장 김무량화
사부대중일동
부설 : 정신지체장애인 복지시설 녹향원
■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11번지
TEL 031)426-2348, 2221
FAX 031)426-3666

대한불교조계종
화 개 사
사부대중일동
■ 인천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489-1
TEL 032)932-4140

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화사
회주 송월주
부설 (관인)영화유치원
■ 서울시 광진구 구의 2동 9번지
TEL 02)444-4321 / 444-7215
FAX 02)454-8177

대한불교조계종
노 적 사
주지 박종후
신도회 일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331(북한산성 내)
TEL 02)353-5016, 4924
FAX 02)386-4198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문수사
주지 혜정
사부대중일동
■ 서울 종로구 구기동 산 2번지
TEL 02)391-2062

대한불교 조계종
개운산 개운사
회 주 종범
주 지 공운
재 무 각연
총 무 운공
교 무 혜각
사부대중일동
■ 서울 성북구 안암 5가 157
TEL 02)924-3841

대한불교조계종
정 각 사
주 지 광 우
신도회장 서승만행
대중일동
■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1가 277-12
TEL 02)742-1231

적멸보궁 사자산
대한불교 조계종
법 흥 사
주지 도완
신도일동
■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법흥2리 422-1
TEL 033)374-9177~8
FAX 033)374-9176

대한불교조계종
백 련 사
사부대중일동
www.baekryunsa.org
■ 경기 가평군 상면 연하리 산 30-4
TEL 031)585-3855

대한불교조계종
한북 제일 지장극락도량
운악산 현등사
주지 초격
사부대중일동
■ 경기 가평군 하면 하판리 163
TEL 031)585-0707, 5792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선원 · 안양불교대학
회 주 세 민
주 지 현 호
신도회장 심정구
합창단장 양원각행
사부대중일동
■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674 삼영B/D 7층
TEL 031)444-5935~6 / FAX 031)444-5655

대한불교조계종 · 성북구사암련회장
삼각산 내원사
주지 호암 정수
사부대중일동
■ 서울 성북구 정릉4동 산 1
TEL 02)941-2012~3

염불만일회
삼각산 정토사
회주 박설산
주지 박응천
사부대중일동
■ 서울 종로구 평창동 523-61
TEL 02)396-3405, 379-5502

태아영가 엄마아빠 참회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구 담 사
신도일동
■ 경기 포천군 이동면 연곡4리 595
TEL 031)533-2855
FAX 031)532-3444

대한불교조계종
덕 양 사
주지 도명
사부대중일동
■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361-6
TEL 031)972-8067

도봉산 광륜사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도봉구 도봉 1동 401
TEL 02)956-5555

양평불교사암연합회
회원일동
■ 사암련사무소 : 경기 양평군 양평읍 회현1리 238번지 법림정사內
TEL 031)774-0215

재단법인 일붕선교종
금강산 약수암
주지 보해
대중일동
약사여래영험기도 및 방생 도량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234-1
TEL 033)682-1933 / FAX 033)682-1707

백만불전대도량
도락산 광덕사
회주 혜인
주지 성원
사부대중일동
www.84000.or.kr
■ 충북 단양군 대강면 직티리 산 30-1
TEL 043)421-4700

최초 [법문가요] 보급사찰
대한불교 법화종
법 만 사
주 지 법만 합장
신도회 · 법연회
■ 서울시 중랑구 중화1동 274-63
TEL 02)433-6591~2

안양 수리산 도광사
주지 의천 도광
신도일동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산103-142
TEL 031)449-0898

신 고 달 사
주지 혜성
재무 선공
사부대중일동
■ 경기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125
TEL 031)884-9420



올해도 저 해처럼 찬란하여라

해는 늘 뜨고 진다. 그러나 새해,
첫 새벽을 깨치고 떠오르는 해에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다.
하루를 위해 뜨는 해가 아니라 새로운 일 년을
위해 뜨는 해이기 때문이다.
2006년의 새벽을 여는 해는 딱 한 번,
2006년의 첫날에만 떠오른다.
어디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로
새해를 맞이할까?
새해의 희망찬 설계가 없다면
새해맞이도 의미가 없다.
지쳤던 심신을 달래고
희망찬 기운을 가득 안고 돌아올 수 있는 길,
전국 사찰들이 준비하고 있다.
가족들과 해맞이 법회를 여는 사찰이나
문화 행사를 주최하는 사찰,
5대 적멸보궁을 비롯한
전국의 기도처를 찾아
모처럼 자신을 돌아보며 희망찬 새해를
설계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보자.

해돋이 보며 산사에서 새해 열자

산사에서 새해를 맞는 것. 1년 내내 지워지지 않는 기쁨과 경건함으로 새해를 시작하자. 사찰에서라면 떡국 한 그릇도 색다르다.

사찰에서 새로 뜨는 해를 보는 것만도 기분 좋은 일인데, 요즘 산사에서는 찾아오는 손님들과 함께 산을 오르고 희망찬 아침을 여는 법회를 준비해 불자들이 즐겁게 사찰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사찰 주변 산행은 정갈한 첫 마음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 안동 봉정사는 1월 1일 오전 6시부터 희망자를 대상으로 오봉산 산행을 하면서 새해 아침을 열 계획이다. 또 원주 구룡사도 새해 아침에 모인 불자들과 함께 치악산 등반을 통해 참여 불자들 모두와 새로운 기운으로 새해를 맞이한다는 계획이다.

구례 화엄사가 마련한 해맞이행사에 동참하여 지리산 노고단에서 해맞이를 하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국악공연 · 산사음악회 등 풍성한 문화 행사

문화행사도 다양하게 준비된다. 공주 영평사는 국악 한마당을, 부안 내소사에서는 다도 예절 교실을 마련한다. 또 해남 미황사는 영화 상영을 준비 중이며, 서산 부석사는 겨울 철새 도래지와 연결해 '철새 탐조'의 시간을 갖는다.

이밖에도 평창 월정사의 산사음악회, 예산 수덕사의 온천 체험, 강화도 적석사의 '불씨 나누기' 체험 등도 기대되는 새해맞이 문화 행사들이다.

새해 기도처 이곳이 인기

3대 관음성지와 4대 지장성지, 5곳의 적멸보궁은 이미 잘 알려진 기도처들이다. 특히 지난해 4월 5일 낙산사 화재로 피해가 우려됐으나 불길을 피한 관음성지 양양 홍련암에서는 여느해보다 다른 느낌으로 기도에 임할수 있을 것이다. 홍련암과 함께 강화 보문사와 남해 보리암은 3대 관음성지로 알려진 아름다운 사찰들이다.

'지장영험비'가 있는 강원도 철원 심원사는 '생지장보살 도량'으로 가장 잘 알려진 사찰. 보물 제280호로 지정된 고창 도솔암 지장보살상은 세련된 모습으로 참배객을 맞는다. 서산 개심사는 지장기도 도량으로서 뿐만 아니라 경허 선사 등 근대불교사의 고승들이 주석하면서 수행했던 참선도량으로도 이름 높다.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적멸보궁'은 새해 기도처로 언제나 인기다. 새해의 맑은 기운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해 한 해를 밝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참배가 몰리기 때문이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일출맞이	장소	내용	연락처
	부산 범어사	떡국 공양 및 해맞이, 탑돌이	(051)508-3122
	공주 영평사	해맞이 산사 순례(갑사 동학사 신원사)	(041)857-1854
	구례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순례, 노고단 해맞이	(061)782-7600
	경주 불국사	신년 대법회 봉행	(054)430-1878
	대구 동화사	탑돌이, 팔공산 동봉 약사여래입상앞 해맞이	(053)985-4404
	대구 관음사	감포 도량에서 해돋이 법회 개최. 선방 무문관 개방	(053)474-8228
	동해 삼화사	동해안 일출, 떡국 공양	(033)534-7611
	안동 봉정사	해맞이 산행	(054)853-4181
	원주 구룡사	새해맞이 치악산 등반	(033)732-4800
	영천 은해사	묘봉암 중암암 순례	(054)335-3318
문화 행사	**장소**	**내용**	**연락처**
	공주 영평사	국악한마당	(041)857-1854
	김제 금산사	벽골제 탐방	(063)246-3679
	부안 내소사	다도체험	(063)583-7281
	강화 적석사	불씨 나누기	(032)932-6191
	서산 부석사	철새탐조	(041)662-3824
	예산 수덕사	산사에서 온천체험	(041)337-6565
	평창 월정사	산사음악회	(033)332-6664
	해남 미황사	영화상영	(061)533-3521
기도처	**장소**	**내용**	**연락처**
	관음성지	양양 낙산사 홍련암	(033)672-2478
		강화 낙가산 보문사	(032)933-8271
		남해 금산 보리암	(055)862-6500
		여천 금오산 향일암	(061)644-4742
		양양 휴휴암	(033)671-0093
		부산 해동 용궁사	(051)722-7744
	지장성지	고창 도솔산 도솔암	(063)564-2861
		완주 종남산 송광사	(063)243-8681
		서산 상왕산 개심사	(041)688-2256
		철원 보개산 심원사	(033)455-5882
		남해 호구산 용문사	(055)862-4425
		문경 운달산 김룡사	(055)552-7006
	5대보궁	양산 영축산 통도사	(055)382-7182
		평창 오대산 중대 상원사	(033)332-6666
		인제 설악산 백담사 봉정암	(033)462-6969
		영월 사자산 법흥사	(033)374-9177
		정선 태백산 정암사	(033)591-2469
	유명기도도량	대구 팔공산 갓바위(약사여래)	(053)851-1868
		청도 운문사 사리암(나반존자)	(054)372-8811
		과천 관악산 연주암(나한)	(02)502-3234
		영천 팔공산 거조암(나한)	(054)335-1369
		제천 와룡산 고산사(나한)	(043)646-0198

깨달음(도통)과 神通(신통) · 醫通(의통) ·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전수반 모집

참선공지도자 **神 임상최면사** **神 치유명상가**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임상최면 :**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空)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며 내공 외공을 소유한다.

● **神치유명상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現卍 신선암 주지
現神 임상최면 협회장
現참 선공 협회장
現神 치유명상 협회장

◆ **참선공의식 사례**

① 48세 여성이 이혈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돌아가서 한의원,병원,기공,굿,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 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② 60세 중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③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살부터 오른 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걷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어갔다
④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물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성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⑤ 50세 중진 스님은 영가가 빙의 되어 눈에 뱀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와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특별전수과정
목요반 ● 개강일: 2006. 1. 5 15:00 - 19:00 (12회 과정)
금요반 ● 개강일: 2006. 1. 6 15:00 - 19:00 (12회 과정)
전 수 비 300만원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조상천도비법	칠차원 생명법
자비손 치유법	전생 치유법
음성 내공법	내생 치유법
빙의 · 해리 치유법	

◆ **교육후 참선공 자격증 神임상최면 자격증 神치유명상가 자격증 발급.**
◆ **지도자과정 전수 후 사회활동 하실 분 협회에서 적극 추천 · 후원 합니다.**
◆ **불치병, 난치병, 신병 상담 환영. 주지스님이 직접 상담.**

卍 신선암 참선공협회. 神치유명상협회

●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내가 본래 공했으니 하되 함이 없이 해야

병고에 고통받지 않고 살아가려면

문 며칠 전 안양 대법당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해마다 참석하는 자리지만 재발심하는 마음으로 가족 모두가 참석하였습니다. 많은 대중이 한꺼번에 수계를 받고 연비 의식이 진행되어 잠시 망념이 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내면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대중의 흐름에 동화되지 못해 그런 생각이 올라옴을 자각하고 바로 분별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또 연비를 받으면서 "우리들의 삶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하고 의식을 집전되는 시간 내내 참회진언을 마음으로 읊조리면서 진정한 참회가 무엇인지를 가슴 깊이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계식을 하는 동안 같이 동참해서 연비를 받는 저희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병고액난의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발원하고 발원했습니다. 진정코 질병의 고통 속에서 허덕이지 않고 올바로 수행정진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요?

답 내가 항상 나무 뿌리하고 싹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누구나가 다 나무 싹과 뿌리처럼 본래 그렇게 달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네 뿌리는 바로 네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리를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주 전체를 한데 쌓아봤자 콩 알갱이 하나로도 할 수 있고 한 사발로도 할 수 있고 한 주먹으로도 할 수 있고 아주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두를 하나로 이렇게 했을 때 그 콩 하나를 갖다 짊어지니까 세상에 짊어질 수도 없고 무겁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떡하면 빨리 해소를 시킬 수 있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관하라고 한 겁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믿는 것만큼 없어질 것이고 믿지 못하고 뭐를 얻으려고만 한다면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서 자기 정성에 의해서 그것이 조금 나을 뿐이지 그것이 없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만 살려고 그러지 말고 세세생생을 살기 위해서,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걸 벗어 버려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짊어진 콩 한 알갱이를 산더미 같은 산이라고 그런다면 산 하나를 짊어지고 다니는데 그 무거운 거를 그냥 다 놓아라 이 소린데, 진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인공이라는 자기 자불(自佛)을 진짜 믿어야만 하는데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다 하는 거는 우리가 보면 알죠. 눈 뜨고 보고 귀 열고 듣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를 그렇게 형성시켜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만든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종자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자기 종자라는 근본인데 그 근본으로 인해서 자기가 생겼다면 그 근본에다가 다 놓아야죠. 진짜로 믿고 놓아야죠. 그리고 하는 것도 먹는 것도 일상생활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놈 때문에 움죽거리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깐 산이 하나다 해도 되고, 콩 한 알갱이다 하는데 그 콩 한 알갱이가 짊어져도 짊어질 수가 없으리만큼 무겁다이 소립니다. 근데 그것 하나를 없애려고 한다면 진짜로 믿고, 가난하든 돈이 있든 없든 밥을 굶든 먹든 무조건 '굶지 않게 해 주는 것도 너고 살리는 것도 너고 길을 걷게 하는 것도 너고….' 하면서 모두가 믿는 게 그냥그냥 그리로 다라야죠. 다죠. 자기 모습이 자기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깐 부처님 머리 위에 상투를 하나 해 놓았다고도 보고 또 때로는 부처님을 새겨 넣기도 하고 때로는 금으로다 이렇게, 지금도 해 놓았지만 그렇게 해 놓은 것은 바로 크고 좋아서가 아니라 뜻으로 볼 때는 텅텅 빈 모습이다. 텅텅 빈 모습인데 무엇이 있겠느냐. 그런데도 갖추어 가지고 계시다 이겁니다. 텅텅 비고 없기 때문에 갖추어 가지고 있는 거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갖추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오장 육부가 다 있다면 갖추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손도 빈 손 부처님 손도 빈 손, 부처님 발도 빈 발 내 발도 빈발, 부처님 몸도 빈 몸 내 몸도 빈 몸이니깐 빈 마음입니다. '함이 없이 하고 가는구나.' 하고 그저, 모든 것을 알 양으로 애 쓰지 말고 모두가 공했다는 거, 우리가 공해서 함이 없이 하고 지금 생활을 하고 간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수억겁 전서부터 돌이 아니게끔 돼 있는 거죠. 인과로서 인연으로서 말입니다.

그러니깐 모두 그 뜻만 대략 알면 그냥 믿고 가도 된다 이겁니다. 왜, 부처님께서 가르쳐도 모르는 바보 제자에게 빗자루를 하나 주셨지 않습니까. "너는 이 빗자루 하나 가지고 항상 쓸고 털고 그래라." 하고요. 거기서 터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안다 하더라도 안 것은 다 놓아야 된다 이겁니다. 아는 것을 다 놓지 않는다면 그 아는 것 때문에 길고 짧고 이렇고 저렇고, 이론이 많아서 외려 갈 길을 더디게 만든다 이런 소리죠.

그렇다고 일거수일투족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되 함이 없이 해라 이거죠. 공했으니깐 너는 함이 없이 하는 거다 이겁니다. 왜 텔레비전에 영화로서 이렇게 그림이 나오죠? 그림이 나와서 별짓 다 하죠. 자기가 그렇게 별짓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거는 내 환상이 저렇게 하고 있고 나는 그냥 여기 앉아서 그걸 보고 있다. 그렇게 환상이 온통 다 하고 살듯 이렇게 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어디 다치거나 그런다면 엉엉 그냥 야단나죠. 그러나 죽어도 고만 살아도 고만, 이런 것이 다 무심하게 돌아가죠. 알게 되면 얼음판을 걸어와도 아주 편안하게 걸어올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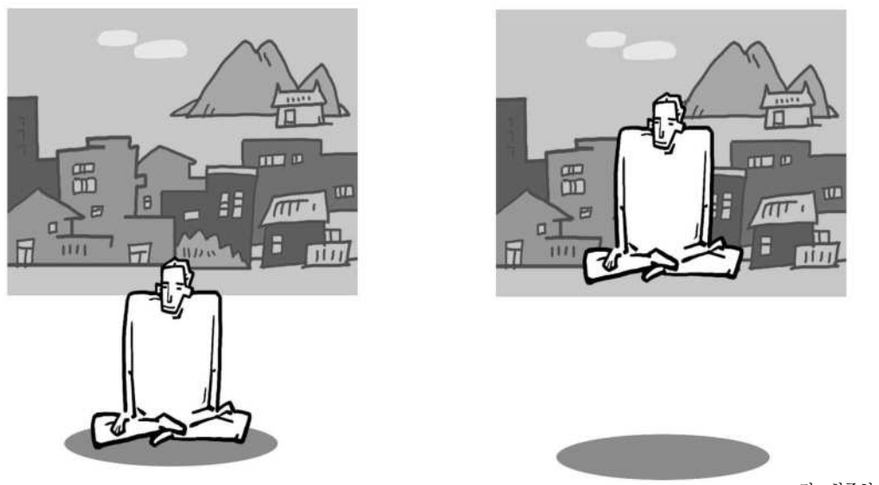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래 어느 사람이 강을 건너는데 아주 얼음이 얼었으니까 고기들을 잡느라고 모두 얼음을 깨 놓은 자리가 큰 게 있어요. 뭐 잘못 걸으면 풍덩 빠져서 그냥 야단들이 나니까 잘 걸어오는데, 스님네들 둘은 하나도 거침없이 그냥 고개도 돌리지 않고 오거든요. 그래 옆에서 오는 사람들은 모두 두리번두리번거리고 간이 콩만 해서 모두 오는데 다 건너와서 "스님! 스님!" 하고 물었어요. "스님네들은 이 강을 건너오시는데 겁이 나시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는 이 강을 건너온 새도 없는데 어떻게 겁이 나겠소." 하더랍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도 사는 게 아니면서도, '아니다' 이러는 걸 알면 그냥 삶이 없이 사는 거죠, 그냥.

그래서 내가 그러는 겁니다. 관해서 놓으면 둘이 아니게끔 딱, 병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왜 그런 것도 있죠. 한 모습에 한 모습이 딱 들어가서 하나가 된다고요. 그런 것 보시면 아시듯이 그렇게 수천 개가 들어가도 그것은 들어가고 나간 사이가 없단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은 그대로 낫는 겁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죽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주인공을 믿고 열심히 관하며 사세요.

욕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문 모든 분들이 선한 의지를 갖고 어떤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악한 의지를 갖지 않고 함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아니면 대개 또 잘 안 풀리죠, 때때로. 그렇다면 욕심을 내지 말라고 하는데 애들이 좀더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그래도 남들처럼 집은 하나 있어야겠는데 그 욕심의 한계는 어디까지가 욕심의 한계며, 그 구분이 확연하게 '이건 욕심이다. 생활하는 데서 이건 욕심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저로서는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선한 의지로 어떤 일을 좀더 나아지게끔 추구하는 것도 욕심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당연한 건지 의문이 됩니다.

답 어이구, 참! 애들하고 살 집이 없는데 어떻게 집 걱정을 안 해요? 세상을 살면서 자기는 관리인이라는 것만 아시라니까요. 주인의 시자일 뿐이고. 누가 사랑을 하지 말래나, 돈을 갖지 말래나, 집을 갖지 말래나요. 이 말만 하면 알아듣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대로 사는 것이 원칙인데 악하게 살지 말라고 이런 것은, 악한 것도 악한 것이지만 자녀들하고도 악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잘못하고 나가서 안 들어오거나 이래도요, 공부를 잘못하거나….

이거 한국에선 더 합니다. 부모가 그냥 공부 공부, 아주 상상에 빠진 거 같습니다. 그러니 자식들이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공부에 진저리가 나서 들어오면 "어디서 배고프지 않게 뭘 먹었느냐. 피곤하지 않으냐. 배고프면 뭘 좀 먹고, 피곤한데 쉬어라." 이러고 마음속에다가 맡겨 놓는, '저 아이가 공부 좀 열심히 잘하게끔, 마음잡아서 잘하게끔 당신밖에는 해결 못해!' 하고 거기다 맡겨 놓고 거죽으로 말은 부드럽게 해 쥐라 이런 소립니다. 그래서 이득이 있고 공덕이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일사천리로 말로다가 그냥 다다다 해 버리고 그러면, 냉랭하면 눈치 봤다가 그냥 또 달아나가요. 그러니 점점점 속이 썩고 이러죠.

그리고 자식들한테 조건 없이 사랑하고 그래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조건이 있이 꼭 합니다. 자식을 기를 때도 '너는 잘돼라. 잘되는 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조건을 붙입니다. 그런데 우린 안 그렇습니다. 조건을 붙여 놓으면 더 잘될래야 잘될 수도 있고 더 못될래야 못될 수도 없습니다. 거기 한계에서 그냥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한계를 지어 놓지 마시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시라 이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악하다는 것이 별난 게 아니라, 그저 남한테 무조건 잘 이익하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은, 공을 쳐 보세요. 공을 딱 칠 때는 공이 나한테 돌아오지 절대로 그 벽에 딱 파묻히지 않습니다. 그거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걸리지 마시고 아주 평온한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관리인만 되겠다. 그저 마음의 주인이 다 알아서 할 거고, 집이 없는 생각을 하면 또 집 없다는 생각에서 주인공도 알고 있으니까 어느 때 생겨도 생기겠지.' 하고 거기다 맡겨 놓는 겁니다. 저절로 해결돼야지 강제적으로 어디서 집이 나옵니까?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순리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업이 붙지 않는다 하셨는데…

문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지금 한 행동들은 우리가 걸어서 왔을 때 발자국을 남겨 놓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 가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업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있을 수 있고 계속해서 그 업을 우리가 갖고 다니는지 업, 카르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 그러니까 잘 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한 것은 자기가 받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산 부처님이 계셨는데 어느 신도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나는 나쁜 일도 안 하고 죄 지은 일도 없는데 어찌 이렇게 가난하고 애고가 많습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모든 게 닥치는 거고 지금 네가 어떻게 살고 가느냐에 따라서 또 미래가 올 것이니라." 그러셨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게 우리 마음 놀음이니까, 마음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나쁘게 하기도 하고 좋은 일을 하게 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딴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모르는 걸로 알지 마세요. 모든 것을 내 마음속의 그 의식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법계에 전부 통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이 생기고 인과응보가 생기고 또는 영계성이 생기고, 즉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마음, 의식 이런 것하고 첨부가 되면 영계성이 되지요. 인연의 영계성.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업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끄달리지 마시고 어떠한 업이든지 어떠한 고통이든지 다 자기 마음 근본에다가 놔야, 그것이 바로 자가발전소와 같은 거니까 놔야 모든 게 타 버리는 것과 같아서 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말을 하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은 업이 되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 나쁜 업이 됩니다. 악업이 되고 선업이 된다 이런 말이죠.

하여튼 이 공부의 핵심은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 어디에서 돌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관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중해서 항상 도반들과 서로 공부들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 마음공부를 해 나가시는 분들이 법회도 자꾸 참석을 하고 도반들끼리 토론도 하면서 자꾸자꾸 진행해 나간다면, 가정도 다복해지고 화목해지고 애고가 없어지고 병고가 덜어지고 모두가 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천도의 도리에 대해서

문 동물을 피치 못한 일로 죽였을 때 자기 한 마음에 거둬들이면 그 동물이 다시 사람으로서 다시 환토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자기 갈 길을 가라고 천도를 하는데, 제 의문은 왜 한마음으로 들일 수 있다면 동물이고 사람이고 간에 스님 같으신 분께서 한 마음으로 다 들일 수가 있을 텐데, 왜 저희와 같은 범부중생이 굳이 제 갈 길 가게 마음을 내고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법원에 가면 십 년의 징역을 받기도 하고 무기징역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십 년이고 무기징역이고 간에 그렇게 죄지은 잘못으로 갇히게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 일을 담당했던 검사가 다 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죠? 새로 온 검사나 판사가 들어가서 해결할 일이 못되죠.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만약에 소가 지나가는데, 도살장으로 끌려간다 합시다. 그런다면 그것은 누구도 개입한 예가 없단 말입니다. 누구도 개입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즉시 나에게 하나로 집어넣는다면, 얼른 쉽게 말해서, 그러면 거기 들어가기 이전에 벌써 사람으로 환토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는 도살장에 가서 맞아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안락사처럼. 아픈 줄을 모르고 무명을 벗습니다.

그리고 천도도 그렇습니다. 생전에 살면서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내 몸속에 들은 악업 선업의 그림자에 밟혀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 부부지간이나 자식지간이나 동료지간이라 해도 그 모두는 동구 바깥에서 인사를 하고 가지만 그 악업 선업의 그림자는 떠나질 않습니다. 자기 영혼에 딱 붙어서 그냥…. 그러니까 그 의식들에 묻혀서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 도리를 모르니까 자기가 체가 있는 줄 아는 겁니다. 자기가 체(體)가 있는 줄 알고 그냥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떡하다가 벗어났다 하더라도 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빠져 죽을까 봐 못 건너갑니다. 내가 몸뚱이가 있는 줄 알거든요. 지금 살아서처럼 있는 줄 알아요. 죽어도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배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불바퀴를 넘어서야 할 텐데 타 죽을까 봐 못 들고요. 그러니 세 조건이 다 없는 겁니다, 아주. 그래서 천도가 생긴 겁니다. 눈 뜬 사람을 통하고 귀 뜬 사람을 통해서, 길잡이를 통해서 벗어나는 겁니다.

원효 대사가 죽은 사자 새끼에 대고 목탁을 치고 염불을 하니까 대안 대사가 '허, 그렇게 염불을 해서 천도가 될 건가?' 하면서 바가지에 얼어온 젖을 사자 새끼를 끌어다가 먹였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어느 사찰이든, 사찰뿐만 아닙니다. 어느 종교, 티벳 불교든지 일본 불교든지 한국 불교든지, 모두 이게 기복으로 하는 데는, 부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그것도 그대로나 하나요? 제대로 그대로 못하는 점들이 많죠.

무엇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근본을 깊이 관해야 합니다!

☞B22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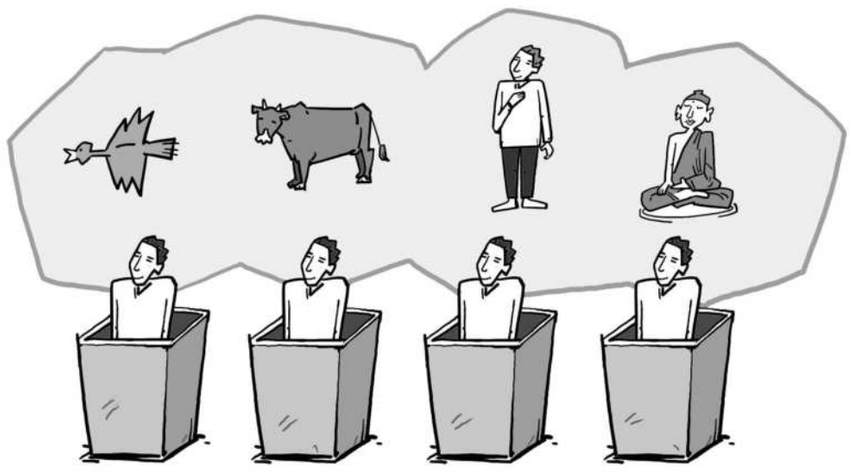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어떠한 업이든 어떠한 고통이든

다 자기 마음 근본에 놓아야 타버립니다!

☞B21면에서 계속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스님들이 마음이 넓어야 천도를 시키는 영혼도 들어와서 스님의 마음과 같이 동시에 알아짐으로써 시야가 넓어지는 겁니다. 스님들이 요만한 교자상에다 크게 잘 차려 놓고 할 때 그 스님들이 이렇게 잘 차리고 한다는 것만 알았지, 모든 우주 섭류의 모든 문이 여여하게 열린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의 마음이 얼마큼 넓으냐에 따라서, 하다못해 잡쌀떡 하나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도 이 세상 영혼의…, 영혼의 것이니까, 전부.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을 다 먹이고도, 모든 조상들을 다 먹이고도 그 떡 하나가 되남더란 얘깁니다.

천도를 시켜도 이쯤 돼야지 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목탁 치고 염불이나 한다고 천도가 아닙니다. 영계를 만나서 얘기할 줄 알고 교류할 줄 알고, 그래도 어떠한…,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지금 가고, 뭐를 하고 있는지 그쯤은 알아야 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천도도, 소가 지나가는 걸 보는 것도 천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천도하고 그 천도하고는 또 다르죠. 왜냐하면 아무 조건도 없어야 할 텐데 이 한 사람을, 내가 이거는 너무도 훼저하게 실험하고 체험한 거니까요. 한 사람을 건져 주려면 몇 집을 돌아쳐야 한 사람 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연결 연결 돼서 말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게 막아지고 저걸로 인해서 저게 막아지고, 죄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천도도 가지가지에 의해서 용도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고 그렇지, 그 천도도 천차만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천도라는 거 한마디는 그냥 천도지마는 그 천도의 가짓수는 나름대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주어질 테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문 제가 자식을 가르치는 엄마의 입장에서 좀 여쭤 보겠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제 큰아이가 대입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큰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집안을 위해서도 잘되기를 엄마로서 바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독교를 다닐 때도 하나님에게 잘되게 해 주시라고 기도를 했는데 불교로 개종을 하고나서도 별반 다른 게 없이 이름만 바꿔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주인공'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교의 진정한 뜻을 몰라서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는 건지, 그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이거 보세요. 내가 항상 수없이 여러분한테 말하죠. 십 년뿐이 아니라 이십 년 삼십 년씩 이렇게 지금 얘기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벌써 상대가 생기지요? 벌써 한 다리 건너서 공을 딱 쳤을 때에 맞은 자리가 그냥 정통으로 들어가야 공이 힘이 있죠. 만일 한 번 맞아 가지고 그쪽으로 가 보세요. 힘이 있나. 그러니깐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는 생각으로 하는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근본을 깊이 관하라 이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 주처에 돌려놓고 지켜봐라 이겁니다. 무조건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관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깐 여러분은 자기 주처를 업신여겨서 믿지 않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주여,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시여!' 하면서 바깥으로 기도하고 찾고, 또 부처님 믿는 사람은 땅에 가서 빌질 않나, 용신한테 가서 빌질 않나, 지신한테 빌질 않나, 온통 빌고 다니는 그러한 분들이 미신 행을 하니깐 미신이 있고 귀신이 있지 왜 미신이 있겠습니까? 달마 대사께서는 양 무제가 그렇게 많은 절을 지어 주고 옷을 해서 보시하고 시주를 많이 해도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돌아가질 않기 때문에 공덕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에요. '님이시여, 님이시여! 영원한 님이시여! 수억겁 광년을 거쳐 와도 나하고 둘 아니게 이끌어 오신 당신이시여! 님이시여!' 하는 겁니다. 그 님을, 내 님부터 알아야 하늘님을 알고 한울님을 알죠. 요 세 가지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늘님! 지혜입니다, 이게. 한울님! 통신입니다, 법계. 내 님에서 문리가 터져야 하늘님도 한울님도 다 알게 되는 거죠.

불가에서 말하면 바로 지금 보이지 않는 데에 그 들음, 바다와 같이 넓은 자비, 그것이 나를 증득하면, 나를 발견해 내면, 즉 말하자면 현재의식의 자기는 자(子)고, 과거의 자기를 끌고 지금 나온 그 무심은 바로, 불성은 바로 부(父)다 이겁니다. 부와 자가 상봉하면 그대로 둘이 아닌 도리를 알게 되느니라, 그대로. 문리가 터지느니라 이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 나는 발견했는데, 육조 스님도 나는 발견했는데, 달마 대사도 그랬죠. 나를 발견했는데, 둘이 아닌 도리는 다 알았는데 둘이 아니게 나툴 줄을 몰라서 면벽을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한 분은 6년을 면벽을 했고, 한 분은 12년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여러분은 좀더 생각을 넓게 해서, 지금 그 앉은 자리에서 바로 연습을 한번 해 보실까요? 집에 한번 갔다 와 보세요, 어떤가.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하고 잘된다 하고 기대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갖추어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주처를 믿고 거기에 모든 걸 맡기시고, '너만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어. 너만이 내 병을 낫게 할 수 있어.' 하고 일체를 맡기시라는 겁니다. 아들이라는 거 어머니라는 게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불을 켜면 자식들의 마음에도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그냥 거기다가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공부 안 한다는 놈이 스스로 공부하게 돼요.

그렇게 연결이 이어짐이 없이 이어져요. 그래서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고, 이어짐이 없이 마음을 전달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깐 끝간 데 없이 시발과 종점도 둘이 아니요, 이어지는 사이 없이 이어져서 돌아가니깐 한마음이다 이거에요. 그래서 원자라고 말을 하죠. 오온이라고 했는가 하면, 원자에서 입자가 되고 입자에서 분자가 되고 분자에서 그저 한생각에….

한생각이고 뭐고 세 가지 네 가지 습이 있다면, 통 안에 뚜껑을 열어 보면 그냥 생명들이 와르르 하고 일어납니다. 누가 거기 뭐 하려고 생명을 조작해서 한 건가요? 자연입니다, 그게. 그래서 습기가 있고, 지수화풍, 습기가 있고 원기가 있고 그렇게 되면 다 생명이 생기게끔 돼 있어요. 그것이 오래 살다 보면 경험을 얻고 해서 진화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주 영리한 인간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벌레를 업신여겨요? 아프다는 사람 업신여겨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업신여겨요? 왜, 형상은 믿고 업신여기지 않으면서, 고상한 부처님 형상은 그렇게 고귀하게 생각하고 믿으면서, 이름도 믿으면서, 그리고 고상도 믿으면서, 성모마리아 상도 믿으면서, 왜 자기 근본은 안 믿는 겁니까? 자기가 지금 말하고 다니고 살면서 산부처를 왜 안 믿어요? 아, 자기 산부처를 왜 안 믿느냐 말이에요. 자기 얼굴 더러우면 닦아 주는 산부처를 왜 안 믿느냐고요. 그리고 더우면 시원한 옷 입혀 주는데 왜 안 믿느냐고요. 조금 더 옷이 더러워 보세요. 훨훨 벗어 버리고서 좋은 옷 입혀 주고 그러는데 왜 안 믿어요? 형상을 믿을 거예요, 이름을 믿을 거예요? 고깃덩어릴 믿을 거냐고요. 그리고 허공을 믿을 거냐고요.

다른 데 믿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못났든 잘났든 자기밖에 자기가 믿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깐 믿는 거는 여러분의 주인공을 믿어야죠. 주인공이라는 뜻은 돌아가니깐, 찰나찰나 돌아가요. 화해서. 금방 어머니가 됐다가 금방 할머니가 됐다가 금방 아내가 되시죠? 그런데 어떤 게 되었을 때 나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게 부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되었을 때 놓고 빌지 말고, 아내가 되었을 때 빌지 말고, 지금 부처님 불상을 모셨는데 부처님을 모셔 놓고 부처님 마음이, 마음을 내면 분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냈는데 또 보현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 보현은 화신이에요. 몸이 움죽거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바로 그분들이에요. 그러니깐 여러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 근본과 마음 내는 것과 몸이 움죽거리는 것, 셋이 이름은 각각이지만 같이 돌아가는 게 주인공이에요. 같이 돌아가니깐, 내면세계의 모든 생명들도 같이 따라서 돌아가니깐 그것이 바로 한마음이자 주인공이란 얘깁니다. 그러니 한마음 주인공에서 나오는 그 자체를 되놓으시면 바로 거기에서 앞서 짊어지고 나온 그 모두가 무너지는 겁니다.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공 고

(봉원사 토지 매매 및 개발불가)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산 1번지 봉원사 토지 일대는 문화관광부와 한국불교 태고종 및 봉원사의 협의 · 승인 없이는 매매가 절대 불가하므로, 다음과 같이 불가 내용을 공고합니다.

지난 2001년 11월 5일 대한불교조계종에서 한국불교태고종 및 봉원사와 협의 없이 대한불교조계종 명의로 임의 변경, 등기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3년 6월 초에 본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사건번호 2003가합 40656 소유권확인 등) 2005년 2월 1일 본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 판결요지
1. 대한불교조계종 봉원사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라.
2. 토지의 소유권은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에 있다.

또한 본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 재판계류 중이므로, 봉원사 토지 일체는 상기와 같은 내용에 따라 토지 매매가 절대 불가함을 공고하오니, 모든 건축업자와 부동산, 금융기관 등에서는 선의의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만약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요청할 경우 봉원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2월 16일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 주지 조환우(상길)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02)392-3007-8

연기와 화상 걱정에서 완전 해방된 새로운 쑥뜸용구 -

소자본으로 대박잡는 틈새업종 대리점 및 쑥뜸기 체험방 모집!

허준선생의 東醫寶鑑 - "약과 침으로 치유되지 않는 병은 반드시 뜸을 떠야한다."

■ 제품의 특징
- 화상과 연기의 위험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쑥뜸을 할수 있다.
- 복부의 5개 혈자리를 동시에 뜸할 수 있는 획기적 효과가 있다.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온열판 내장으로 쑥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하는 효과 증대.
- 혈자리를 모르는 초보자나 노약자도 간편하게 쑥뜸을 뜰 수 있다.

오행쑥뜸기

■ 제품의 특징
각종 통증 완화 사용후 45분이면…
- 벨트를 이용하여 무릎, 머리, 어깨, 허리 등에 간편하게 고정 할 수 있어 집중 쑥뜸을 할 수 있다.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음양쑥뜸기 (무릎관절)

■ 제품의 특징
- 좌훈기 내부에 온열판 장착으로 쑥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되는 효과가 증대 됨.
- 인체와 접촉되는 부위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 끓는 물에 살균소독이 가능하여 위생적임.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좌훈기에 등받이가 부착되어 편안한 자세로 뜸을 할 수 있다.

오행좌훈기

의료용구로 허가를 받은 믿을 수 있는 제품

대구 한의대 및 대구 한방병원 교수진에 의해 개발

특허 등록

ISO 9001:2000

의료용구 제조품목허가 : 제 03662호
의료용구 제조업허가 : 제 1682호
전기용품 안전인증허가 : JC07019-3001
실용신안등록 : 제 0308642호
실용신안등록 : 제 0318970호
실용신안등록 : 제 0328690호
의장등록번호 : 제 0344295호
의장등록번호 : 제 0344295호의 유사 제 01호
ISO 9001 인증서번호 : 제 017269호

대리점 및 쑥뜸기 체험방 모집 문의전화 02)521-4453
오행쑥뜸기, 음양 쑥뜸기, 오행좌훈기 등을 찜질방 및 사우나, 피부미용실, 한의원 등에 독점 공급하실 분
※ 무경험자도 가능 (완벽한 본사의 교육)

www.moxa4u.com 오행쑥뜸 · 좌훈기/음양쑥뜸기 제품구입 문의 02)521-6353~4

D.M.I산업 대구한의대학교 한방바이오 창업보육센터

謹賀新年 佛紀 2550年

丙戌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관 운 사
주지 지 산
■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526
TEL 054) 931-7777,933-0808

대한불교조계종
화악산 적천사
주지 덕 현
대중일동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리 981
TEL 054)373-0307

(재)한국불교법륜종
법 천 사
주지 석 법천
지장보살 정안법회 /
인도부다가야 진신사리 1과 봉안법회 계획 중
신도일동
■ 경북 구미시 해평면 도문리26
TEL 054)474-3855

대한불교조계종
대 덕 암
주지 혜 송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250
TEL 053)763-7164

대한불교원효종
매봉산 고성사
회주 서 응
주지 고 성
■ 경북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755
TEL 054)977-0962

대한불교조계종
수 도 암
주지 현 선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 2동 136-44
TEL 053)743-7070

대한불교조계종
원 만 사
원만사 부설 유치원
주지 법 홍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708
TEL 053) 257-1914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남지장사
주지 합장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륵2리 865
TEL 053)768-9920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산 통천사
주지 선 지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 1동 3-1(아양교옆)
TEL 053)941-3503
053)953-4481

대한불교조계종
모 선 암
주지 탄 하
대중일동
■ 경북 의성군 봉양면도원리 1254
TEL 054)832-2510

대한민국 군포교 사찰
정 토 원
주지 장고봉
관세음보살 108원불조성을 위한
신묘장군대다라니 100기 봉행
■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561
TEL 053)984-0409

대한불교조계종
법 계 사
대중일동
법회안내: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참선법회)
· 음력초하루 · 지장재일(18일)
· 관음재일(24일)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212
TEL 053)768-2251

대한불교조계종
청 계 사
주지 설 정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626
(월드컵 경기장 안쪽)
TEL 053)793-1551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골 굴 사
(사)세계선무도협회 大金剛門
주지 이사장 적 운
골굴사 신도
선무도 대금강문 문도 합장
■ 경북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산304
TEL 054)744-1689

일연선사 800주년 탄신의 해
대한불교조계종
인 각 사
「역사와 문화의 산실 삼국유사 저술지」
주 지 초암 상인
신도회장 배창순
■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동 612
TEL 054)383-1161

대한불교조계종
대 승 사
주지 석 지형
신도일동
■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458-1
TEL 052)298-5865 · 6623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임 대
■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939-1
TEL 054)247-2729(팩스 겸용)

마음청정 · 국토청정
대한불교조계종
보 현 암
주지 선 진
사부대중일동
(보현다도회 하루헌카페 회원모집)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257
TEL 053)767-0274
FAX 053)762-8950

대한불교조계종
선 봉 사
주지 묘 진
(사경법회-매일 오후 2시)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5동 134-12
TEL 053)951-0211

대한불교조계종
청량선원
(사) 야헹가요가협회
주지 현 천
www.bksiyengar.co.kr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356-22
(성원 넥서스 2층)
TEL 053)753-1737

참회 기도의 생활화로 불법을 수호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선학원 여여선원
주지 혜 운
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1동 1982-4
TEL 053)622-0336

재단법인 선학원
기 원 정 사
주지 우 록
■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1152-5
TEL 053)982-9329
FAX 053)983-1698

한국불교태고종
화악산 보현사
주지 김일우(종문)
총무 혜 석
■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611-1
TEL 054)371-1434, 372-1434

팔공산 갓바위 앞산
용 주 암
주지 韓成鶴
사부대중일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44

생활불교 실천도량
성화산 용화사
주지 혜 각
■ 경북 영천시 신령면 화성1동
TEL 054)332-0235

대한불교삼보조계종
구 화 사
대한불교 범음 · 범패 교육도량
회주 석 혜성
총무 지 법
■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응추리 산92
H.P 010-4816-6454

앞산우리절 관음도량
무 량 사
조실 능허 의용
주지 일우
신도회 일동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11동 1550-49
TEL 053)655-3301,
3380(팩스 겸용)

다기류일절
홍 백 원
"진솔한 향기가 있는 곳"
대표 이화숙(법률행)
■ 전시장/대구광역시 중구 종로2가 76-1
TEL 053)256-5847/ FAX 053)253-0903

(양초 · 고급향)
연 꽃 양 초
대표 김 동 호 합장
■ 공 장 : 053) 811-5331
휴대폰 : 011-517-5978

(株)玖峰 · 鍍金 · 精工
ISO 9000:2000인증업체 / QS 2000-1998인증업체
代表理事 金明錫
구봉정공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 3가 620-1
TEL : 053) 351-0009, 4856 /FAX : 053) 352-1717
(주)구 봉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905-9
TEL : 053) 582-0156 / FAX : 053) 582-0157
구봉도금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100-65
TEL : 053) 581-0009, 8907 / FAX : 053) 582-4173
Hompage : www.goobong.com
E-mail : gnbong@kornet.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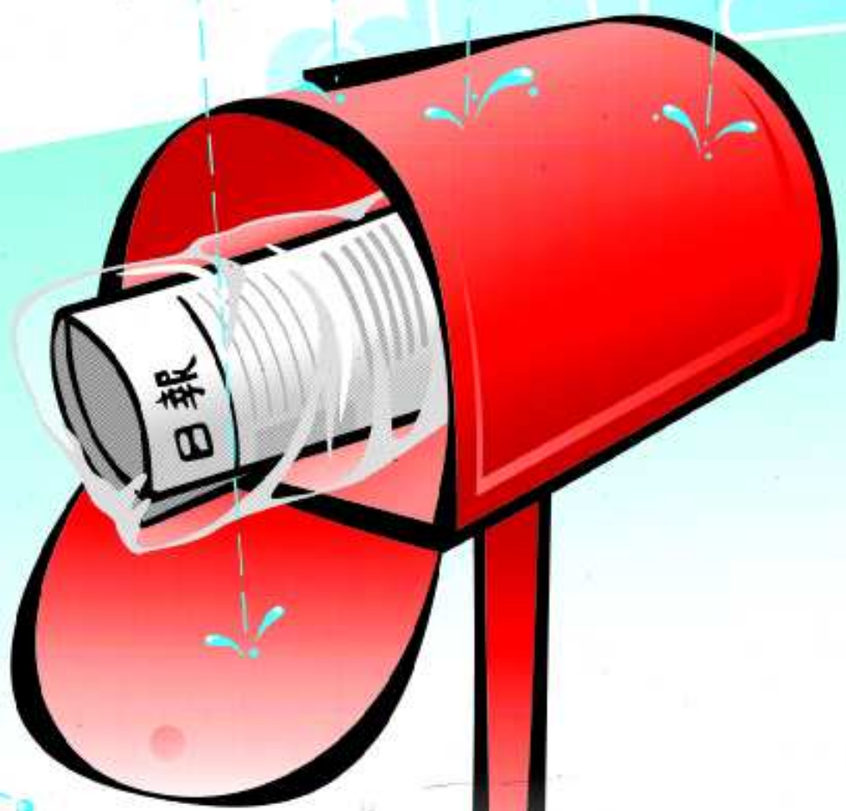


환경친화적 경영으로 ISO 14001 획득

국제표준화기구가 지구환경보호를 위해
제정한 규격에 따라 환경친화적 경영을
시행하는 기업임을 증명해주는 인증획득

보워터의 종이는

언제나 당신에게 꿈과 기쁨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읽는 종이, 마음을 듣는 종이
보워터한라제지가 시작합니다

최고 품질의 신문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보워터는 미국 South Carolina, Greenville에 본사를 두고, 한국의 **보워터한라제지**를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등에 있는 10개의 공장에서 연간 300만톤의 신문용지를 생산, 유럽, 일본, 중남미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여개 신문사에 신문용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워터漢拏製紙株式會社
BOWATER-HALLA PAPER CO., LTD.

- 본 사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면 난전리 1664-1 TEL.(061)460-6114 FAX.(061)460-6158
-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5-1 홍우빌딩 TEL.(02)567-1576 FAX.(02)3401-2581